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정 태 진  
천 승 현  
김 라 미  
양 기 홍

2012



嘉耕考古學研究所  
Gakyung Institute for Archaeology



## 일러두기

- 1\_本 報告書는 (주)다세움건축의 의뢰로 실시한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다.
- 2\_圖面의 방위는 조사 당시의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 3\_遺構 立 斷面 土層圖에 표기된 수치는 海拔高度를 나타낸다.
- 4\_遺構 平面圖의 縮小比는 1/40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예외의 경우 별도 표기하였다.
- 5\_遺物 實測圖의 縮小比는 土器 1/3, 鐵器 · 石器 1/2을 기본으로 하였다.
- 6\_遺構의 제원은 Auto CAD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원색사진 1.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전경(항공촬영-위가 북동)



원색사진 2.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삼국시대 제철유구 전체전경(항공촬영-남에서)



# 目次

I. 調查概要	1
II. 調查地域의 環境	3
1. 平澤의 自然·地理的 環境	3
2. 平澤의 歷史·考古學的 環境	5
3. 天安의 考古學的 環境	7
III. 調查經過와 方法	14
1. 先行調查	14
1) 地表調查	14
2) 試掘調查	14
2. 發掘調查	16
1) 三國時代 製鐵遺構	16
2) 朝鮮時代 遺構	17
IV. 調查內容	23
1. 三國時代	23
1) 製鐵遺蹟	23
(1) 製鐵爐	23
(2) 排滓部	27
(3) 廢棄場	31
(4) 溝	38
2. 朝鮮時代	40
1) 住居址	40
(1) 1號 住居址	40
(2) 2號 住居址	44
(3) 3號 住居址	46
(4) 4號 住居址	47
(5) 5號 住居址	51



(6) 6號 住居址	53
(7) 7號 住居址	56
2) 建物址	58
(1) 1號 建物址	58
(2) 2號 建物址	63
(3) 3號 建物址	65
(4) 4號 建物址	67
(5) 5號 建物址	68
3) 溝狀遺構	70
(1) 溝狀遺構 出土遺物	70
4) 墳墓遺構	77
(1) 1號墓	77
(2) 2號墓	78
(3) 3號墓	79
(4) 4號墓	80
(5) 5號墓	81
(6) 6號墓	82
(7) 7號墓	83
(8) 8號墓	84
(9) 9號墓	85
(10) 10號墓	86
(11) 11號墓	86
(12) 12號墓	87
(13) 13號墓	88
(14) 14號墓	89
(15) 15號墓	90
(16) 16號墓	91
(17) 17號墓	92
(18) 18號墓	93
(19) 19號墓	94
(20) 20號墓	95
(21) 21號墓	96
(22) 22號墓	97
(23) 23號墓	98
(24) 24號墓	99
(25) 25號墓	101

(26) 26號墓	· · · · ·	101
(27) 27號墓	· · · · ·	103
(28) 28號墓	· · · · ·	104
(29) 29號墓	· · · · ·	105
(30) 30號墓	· · · · ·	106
(31) 31號墓	· · · · ·	108
(32) 32號墓	· · · · ·	109
(33) 33號墓	· · · · ·	111
(34) 34號墓	· · · · ·	112
(35) 35號墓	· · · · ·	113
(36) 36號墓	· · · · ·	114
(37) 37號墓	· · · · ·	115
(38) 38號墓	· · · · ·	116
(39) 39號墓	· · · · ·	117
(40) 40號墓	· · · · ·	118
(41) 41號墓	· · · · ·	119
(42) 42號墓	· · · · ·	120
(43) 43號墓	· · · · ·	121
(44) 44號墓	· · · · ·	122
(45) 45號墓	· · · · ·	123
(46) 46號墓	· · · · ·	124
(47) 47號墓	· · · · ·	126
(48) 48號墓	· · · · ·	129
(49) 49號墓	· · · · ·	130
(50) 50號墓	· · · · ·	131
(51) 51號墓	· · · · ·	132
(52) 52號墓	· · · · ·	133
(53) 53號墓	· · · · ·	134
(54) 54號墓	· · · · ·	135
(55) 55號墓	· · · · ·	136
(56) 56號墓	· · · · ·	137
(57) 57號墓	· · · · ·	138
(58) 58號墓	· · · · ·	139
(59) 59號墓	· · · · ·	143
(60) 60號墓	· · · · ·	144
(61) 61號墓	· · · · ·	145

(62) 62號墓	· · · · ·	146
(63) 63號墓	· · · · ·	147
(64) 64號墓	· · · · ·	148
(65) 65號墓	· · · · ·	149
(66) 66號墓	· · · · ·	153
(67) 67號墓	· · · · ·	154
(68) 68號墓	· · · · ·	154
(69) 69號墓	· · · · ·	155
(70) 70號墓	· · · · ·	156
(71) 71號墓	· · · · ·	157
(72) 72號墓	· · · · ·	158
(73) 73號墓	· · · · ·	161
(74) 74號墓	· · · · ·	162
(75) 75號墓	· · · · ·	164
(76) 76號墓	· · · · ·	165
(77) 77號墓	· · · · ·	166
(78) 78號墓	· · · · ·	167
(79) 79號墓	· · · · ·	168
(80) 80號墓	· · · · ·	169
(81) 81號墓	· · · · ·	170
(82) 82號墓	· · · · ·	171
(83) 83號墓	· · · · ·	172
(84) 84號墓	· · · · ·	173
(85) 85號墓	· · · · ·	174
(86) 86號墓	· · · · ·	175
(87) 87號墓	· · · · ·	176
(88) 88號墓	· · · · ·	177
(89) 89號墓	· · · · ·	178
(90) 90號墓	· · · · ·	179
(91) 91號墓	· · · · ·	180
(92) 92號墓	· · · · ·	181
(93) 93號墓	· · · · ·	182
(94) 94號墓	· · · · ·	183
(95) 95號墓	· · · · ·	185
(96) 96號墓	· · · · ·	185
(97) 97號墓	· · · · ·	186

(98) 98號墓	187
(99) 99號墓	188
(100) 100號墓	189
(101) 101號墓	190
(102) 102號墓	192
(103) 103號墓	193
(104) 104號墓	194
(105) 105號墓	195
(106) 106號墓	196
(107) 107號墓	197
(108) 108號墓	198
(109) 109號墓	199
(110) 110號墓	201
(111) 111號墓	202
(112) 112號墓	203
(113) 113號墓	204
(114) 114號墓	208
(115) 115號墓	209
(116) 116號墓	210
(117) 117號墓	211
(118) 118號墓	212
(119) 119號墓	213

## V. 調查成果 . . . . . 215

1. 三國時代 製鐵遺構	215
2. 朝鮮時代	218
1) 生活遺構	218
2) 墳墓遺構	220



## 圖面 目次

도면 1. 조사지역의 행정지리적 위치	3
도면 2. 근세지형도상 발골구역 주변의 지형 상황	4
도면 3. '地乘'상의 천안군	7
도면 4.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주변 문화유적 분포도 (S=1:50,000)	13
도면 5. 삼국시대 제철로 관련 유구	19
도면 6.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유구 배치도 (S=1:300)	21
도면 7. 삼국시대 제철로 토층 및 평·입단면도	24
도면 8. 삼국시대 1·2호 폐기장 평면 및 입단면도	32
도면 9. 삼국시대 송풍관 폐기장 토층 및 평·입단면도	36
도면 10. 조선시대 1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41
도면 11. 조선시대 2호 주거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45
도면 12. 조선시대 3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47
도면 13. 조선시대 4호 주거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48
도면 14. 조선시대 5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52
도면 15. 조선시대 6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53
도면 16. 조선시대 7호 주거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57
도면 17. 조선시대 1호 건물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59
도면 18. 조선시대 2호 건물지 평·입단면도	64
도면 19. 조선시대 3호 건물지 평·단면도	65
도면 20. 조선시대 4호 건물지 평·단면도	67
도면 21. 조선시대 5호 건물지 평·단면도	69
도면 22. 조선시대 1호 구상유구 토층 및 평·입단면도	72
도면 23. 조선시대 6호 구상유구 토층 및 평면도	73
도면 24. 조선시대 7호 구상유구 토층 및 평면도	76
도면 25. 조선시대 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77
도면 26. 조선시대 2호·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78
도면 27. 조선시대 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0
도면 28. 조선시대 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1
도면 29. 조선시대 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2
도면 30. 조선시대 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3
도면 31. 조선시대 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4
도면 32. 조선시대 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5
도면 33. 조선시대 1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6
도면 34. 조선시대 11호묘 평면 및 입단면도	87
도면 35. 조선시대 1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8
도면 36. 조선시대 1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9
도면 37. 조선시대 1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0
도면 38. 조선시대 1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1
도면 39. 조선시대 1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2
도면 40. 조선시대 1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3
도면 41. 조선시대 1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4
도면 42. 조선시대 1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5
도면 43. 조선시대 2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6
도면 44. 조선시대 2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7
도면 45. 조선시대 2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8
도면 46. 조선시대 2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9
도면 47. 조선시대 2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0

도면 48. 조선시대 2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1
도면 49. 조선시대 2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2
도면 50. 조선시대 2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3
도면 51. 조선시대 2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5
도면 52. 조선시대 2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6
도면 53. 조선시대 3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7
도면 54. 조선시대 3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9
도면 55. 조선시대 3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0
도면 56. 조선시대 3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1
도면 57. 조선시대 3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2
도면 58. 조선시대 3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3
도면 59. 조선시대 3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4
도면 60. 조선시대 3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5
도면 61. 조선시대 3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6
도면 62. 조선시대 3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7
도면 63. 조선시대 40·4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9
도면 64. 조선시대 4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0
도면 65. 조선시대 4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1
도면 66. 조선시대 4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2
도면 67. 조선시대 4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3
도면 68. 조선시대 4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4
도면 69. 조선시대 4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7
도면 70. 조선시대 4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29
도면 71. 조선시대 4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0
도면 72. 조선시대 5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1
도면 73. 조선시대 5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2
도면 74. 조선시대 5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4
도면 75. 조선시대 5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5
도면 76. 조선시대 5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6
도면 77. 조선시대 5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7
도면 78. 조선시대 5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8
도면 79. 조선시대 5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39
도면 80. 조선시대 5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0
도면 81. 조선시대 5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3
도면 82. 조선시대 6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4
도면 83. 조선시대 6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5
도면 84. 조선시대 6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6
도면 85. 조선시대 6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7
도면 86. 조선시대 6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49
도면 87. 조선시대 6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0
도면 88. 조선시대 6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3
도면 89. 조선시대 6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4
도면 90. 조선시대 6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5
도면 91. 조선시대 6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6
도면 92. 조선시대 7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7
도면 93. 조선시대 7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8
도면 94. 조선시대 7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9

도면 95. 조선시대 7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2
도면 96. 조선시대 7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3
도면 97. 조선시대 7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4
도면 98. 조선시대 7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5
도면 99. 조선시대 7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6
도면 100. 조선시대 7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7
도면 101. 조선시대 7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8
도면 102. 조선시대 8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9
도면 103. 조선시대 8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0
도면 104. 조선시대 8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1
도면 105. 조선시대 8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2
도면 106. 조선시대 8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3
도면 107. 조선시대 8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4
도면 108. 조선시대 8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5
도면 109. 조선시대 8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6
도면 110. 조선시대 8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7
도면 111. 조선시대 8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8
도면 112. 조선시대 9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79
도면 113. 조선시대 9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0
도면 114. 조선시대 9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1
도면 115. 조선시대 9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2
도면 116. 조선시대 9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3
도면 117. 조선시대 9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5
도면 118. 조선시대 9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6
도면 119. 조선시대 9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7
도면 120. 조선시대 9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8
도면 121. 조선시대 9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89
도면 122. 조선시대 10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0
도면 123. 조선시대 10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1
도면 124. 조선시대 10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3
도면 125. 조선시대 10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4
도면 126. 조선시대 10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5
도면 127. 조선시대 10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6
도면 128. 조선시대 106호묘 평면 및 입단면도	197
도면 129. 조선시대 10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8
도면 130. 조선시대 10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9
도면 131. 조선시대 10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0
도면 132. 조선시대 11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2
도면 133. 조선시대 11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3
도면 134. 조선시대 11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4
도면 135. 조선시대 11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5
도면 136. 조선시대 11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8
도면 137. 조선시대 11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09
도면 138. 조선시대 11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10
도면 139. 조선시대 11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11
도면 140. 조선시대 11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12
도면 141. 조선시대 11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14



## 圖版 目次

원색사진 1. 평택 당현리유적(1) 전경	i
원색사진 2. 평택 당현리유적(1) 상단부 전경	i
사진 1. 삼국시대 제철로 조사 前 전경(左) 및 조사 後 전경(右)	24
사진 2. 삼국시대 제철로의 재사용흔	25
사진 3. 삼국시대 제철로 최종 폐기 당시 퇴적토 (흘러내린 철괴와 슬래그)	25
사진 4. 삼국시대 제철로 조사 後 노벽 소결범위와 내부 근경	26
사진 5. 삼국시대 제철로 바닥의 carbon-bed 근경	26
사진 6. 삼국시대 제철로 관련 유구 전체 전경	27
사진 7. 삼국시대 배재부 조사 후 전경 및 토층	28
사진 8. 삼국시대 1·2호 폐기장 조사 後 전경	32
사진 9. 삼국시대 2호 폐기장 조사 中 전경	34
사진 10. 삼국시대 송풍관 폐기장 토층 및 조사 中 전경	36
사진 11. 삼국시대 송풍관 폐기장 조사 中 전경	37
사진 12. 삼국시대 構 조사 後 전경 일괄	39
사진 13.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中 전경	42
사진 14.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中 배연부와 화덕시설 노출 근경	42
사진 15. 조선시대 2호 주거지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출토유물	45
사진 16.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46
사진 17.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종토층	48
사진 18.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49
사진 19.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및 종토층	51
사진 20. 조선시대 6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54
사진 21.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및 종토층	56
사진 22.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조사 中 전경	58
사진 23.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조사 後 전경	64
사진 24.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조사 後 전경	66
사진 25. 조선시대 4호 건물지 조사 後 전경	68
사진 26. 조선시대 5호 건물지 조사 後 전경	69
사진 27. 조선시대 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77
사진 28. 조선시대 2호·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79
사진 29. 조선시대 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0
사진 30. 조선시대 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1
사진 31. 조선시대 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2
사진 31-1. 조선시대 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3
사진 32. 조선시대 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4
사진 33. 조선시대 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5
사진 34. 조선시대 1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6
사진 35. 조선시대 11호묘 조사 後 전경	87
사진 36. 조선시대 1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8
사진 37. 조선시대 1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89
사진 38. 조선시대 14호묘 토층 및 조사 前 전경	90
사진 39. 조선시대 15호묘 토층 및 조사 前 전경	91
사진 40. 조선시대 1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2

사진 41. 조선시대 1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3
사진 42. 조선시대 1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4
사진 43. 조선시대 1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5
사진 44. 조선시대 2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6
사진 45. 조선시대 2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7
사진 46. 조선시대 2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8
사진 47. 조선시대 2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99
사진 48. 조선시대 2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0
사진 49. 조선시대 2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1
사진 50. 조선시대 2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3
사진 51. 조선시대 2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3
사진 52. 조선시대 2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5
사진 53. 조선시대 2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6
사진 54. 조선시대 3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7
사진 55. 조선시대 3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09
사진 56. 조선시대 3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0
사진 57. 조선시대 3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1
사진 58. 조선시대 3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2
사진 59. 조선시대 3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3
사진 60. 조선시대 3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4
사진 61. 조선시대 3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5
사진 62. 조선시대 3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6
사진 63. 조선시대 3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7
사진 64. 조선시대 40·4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19
사진 65. 조선시대 4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0
사진 66. 조선시대 4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1
사진 67. 조선시대 4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2
사진 68. 조선시대 4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3
사진 69. 조선시대 4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4
사진 70. 조선시대 4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7
사진 71. 조선시대 4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29
사진 72. 조선시대 49호묘 조사 後 전경	130
사진 73. 조선시대 5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1
사진 74. 조선시대 5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2
사진 75. 조선시대 5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4
사진 76. 조선시대 5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5
사진 77. 조선시대 5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6
사진 78. 조선시대 5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7
사진 79. 조선시대 5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8
사진 80. 조선시대 5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39
사진 81. 조선시대 5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0
사진 82. 조선시대 5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3
사진 83. 조선시대 6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4

사진 84. 조선시대 6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5
사진 85. 조선시대 6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6
사진 86. 조선시대 6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7
사진 87. 조선시대 6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49
사진 88. 조선시대 6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0
사진 89. 조선시대 6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3
사진 90. 조선시대 6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4
사진 91. 조선시대 6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5
사진 92. 조선시대 6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6
사진 93. 조선시대 7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7
사진 94. 조선시대 7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8
사진 95. 조선시대 7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59
사진 96. 조선시대 7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2
사진 97. 조선시대 7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3
사진 98. 조선시대 7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4
사진 99. 조선시대 7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5
사진 100. 조선시대 7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6
사진 101. 조선시대 7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7
사진 102. 조선시대 7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8
사진 103. 조선시대 8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69
사진 104. 조선시대 8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0
사진 105. 조선시대 8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1
사진 106. 조선시대 8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2
사진 107. 조선시대 8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3
사진 108. 조선시대 8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4
사진 109. 조선시대 8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5
사진 110. 조선시대 8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6
사진 111. 조선시대 8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7
사진 112. 조선시대 8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8
사진 113. 조선시대 9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79
사진 114. 조선시대 9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0
사진 115. 조선시대 9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1
사진 116. 조선시대 9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2
사진 117. 조선시대 9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3
사진 118. 조선시대 9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5
사진 119. 조선시대 9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6
사진 120. 조선시대 9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7
사진 121. 조선시대 9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88
사진 122. 조선시대 10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0
사진 123. 조선시대 10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1
사진 124. 조선시대 10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3
사진 125. 조선시대 10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4
사진 126. 조선시대 10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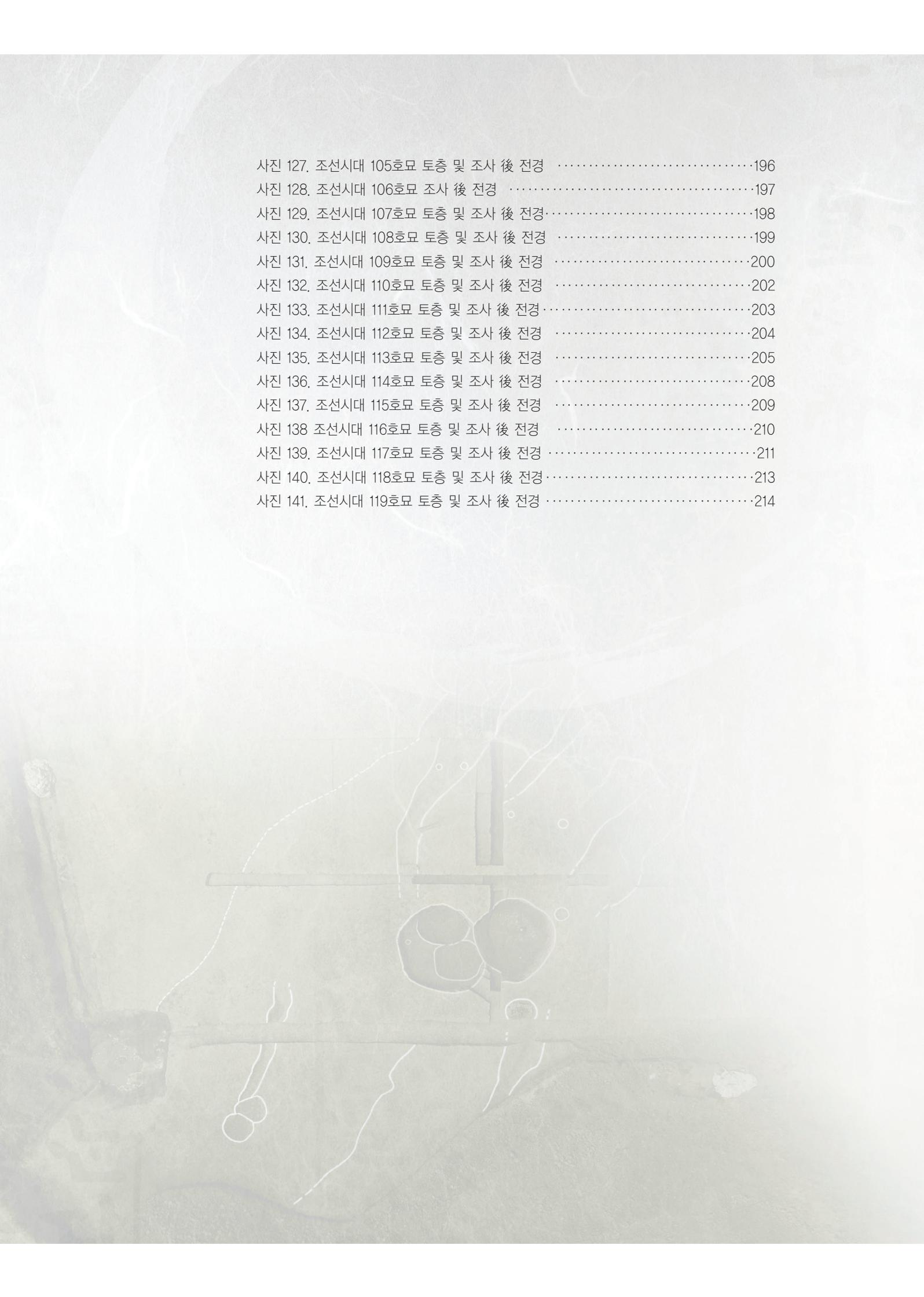


사진 127. 조선시대 10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6
사진 128. 조선시대 106호묘 조사 後 전경	197
사진 129. 조선시대 10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8
사진 130. 조선시대 10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199
사진 131. 조선시대 10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0
사진 132. 조선시대 11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2
사진 133. 조선시대 11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3
사진 134. 조선시대 11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4
사진 135. 조선시대 11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5
사진 136. 조선시대 11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8
사진 137. 조선시대 11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09
사진 138. 조선시대 11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10
사진 139. 조선시대 11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11
사진 140. 조선시대 11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13
사진 141. 조선시대 11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14

# I . 調査概要

본 보고서는 (주)다세움건축에서 시행하는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금번 조사지역에 대한 선행조사는 경원토목측량설계(주)의 의뢰로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2009년 총 사업면적 53,592㎡에 대해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지표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로 판단되는 토기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어 이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조사기관에서는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511,237㎡ 면적에 대해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다세움건축은 본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09-801)를 받아 2010년 1월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와 백제시대 주거지, 제철유구, 조선시대 분묘 및 생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에 대한 처리방안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유적이 확인되는 6,800㎡의 범위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발굴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발굴조사 변경허가를 득하고 2010년 3월 2일부터 동년 5월 20일까지 실조사일수 6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해발 고도 31m의 낮은 구릉지대로 경사가 완만하고 지형의 기복이 거의 없었으나, 중심 구릉지의 북서쪽과 남동쪽에는 소곡부가 형성되어 있었다. 조사지역 대부분은 목초지로 활용되어 있었으며, 남서쪽사면 하단부는 과수원과 밭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의 남쪽 사면부 일대에서 제철로와 배재부, 폐기장 등으로 구성된 삼국시대 제철유구 1개소를 비롯한 조선시대 생활유구와 분묘유구 138기 등이 확인되었다.

천안 입장 연곡리 유적의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책임 조사원	오 규 진(가경고고학연구소장)
조 사 원	장 영 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보 조 원	김 효 정(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정 세 휘(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이 상 운(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장 다 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조사당시의 소속과 직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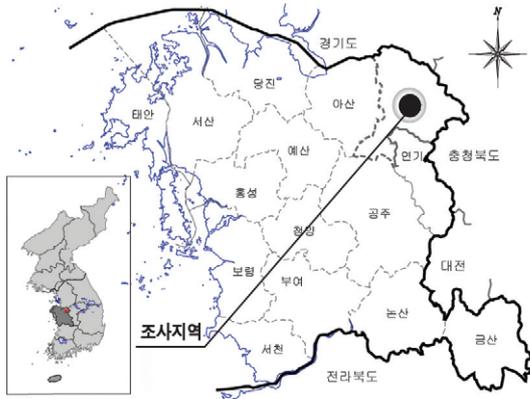
---

금번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I·II장은 양기홍, 김라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III·IV장은 정태진, 천승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V장은 정태진이 담당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정리·실측 및 전자도면 작업은 장영미를 비롯한 오경미·임민수·장진희·이유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유물사진은 오세윤(문화재전문 사진작가)이 촬영하였다. 전체 보고서 편집은 장영미가 담당하였으며, 이를 류창선(가경고고학연구소 실장)이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오규진이 교열·감수하였다.

본 조사과정 중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셨던 지도위원 및 검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업시행자 및 행정기관 관계가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노고에 감사드린다.

## II. 調查地域의 環境

### 1. 天安의 自然 地理的 環境



【도면 1】 조사지역의 행정지리적 위치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북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서부 지역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상 동쪽으로는 충북 진천, 서쪽으로는 아산, 남쪽으로는 공주, 조치원, 청주,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중요시 되었다.

천안시는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과 북을 가르는 차령산맥이 천안지역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

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동부와 동남부는 덕유산, 위례산, 성거산, 흑성산과 광덕산, 망경산, 쌍령산 등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발달해 있는 반면 서부와 북부 및 시의 중앙부는 해발고도 100m 내외의 비교적 저평한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커다란 지형적 장애 없이 북쪽으로 경기도의 안성평야, 서쪽으로는 곡교천변의 충적지를 따라 아산지역과 연결된다.

천안지역의 수계는 입장천과 성환천이 천안지역의 북서부를 북류하여 안성천에 유입되며, 동쪽에는 병천천이 광기천·산방천 등과 함께 남동류하여 미호천에 유입되고 있으며, 남부에서는 풍서천·무학천·지장천 등이 북동류하여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 있다. 이러한 하천 주변에는 풍세뜰·새교뜰·기미뜰·마루뜰 등과 같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천안시 일대는 동부 및 남부에 해발 400~600m의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에는 해발 100m 이내의 저평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천안시가지를 흐르는 최대 하천은 천안천이며, 원성천·구성천·구룡천 등이 그 지류로 흐르고 있지만 유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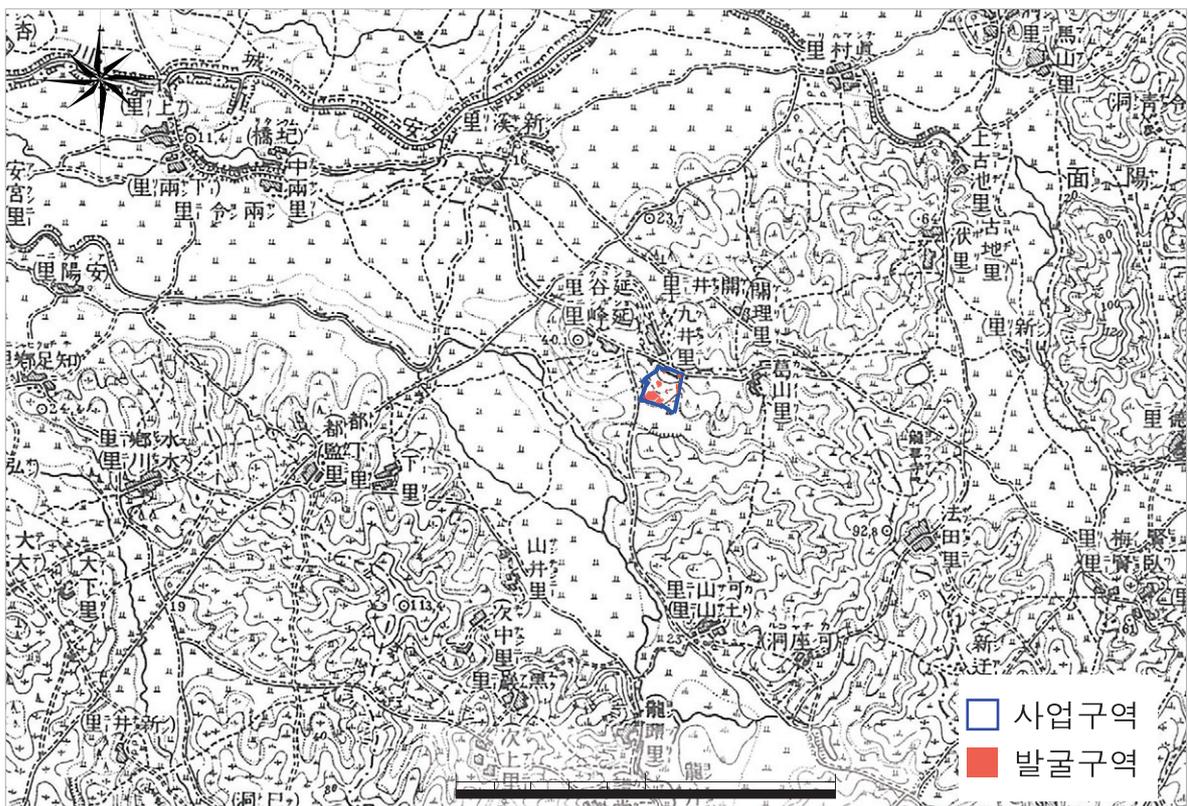
한반도는 차령산맥과 멸악산맥을 기준으로 남부와 중부, 북부로 구분되며, 천안지역은 중부지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북지방은 다시 중부서안, 중부내륙, 중부동안으로 구분되며, 중부서안에 속한다. 천안지역에 가까운 서해는 수심이 얕아 쉽게 더워지고 식어서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루가 발달하지 못하여 서안지역은 해양성 기후가 아니라 한서의 차이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천안지역은 계절풍 기후로 분류되며, 천안지역의 남부를 통과하는 차령산맥이 남부의 온대에서 북부

의 내대로 전이되는 점이성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천안지역은 남부기후형과 중부기후형의 점이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천안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1~12°로 남부 해안지역의 12~15°와 중부지방의 10~15°에 비해 점이적인 기온을 보이고 있다. 1년중 가장 추운 1월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3.5°를 나타내고, 연중 가장 더운 8월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25°이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연교차가 섭씨 29°에 달하여 한서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난다. 강우량은 연평균 1,100mm로 온화다우한 편이다.

천안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옥천지향사에 속하는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고생대 이전의 경기지괴로 되어 있어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천안의 동북부 산지는 선캄브리아기의 회색 화강편마암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차령산맥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의 조산운동으로 인해 대보화강암이 관입되어 있다. 따라서 천안지역은 다양한 구조운동으로 인한 복잡한 지질구조를 보인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입장면 일대는 천안시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충청남도 최북단과 경기도, 충청북도의 3도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지형적으로는 입장면 일대의 동쪽은 차령산맥 줄기가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성거산에서 발원한 입장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지점의 충적지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안성과 인접한 곳으로 북류하여 안성천으로 유입되는 입장천 주변에 해당되며, 당시 대부분 목초지와 과수원,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도면 2】 근세지형도상 발굴구역 주변의 지형 상황

## 2. 天安의 歷史的 環境

천안이라는 지명은 고려태조 13년(930년)에 천안부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은 『世宗實錄地理志』天安郡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高麗太祖十三年庚寅 合東西坵率爲天安府(諺傳術師藝邦 啓于太祖曰 三國中心 五龍爭珠之勢 若置大官則百濟自降 太祖乃登山周覽 始置天安府) 成宗十四年改爲歡州都團練使 穆宗八年乙巳廢團練使 顯宗九年戊午復舊名置知府事 忠宣王二年庚戌汰諸牧府改爲寧州 本朝太宗十三年癸巳改爲寧山郡 丙申又改爲天安郡 屬縣一豐歲 本百濟甘買縣 新羅改名馴雉縣爲大麓郡領縣 高麗改今名 顯宗戊午屬天安府任內 部曲三 德興 毛山 新宗(舊屬禮山) 鄉一 頓義 四境東距木川八里 西距溫水七里 南距木川十里 北距稷山十四里 戶五百六 口二千三百八十五 軍丁侍衛軍十四 鎮軍六 船軍二百三 土姓五 金 河申沈張 亾姓一盧 來姓二敬田 德興亡姓一尙 毛山亡姓四朴李玄金 新宗 亾姓一方 頓義亡姓一李 厥土肥 相半 風氣多寒 ... (中略) ... 磁器所一在郡南豐歲縣介峴洞(下品) 陶器所一在郡南豐歲縣其火谷洞(下品) 驛二新恩金蹄

이에 따르면, 후삼국이 경합을 벌이던 때에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피력하는 術師 藝邦의 충고에 따라, 고려 태조가 이 지역에 천안부를 처음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종 14년(995년)에 歡州로 바뀌고 都團練使가 파견되었으나, 이후 도단련사 폐지, 復舊名, 改爲寧州, 改爲寧山郡 등을 거치다가 태종16년(1416년)에 천안군으로 改名된 후 지금까지 이른다.

천안의 稷山地域에는 三韓時代에 目支國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목지국은 한반도의 서남지역에 분립한 54개의 소국을 아우르는 馬韓의 맹주국으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천안 일대는 삼한시대에 매우 성장된 중심적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백제의 건국 이후 천안 지역이 어느 시기에 그 통치권에 접어들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류왕대인 4세기 초에 백제의 영토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목천 일대에는 백제의 大木嶽郡이 독립적인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풍세면, 광덕면 지역에는 감매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백제시대 군현의 설치는 당시 지리적으로 중용성이 부각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백제 유적 잔존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5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책에 밀려 금강 남안의 熊津(公州)으로 遷都하는데 현재 천안지역에 인접한 직산에 고구려의 사산현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안지역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접경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일시 점유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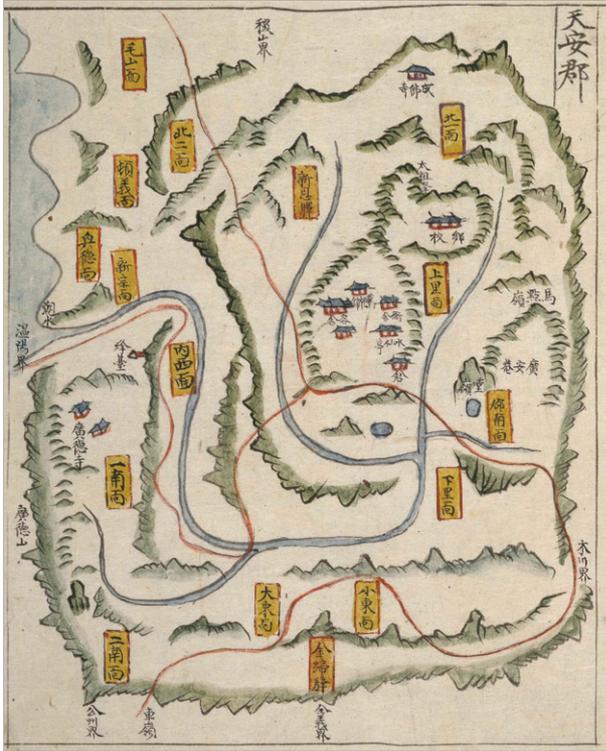
으며, 553년 신라가 백제를 기습하여 한강유역을 탈취함으로써 백제 멸망 당시까지 천안의 북부지역은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천안지역은 백제를 중심으로 하여 고구려, 신라의 세력의 각축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687년에 전국을 9주로 나누는 행정제도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천안지역은 웅천주에 속하였으나, 북쪽의 직산지역은 한성주의 백성군에 소속되었다.景德왕 16년(757년)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군현명의 개편 당시에는 목천지역의 大木嶽郡은 大麓郡으로, 풍세의 甘買縣은 馴雉縣으로 개명되었다.

후삼국시대 들어와서 천안지역은 남쪽의 후백제와 북쪽의 후고구려-고려가 서로 대립하는 지역이 되었다. 고려에게 있어 당시 천안지역은 후백제 공략의 거점지역으로서 군사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930년 고려 태조가 천안지역에 직접 내려와 大丞 弟弓을 天安都督府使에 임명하고 元甫 嚴式을 그 副使에 임명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천안'이라는 지명과 그 행정구역이 설정된 시초로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는데, 태조가 지세를 살피기 위해 올랐다는 太祖峰, 군량을 저장했다는 留量谷, 태조가 머물렀던 자리에 세웠다는 태조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초에 이르러 천안의 행정구역은 천안, 木州(목천), 직산의 3개 군현으로 편제되었다. 목주는 신라의 大麓郡, 직산은 신라의 蛇山縣이 개칭된 것임에 비해, 천안은 고려초에 그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어 신설된 행정구역으로서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천안에 都督府가 설치된 것으로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천안도독부의 관할에는 사산(직산), 대목약(목천), 湯井(온양)의 일부가 편제되었는데, 이는 고려 중앙정부가 지방통치의 거점으로서 천안을 중요시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018(현종 9)년에는 직산이 천안에 속하게 되는데, 천안도독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953년 歡州都團練使가 되었다가 현종때 다시 천안으로, 1310년 寧州가 되었다가 1362년 다시 天安府가 되어, 천안지역이 지속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편제의 변천에 따라 목천지역은 청주, 직산지역은 천안에 각각 편제되어 그 지역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각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고려초에 반 고려적 성향을 견지했었던 요인으로 판단된다. 『東國輿地勝覽』을 참조하면, 특히 목천지역의 주요 호족들은 고려에 대한 반항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어 천안도독부의 신설은 후백제에 대한 전략적 요충을 확보하는 목적 이외에 주변의 반 고려 세력을 억누르는 목적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천안은 고려시대에 정립된 천안, 직산, 목천의 3군현 체제가 기본적으로 존속된다. 천안은 태종 13년 일시적으로 영산으로 개칭되었다가 곧 천안으로 환원되어 군수가 배치되었으며, 목천과 직산에는 현감이 파견되었다. 직산은 1505년부터 일시적으로 경기도에 소속되었으며, 광해군대에는 경기도의 평택현이 직산현으로 흡수



【도면 3】 '地乘' 상의 천안군

되기도 하였다. 목천의 경우는 효종 6년(1655) 직계준속(부친) 살해범의 출신지라 하여 廢縣되어 전의에 소속되었다가 현종 5년(1664) 복구되었으며, 숙종 11년(1685)에 수년간은 진천에 병합되는 등 존폐를 반복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직산이 경기의 평택지역과, 그리고 목천이 충북지역과 서로 연결되고 있어 오늘날과 같은 천안지역이라 하더라도 천안, 직산, 목천의 각 지방이 역사적 배경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지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종래의 부, 목, 군, 현의 위계를 일원화, 군으로 통일하면서 천안 지역은 천안군, 직산군, 목천군이 되었고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남도의 관할에 들어섰다.

1914년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작업에 의해 천안, 직산, 목천군이 천안군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와 같은 개편은 오늘날 천안 행정구역의 기본이 되었다. 1920년

천안군의 중심지역이 천안군 천안면이 되었고, 1931년 읍

제도가 시행되면서 천안읍으로 바뀌었으며, 당시 행정구역은 천안읍, 환성면, 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부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성환면, 직산면, 성거면, 입장면 등 1읍 13면이었다.

1963년 천안읍과 환성면을 통합, 천안시로 승격되고, 천안군은 천원군으로 개칭되었다. 1973년 성환면이 성환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5년 성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1년에는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환원되었고,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천안시로 통합되었다.

### 3. 天安의 考古學的 環境

조사지역이 위치한 천안지역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해당하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여 선사시대 이래 여러 시기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1998년에 간행된 천안시 문화유적분포지도에는 총 210개소의 유적이 소개되어 있다<sup>1)</sup>. 이 가운데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유적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천안지역은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거듭하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

1)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忠南 天安市』.

다. 이에 따른 문화재 선형조사로 활발하게 진행된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  
 에서부터 조선시대 유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거  
 지·분묘·성곽 등 매우 다양한 문화 유적이 조사되었다. 특히 천안지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삼국시대 마한의 맹주국으로 추정되는 목지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비  
 정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갖는 역사상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에서는 이들 발굴유적을 중심으로 시대별 유적의 분포 현황을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舊石器時代의 遺蹟은 斗井洞遺蹟 C·D地區에서 제4기 충적층과 더불어 구석  
 기 유물이 확인되었으며<sup>2)</sup>, 최근 淸堂洞 舊石器遺蹟에서 제4기 충적층과 구석기시대  
 유물인 줍돌날 몸돌이 확인되었고<sup>3)</sup>, 인근의 용곡동유적에서 제4기 충적층과 후기구석  
 기시대 유물이 확인되었다<sup>4)</sup>. 또한 최근 직산 수혈리 유적<sup>5)</sup>과 인접한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보고되었다. 직산 수혈리 유적은 상환천과 북쪽 산지에서  
 발원한 지류하천이 만나는 충적지 상에 자리하였다. 유적 내에서 확인된 유물의 암질  
 은 석영과 규암 종류이며, 후기 구석기 층에서는 혼펠스제 석기가 출토되었다. 유물층  
 의 자연과학적 분석결과 3유물층은 중기구석기시대, 2유물층은 후기구석기 이른 시기,  
 1유물층은 후기 구석기 늦은 시기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천안지역에서는 낮은 구릉  
 성 단구의 지형적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구석기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新石器時代 遺蹟은 현재까지 조사된 예가 많이 없으나 백석동 유통단지 예정부지  
 시굴조사에서 보습과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된바 있으며, 이후 발굴조사에서 신석기  
 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sup>6)</sup>. 또한 인근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와 명암리지역에  
 서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천안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신석기시대 유적의  
 조사 레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靑銅器時代 遺蹟은 아산지역과 함께 천안지역 전역에서 폭넓게 확인되고 있으며,  
 주로 주거지인 생활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淸堂洞遺蹟<sup>7)</sup>,  
 白石洞遺蹟<sup>8)</sup>, 雙龍洞遺蹟<sup>9)</sup>, 龍院里遺蹟<sup>10)</sup>, 斗井洞遺蹟, 佛堂洞遺蹟<sup>11)</sup>, 石谷里遺蹟<sup>12)</sup>, 云

2) 류기정 · 양미옥, 2001, 『천안 두정동 유적(C·D지구)』,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 천안시경영개발사업소.

3)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2004, 『천안 청당동 신도아파트 신축 부지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4) 裴相勳, 2006, 『天安 龍谷洞 遺蹟』, (財)忠淸文化財研究院.

5) 韓昌均 · 姜秉權, 2010, 『직산 수혈리 유적』, (財)忠淸文化財研究院.

6) 吳圭珍外, 2009, 『천안 백석동 고재미굴 유적』, (財)忠淸文化財研究院.

7) 徐五善 · 權五榮, 1990, 『淸堂洞發掘調査報告』, 『休岩里』29·30合輯, 國立中央博物館.

徐五善외, 1991, 『天安 淸堂洞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松菊里IV』, 國立中央博物館.

徐五善 · 咸舜燮, 1992, 『天安 淸堂洞 第3次 發掘調査報告書』, 『固城貝塚』, 國立中央博物館.

한영희 · 咸舜燮, 1993, 『淸堂洞』, 國立中央博物館.

咸舜燮 · 김인홍, 1996, 『淸堂洞II』, 國立中央博物館.

8) 李南奭 · 李勳 · 李賢淑, 1997,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9) 成正鏞 · 李亨源 · 李吉成, 2002, 『天安 雙龍洞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10) 吳圭珍외, 1999, 『天安 龍院里遺蹟』,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田里遺蹟<sup>13)</sup>, 龍井洞遺蹟<sup>14)</sup>, 新芳洞遺蹟<sup>15)</sup> 등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長方形 또는 細長方形 계통으로 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이 출토되는 역삼동·혼암리형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특히 백석동유적은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와 더불어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류와 석기류가 다량 확인되어 중서부지방 전기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두정리유적<sup>16)</sup>, 南館里遺蹟<sup>17)</sup>, 大興里遺蹟<sup>18)</sup>, 白石·業成洞遺蹟<sup>19)</sup>, 新芳洞遺蹟 등이 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송국리형 주거지에 해당된다. 특히 남관리유적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 5기가 확인되었으며, 용정리유적과는 풍서천을 경계로 마주한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유적으로는 신방동유적과 용곡동 두터골유적이 있다. 신방동유적은 I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9기와 수혈유구 50기, 조선시대 주거지 10기와 토광묘 19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II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24기와 수혈유구 7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기, 토광묘 24기 등이 확인되었다. 용곡동 두터골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1기와 수혈유구 10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사지역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유적들은 확인된 유구의 시기와 양상면에서 조사지역과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靑銅器時代 후기유적으로는 천안과 접한 아산 장재리 대추리유적<sup>20)</sup>에서 단면 원형점토대토기 및 구형토기, 조합식우각형과수 등의 표식으로하는 후기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인접한 아산지역의 남성리 석곽묘<sup>21)</sup>, 선장면 宮坪里유적<sup>22)</sup> 등에서도 동일시기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천안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의 경우 고고학적 환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용정리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도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용정리 지역의 북쪽으로는 봉강천이 형성한 하천의 분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평지를 형성하면서 아산시의 곡교천까지 이어진다. 아산 지역은 이 곡교천을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 그러나 용정리 지역 일대에서 선사시대 유적들이 많이 주목

11)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4, 『天安 佛堂洞遺蹟』.

12) 이홍종의, 2000, 『石谷里遺蹟』,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13) 허의행·강병권, 2004, 『天安 云田里遺蹟』, (財)忠淸文化財研究院.

14) 張英美, 2008, 『天安 龍井洞遺蹟』, (財)忠淸文化財研究院.

15)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天安 新芳洞遺蹟』.

16) 윤무병, 1967, 「천안 두정리의 수혈주거지」, 『美術資料』8輯, 國立中央博物館.

17) 李南奭, 1995, 『南館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18) 임상택, 1999, 『天安 大興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19) 李南奭·李賢淑, 2000, 『白石·業成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20) 박대순·민은숙·안성태, 2009, 『牙山 장재리 대추리·연화동유적』, (財)忠淸文化財研究院.

21) 한병삼·이건무, 1977, 『남성리 석곽묘』, 국립중앙박물관.

22) 이건무, 1999, 「아산 궁평리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지』제1권. 한국고고미술연구소.

되는 반면 역사시대의 유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관련 유적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만, 문헌기록에서도 이 지역을 주목할 수 있는 기록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原三國時代의 유적은 주거유적과 분묘유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유적은 斗井洞遺蹟<sup>23)</sup>과 長山里遺蹟,<sup>24)</sup> 龍院里遺蹟, 有利·獨井里遺蹟<sup>25)</sup>에서 장방형, 방형, 凸字形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분묘유적으로는 청당동, 신평리유적<sup>26)</sup>, 운전리유적 등에서 토광묘 및 주구토광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두정동유적의 A·D지구에서는 평면형태가 장방형, 방형 주거지가 수기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부뚜막시설, 노지, 주공 등이 조성되었고, 장란형토기, 시루, 심발형토기, 철부,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용정리유적에서는 고지자기 분석결과 A.D 340±15년으로 편년되는 원삼국시대 탄요 1기가 조사되어 향후 주거유적과 분묘유적 외에 생산유적의 확인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지역의 三國時代 遺蹟은 백제시대의 분묘군과 관방유적이 조사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龍院里<sup>27)</sup>·화성리유적<sup>28)</sup>으로 대표된다. 화성리유적은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중국 동진제 청자와 광구호, 파수부발, 원저단경호, 살포, 철부, 철정, 꺾쇠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조성연대는 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와 거의 동일 시기에 조성된 용원리유적에서는 상당수의 토광묘와 함께 수혈식석곽분, 횡혈식석실분 등이 확인되어 재지세력인 각 지역 분묘 조성세력간의 관계와 성격 그리고 묘제의 변천과 계층적 관계상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백제의 威信財가 상당수 출토되어, 백제와 중국 간의 교류관계와 백제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 조사된 道林里遺蹟에서는 석곽묘 6기와 석실분 3기가 조사되었으며, 백제 한성기에 해당되는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재갈, 등자, 교구 등 다량의 마루가 공반되었으며, 성시구와 철촉, 대도, 철모, 철준 등 무기류도 함께 확인되었다. 조영시기는 대략 4세기 중반·후반에서 5세기 초로 편년되고 있으며, 다른 유적에 비해 한성백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천안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의 영역확장 과정과 지방통치방식의 변화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23) 이홍중외, 2000, 『天安 斗井洞遺蹟-A地區 發掘調査報告書-』,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4) 이강승외, 1996, 『天安 長山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25) 尹淨賢, 2011, 『天安 有利俗舍敬蘭道林里遺蹟』, (財)忠清文化財研究院.

26) 성경용, 2004, 『天安 新豐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27) 李南奭, 2000, 『龍院里 古墳群』, 公州大學校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館, 2001, 『龍院里遺蹟 C地區 發掘調査報告書』

28) 金吉植 외, 1991, 『天安花城里百濟墓』, 國立公州博物館.

관방유적은 청룡산성·직산 위례산성·성거산성과 토성인 사산성<sup>29)</sup>·백석동 토성<sup>30)</sup> 등이 조사되었으며, 토성에서는 관축양상과 영정주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위례산성은 1997년 최초로 시·발굴조사<sup>31)</sup>되어 2010년 2차 정밀발굴조사<sup>32)</sup>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례산성은 그동안 백제산성으로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통일신라시대에 석축산성으로 조성된 이래 고려시대에 토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統一新羅時代 遺蹟으로는 목천토성<sup>33)</sup>을 비롯하여 용정리유적에서는 점토, 할석, 판석을 혼용한 구들시설이 조성된 수혈주거지 1기도 확인되었다. 이외에 용곡동 두터골유적<sup>34)</sup>, 청수동유적<sup>35)</sup>, 두남리유적<sup>36)</sup> 등에서 석곽묘들이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무덤은 천안지역의 낮은 구릉사면부에서 1~3기 정도 많게는 6~9기 정도가 소규모의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대부분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러한 무덤들은 세부적인 축조방식과 구조에 있어 기존의 백제적 요소와 함께 신라적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 지방통치방식과 신라인들이 구백제지역으로의 이주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高麗·朝鮮時代 遺蹟은 대부분 분묘유적으로 남산리 고려묘<sup>37)</sup>와 양곡리 분청사기요지<sup>38)</sup>, 용곡동 눈들<sup>39)</sup>, 성정동유적<sup>40)</sup>, 삼봉리·군서리·판정리유적<sup>41)</sup> 등이 있으며, 최근 쌍용동 용암유적<sup>42)</sup>, 용곡동 두터골유적<sup>43)</sup> 등지에서도 주거유적의 발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천안과 아산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대추리유적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 9동이 확인되었는데, 문헌기록과 지명의 유래 등 조선시대 대조원이 존재가 알려졌던 곳으로 천안과 아산을 잇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원이 운영되었던 지역이며, 고려시대 건물지들이 다수 조성되었다는 점은 대추리 지역 일대가 역사적 가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쌍용동 용암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주거지 1기를 비롯한 22기의 조선시대 주거지와 숯가마, 매납유구 등의 생산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이외의 생산활동 등을 추정할 수 있어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

29) 成周鐸·車勇杰, 1994, 『蛇山城』, 百濟文化開發研究院.

30) 李南奭, 1998, 「天安 白石洞 土城」, 『韓國上古史學報』28, 韓國上古史學會.

31) 任孝宰 외, 1997, 『天安 慰禮山城』, 서울大學校人文學研究所.

3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0, 『천안 위례산성 발굴조사 약보고서』.

33) 尹武柄, 1984, 『木川土城』, 忠南大學校博物館.

34) 나건주·최하영, 2008,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35) 박대순·정화영, 2007, 『천안 청주동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36) (재)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천안 두남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37) 李漢祥,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國立公州博物館.

38) 李南奭·徐程錫, 1997, 『天安 陽谷里 粉靑沙器窯址』, 公州大學校博物館.

39) 박형순·강명권, 2006, 『天安 龍谷洞 눈들遺蹟』, (財)忠淸文化財研究院.

40) 최상철, 2008, 『천안 성정동유적』, (財)忠淸文化財研究院.

41) 배상훈, 2007, 『천안 삼봉리·군서리·판정리유적』, (財)忠淸文化財研究院.

42) 윤정현·이인호, 2009, 『天安 雙龍洞 龍岩遺蹟』, (財)忠淸文化財研究院.

43) 나건주·최하영, 2008,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財)忠淸文化財研究院.

는 유적이다. 이외에 문헌기록과 지표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안지역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생산유적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와가마는 최근 발굴조사된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에서 반지하식 기와가마 10기가 확인되었다. 천안시 병천면 일대에서는 봉항리, 매곡리, 관성리 안터에서 토기·자기요지가 보고되었으며, 목천면에서는 유왕골, 서흥리, 교촌리, 시산리 요지가 있고, 광덕면에서는 지장리 보산원리, 만복동에서 토기·자기요지가 보고되었다<sup>44)</sup>.

표 1.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주변 문화유적 현황

유적명	시대	성격	유적위치
안성 진사리 산성	백제~조선	성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산23-1 일원
안성 진사리유적	구석기~조선	유물 출토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91-1 일원
안성 승두리 유물출토지	청동기~조선	유물 출토지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안성 승두리 고인돌	청동기	고인돌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266-3
안성 갈전리유적	조선	유물 출토지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247-1
안성 개정리유적	조선	유물 출토지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570 일원
직산 사산성	백제 성곽	천안시 직산면 군동리	기념물 제104호

44) 백제개발연구원, 1997, 『고분과 요지』.

이남석·서정석, 1997, 『천안 양곡리 분청사기요지』, 공주대학교박물관.



[도면 4]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주변 문화유적 분포도 (S=1:50,000)

# III. 調査經過와 方法

## 1. 先行調査

### 1) 地表調査<sup>45)</sup>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 의해 총면적 53,592㎡에 대해서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20 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調査地域은 행정구역상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193번지 일원으로 북쪽 상층부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린 능선이 중앙부를 이루고, 동서 양쪽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으로 형성된 계곡부로 되어 있었다. 과거 목장부지로 이용되었던 지역이며, 지표조사 당시 서쪽 구릉 하단부에 조성된 과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구릉의 원지형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상태였다.

調査結果 밭 경작지 일원에서 고려·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었으며, 기존에 보고된 안성시 문화유적분포지도 보고서에서도 안성 개정리 유적이 동일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조사지역일대에는 생황유적이거나 이와 관련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물의 분포상태와 지형을 고려하여 총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511,237㎡에 대해서는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기관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試掘調査<sup>46)</sup>

試掘調査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조사일수 27일간의 일정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지형은 해발고도 31m의 낮은 구릉지대로 경사가 완만하고 지형의 기복이 거의 없었으나, 중심 구릉지의 북서쪽과 남동쪽에는 소곡부가 형성되어 있었다. 조사지역 대부분은 목초지로 활용되어 있었으며, 남서쪽사면 하단부는 과수원과 밭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調査는 먼저 구릉 정상부에 기준 트랜치를 설치한 후 양쪽 사면을 따라 경사방향으로 너비 약 1.5m의 트랜치를 약 6m 간격으로 구획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된 범위에 대

45)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9, 『천안 입장 연곡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46) 嘉耕考古學研究所, 2010,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해서는 주변지역까지 확장하여 유구의 수량과 성격, 분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곡부지역에 대해서는 기저부까지 굴토하여 전반적인 퇴적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트렌치 조사를 통해 파악된 조사지역 일대의 퇴적양상 및 지형 현황을 살펴보면, 구릉지의 정상부 및 사면부 일원은 장기간 목장경영과 목초지로 이용되면서 부분적으로 형질변경된 상태로 파악되었다. 대체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30cm 깊이에서 풍화암반층과 켜기구조를 보이는 고토양층이 노출되었으며, 굴삭기 및 농업용 장비 등을 이용한 경작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한 구릉의 남서쪽 사면 일대는 1960년대 후반경 이후로 지금까지 배 과수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원지형이 유지되어 지표면으로부터 약 60~80cm 아래에서 기반토가 확인되었다.

調査結果 靑銅器時代 住居址 2기, 原三國~百濟時代 住居址 2기와 추정 製鐵遺構 1기, 高麗~朝鮮時代 土壙墓 67기, 朝鮮時代 窯址 1기, 住居址 4기, 溝狀遺構 1기, 時代未詳의 溝狀遺構 6기, 豎穴遺構 6기, 주공열 3기 등 총 9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분포양상의 특징은 조사지역의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원지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구릉의 남서쪽 정상부 일원과 사면부에 밀집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시대별 유구의 분포양상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靑銅器時代 住居址는 조사지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구릉사면부에서 확인되었다.

原三國~百濟時代로 판단되는 住居址는 구릉 말단부에서 위치하였는데,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었으며, 내부에서 格子文이 타날된 土器片 등이 확인되었다. 추정 제철유구는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였으며, 당시 3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인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등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내부에서 회색 연질의 토기편과 슬래크편 등이 확인되었다.

高麗時代에서 朝鮮時代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土壙墓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구릉의 남서쪽 사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정상부일대와 사면 중하단부, 동쪽 구릉의 하단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습葬墓와 편방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광묘 등도 일부 확인되었다.

朝鮮時代로 추정되는 窯址는 구릉의 말단부 남서사면 중상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길이가 약 3m 정도로 아궁이 부분과 소성실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부에서는 분청사기편이 확인되었다. 住居址는 북사면과 경사면 말단부에 위치하였는데, 평면형태가 원형과 방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상유구는 구릉의 중앙부 상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이외에 부분적으로 시대미상의 구상유구와 수혈유구, 주공열 등이 확인되었다.

## 2. 發掘調査

發掘調査는 본 연구소에 의해 2010년 3월 2일부터 동년 5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調査는 試掘調査 결과에 따라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조사지역인 중앙의 정상부 일대와 구릉의 남향사면 일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토하여 유구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 외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유구에 대해서는 시굴조사에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일정정도 확장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三國時代 철 생산과 관련된 유구 1개소와 朝鮮時代 生活遺構인 住居址 7기, 建物址 5기, 墳墓遺構 119기와 정확한 성격과 용도를 알 수 없는 溝狀遺構 7기가 확인되었다. 각 유구별 분포상의 특징과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三國時代 製鐵遺

삼국시대 제철유구는 구릉 남쪽사면 하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시굴조사 당시 슬래그와 소토덩어리, 送風管片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어 당초 제철유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슬래그 등의 유물이 확인되는 층의 상면까지 장비를 이용해 제토한 후 나머지 퇴적층에 대해서는 5×5m의 격자 그리드를 구획하여 퇴적양상을 살피며 유구의 윤곽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역 내 삼국시대 제철유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퇴적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삼국시대 철 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製鐵爐 1기를 중심으로 노와 폐기장으로 연결되는 배재부 1기, 폐기장 2기, 송풍관 폐기장 1기, 구 3기 등이 확인되었다.

제철로는 노의 최하부만이 잔존하는 상태로 갈색 고도양층을 기반으로 사면 아래쪽이 트인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숯을 깔은 후 노벽을 축조한 형태이며, 지형이 낮은 쪽을 배재부를 마련하였다. 폐기장은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배재부와 연결되는 남쪽사면 하단부에 위치하였다. 또한 송풍관 폐기장은 층위 상 제철로 관련 퇴적층 보다 낮은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일회성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제철로의 작업공정과도 상통하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내부에서는 송풍관편과 철괴, 슬래그와 소량의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외에 구는 내부퇴적토 내에서 배재부와 같은 슬래그와 송풍관 편 등이 확인되었으나 구의 경사면 위쪽에 제철로가 확인되지 않아 배재부 기능으로써 조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주변 지역일대가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철 생산시설이 동일지역에서 군집을 이루며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감안할 때 구의 상부쪽에 존재하였던 제철로가 지형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선행하였던 제철로의 배재부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2) 朝鮮時代 遺構

조선시대 유구는 크게 생활유구와 분묘유구로 구분되나 공간구획적인 분포상에 있어 구분되지는 않으며, 이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 유구간의 시기적인 조성순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生活遺構는 竪穴 住居址와 建物址가 확인되었다. 住居址는 모두 수혈을 파고 내부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조사지역 구릉 상부와 남향사면 일대에 분포하였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4분법으로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유구의 유실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사방향을 따라 종방향으로 토층 독을 남기면서 조사는 2분법으로 피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트조사를 통해 주거지의 구조와 퇴적양상을 파악한 후 층위별로 평면하강을 진행하면서 유물 및 내부시설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住居址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말각방형이다. 주거지는 내부시설로 화덕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거지와 아무런 시설이 없는 주거지로 구분되며, 분포상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建物址는 조사지역 중앙의 구릉 상부와 동쪽지역 경사면 하단부, 남쪽사면 일대에 분포하였다. 대부분 기반토인 고토양층을 'L' 자형으로 굴광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기둥을 세운 굴립주 형태의 건물로 초석이나 적심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에서 특별한 난방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부시설로는 경사면 위쪽에 배수로를 조성하였다. 조사는 상부구조와 경사면 아랫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별도의 그리드를 구획하지 않고 배수로나 주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건물지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였다.

墳墓遺構의 분포는 크게 조사지역 중앙의 구릉 상부와 남향사면 일대에 형성된 2개의 묘역에 집중되어 조성되었으며, 이외의 분묘들은 경사면 일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묘역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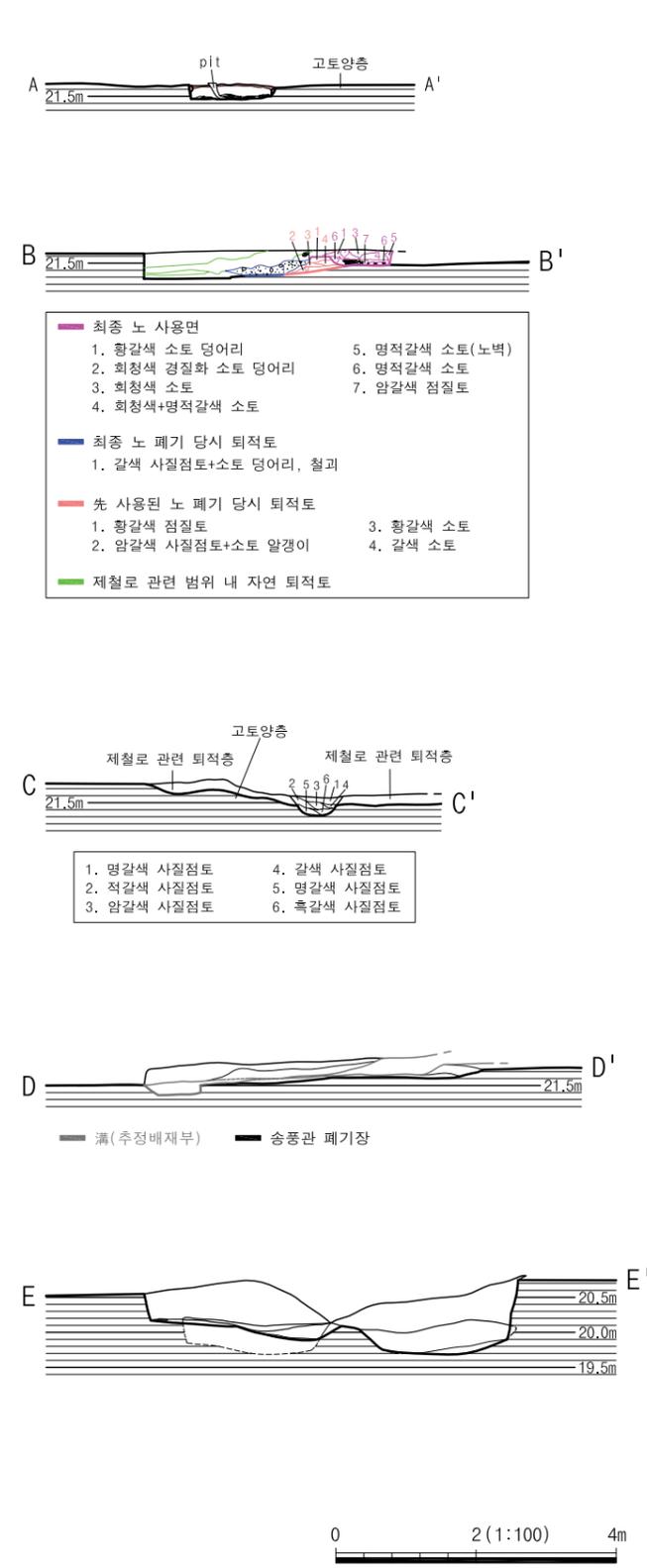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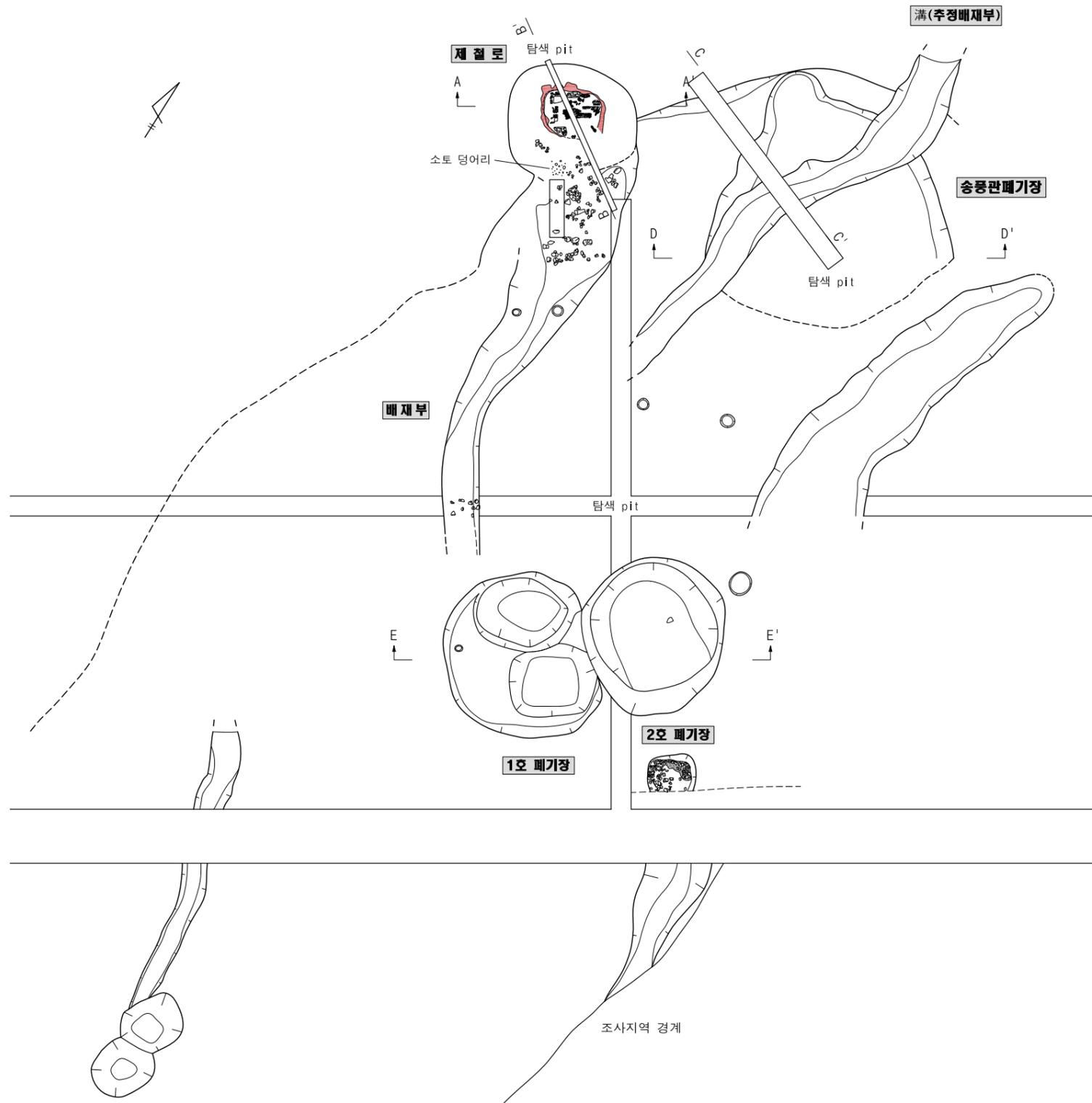
墳墓遺構는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표토를 제토하여 묘광의 윤곽을 확인한 후 장축방향에 직교하는 횡방향으로 피트를 설치하여 묘의 형식 및 내부구조와 토층양상을 파악하였다. 내부조사는 피트를 통해 목관의 유무와 조성방식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분묘유구는 크게 土壙墓와 灰槨墓로 구분되며, 토광묘는 조성방식에 따라 일단광식과 이단광식으로 대별된다. 이외에 합장묘도 2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분묘들은 각 형식에 따라 입지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40·42호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되지 않고 대략 0.5~3.0m 정도이거나 멀게는 8.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 주로 일단광식 토광묘에서 목관의 흔적 또는 목관 잔해가 남아있었으며, 이단광식 토광묘에서는 일부 목개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모두 일단광식 토광묘에서만 청동손가락, 청동곰방대, 구슬 및 백자 대접 등이 확인되었으나 수량은 많지 않았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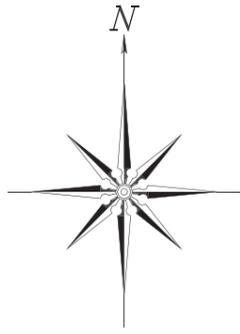
며, 특징적인 부장유물의 조합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청동손가락이 공반되어 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못과 같은 부속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관은 모두 결구방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관이 잘 남아있는 26호 회곽묘의 목관을 통해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북서쪽 끝부분과 남쪽 경사면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각 개별 구상유구의 평면형태는 ‘┌’ 자 또는 ‘┐’ 자 형태로 정확한 용도와 형태는 알 수 없었다. 조사는 유구의 내부 상황과 퇴적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여 횡방향으로 피트 조사를 진행한 후 전면적으로 내부 퇴적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유구의 배치에 있어 뚜렷한 정연성은 찾기 어려웠으나 남쪽 사면에 조성된 구상유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구릉 남향사면 일대를 ‘┌’ 자 형태로 감싸는 구조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일부 구상유구 내에서 분청사기와 백자편,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도면 5】 삼국시대 제철로 관련 유구





x=216767.4694  
y=383555.0929

x=217043.5763  
y=383730.1721



삼 국	제철유구	
	건물지	
조 선	주거지	
	토광묘	
	구상유구	



【도면 6】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유구 배치도(S=1,300)



## IV. 調査内容

### 1. 三國時代

#### 1) 製鐵遺蹟

제철유적은 조사지역의 남쪽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0.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된 유구는 제철로 1기를 중심으로 노와 폐기장으로 연결되는 배재부 1기, 경사면 아래쪽에 폐기장 2기, 송풍관 폐기장 1기, 그리고 후대의 유구로 판단되는 구 3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폐기장 아래 부분에서 폐기된 노로 추정되는 유구가 1기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성격과 용도는 알 수 없었다.

#### (1) 製鐵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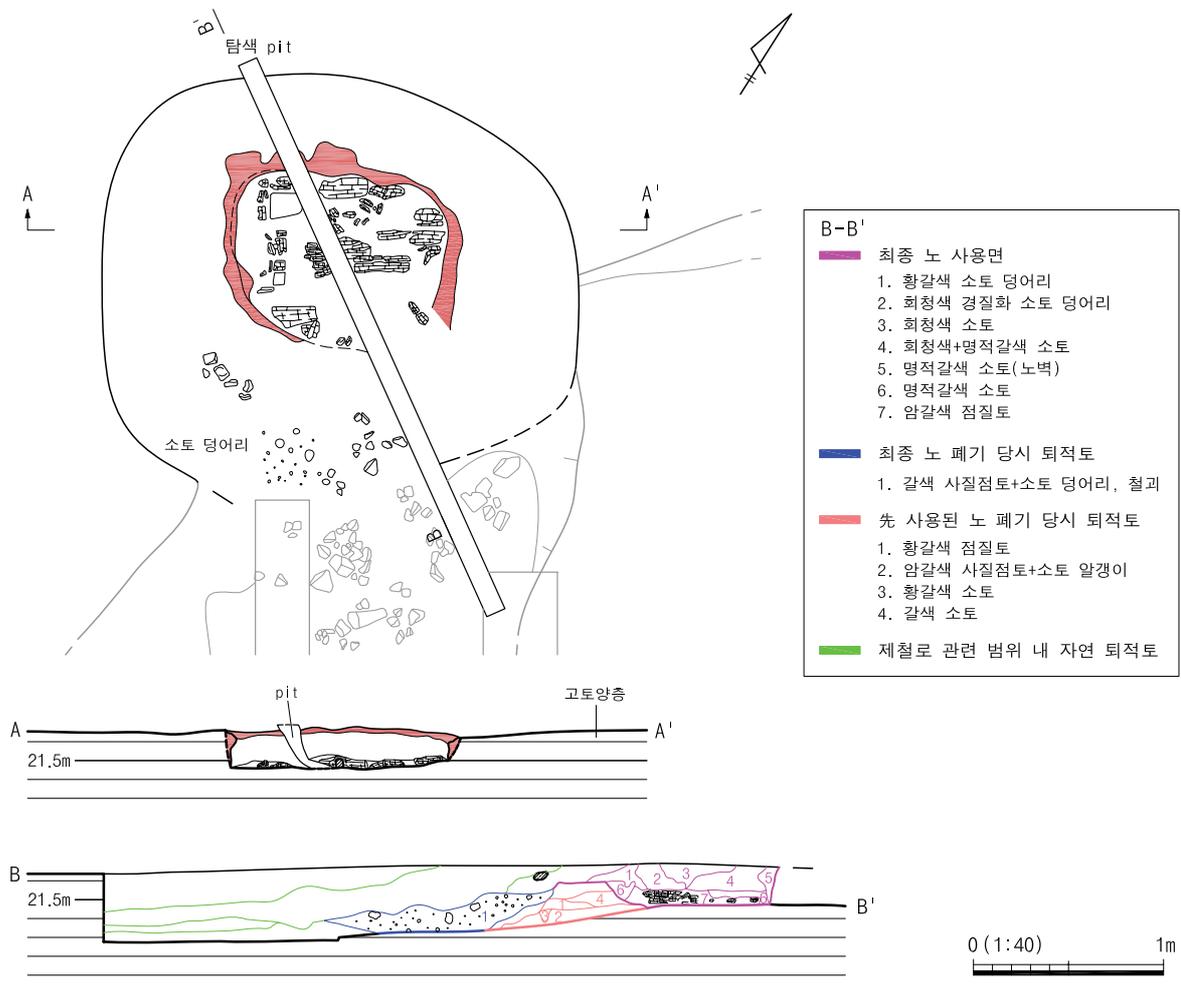
##### ① 遺構

제철로는 유적 상부에서 1기만이 확인되었다. 노의 아래쪽으로는 배재부가 연결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송풍관 폐기장이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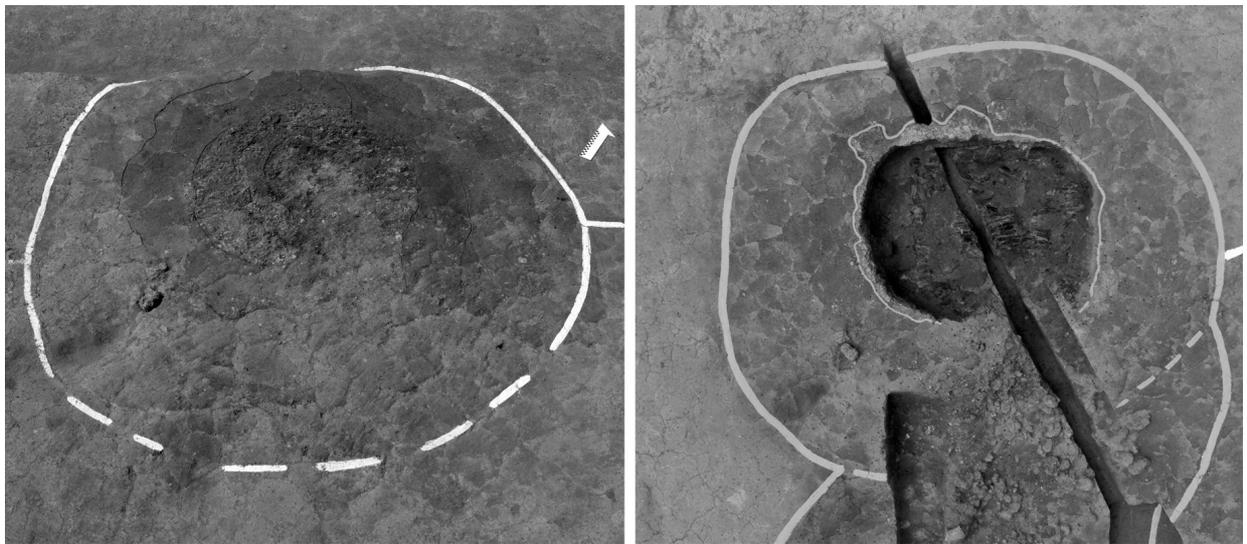
노의 설치는 대체로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다. 하부구조는 경사면 아래쪽이 트인 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2~4cm 정도의 두께로 탄화목을 노벽의 방향에 따라 방형으로 깔은 후 공간이 빈 중앙부에 통나무 형태의 탄화목을 채우는 형태로 갈아 carbon-bed를 조성하였다.

노벽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제철로의 노벽과 달리 불의 영향을 받아 경질화된 면이 경사면 상부쪽에 위치한 노벽에 한정하여 일부 확인될 뿐이며, 다른 벽면은 소결된 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벽 하부의 규모는 길이 100cm, 너비 127cm이며, 소결범위는 대체로 10cm 정도의 범위로 확인되었다. 잔존깊이는 약 15cm정도이다. 또한 노벽에서 철을 획득하기 위해 노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괴와 슬래그들이 배재부와 연결되어 확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용된 노의 바닥면 아래로 노의 폐기 당시 흘러들어온 층이 동일한 양상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작업공정상 철을 획득하기 위해 한번 사용한 노자리에서 축조와 폐기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노의 재사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재사용 횟수는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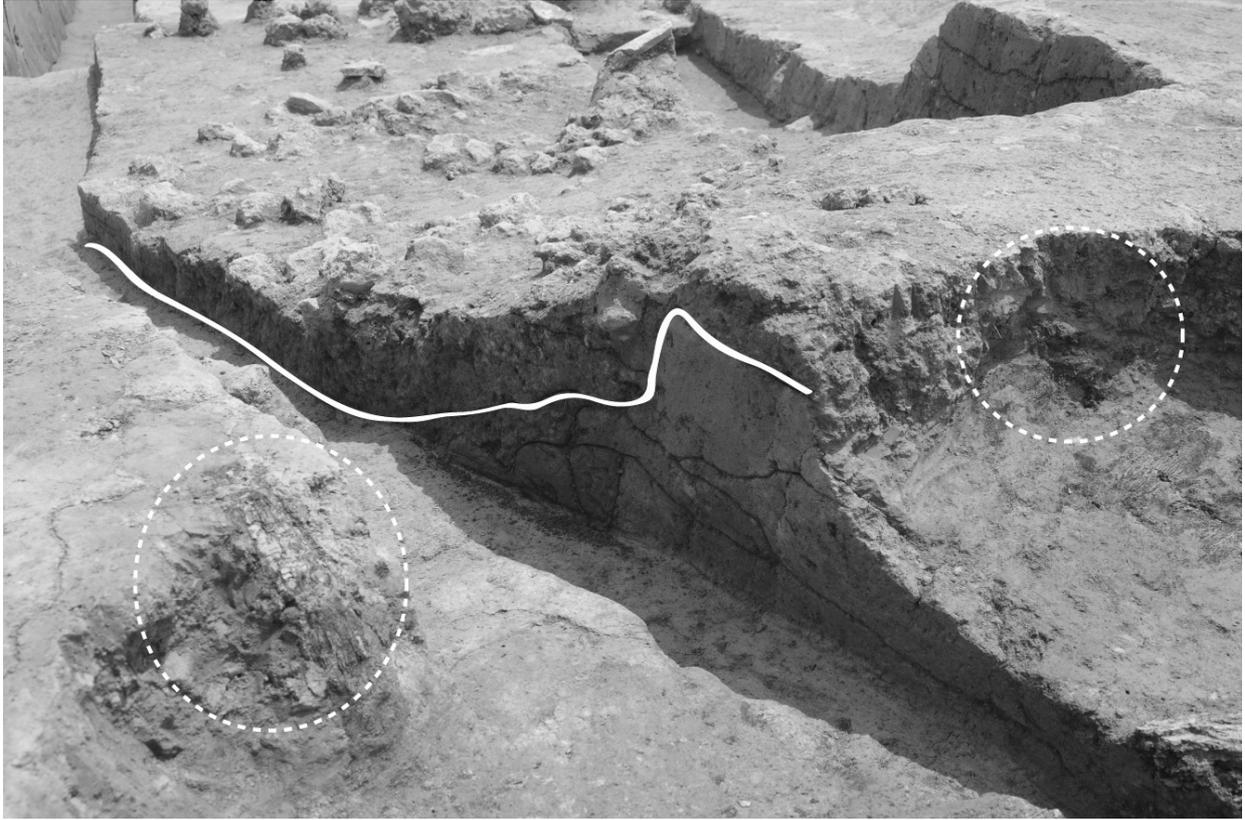
이러한 제철로는 노의 바닥에서 확인된 탄화목의 상태가 방향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남아있고 노벽의 소결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상부구조가 모두 유실되고 최하부구조만이 잔존하는 상태로 노의 구조와 형태를 통해 작업공정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도면 7】 삼국시대 제철로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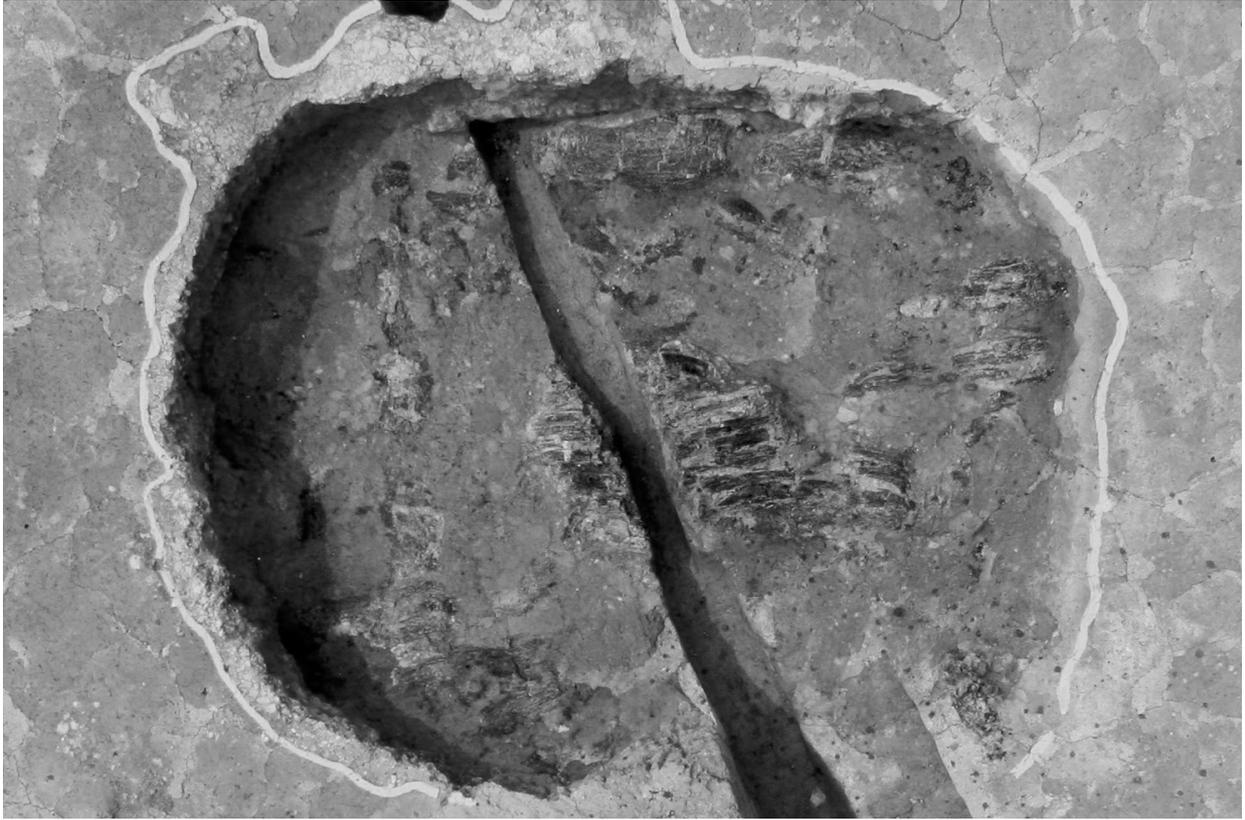
【사진 1】 삼국시대 제철로 조사 前 전경(左) 및 조사 後 전경(右)



【사진 2】 삼국시대 제철로의 재사용흔 (최종 노 벽면의 탄화목과 폐기 당시 퇴적토: 흰색 선)



【사진 3】 삼국시대 제철로 최종 폐기 당시 퇴적토 (흘러내린 철괴와 슬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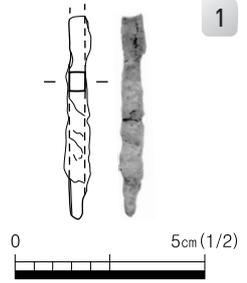
【사진 4】 삼국시대 제철로 조사 後 노벽 소결범위와 내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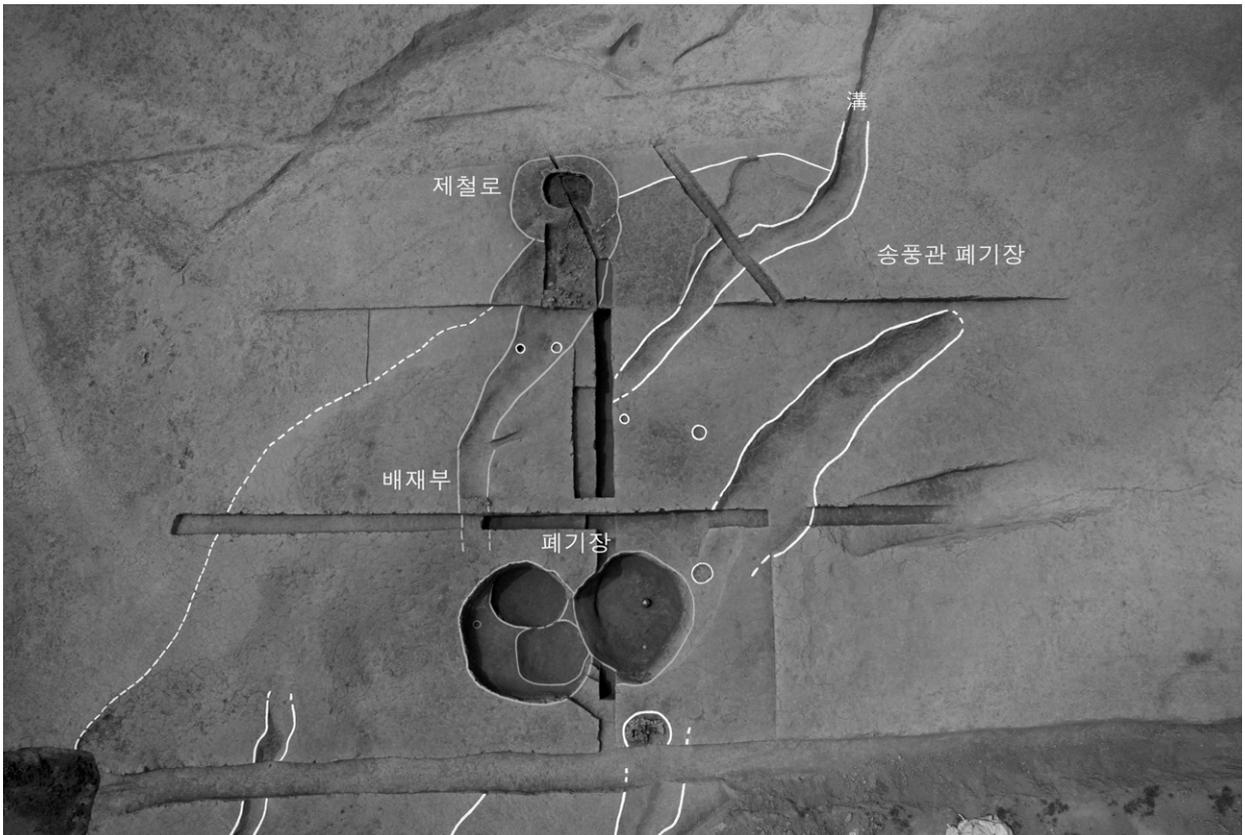
【사진 5】 삼국시대 제철로 바닥의 carbon-bed 근경

② 遺物 (일련번호 1)

1. 鐵鏃片으로 제토 당시 제철로 관련 퇴적층 상면에서 확인된 것이다. 刃部는 결실되었으며, 柄部만이 잔존하였다. 병부 단면은 방형이며, 병단부는 뾰족하게 성형하였다.



[잔존길이 5.4cm, 두께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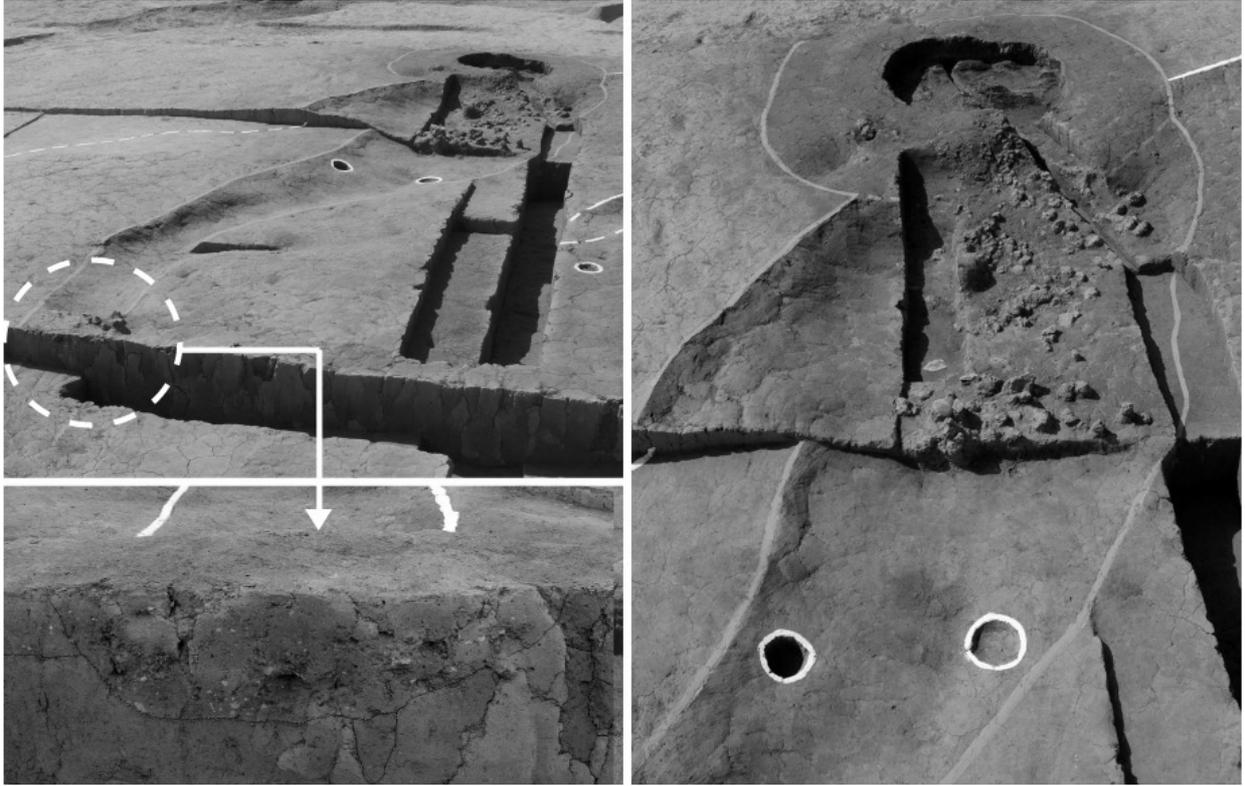
【사진 6】 삼국시대 제철로 관련 유구 전체 전경

(2) 排滓部

① 遺構

배재부는 제철로에서 폐기장까지 연결되는 구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평면형태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경사면을 따라 곡선의 형태로 꺾여 있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단면을 'U' 자형을 이룬다. 규모는 길이 7.5m 정도가 잔존하였으며, 너비는 65~20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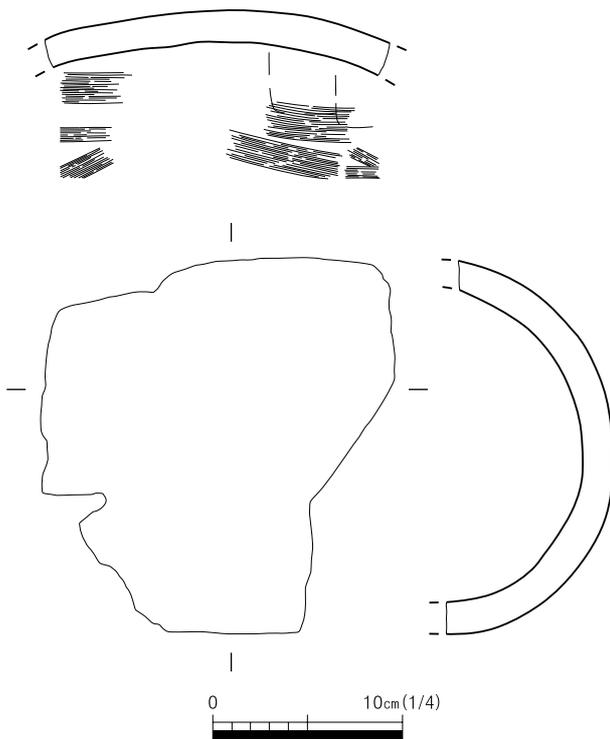
내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노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흘러들어온 슬래그와 철피노벽편들이 퇴적되어 있었으며, 중앙부분 바닥에서 지름 15~20cm의 주공이 2개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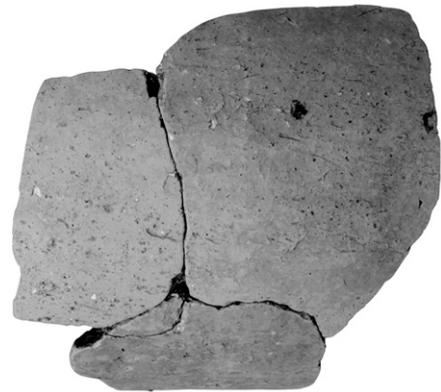
【사진 7】 삼국시대 배재부 조사 후 전경 및 토층

② 遺物 (일련번호 2~13)

2. 밝은 회청색 硬質燒成의 送風管 片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과 운모가 다량 포함된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에는 도구와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2



[잔존길이 20.0cm, 두께 16~1.7cm]

3. 爐壁片으로 내면에는 철재가 용착되어 있으며, 암갈색과 회청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기포에 의한 스펀지 형태의 공극들이 형성되었으며, 표면에는 굵은 사립과 같은 이물질의 다량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14.0cm, 두께 4.3cm]

4. 철 덩어리로 爐壁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부착되어 있다. 색조는 어두운 회청색이며, 일부 회색과 적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에는 굵은 사립과 탄재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며, 기포에 의한 공극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22.4cm, 두께 7.5cm]

5. 철 덩어리로 爐壁을 추정되는 점토 덩어리가 부착되어 있다. 색조는 흑색과 어두운 회청색이며, 일부 산화되어 적갈색을 띤다. 표면에는 굵은 사립과 같은 이물질이 부착되었으며, 일부 벗겨흔적이 관찰된다. 기포에 의한 공극이 형성되었다.

[잔존길이 21.5cm, 두께 13.6cm]

6. 철 덩어리로 爐壁으로 추정되는 점토 덩어리가 일부가 부착되어 있다. 색조는 진한 회청색과 암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기포에 의한 공극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7.1cm, 두께 4.3cm]

7. 철 덩어리로 표면은 산화되어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진한 회청색이다. 표면에는 기포에 의한 공극이 형성되었으며, 깊은 홈과 구멍들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6.3cm, 두께 4.5cm]

8. 철 슬래그 덩어리로 표면은 산화되어 적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에 사립과 탄재 등 이물질이 부착되었으며, 기포에 의한 공극이 형성되었다.

[잔존길이 6.6cm, 두께 3.4cm]

9. 짙은 회청색을 띠는 철 슬래그 덩어리이다. 표면은 기포에 의한 스펀지 형태의 공극이 형성되었으며, 굵은 사립과 탄재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7.3cm, 두께 2.1cm]

10. 용도 미상의 철기로 부식이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길이 6.7cm, 두께 3.8cm]

11. 편마암 계통의 석기로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용도와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표면에 일부 가공된 흔적이 관찰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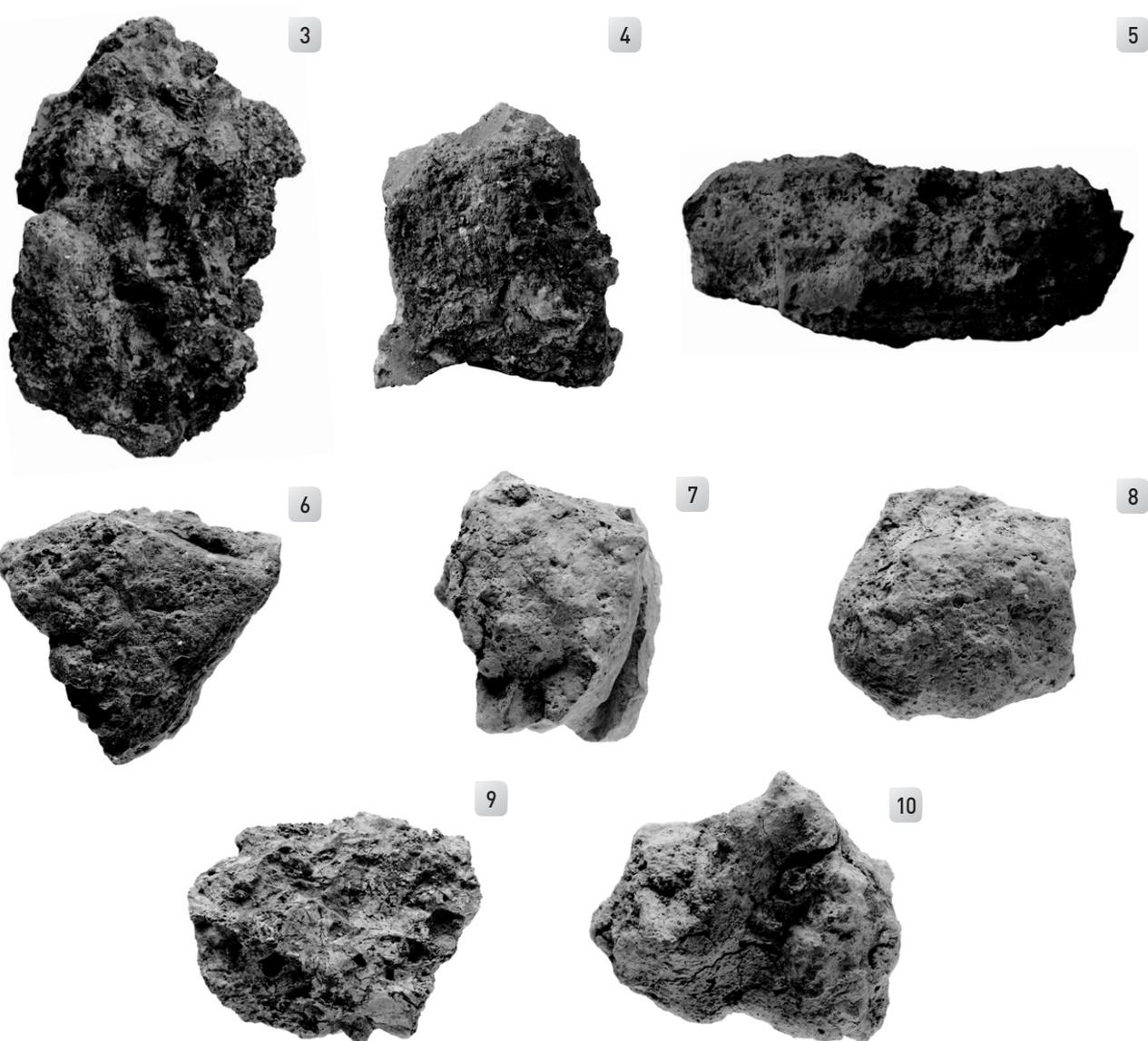
[잔존길이 12.9cm, 잔존너비 9.6cm, 두께 0.7~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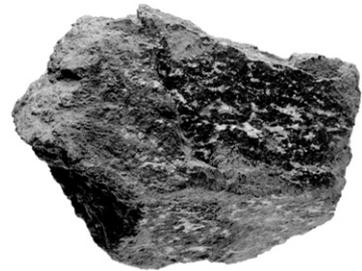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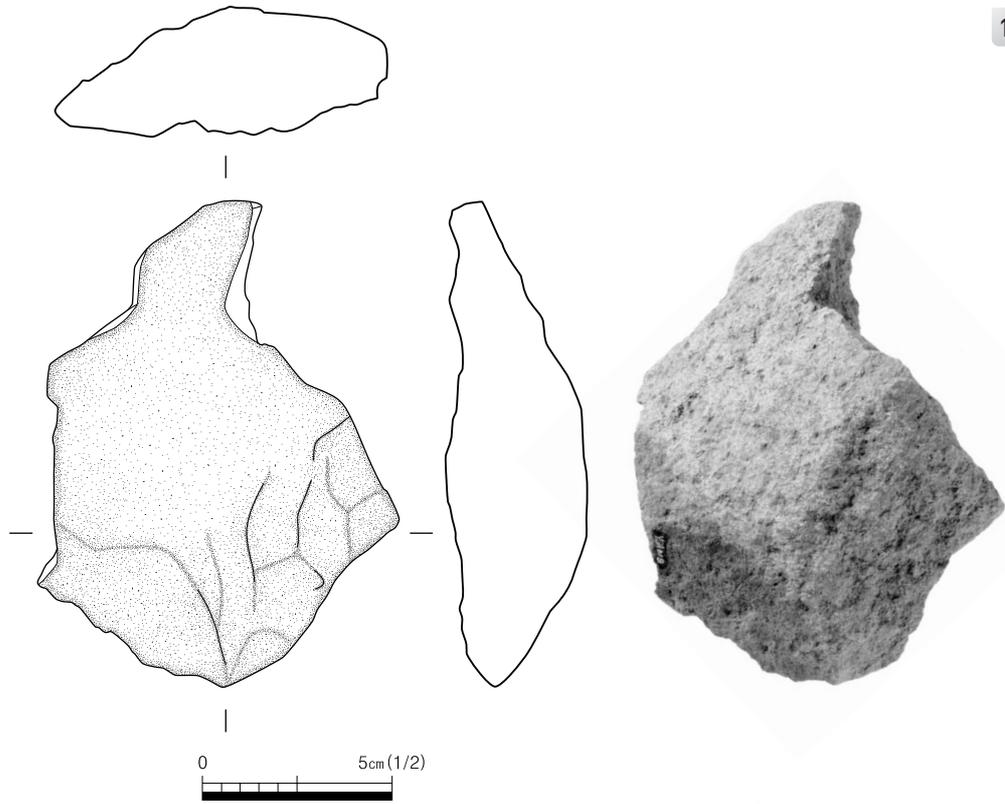
12. 소형 鐵鑛石 덩어리이다. 색조는 어두운 회청색이며, 일부 산화되어 적갈색을 띤다. 표면에 타격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박편으로 판단된다.

[잔존길이 4.6cm, 두께 1.4cm]

13. 鐵鑛石 덩어리로 석영이 띠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어두운 회청색이며, 일부 산화되어 적갈색을 띤다. 표면에서 일부 타격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8.0cm, 두께 5.9cm]





### (3) 廢棄場

#### ① 1號 廢棄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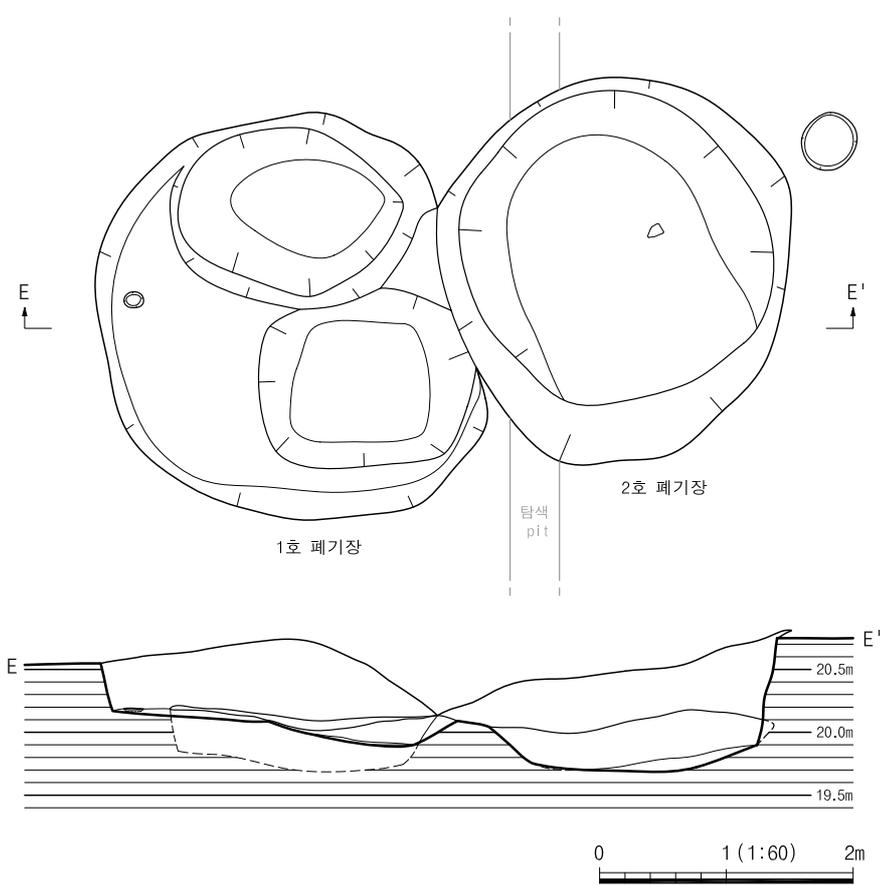
##### 가. 遺構

1호 폐기장은 배재부 바로 아래쪽에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황갈색 고토 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우측부분은 2호 폐기장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규모는 지름 약 320cm 정도이며, 깊이 33cm 정도가 잔존하였다.

내부에는 다시 타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형태로 지름 170cm 정도의 규모로 소형 구덩이를 조성하였으며, 철괴, 송풍관편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 나. 遺物 (일련번호 14~16)

14. 회청색 경질소성의 送風管 片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과 운모가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입구는 나팔상으로 넓게 벌어져 있는 대구경이며, 내면에 손누름 흔적과 도구 정면 흔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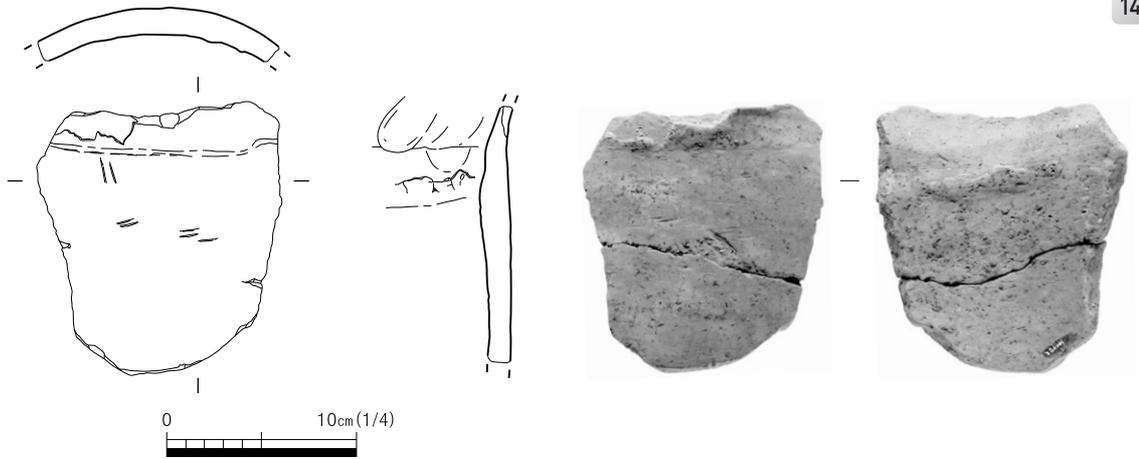


도면 8. 삼국시대 1·2호 폐기장 평면 및 입단면도



【사진 8】 삼국시대 1·2호 폐기장 조사 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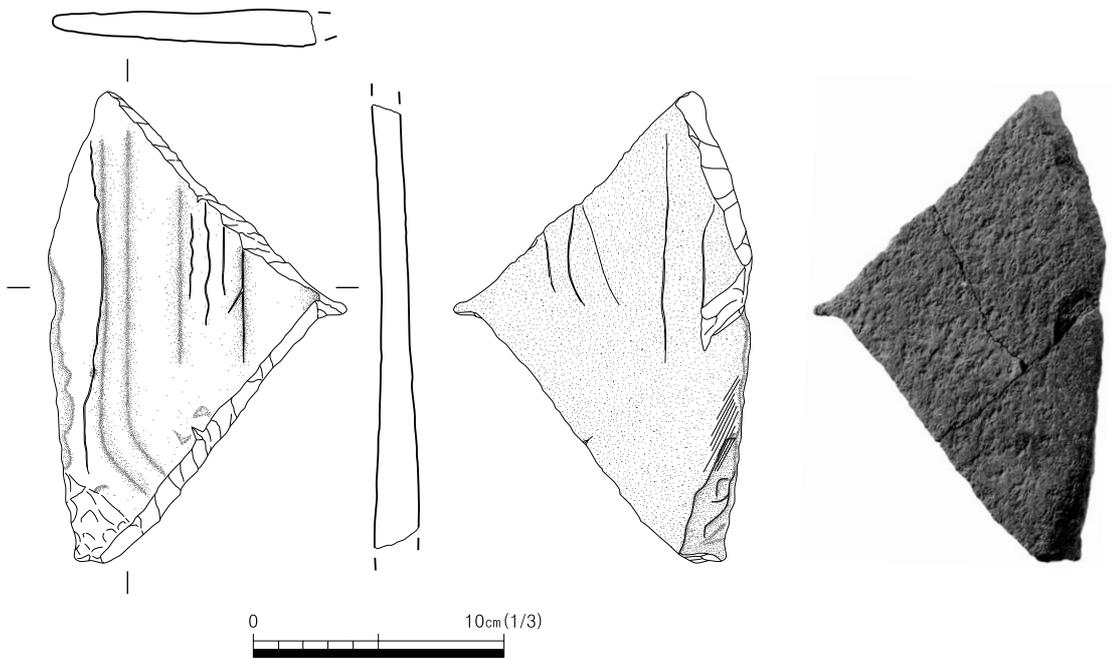
14



[잔존길이 14.5cm, 두께 0.7~1.5cm]

15. 砥石으로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이 남아있다. 두께가 얇은 편으로 상부에서만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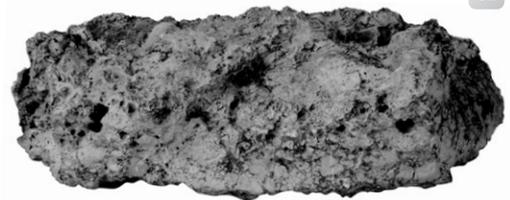
15



[잔존길이 18.8cm, 잔존너비 11.7cm, 두께 0.6~1.75cm]

16. 爐壁片으로 내면에는 철재가 일부 융착되어 있으며, 암자색과 회청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기포에 의한 스펀지 형태의 공극들이 형성되었으며, 표면에는 굵은 사립과 같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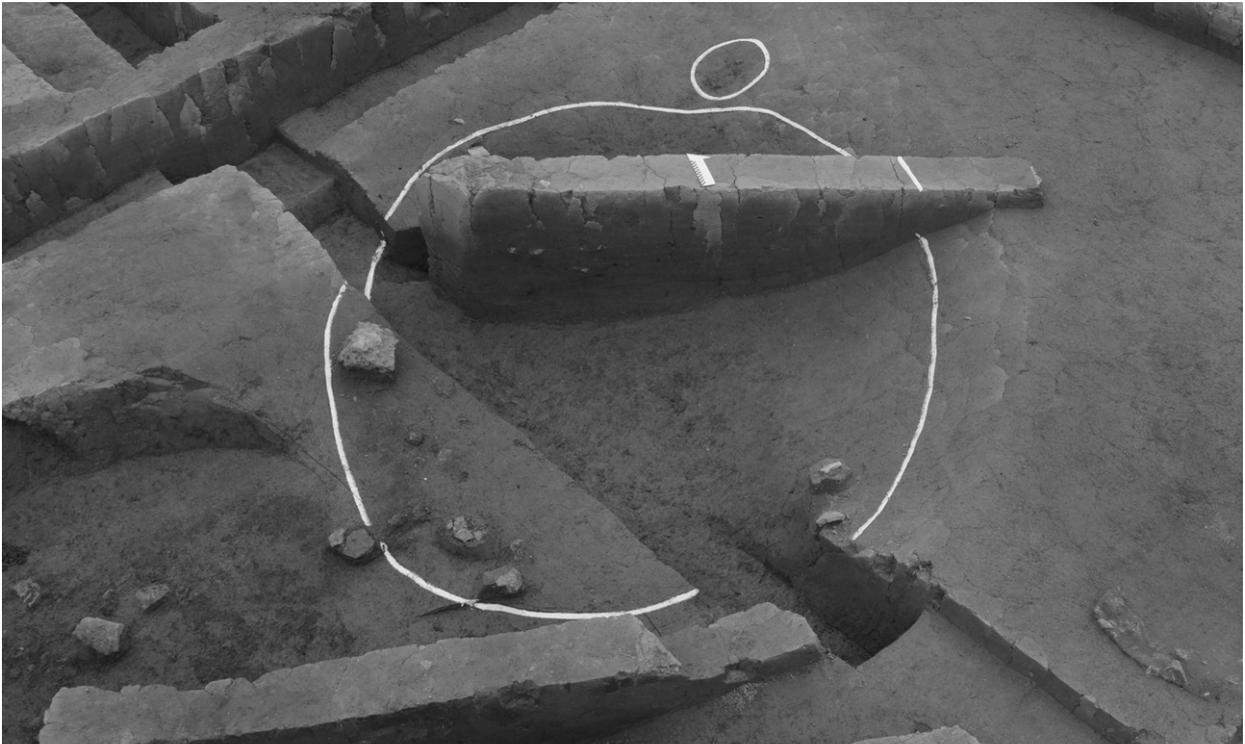
이물질의 다량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12.2cm, 두께 4.1cm]

## ② 2號 廢棄場

### 가. 遺構

2호 폐기장은 1호 폐기장을 파괴하고 우측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지름 270~300cm 정도이며, 깊이는 30cm 정도가 잔존하였다. 내부에는 철괴와 송풍관편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사진 9】 삼국시대 2호 폐기장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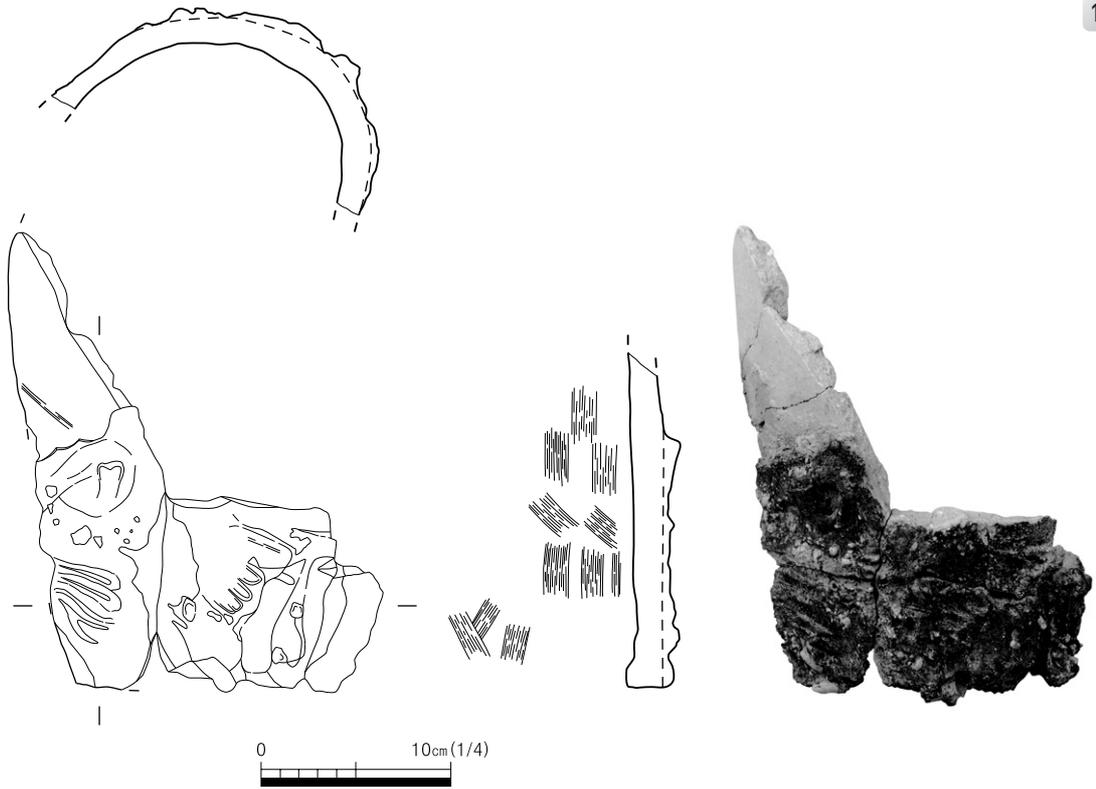
### 나. 遺物 (일련번호 17~18)

17. 밝은 회청색 硬質燒成의 送風管 片으로 일부 소결되어 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굵은 석영과 운모가 다량 포함된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입구가 넓은 대구경으로 구경이 좁은 부분의 외면에는 철재가 두껍게 융착되었다. 내면에는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19.2cm, 두께 1.0~1.7cm]

18. 철 덩어리로 산화되어 표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기포에 의한 공극이 관찰되며, 사립과 같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5.4cm, 두께 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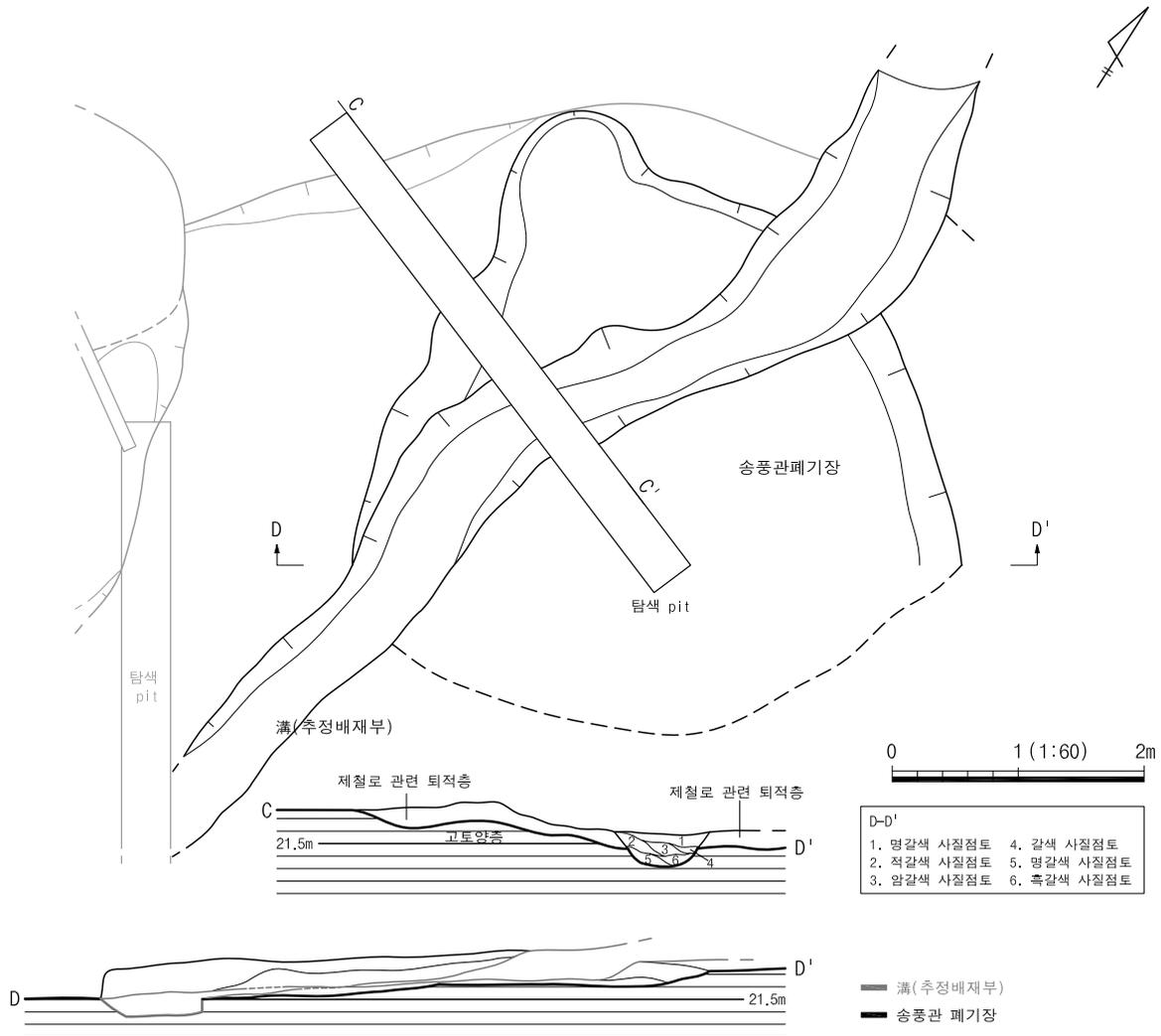


### ③ 送風管 廢棄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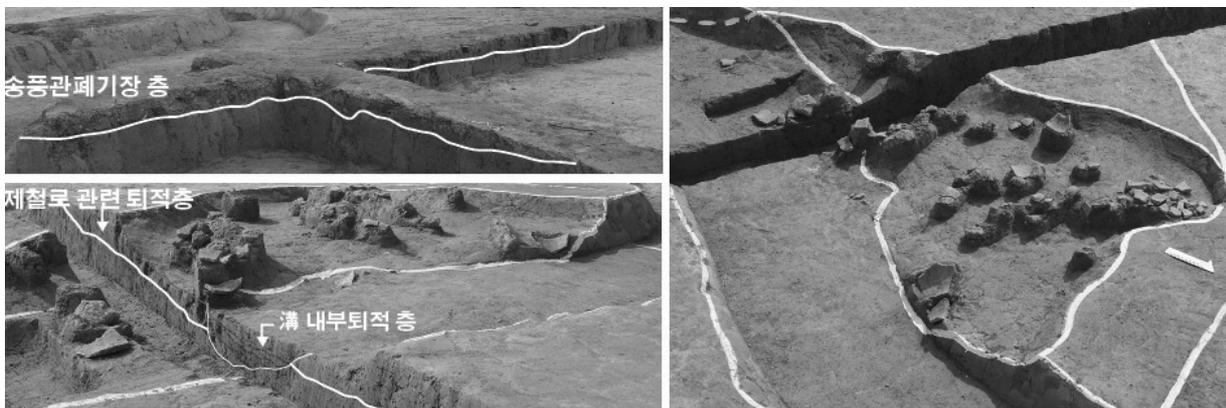
#### 가. 遺構

송풍관 폐기장은 제철로에서 우측으로 약 2.0m 정도 떨어져서 확인되었다. 최초 노출당시 제철로 관련 퇴적범위 내에서 송풍관 편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층위조사결과 송풍관 폐기장은 제철로 관련 퇴적층보다 늦은 시점에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회성으로 반복되어지는 제철로의 작업공정과도 상통하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형태로 의도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규모는 최대길이 4.9m, 최대너비 4.6m 정도이며, 깊이는 8~20cm 정도가 잔존하였다. 바닥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경사져 있었으며, 내부에는 송풍관편과 슬래그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도면 9. 삼국시대 송풍관 폐기장 토층 및 평·입단면도



【사진 10】 삼국시대 송풍관 폐기장 토층 및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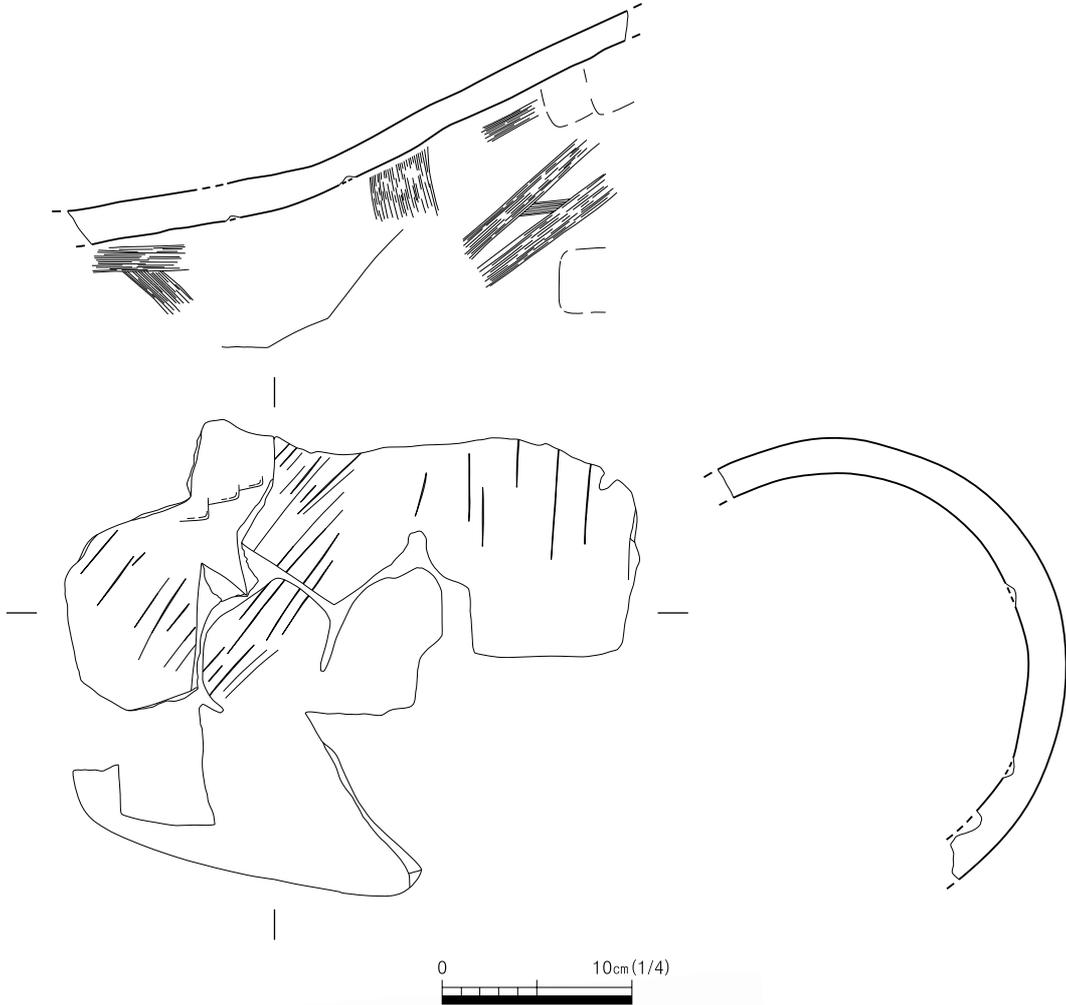
【사진 11】 삼국시대 송풍관 폐기장 조사 중 전경

#### 나. 遺物 (일련번호 19)

19. 밝은 회청색 硬質燒成의 送風管 片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과 운모가 다량 포함된 다소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長鼓形이다. 단면은 원형으로 추정된다. 背面에는 도구를 이용한 사선방향의 정면흔적이 남아있으며, 내면에는 일부 손누름 흔적이 관찰된다.



19



[잔존길이 30.2cm, 복원지름 24.4cm, 두께 1.3~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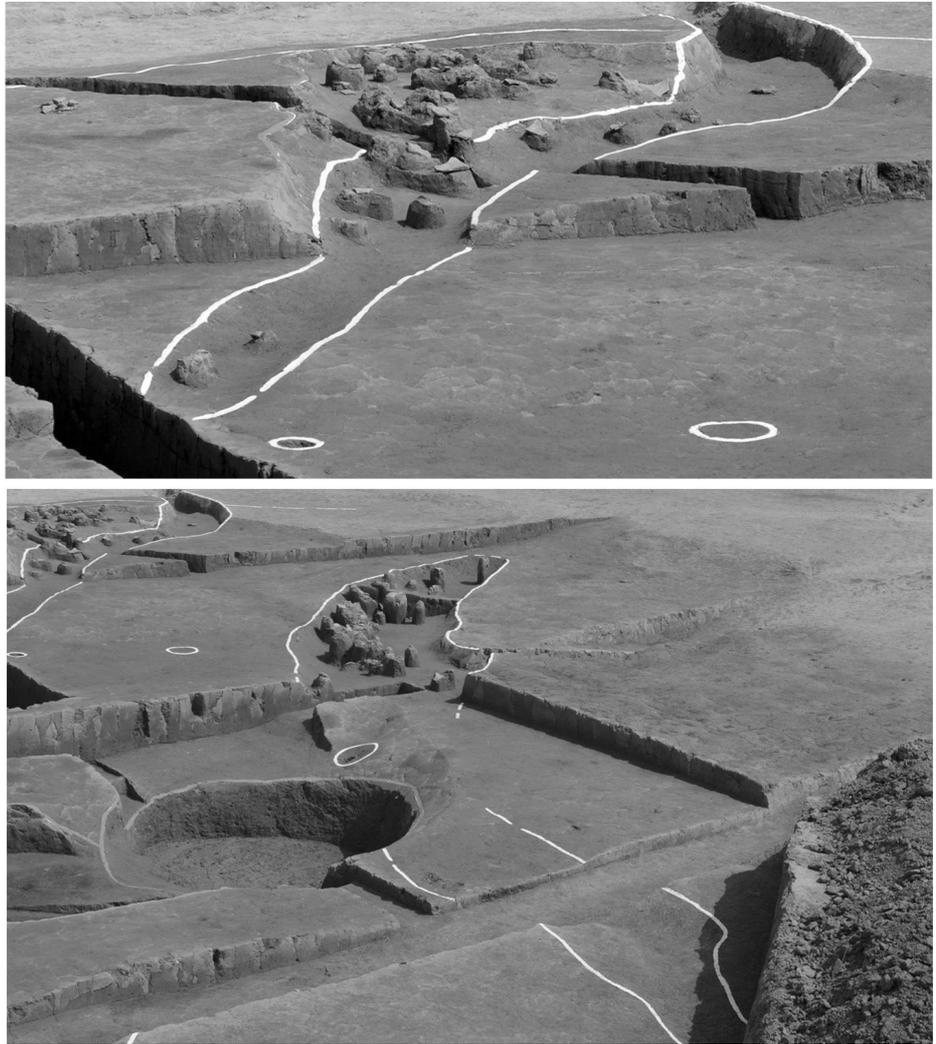
#### (4) 溝

##### ① 遺構

제철로 관련 퇴적범위 내에서 배재부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3기의 구가 확인되었으며, 송풍관 폐기장을 파괴하고 구성되어 있어 가장 나중에 조성된 유구로 판단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경사방향을 따라 북동에서 남서방향을 뻗어 있으며, 다소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단면은 'U' 자형태를 이루며, 너비는 60~150cm 정도로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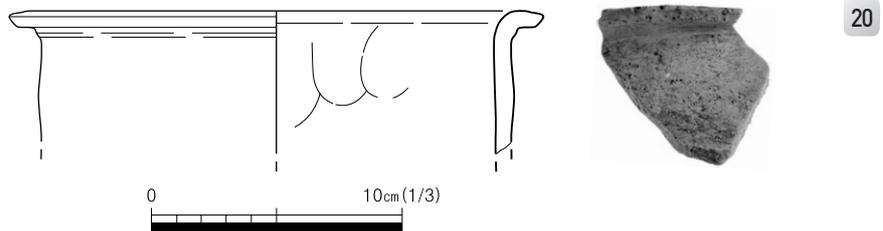
내부에서는 슬래그와 철괴, 송풍관편 등이 확인되었는데, 구가 위치한 경사면 위쪽에 제철로가 확인되지 않아 구가 노의 배재부 기능으로써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먼저 축조된 제철로가 최하부만이 잔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철로가 동일지역에서 군집을 이루고 확인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구의 상부쪽에 제철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구는 제철로의 배재부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진 12】삼국시대 構 조사 後 전경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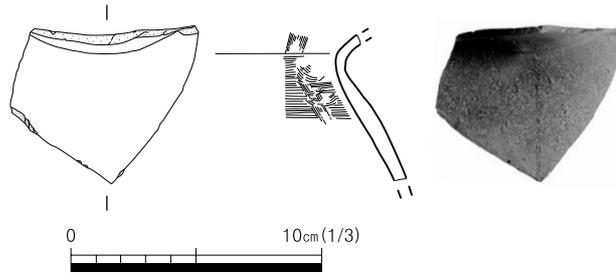
② 遺物 (일련번호 20~22)

20. 밝은 회청색 硬質燒成의 자배기 口緣片이다. 태토는 가는 석영과 운모가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胴體는 거의 수직을 이루며, 端部를 직각으로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사선을 이룬다. 胴體 외면에는 格子文을 시문한 후 재차 정면하여 대부분의 문양을 지웠으며,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높이 5.6cm, 복원구경 19.2cm, 두께 0.6~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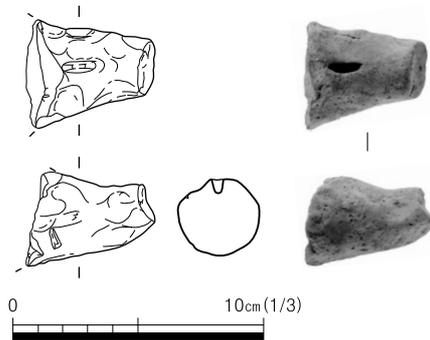
21. 회청색 硬質燒成의 直口短頸壺의 口緣片으로 속심은 적갈색이다. 태토는 가는 석영과 운모가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口緣은 胴體에서 수직으로 오르며, 구연과 동체의 경계부분에는 1조의 침선을 돌렸다. 동체 내면에는 格子文의 내박자 흔적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21

[잔존길이 6.3cm, 두께 0.4~0.65cm]

22. 회색 硬質燒成의 把手片으로 정도는 낮은 편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단부를 자른 절두형이며, 단면은 원형이다. 파수 상부에는 길이 1.3cm의 홈을 새겼다. 외면에서 손누름 흔적들이 관찰된다.



22

[길이 3.75cm, 지름 3.2cm]

## 2. 朝鮮時代

### 1) 住居址

#### (1) 1號 住居址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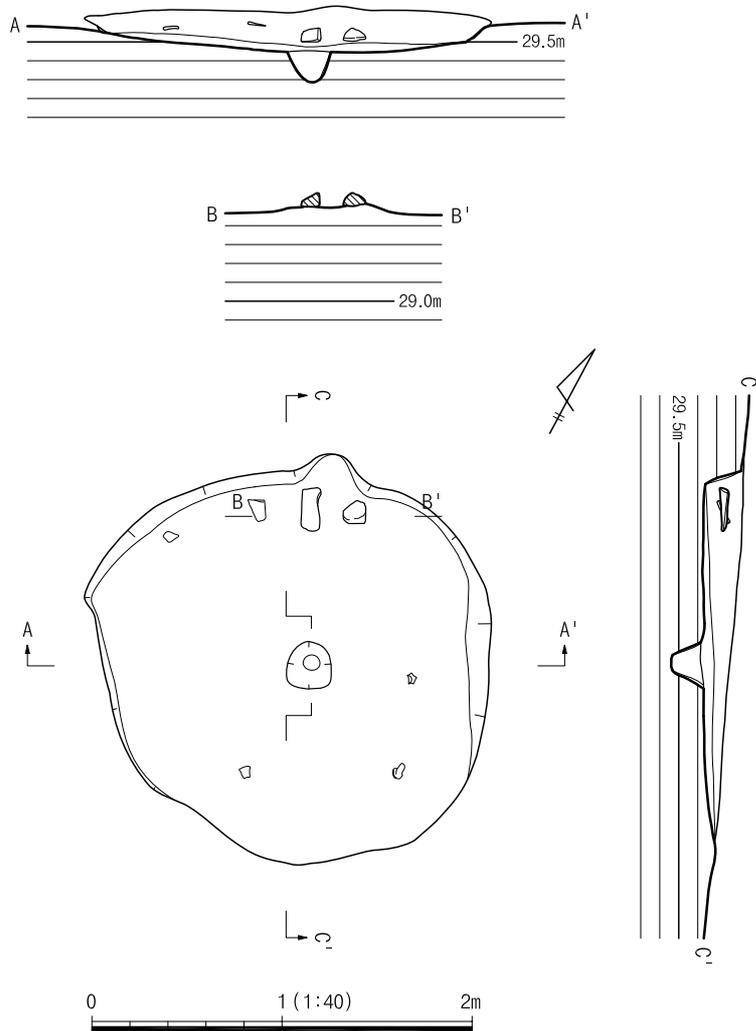
조사지역의 중앙인 구릉 정사부에 조성되었으며, 해발고도 29.8m 높이에 위치하였다. 주변으로 북서쪽에 인접하여 13號墓가 위치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표토를 약 10cm 제토하자 원형으로 주거지 굴광선이 확인되었으며, 調査는 유구의 성격과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유구의 장축방향 및 등고선 방향을 고려하여 ‘+’자로 탐색Pit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경사면 위쪽에 단순한 형태의 화덕시설을 갖춘 朝鮮時代 住居址로 확인되었다.

住居址는 생토층인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나 남쪽부분은 형태가 불분명하였다. 주거지 벽면은 경사면 위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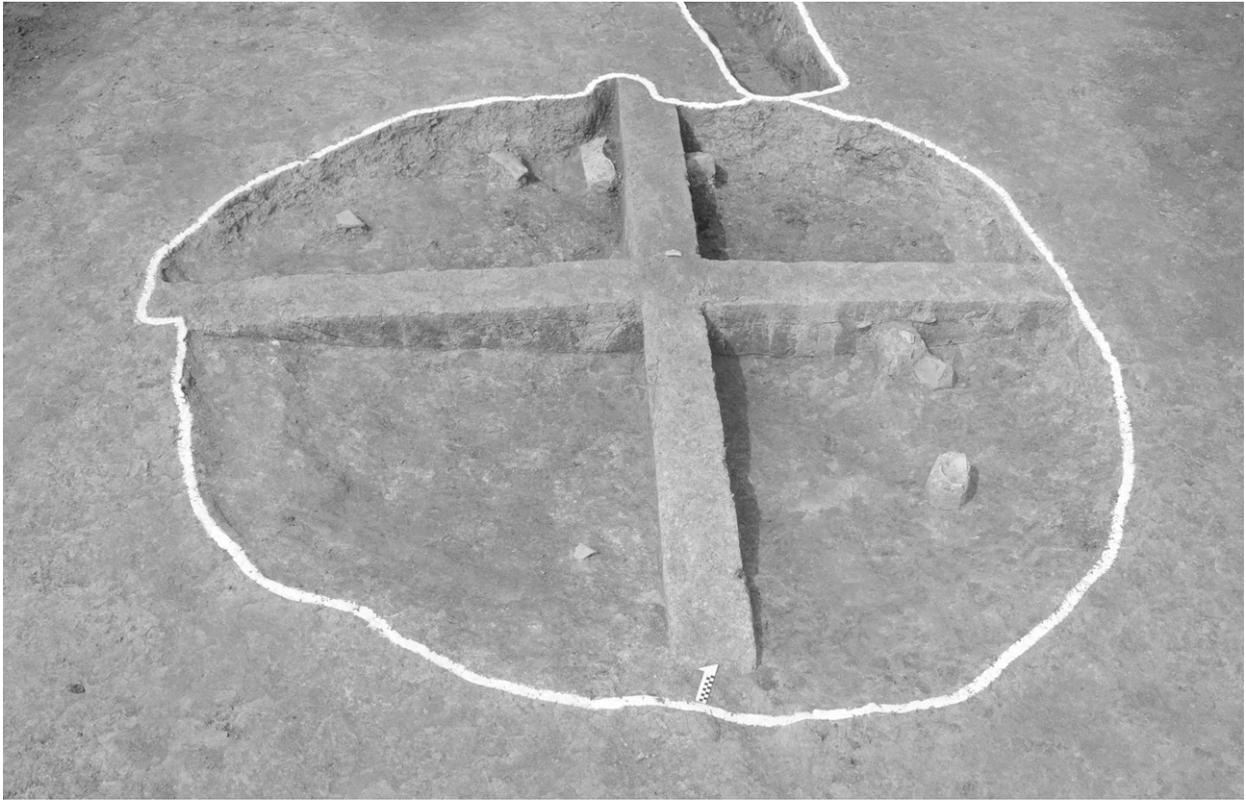
수직을 이루는 반면 나머지부분은 완만한 사선을 이루었으며,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208cm, 너비 203cm이며, 깊이는 36cm가 잔존하였다.

内部施設로는 북동쪽에서 화덕시설과 배연시설, 주거지 중앙에서 주공이 1개소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한 후 소형 활석 2매를 이용하여 15cm 간격으로 붓들을 세웠으며, 일부 점토를 덧댄 흔적이 확인되었다. 배연구는 벽면을 지름 23cm 정도의 반원형으로 돌출시켜 아궁이와 연결된 형태이다. 화덕시설 주변에는 일부 탄재가 깔려 있었으나 불에 소결된 범위가 작은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공은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22cm, 깊이 18cm정도이다.

遺物은 바닥면에서 수키와편, 분청사기 구연편과 저부편, 백자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도면 10】 조선시대 1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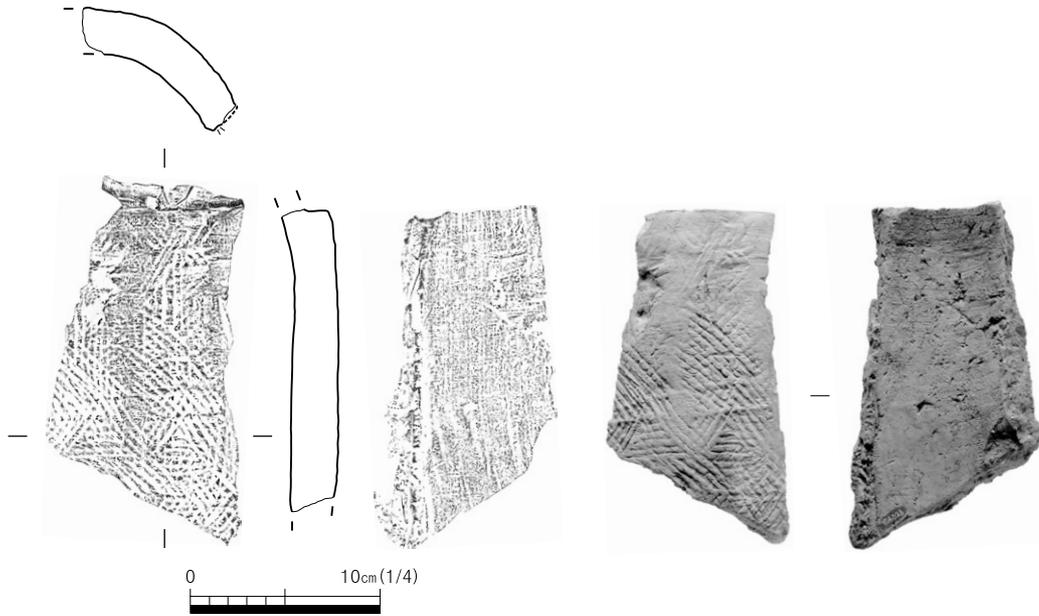
【사진 13】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사진 14】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중 배연부와 화덕시설 노출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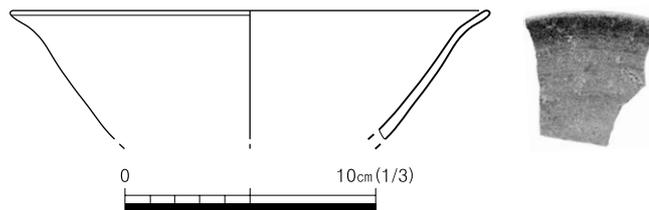
② 遺物 (일련번호 23~26)

23. 회청색을 띠는 미구기와편으로 미구부분은 결실되었다. 재질은 경질이며, 태토는 굵은 석영과 운모가 다량 혼합되었다. 언강의 높이는 1.0cm로 수직을 이룬다. 背面은 굵은 短斜線文을 교차하여 시문하였으며, 언강부분은 재차 물손질하여 일부 문양대를 지웠다. 측면은 와도를 안쪽에 바깥쪽으로 0.3~0.7cm 깊이까지 그어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와도분할선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18.2cm, 잔존너비 8.6cm, 두께 1.9~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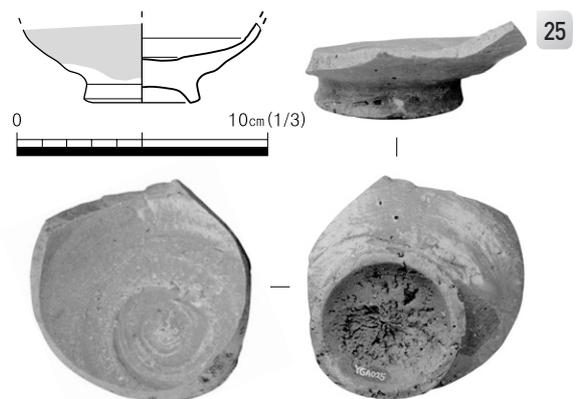
24. 粉靑沙器 대접의 口緣片이다. 외면은 청녹색이며, 내면은 귀얄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회백색을 띤다. 器壁은 넓게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部를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24

[복원구경 18.5cm, 잔존길이 5.1cm, 두께 0.25~0.45cm]

25. 회갈색을 띠는 白磁底部片이다. 내저면은 나선형의 형태로 마무리하여 중앙이 약간 솟아 있으며, 희미하게 내저원각을 표현하였다. 굽은 오목굽으로 바닥에서 1.5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굽 외면까지 성형하였다. 굽은 외반되었으며, 굽 접지면은 바깥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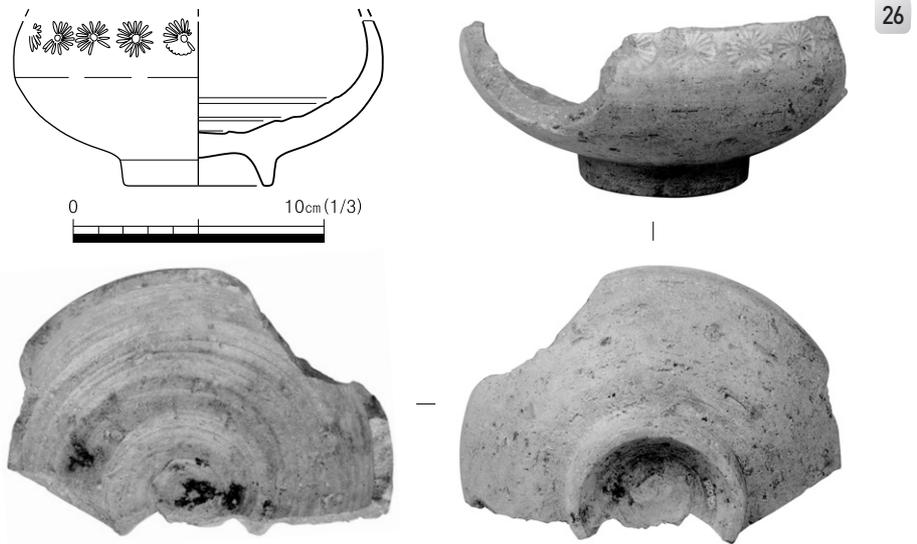


25

[잔존높이 3.1cm, 저경 3.8cm, 두께 0.3~1.1cm]

들려 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았으며,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유약은 굽 일부와 안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26. 녹갈색을 띠는 粉靑沙器 壺의 口緣片으로 판단된다. 내면은 회색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둥글게 바라져 오르며, 동최대경이 위치한 상부에는 菊花文을 押印하고 백토분장하여 장식하였다.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굽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내·외면을 여러 차례 돌려 깎아 잘 정돈하였다. 굽 접지면은 너비 0.3cm로 편평하며, 굽 안쪽은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시유상태는 외면이 잘 시유되지 않아 다소 불량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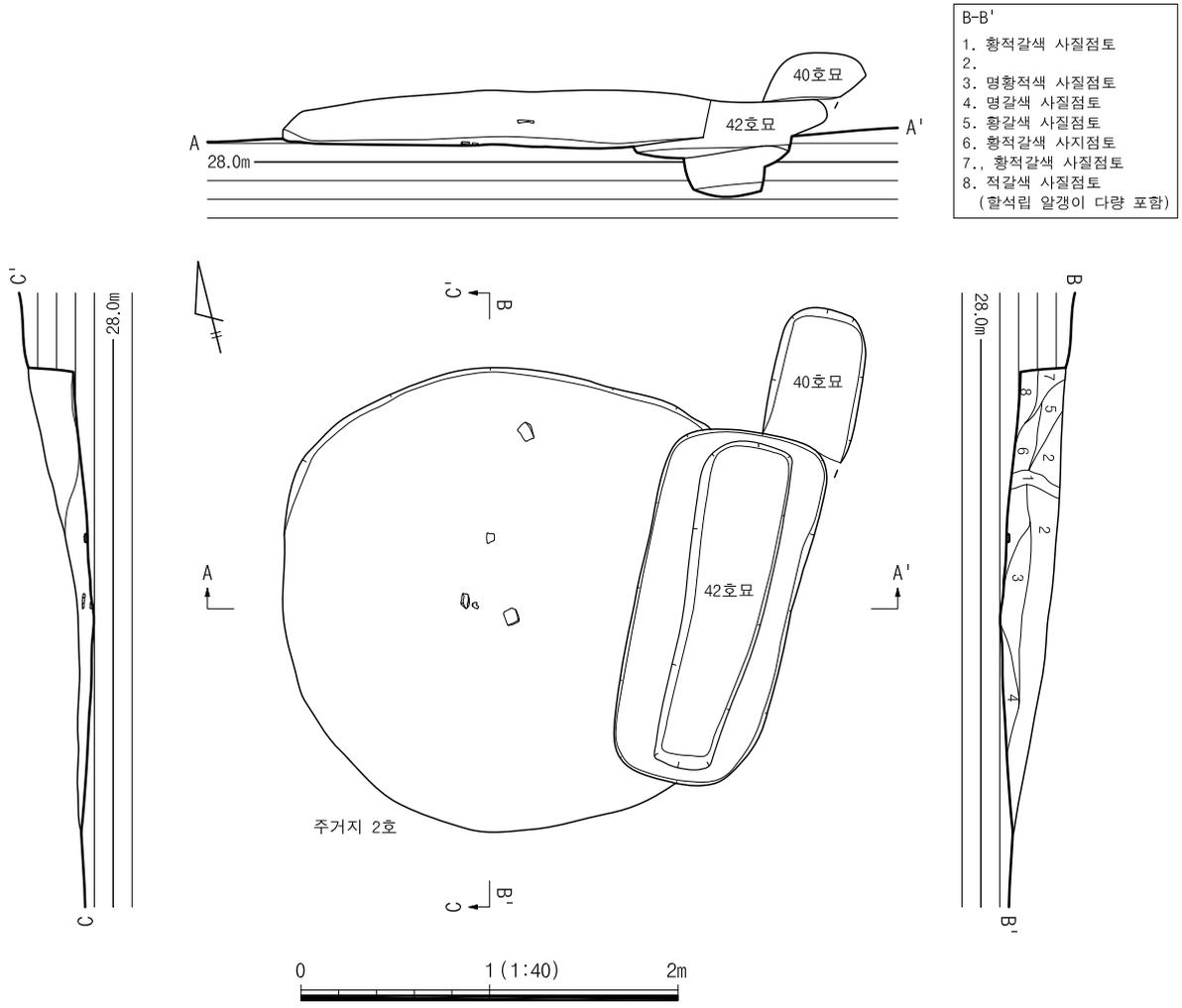
[잔존높이 6.5cm, 저경 5.8cm, 두께 0.4~1.4cm]

## (2) 2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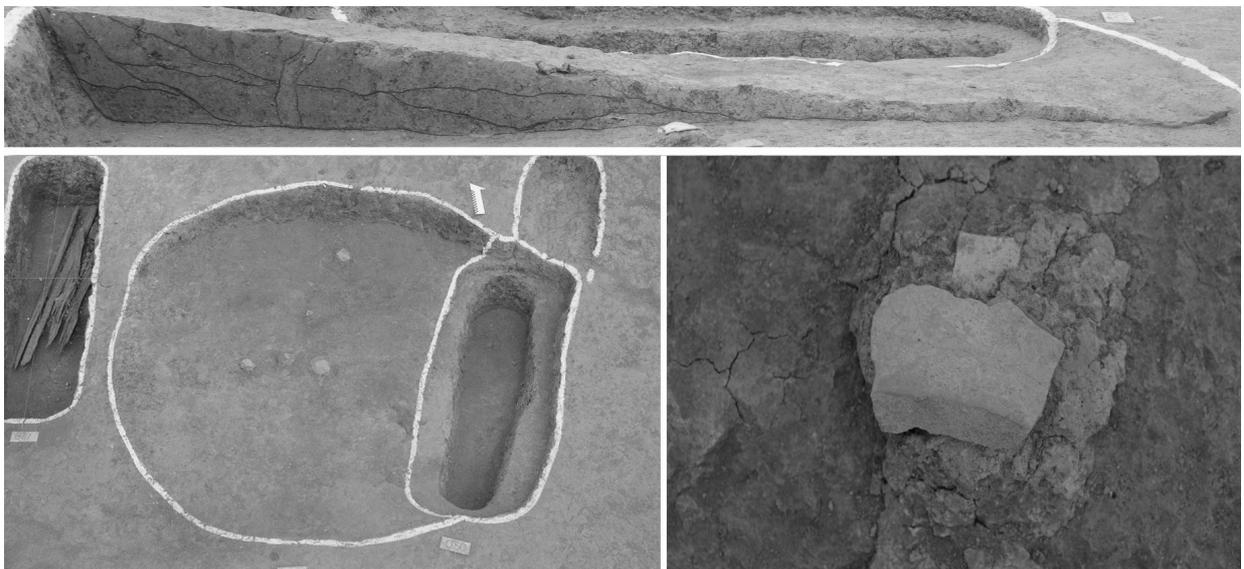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였으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8.4m 높이에 위치하였다. 표토를 약 15cm 정도 제도하자 원형으로 굴광선이 확인되었으며, 동쪽부분은 42號墓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서쪽에는 43號墓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토광묘의 조성에 의해 상부구조는 대부분 유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調査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축을 방향에 맞추어 탐색Pit를 설치한 후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주거지로 파악되었으나 내부에는 아무런 시설로 확인되지 않았다.

住居址는 생토층인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48cm, 너비 227cm이고, 깊이는 34cm정도가 남아있었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토기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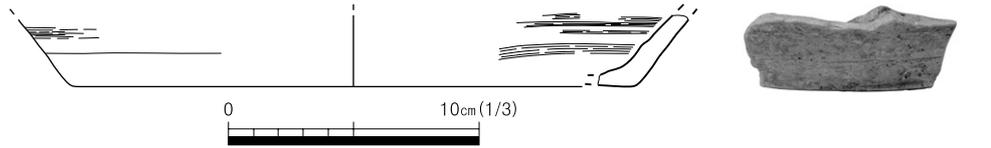
【도면 11】 조선시대 2호 주거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사진 15】 조선시대 2호 주거지 토층 및 조사 후 전경, 출토유물

② 遺物 (일련번호 27)

27. 회청색을 띠는 土器 底部片이다. 재질은 硬質이며, 태토는 석영과 운모가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胴體는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내·외면에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잘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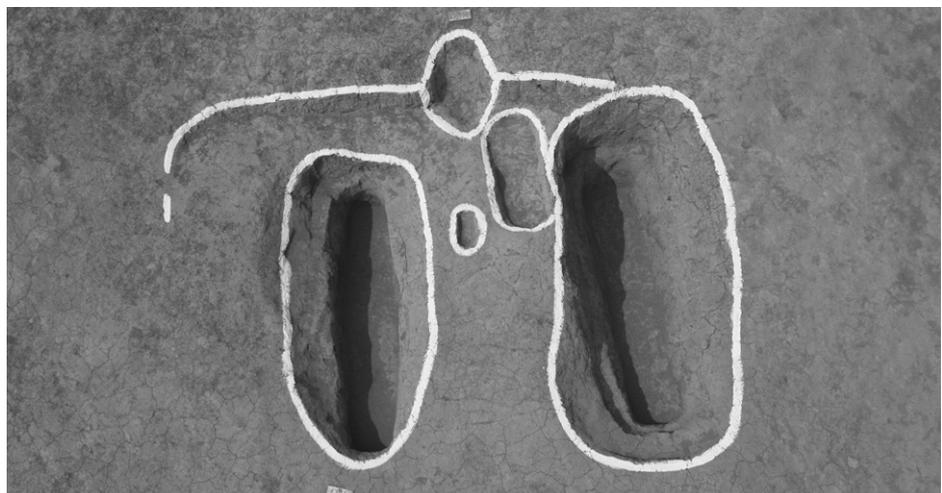


[잔존높이 2.8cm, 복원저경 22.3cm, 두께 0.45~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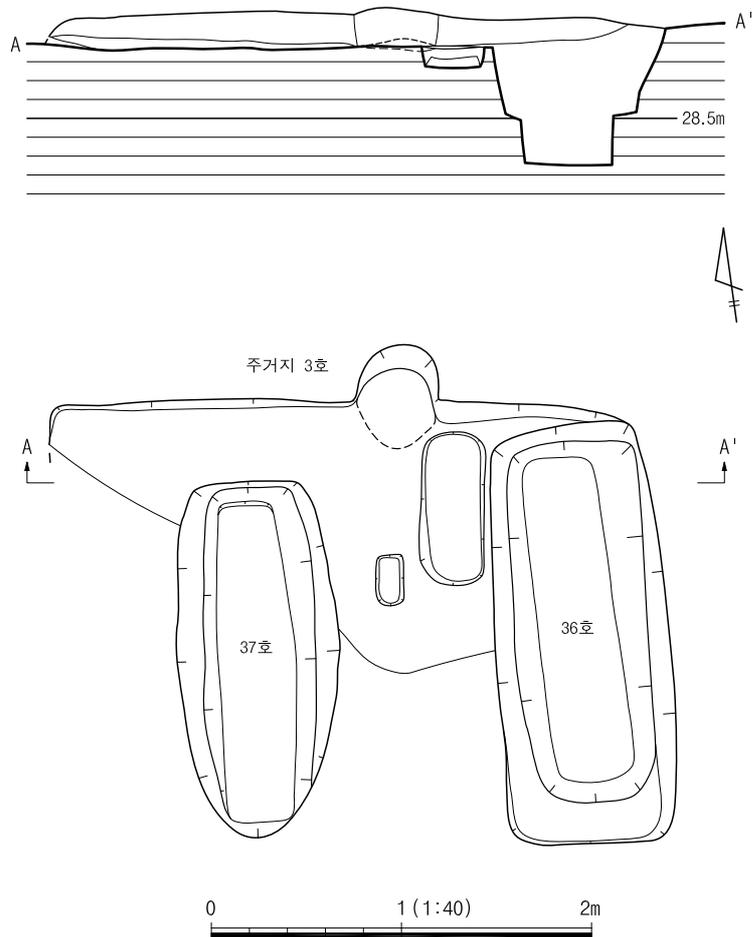
(3) 3號 住居址

① 遺構

구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8.9m 높이에 조성되었다. 표토를 약 10cm 정도 제도하자 북쪽부분에 일부 굴광선이 확인되었으며, 남쪽부분은 36호묘와 37호묘의 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사방향으로 탐색Pit를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북쪽 일부만이 남아있는 조선시대 주거지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방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174cm, 너비 315cm, 깊이 20cm 정도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은 북쪽에 화덕시설과 성격을 알 수 없는 장방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바닥을 4cm 깊이로 파 개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배연구는 북벽 중앙에 지름 40cm 정도의 반원형으로 돌출시켰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6】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조사後 전경



【도면 12】 조선시대 3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 (4) 4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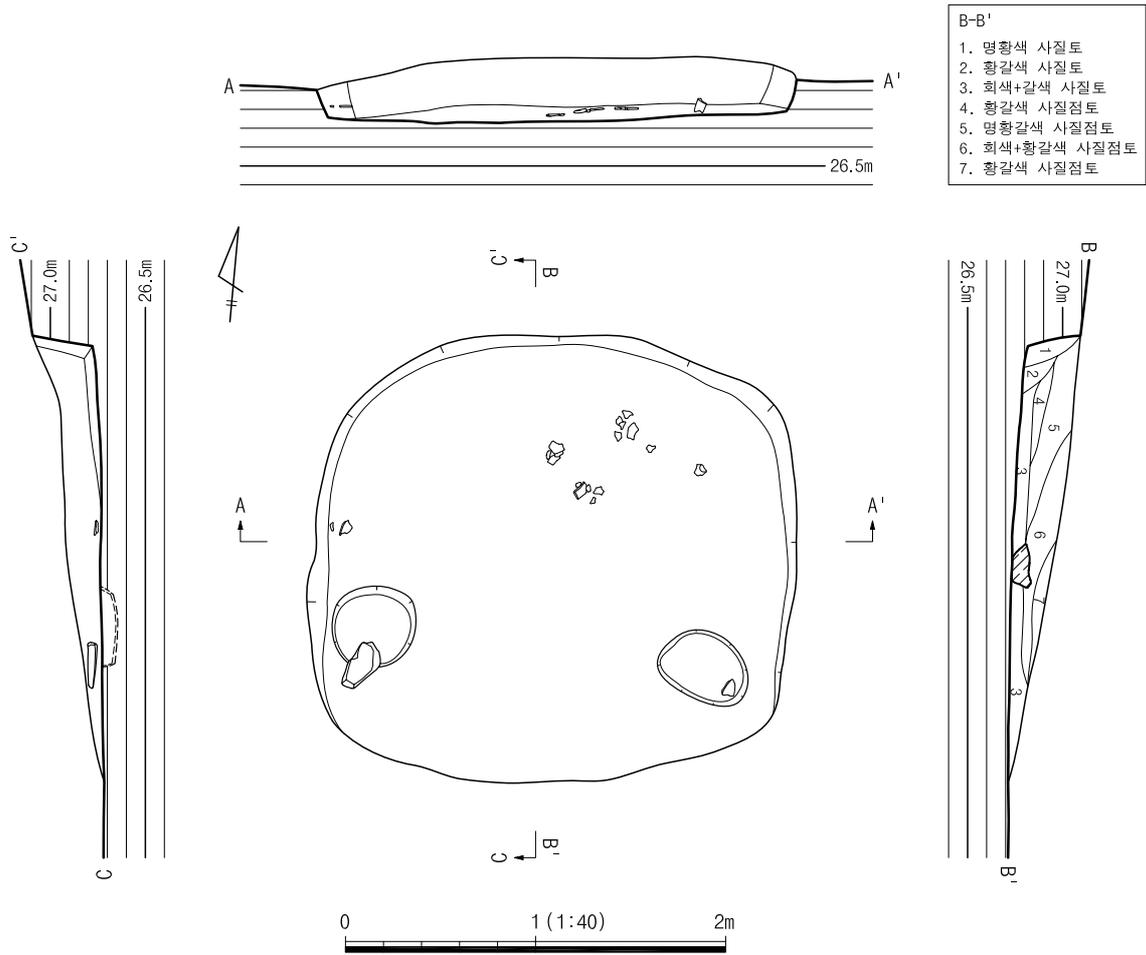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7.1m 높이에 조성되었다. 남쪽으로 약 1.0m 정도 인접하여 5號 住居址가 위치하였으며, 북쪽과 서쪽으로 3~4.0m 떨어져 80號墓와 10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調査前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으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유구의 장축에 맞추어 경사방향으로 탐색Pit를 설치하여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파악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調査結果 내부에 화덕시설이 갖추지 않은 조선시대 주거지로 확인되었다.

住居址는 생토층인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장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37cm, 너비 253cm, 깊이는 34cm 정도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내부시설로는 별도의 화덕시설은 없었으며, 남쪽에 약 130cm의 간격을 두고 柱孔 2개소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형태는 다소 부정형한 형태로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지

름 40cm 내외이고, 깊이는 4cm 정도로 낮게 남아있었다. 遺物은 주거지 북쪽부분에 집중되어 백자 저부편, 토기 뚜껑편이 수습되었다.



【도면 13】 조선시대 4호 주거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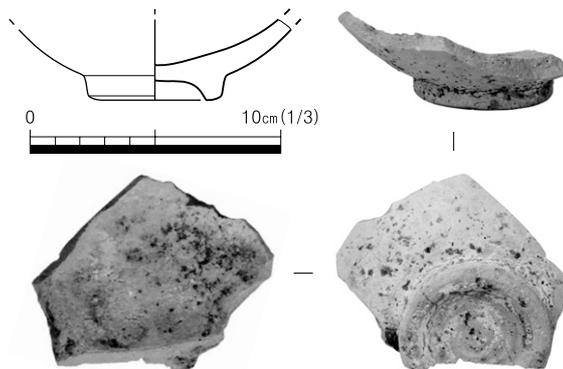
【사진 17】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종토층



【사진 18】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② 遺物 (일련번호 2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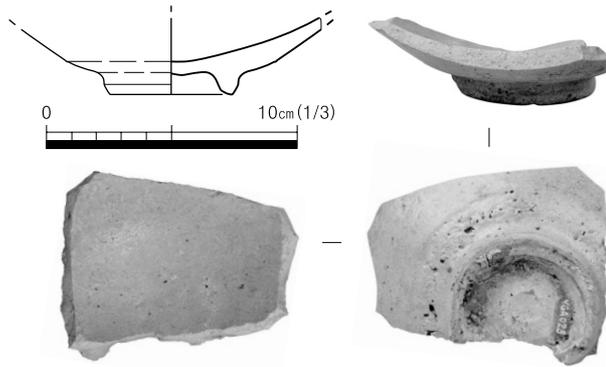
28. 황갈색을 띠는 白磁 底部片이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외면에는 희미하게 마디가 표현되었다. 굽 접지면은 너비 0.5cm로 넓고, 바깥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쪽은 나선형으로 돌려 깎았다. 유약은 전체적으로 시유되었으나, 외면은 시유상태가 불량하여 유색이 고르지 못한 편이다. 굽 주변에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28

[잔존높이 3.2cm, 저경 5.2cm, 두께 0.6~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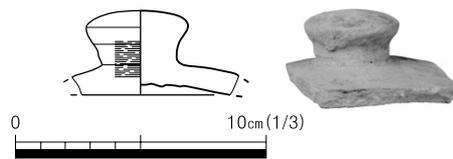
29. 운백색을 띠는 白磁 접시의 底部片으로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넓게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바닥에서 1.0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 외면에는 마디가 표현되었다. 굽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굽 접지면의 안쪽이 들려 있다. 굽 안쪽은 나선형으로 돌려 깎았으며, 중앙에 솟아 오른 부분을 깎아 마무리하였다. 유약은 굽 접지면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29

[잔존높이 3.0cm, 저경 4.8cm, 두께 0.4~.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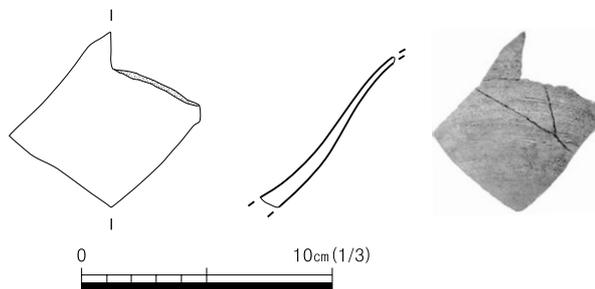
30. 회청색을 띠는 土器 뚜껑편으로 身部 일부와 꼭지가 잔존하였다. 재질은 硬質이며, 태토는 가는 석영과 운모가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꼭지는 신부의 상부 중앙에 구멍을 뚫은 후 단추형 꼭지를 부착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30

[잔존높이 3.3cm, 꼭지높이 1.9cm, 두께 0.8~2.9cm]

31. 청녹색을 띠는 粉靑沙器 대접의 胴體片으로 내면은 귀얄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회백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곡선의 형태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외반시켜 구연부를 성하였다. 유약은 전면에 잘 시유되어 있다.



31

[잔존길이 6.9cm, 두께 0.2~0.8cm]

## (5) 5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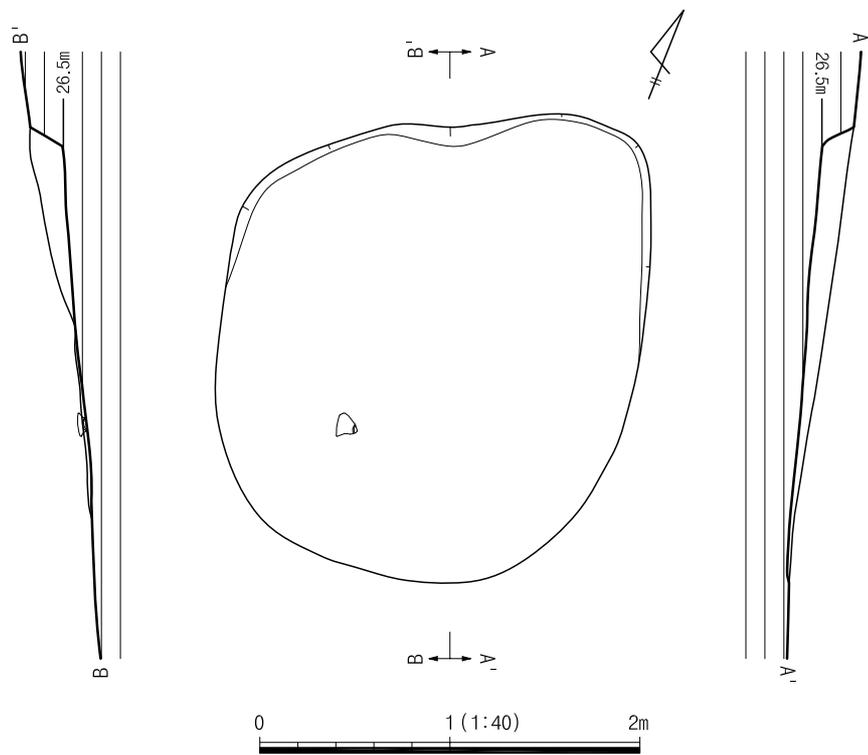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인접한 거리에 4號 住居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으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에 맞추어 경사방향으로 탐색Pit를 설치하여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파악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없었으나 평면형태 등 인접한 4號 住居址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朝鮮時代 住居址로 판단되었다.

住居址는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경사면 아래부분은 유실되어 다소 부정형한 형태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241cm, 너비 219cm, 깊이 18cm 정도이다. 바닥은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에서 화덕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백자 대접편 1점만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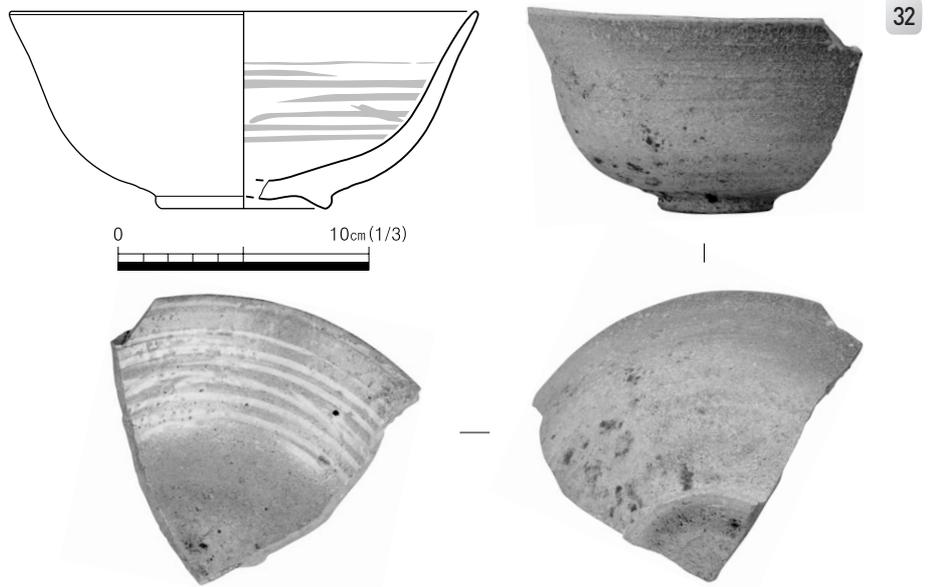
【사진 19】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 및 종토층



【도면 14】 조선시대 5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② 遺物 (일련번호 32)

32. 녹회색을 띠는 粉靑沙器 대접으로 기형의 1/4정도가 잔존하였으며, 외면 일부는 시유되지 않아 보다 밝은 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底部에서 둥글게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部를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벽 내면에는 6조의 針線을 돌린 후 백토분장하여 장식하였으나 형태가 정연하지 못하며, 내저면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높이 0.5cm로 낮게 조성하였으며, 외면에는 마디가 표현되었다. 굽 안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성형하였다. 유약은 기벽 일부와 굽 안쪽을 시유하지 않아 시유상태가 다소 불량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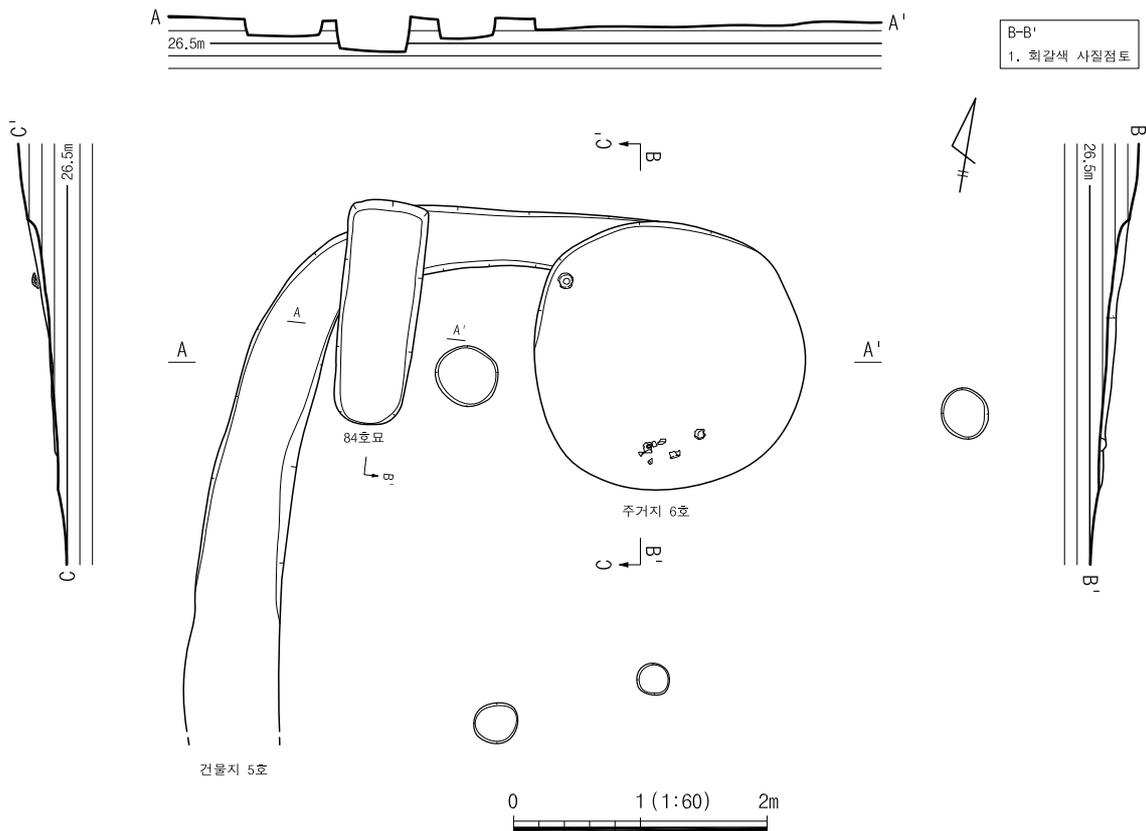
[복원구경 18.1cm, 높이 7.8cm, 복원저경 6.6cm 두께 0.3~1.1cm]

## (6) 6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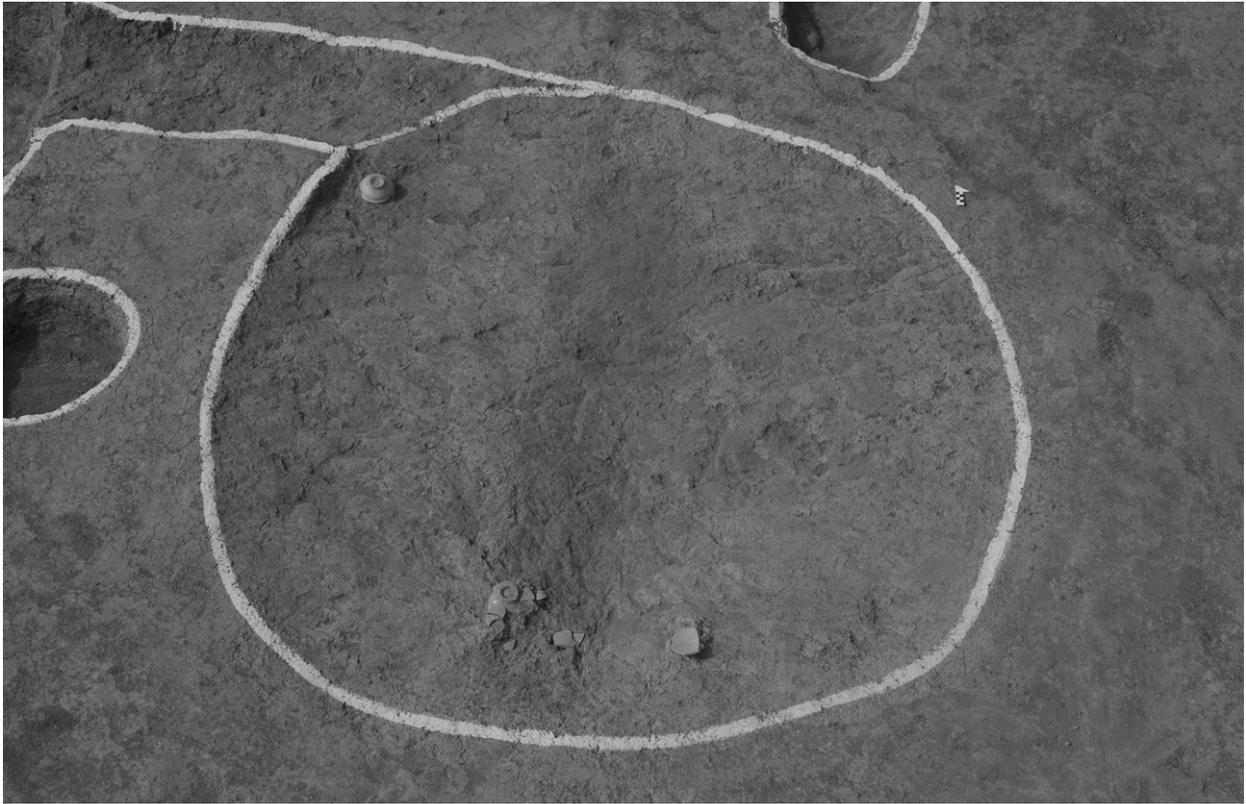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8m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동쪽으로 5.1m 정도 떨어져 4號와 5號 住居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으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에 맞추어 경사방향으로 탐색Pit를 설치하여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파악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상부구조와 경사면 아랫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내부에서 화덕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평면형태와 규모 등 4·5호 주거지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朝鮮時代 住居址로 판단되었다.

住居址는 생토층인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도면 15】 조선시대 6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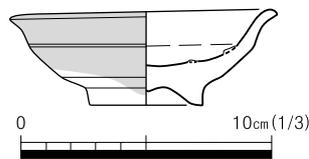


【사진 20】 조선시대 6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으로 원형에 가까우며, 잔존규모는 길이 212cm, 너비 214cm, 깊이 6cm이다. 벽면은 약하게 사선을 이루며, 바닥은 남쪽으로 경사져 있었다. 遺物은 백자 접시와 대접 저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② 遺物 (일련번호 33~35)

33. 운백색을 띠는 白磁 접시로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다가 급하게 꺾여 구연부에 이르며, 단부를 그대로 외반시켜 口緣部를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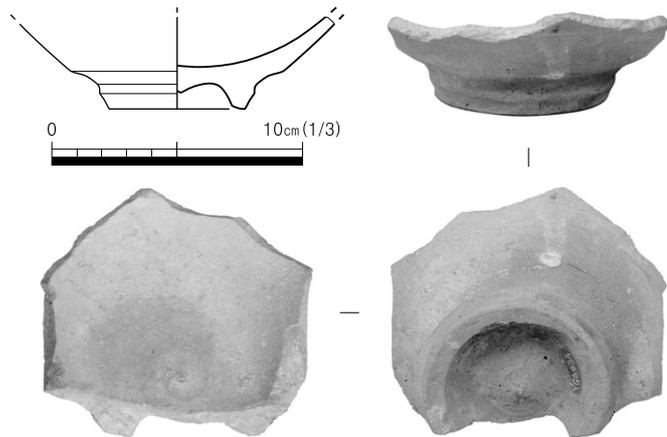


처리하였다. 器壁 내면에는 지름 7.2cm의 내저원각을 희미하게 표현하였으며, 내저면

은 중앙이 살짝 솟아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외면은 바닥에서 약 1.0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중앙이 솟아 있다. 굽 접지면은 안쪽이 들려 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구경 10.0cm, 높이 3.8cm, 저경 4.4cm, 두께 0.4~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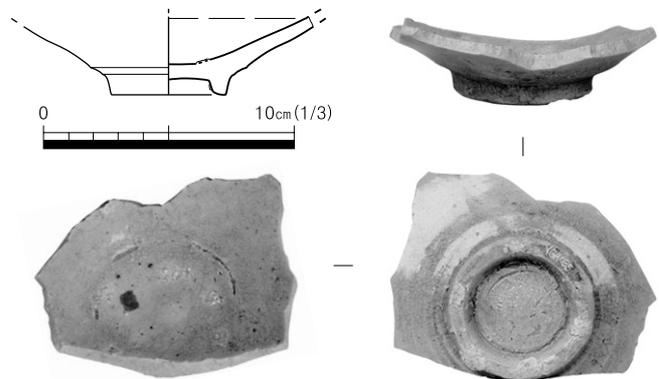
34. 회갈색을 띠는 白磁 대접의 底部片으로 유약의 시유상태가 좋지 않아 굽 주변은 갈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나선형으로 마무리하여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거의 수직을 이루며, 외면은 바닥에서 약 1.5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기면이 깊이 파여 있으며, 굽 외면에는 마디가 형성되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았으며, 중앙이 높게 솟아 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6cm이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유약의 시유상태는 불량하다.



34

[잔존높이 3.6cm, 복원저경 5.5cm, 두께 0.5~1.0cm]

35. 밝은 청녹색을 띠는 白磁 접시 底部片으로 일부 갈색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급하게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편평하다. 굽은 높이 0.7cm로 낮은 편이며, 약간 내경을 이룬다. 외면은 바닥에서 약 0.8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 접지면의 너비



35

는 0.5cm로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쪽 바닥은 편평한 편으로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높이 3.1cm, 저경 4.7cm, 두께 0.3~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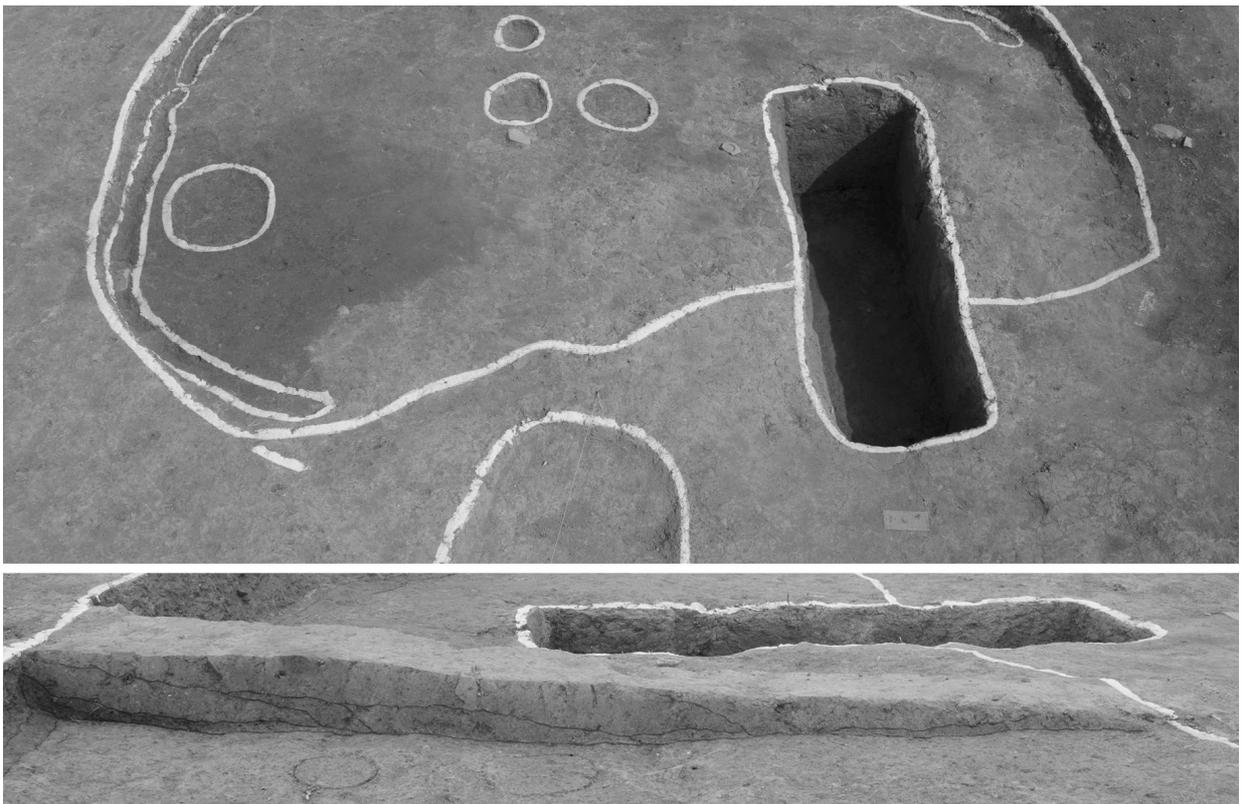
## (7) 7號 住居址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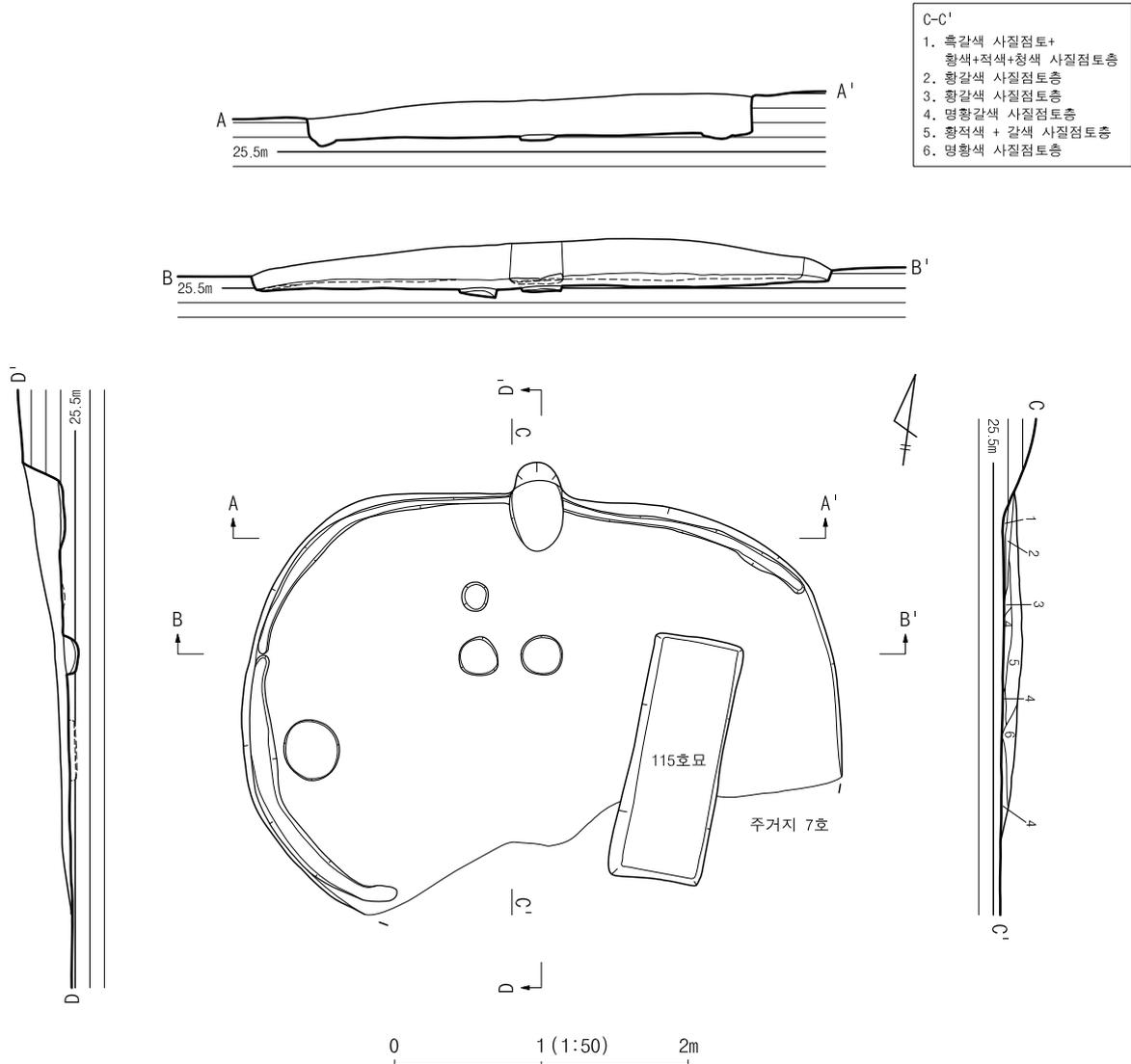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부인 해발고도 25.8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반원형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115號墓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남쪽에는 11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장축에 맞추어 경사방향으로 탐색Pit를 설치하여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를 파악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북쪽부분에서 간단한 화덕시설을 갖춘 朝鮮時代 住居址로 확인되었다.

住居址는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거의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이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262cm, 너비 396cm, 깊이 22cm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로는 화덕시설과 일부 柱孔 흔적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북벽 중앙에



【사진 21】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조사 後 전경 및 종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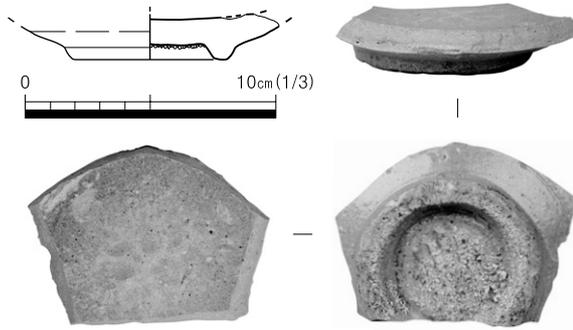


【도면 16】 조선시대 7호 주거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설치하였는데, 붓돌과 이맛돌 등은 모두 유실된 상태로 바닥은 미약하게 굴착한 개자리만 남아있었다. 화구는 1개소로 추정되며, 배연구는 지름 24cm 정도의 반원형으로 돌출시켰다. 燒結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공은 주거지 중앙과 동쪽에서 4개소 정도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깊이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遺物은 주공 주변에서 백자 저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36)

36. 회백색을 띠는 白磁 底部片으로 녹색빛이 감돈다. 내저면과 굽 안쪽 바닥은 편평한 편이다. 굽은 높이 0.4cm로 상당히 낮게 성형하였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6cm이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내저면에는 태토반침이 굽 접지면에는 모래반침 흔적이 남아 있다. 유약은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잔존높이 1.8cm, 저경 6.0cm, 두께 0.7~0.9cm]

## 2) 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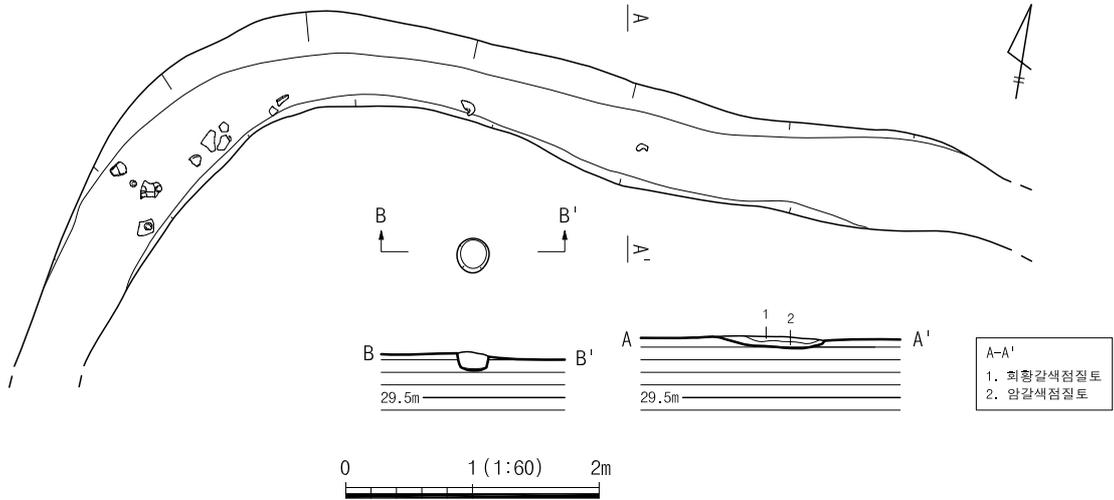
### (1) 1號 建物址

#### ① 遺構

조사지역 중앙인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었으며, 해발고도 30.0m 높이에 위치하였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배수로와 일부 주공이 확인되어 건물지로 추정되었다. 조사는 건물지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판단되어, 배수로와 주공에 대한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사진 22】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조사 중 전경도면 17. 조선시대 1호 건물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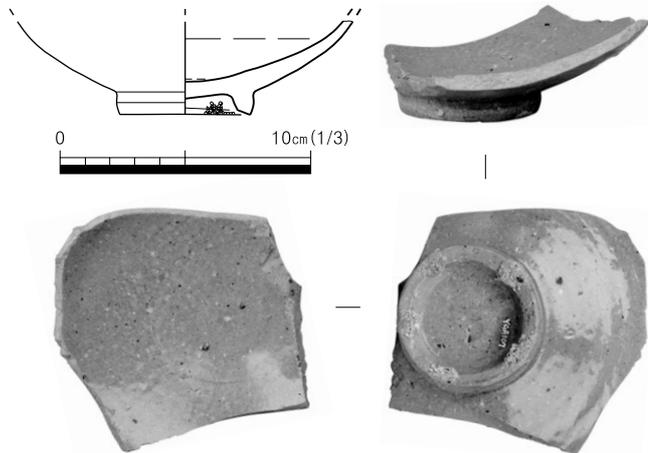
【도면 17】 조선시대 1호 건물지 토층 및 평·입단면도

建物址는 대부분 삭평되어 정확한 구조와 규모는 알 수 없었다. 잔존규모는 남북 길이 약 2.6m, 동-서 너비 약 6.0m 정도이다. 排水路는 건물지 경사면 위쪽에 ‘.’ 형태로 잔존하였다. 너비는 약 60~80cm 정도이며, 단면은 ‘U’ 자형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점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柱孔은 서쪽과 동쪽에서 약 4.5m 정도 떨어져 각각 1개소와 2개소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서쪽의 경우 지름 24cm, 동쪽은 40cm 정도 내외이다.

遺物은 배수로 내에서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 백자 저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3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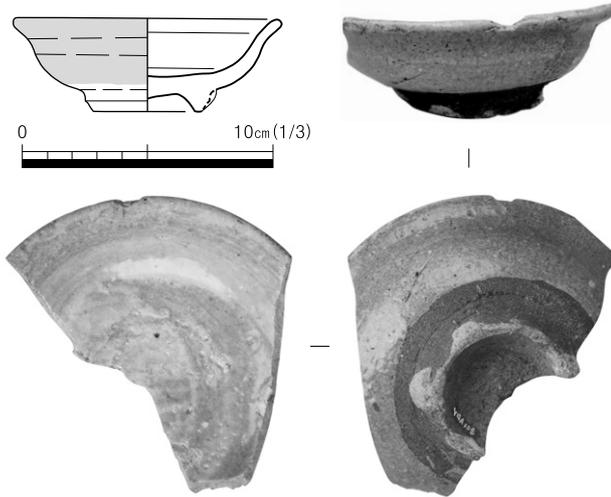
37. 녹회색을 띠는 粉靑沙器 대접의 底部片으로 기벽 일부와 저부가 잔존하였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內底面은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외면에 마디가 표현되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5cm로 안쪽이 들려 있으며, 굽 안바닥은 편평한 편이다. 굽 주변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다.



37

[잔존높이 3.7cm, 저경 5.0cm, 두께 0.3~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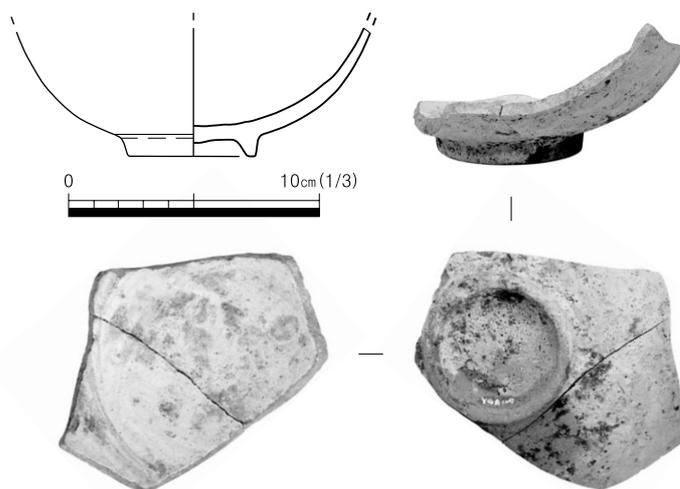
38. 진한 회백색의 粉靑沙器 접시 底部片으로 기형의 1/3정도 잔존하였다. 內面은 귀얏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보다 밝은 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곡선의 형태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외반시켜 구연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저면은 편평하다. 굽은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굽 접지면을 0.2cm로 좁게 성형하였으며, 외면에는 마디를 표현하였다. 굽 안쪽 바닥은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 접지면에는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38

[복원구경 10.2cm, 높이 3.6cm, 저경 4.3cm, 두께 0.4~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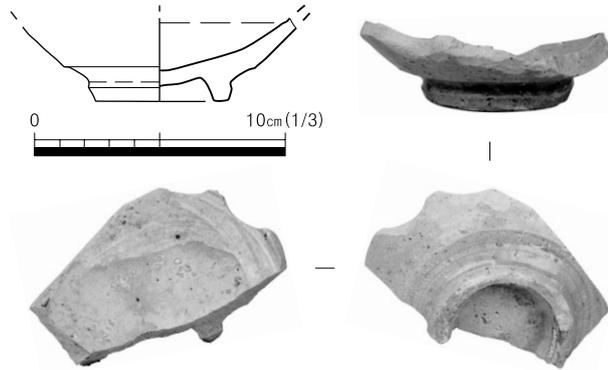
39. 밝은 청회색 粉靑沙器 대접의 底部片으로 외면은 열게 갈색빛을 띠며, 내면은 귀얏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회백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구형태로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대체로 편평한 편이다. 굽은 수직을 이루며,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cm로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바닥은 편평하다. 유약은 외면의 경우 거의 시유되지 않아 불량한 반면 내면은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39

[잔존높이 5.1cm, 저경 5.0cm, 두께 0.3~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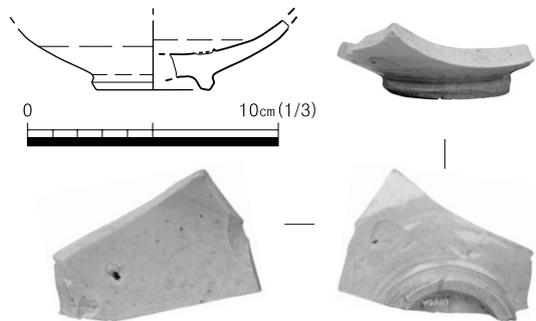
40. 밝은 청녹색의 粉靑沙器 底部片으로 내면은 귀얄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일부 백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바닥에서 약 1.1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여 기벽이 깊게 파여 있으며, 굽 외면에는 마디를 표현하였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2~0.5cm로 일정하지 않으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바닥은 중앙이 불룩하게 솟아 있다. 굽 접지면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40

[잔존높이 3.3cm, 저경 5.2cm, 두께 0.5~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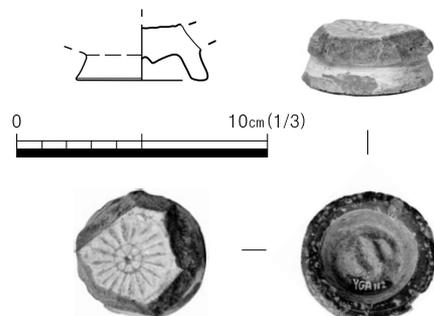
41. 푸른빛이 감도는 운백색의 白磁 底部片이다. 器壁은 저부에서 바라져 오르며, 내저면은 편평하다. 굽은 죽절굽의 형태로 외면에 마디를 표현하였으며,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cm로 안쪽이 들려 있다. 내저면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41

[잔존높이 2.75cm, 복원저경 2.4cm, 두께 0.4~0.9cm]

42. 粉靑沙器 底部片으로 백토 분장에 의해 회백색과 녹회색을 띠고 있다. 내저면에는 菊花文은 押印한 후 백토분장하여 장식하였다. 굽은 외경을 이루며, 굽 접지면의 너비는 0.6cm로 안쪽이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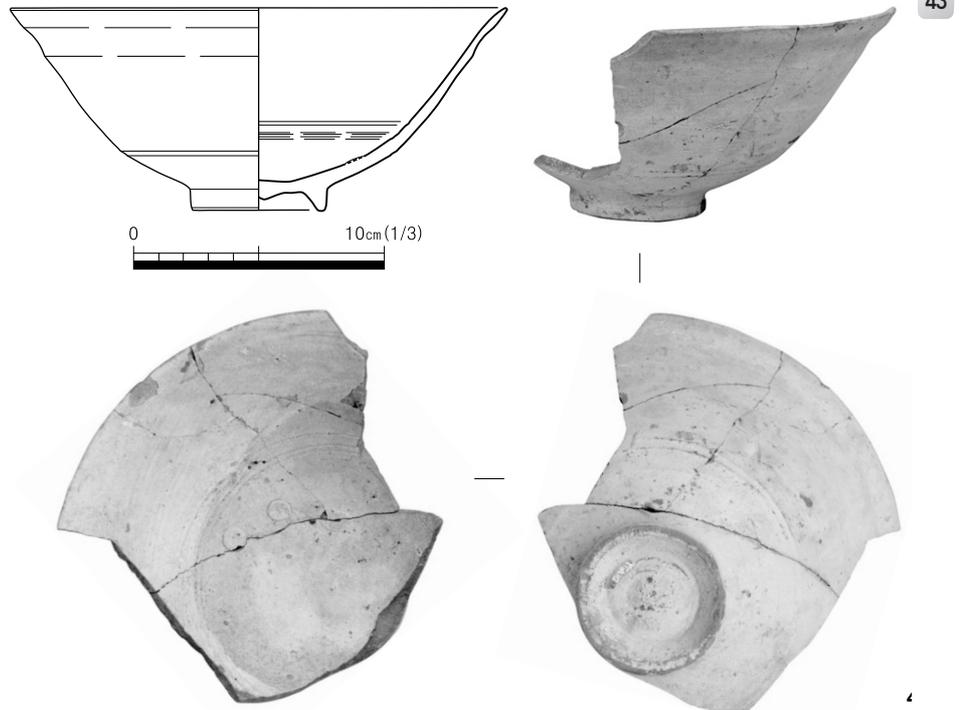


42

짜 들려 있다. 굽 안바닥은 불룩하게 솟아 있다. 유약의 시유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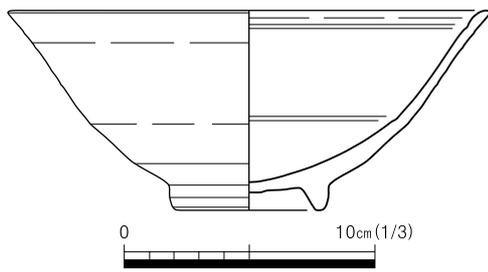
[잔존높이 2.2cm, 저경 5.1cm, 두께 1.1~1.45cm]

43. 회백색 粉靑沙器 대접으로 기형의 3/1정도가 잔존하였다. 내면은 회청색을 띠며, 상부는 귀얄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백색이다. 器壁은 底部에서 넓게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약간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뽕족하게 처리하였다. 내저면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내면 중하부에 3조의 針線을 돌려 장식하였다. 굽은 바닥에서 1.5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외면에 희미하게 마디를 표현하였다. 굽 안쪽은 나선형으로 돌려 깎았으며, 바닥은 중앙이 불룩하게 솟아 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3cm로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유약은 거의 시유되지 않았으며, 내면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복원구경 19.3cm, 높이 8.0cm, 저경 5.2cm, 두께 0.25~0.75cm]

44. 녹색빛이 감도는 회백색 粉靑沙器 대접으로 내면이 보다 짙은 색을 띠고 있다. 器壁은 底部에서 넓게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약간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뽕족하다. 기벽 외면은 면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내면 상부와 중하부에 각각 1줄의 침선을 돌려 장식하였다. 내저면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바닥에서 1.3cm 높이부터 돌려 깎았으며, 굽 외면에 미약하게 마디를 표현하였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cm로 안쪽이 들려 있으며, 굽 안쪽 바닥은 중앙이 불룩하게 솟아 있다. 유약은 전면에서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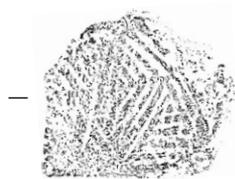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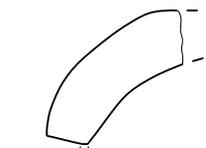


44



[복원구경 18.6cm, 높이 7.9cm, 저경 5.8cm, 두께 0.35~0.9cm]

45. 회청색 수키와편으로 재질은 硬質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과 운모가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背面에는 굵은 단사선문을 교차하여 시문하였으며, 측면은 와도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 0.5cm 깊이까지 그어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와도분할선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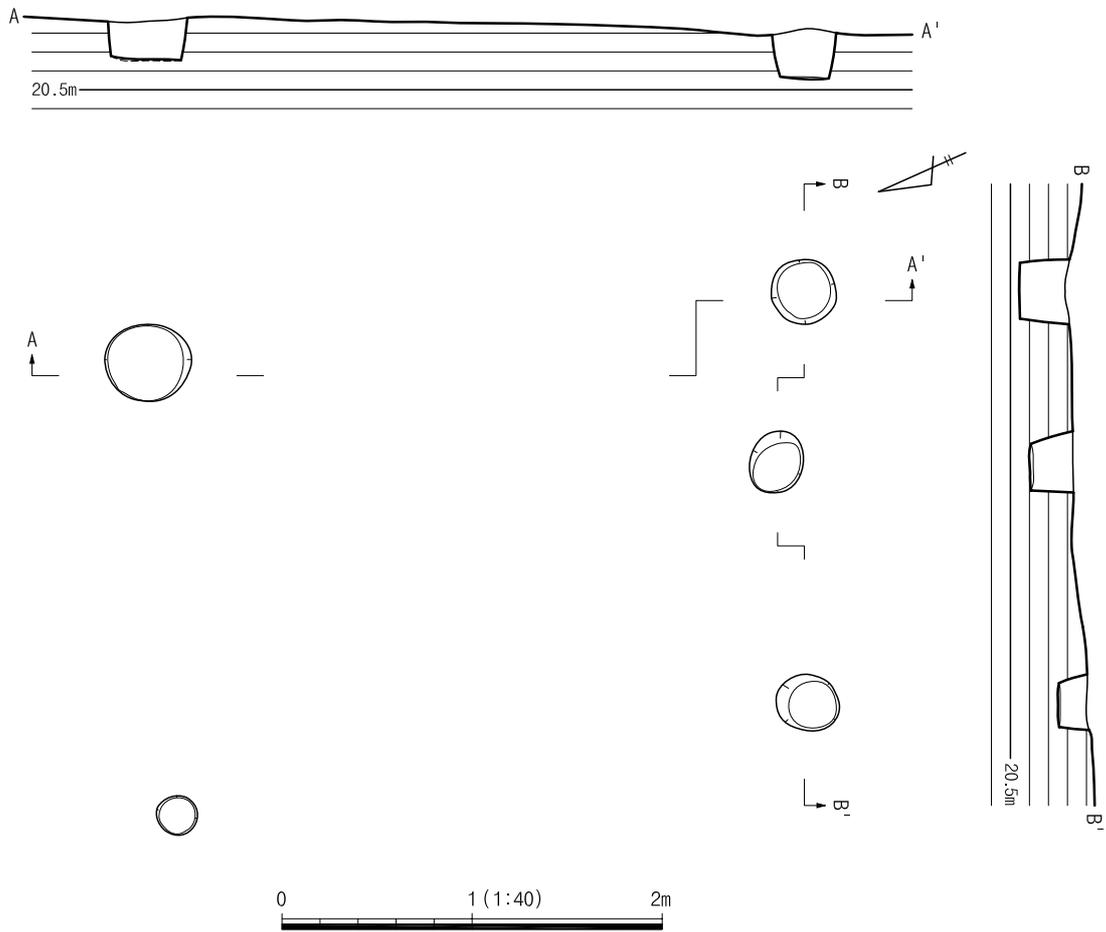
45

[잔존길이 7.5cm, 잔존너비 5.7cm, 두께 1.9~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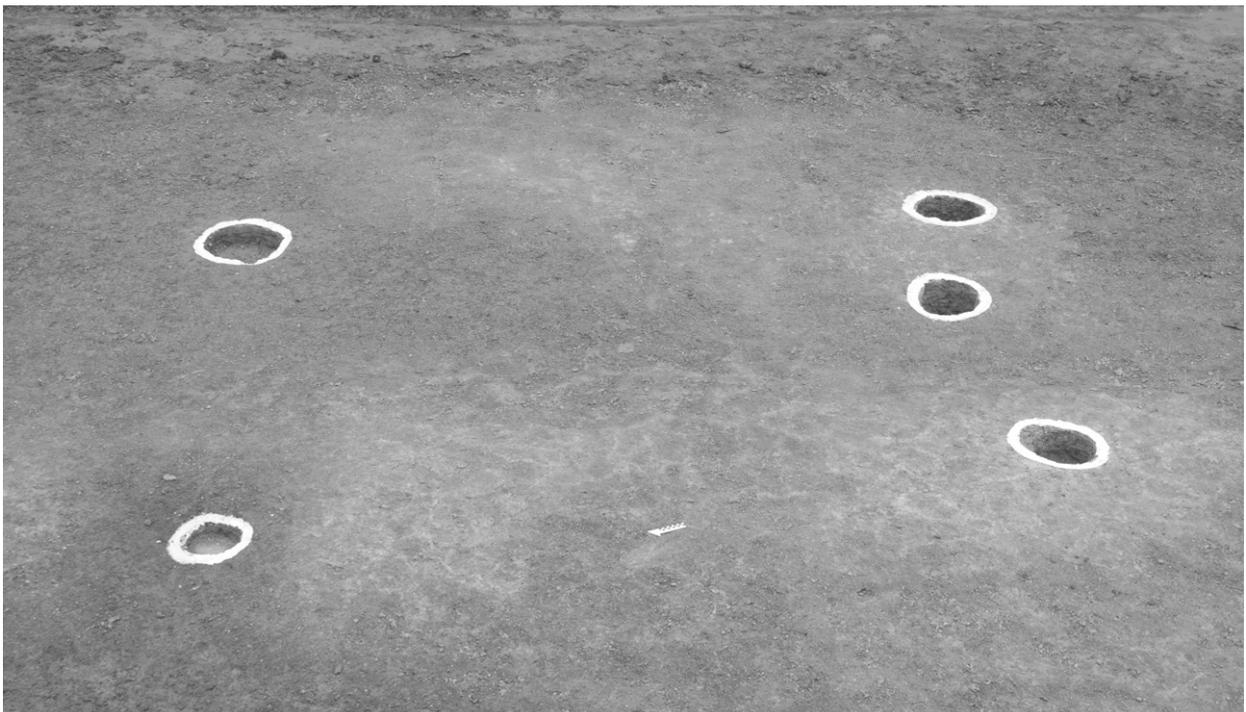
(2) 2號 建物址

① 遺構

조사지역 남동쪽 하단부인 해발고도 20.8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유구의 흔



【도면 18】 조선시대 2호 건물지 평·입단면도



【사진 23】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조사 後 전경

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20cm 정도 제토하자 주공들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변에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과 유구가 없어 주공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였으며, 출토된 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었으나 주변 유구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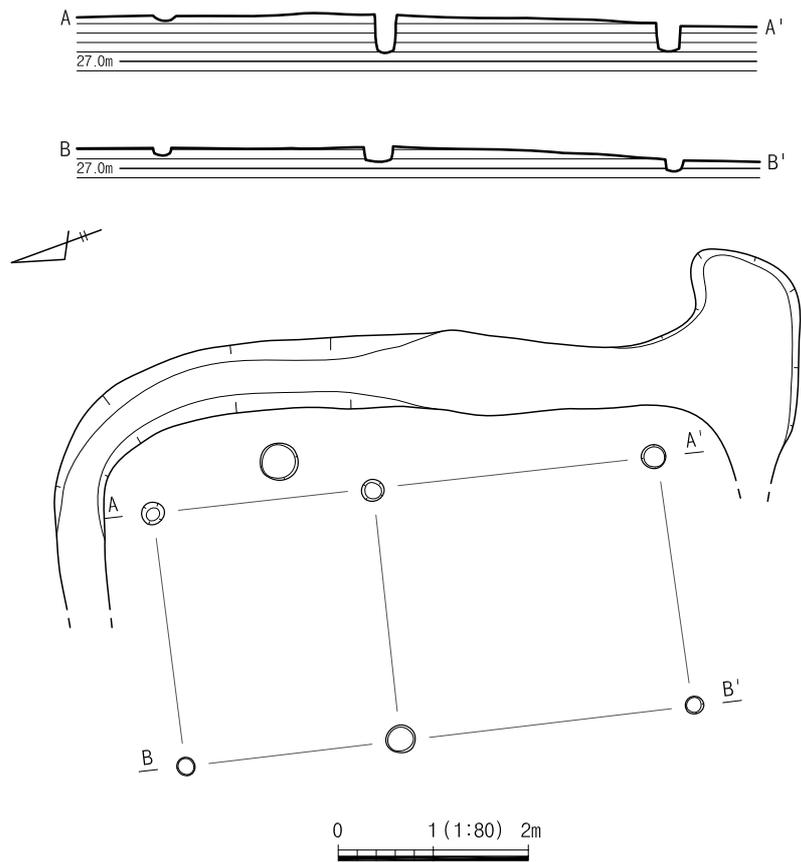
建物址의 잔존규모는 남북 길이 3.5m, 동-서 너비 2.3m로 정면 1칸, 측면 1칸만이 확인되었다. 柱孔은 평면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20~45cm 내외이며, 내부에는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3) 3號 建物址

#### ① 遺構

조사지역의 동쪽에 단독으로 위치하였으며, 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7.3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20cm 정도 제토하자 배수로와 주공열이 확인되어 건물지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는 기단과 같은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배수로와 주공에 대한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建物址는 황갈색 고토양층을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도면 19】 조선시대 3호 건물지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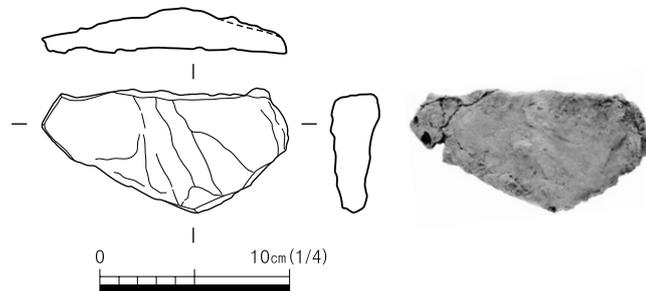


【사진 24】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

1칸으로 남-북 길이 약 5.4m, 동-서 너비 2.7m 정도이며, 방향은 서향이다. 柱孔은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20~30cm 정도이고 깊이는 5~40cm까지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정면 주공은 2.3~3.0m의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排水路는 건물지 경사면 위쪽에 평면 ‘~’ 자 형태로 조성하였다. 규모는 너비 50~80cm 정도이며, 단면은 ‘U’ 자형이다. 내부에는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遺物은 배수로에서 철기 1점과 형태를 알 수 없는 조선시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46)

46. 철제 보습의 刃部부분 편으로 추정되며, 주조품이다. 단면은 삼각형으로 背面 중앙이 일직선으로 솟아 있으며, 바닥은 편평하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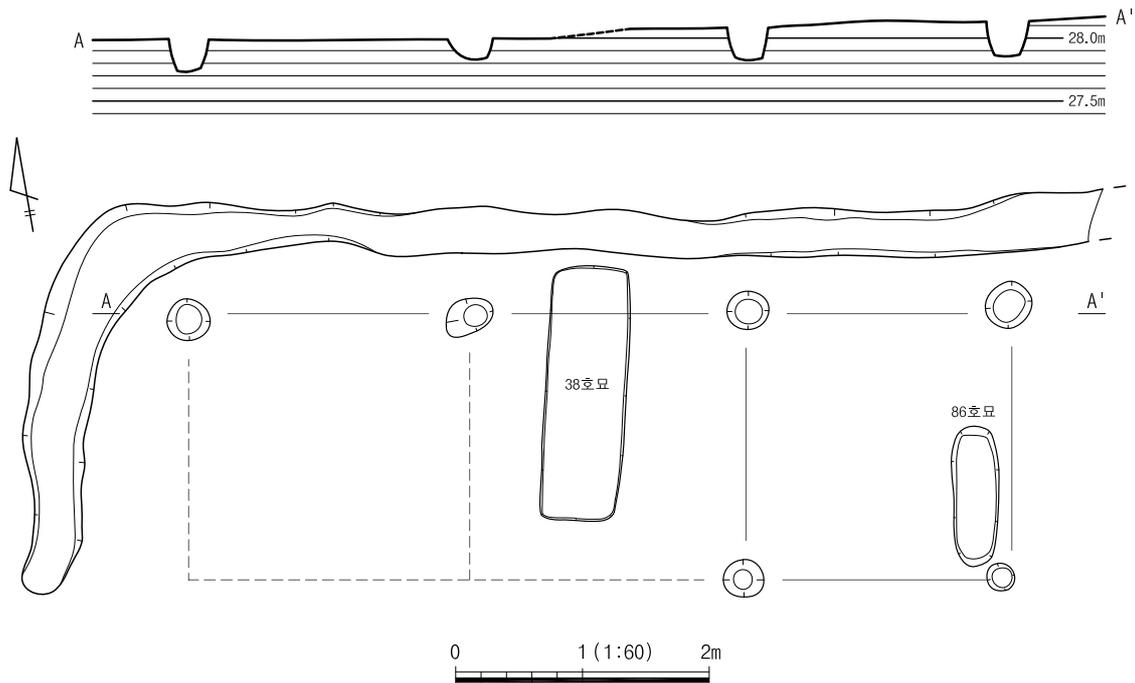
[잔존길이 6.6cm, 잔존너비 13.0cm, 두께 0.7~0.25cm]

#### (4) 4號 建物址

##### ① 遺構

발고도 28.4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으로 북쪽에 2號와 3號 住居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25cm 정도 제토하자 배수로와 주공열이 확인되어 건물지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경사면 아랫부분은 유실된 상태였으며, 건물지 내부에는 38號墓와 41號墓가 조성되어 있어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건물지의 기단과 같은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탐색Pit 없이 배수로와 주공에 대한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建物址는 황갈색 고토양층을 'L' 자형으로 굴광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다. 건물지의 잔존규모는 동-서 길이 6.4m, 남-북 너비 2.1m이며, 정면 3칸 측면 1칸이 남아있었다. 방향은 남향이다. 柱孔은 모두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20~34cm이며, 깊이는 15~20cm 정도 남아있었다. 정면의 기둥은 약 2.1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排水路는 건물지의 경사면 위쪽에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가 '┌' 자형으로 잔존하였다. 규모는 너비 40~58cm 정도이며, 단면은 'U' 자형을 이루었다. 내부에는 적갈색과 명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도면 20】 조선시대 4호 건물지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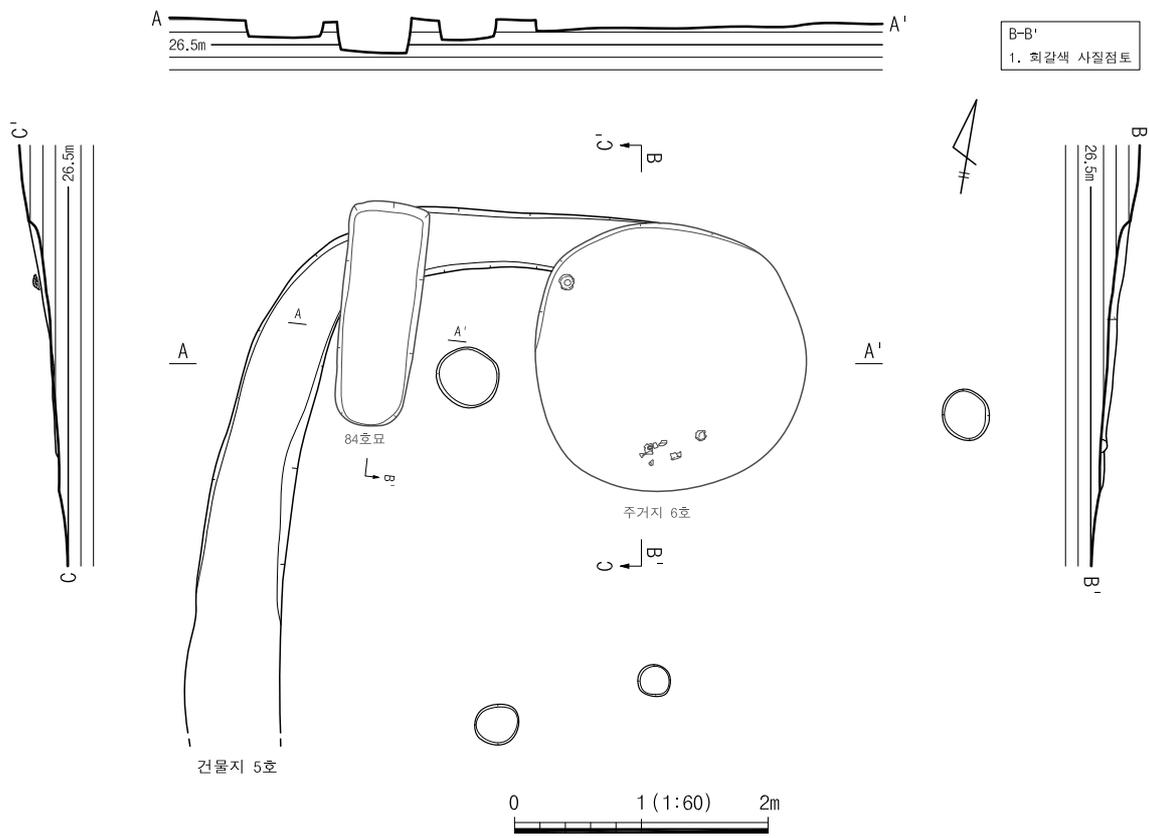
【사진 25】 조선시대 4호 건물지 조사 後 전경

#### (5) 5號 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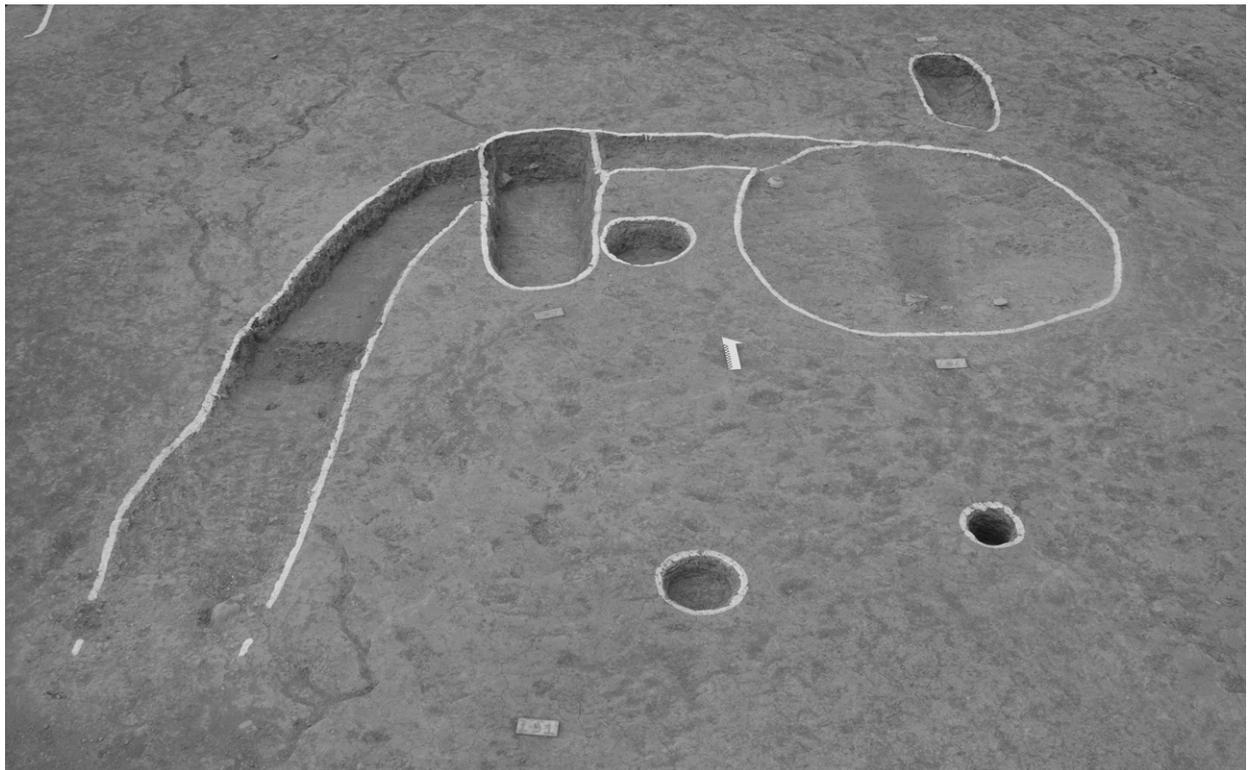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8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건물지 동쪽으로 4號와 5號 住居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배수로와 일부 주공이 확인되어 건물지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경사면 아랫부분과 동쪽부분이 심하게 유실된 상태였으며, 84號墓와 6號 住居址에 의해 주공과 배수로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이에 조사는 별도의 탐색Pit를 설치하지 않고 배수로와 주공에 대한 조사만을 진행하였다.

建物址는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다. 建物址의 잔존규모는 동-서 길이 약 2.7m, 남-북 너비 약 1.8m 정도이며, 잔존상태로 보아 최소 정면 2칸 측면 1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방향은 남향이다. 주공은 원형으로 규모는 17~32cm 정도이다. 排水路는 건물지의 경사면 위쪽에 ‘┌’ 자형으로 잔존하였으며, 규모는 너비 30~45cm로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에 적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도면 21】 조선시대 5호 건물지 평·단면도



【사진 26】 조선시대 5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

### 3) 溝狀遺構

溝狀遺構는 모두 7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북쪽 남서사면에 2기(1·2호), 남쪽 남서사면에 5기(3~7호)가 각각 조성되었다.

1·2호 구상유구의 평면형태는 경사면을 기준으로 ‘┌’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체로 2호 구상유구는 다소 불규칙하게 굴광하였다. 1호 구상유구는 남쪽 끝부분이 넓게 벌어지면서 타원형의 형태를 띠며, 주위에서 주공들이 확인되었다. 일부 주공의 경우 뚜렷한 기둥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존재하며, 내부 상면에 할석이 놓여 있는 예도 확인되었다. 또한 경사면 위쪽에는 길이 2.0m 내외의 다른 구가 조성되어 있었다. 1호 구상유구의 규모는 너비 40cm 내외며, 단면은 ‘U’자형이다. 주공의 규모는 지름 10~30cm 정도로 다양하며, 배치상에 있어 정형성을 찾기 어려웠다.

2호 구상유구의 규모는 너비 80~220cm 정도로 정연하지 않으며,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구 내부에는 암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2호 구상유구의 깊이가 보다 깊은 편이었다.

조사지역 남쪽에 조성된 구상유구는 모두 5곳에서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인 평면상에서는 3호 구상유구에서 7호 구상유구까지 연결하면 구릉 남향사면 일대를 ‘┌’자 형태로 조성한 형태이다.

가장 상부에 위치한 3·4·5호 溝狀遺構는 북동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대체로 3호와 5호 구상유구는 서로 연결되는 반면 4호 구상유구는 3호 구상유구와 나란하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으며, 중간부분에서 3호 구상유구와 연결되었다. 연결되는 부분에는 깊이 5cm 내외의 수혈이 조성되어 있었다.

6號 溝狀遺構는 평면형태가 ‘┌’자로 꺾이는 형태로 5호와 7호 구상유구는 연결하는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구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으며, 경사면 아래쪽으로 경사지도록 조성하였다. 7號 溝狀遺構는 경사방향을 따라 일직선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6호 구상유구와 유사하게 경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어져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았다. 주변에 주공과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3~7號 溝狀遺構의 규모는 동-서 길이 35m, 남-북 길이 65m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단면은 모두 ‘U’자형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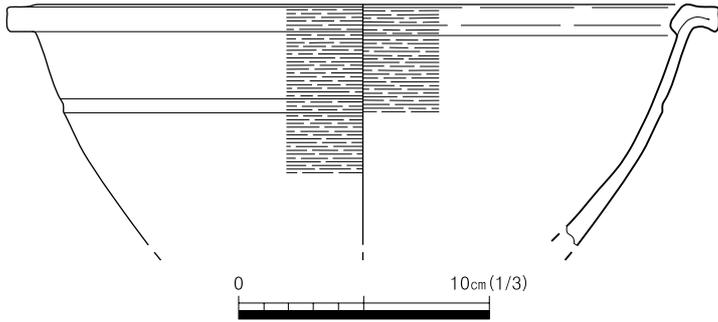
조사지역에서 조사된 구상유구 중 유물이 출토된 곳은 1호와 6·7호 구상유구 뿐으로 조선시대 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나머지 구상유구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호 구상유구의 경우 1호 구상유구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평면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거의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3~6호 구상유구의 경우에도 7호 구상유구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1) 溝狀遺構 出土遺物

##### ① 1號 溝狀遺構 出土遺物 (일련번호 47~49)

47. 진한 회청색 결질소성의 자배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가는 석영과 운모가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동체 외면에는 0.5cm 간격의 침선을 1조 돌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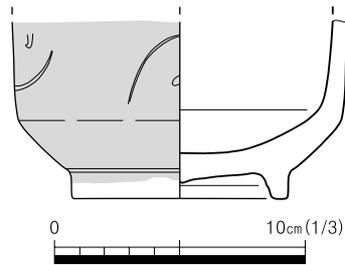
내면에는 동심원문의 내박자 흔적이 남아있다. 구연은 동체 단부를 말아 성형하였다. 구순은 'Σ' 자 형태이며, 상부도 물손질 정면에 의해 깊게 파여있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47

[잔존높이 9.5cm, 복원구경 28.0cm, 두께 0.4~0.8cm]

48. 운백색의 靑華白磁 底部片으로 기형은 甁 또는 壺로 추정된다. 내면은 보다 진한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넓게 바라지다가 급하게 꺾어 수직으로 오르며, 外面에 靑華를 그렸으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內底面은 편평한 편이며, 청화로 원문을 그리고 그 가운데 문양을 그려 넣었다. 굽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바닥에서 2.0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다. 器壁과 굽 사이에 얇은 흠이 형성되었다. 굽 접지면은 0.3~0.5cm로 일정하지 않으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 바닥은 중앙이 볼록하게 솟아 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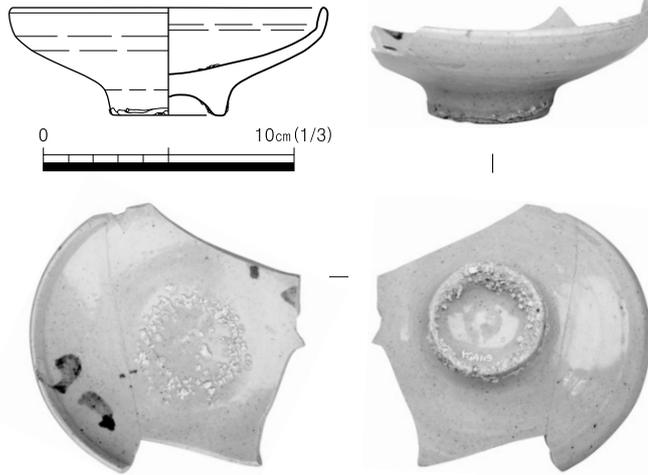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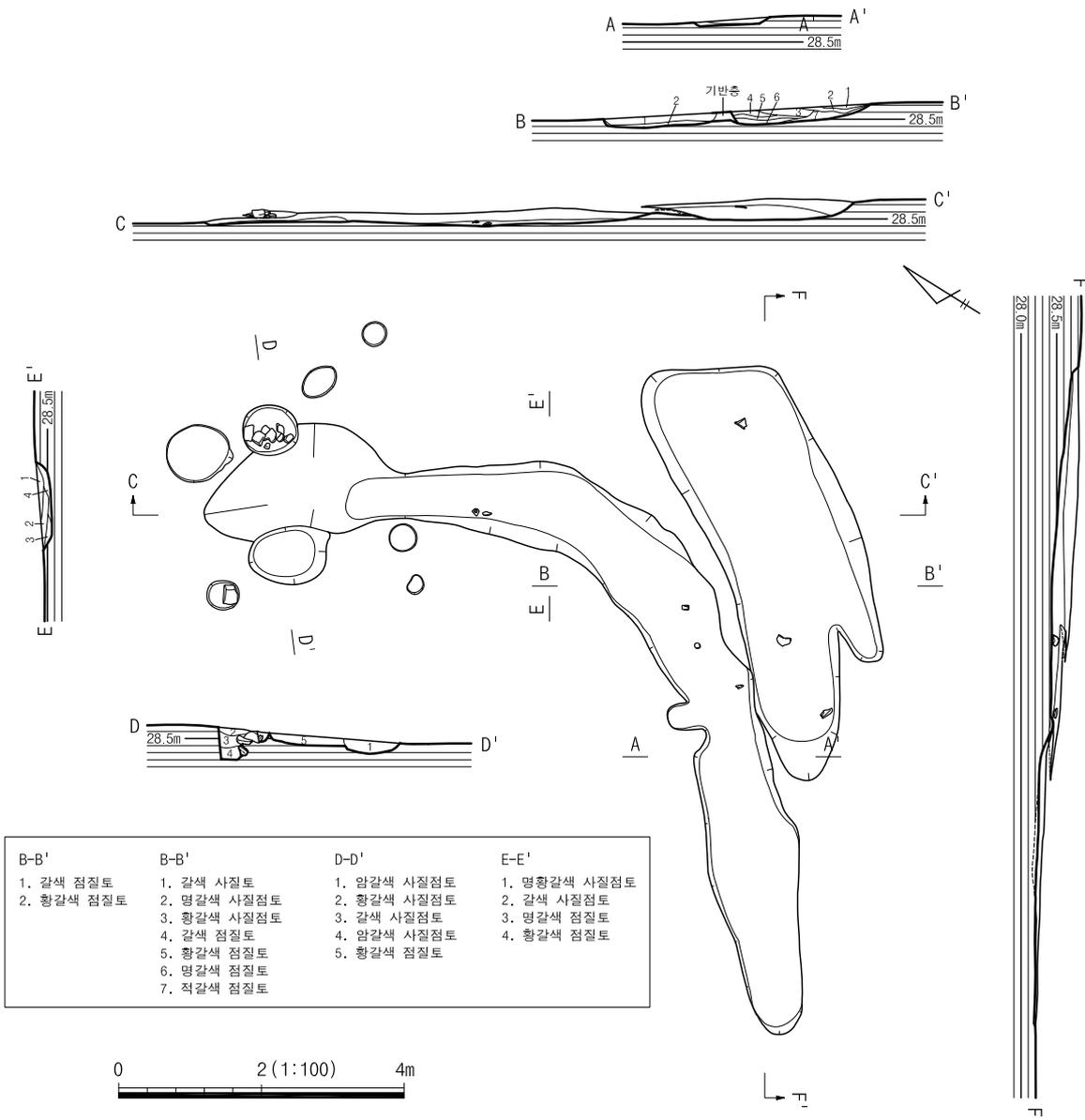
[잔존높이 7.1cm, 복원저경 8.3cm, 두께 0.6~1.5cm]

49. 진한 회백색을 띠는 白磁 접시로 열게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바라져 오르다가 단부를 급하게 꺾어 올려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기면이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저면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구연과 기벽 경계에 1조의 침선을 돌려 장식하였다. 내면에 철화로 문양을 그렸으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굽은 오목굽으로 외면은 잘 정돈되었으며, 외면은 한번에 돌려 깎아 성형하였다. 굽 안쪽 바닥은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2~0.4cm로 일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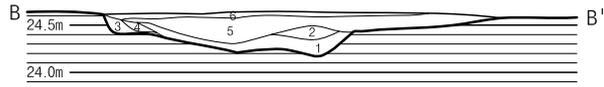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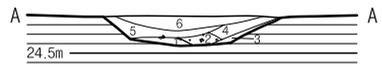
지 않으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유약은 전면에 잘 시유되었으며, 내저면과 굽 주변에 모래받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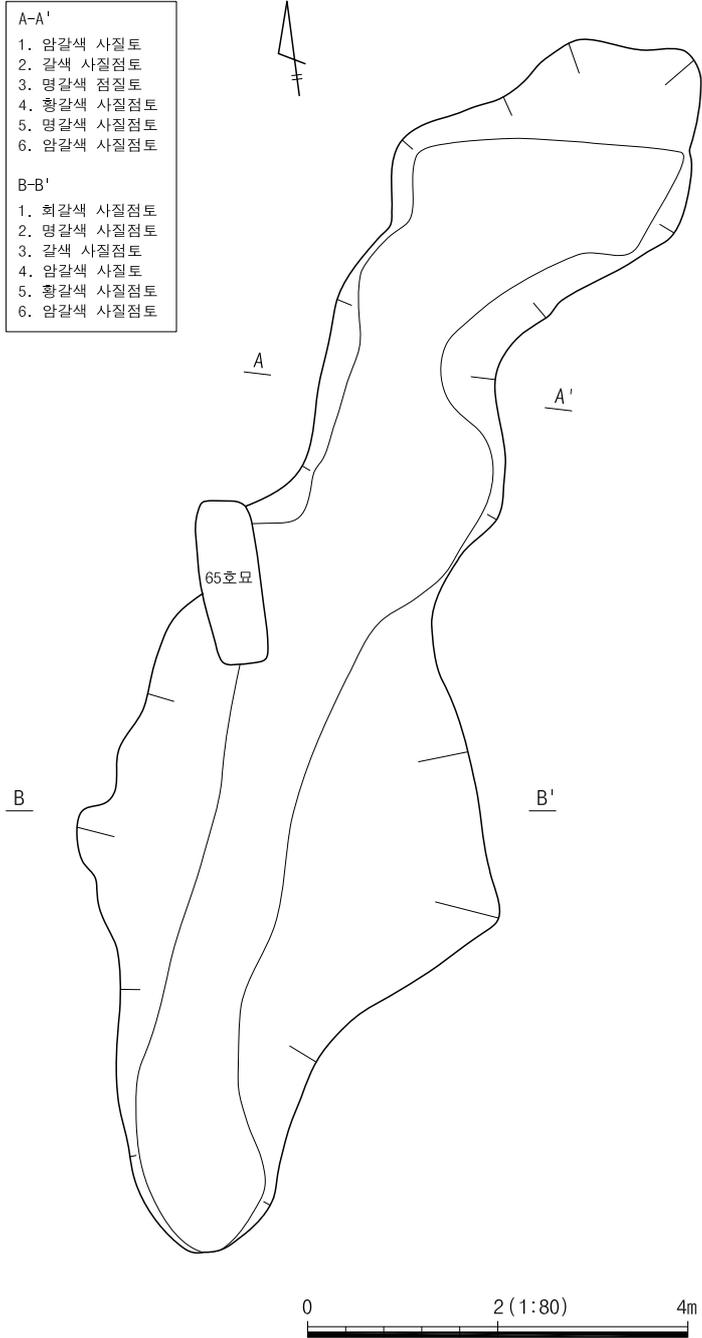
[복원구경 12.2cm, 높이 3.3cm, 저경 4.4cm 두께 0.4~1.0cm]



【도면 22】 조선시대 1호 구상유구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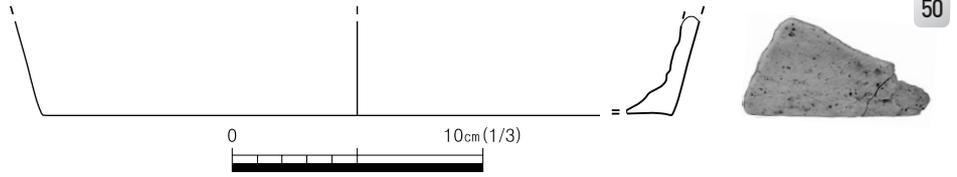
- A-A'
1. 암갈색 사질토
  2. 갈색 사질점토
  3. 명갈색 점질토
  4. 황갈색 사질점토
  5. 명갈색 사질점토
  6. 암갈색 사질점토
- B-B'
1. 회갈색 사질점토
  2. 명갈색 사질점토
  3. 갈색 사질점토
  4. 암갈색 사질토
  5. 황갈색 사질점토
  6. 암갈색 사질점토



【도면 23】 조선시대 6호 구상유구 토층 및 평면도

② 6號 溝狀遺構 出土遺物 (일련번호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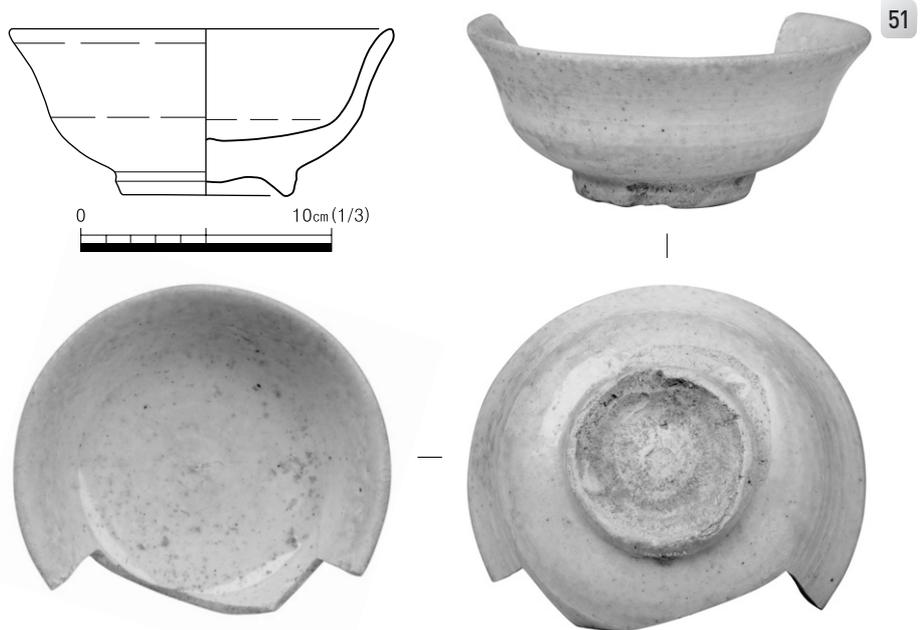
50.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가는 석영과 운모가 혼합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동체는 거의 수직으로 오르며, 저부는 평저이다. 동체 내면은 회전성형하여 굴곡져 있다.



[잔존높이 3.9cm, 복원저경 24.7cm, 두께 0.6~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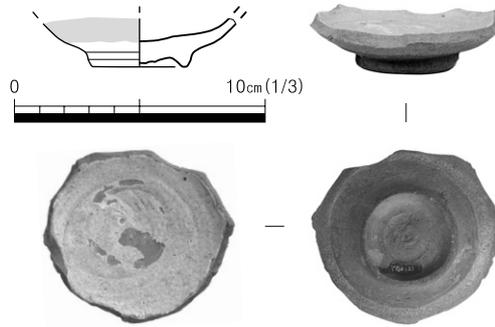
③ 7號 溝狀遺構 出土遺物 (일련번호 51~53)

51. 푸른빛이 감도는 운백색의 白磁 접시로 기벽 일부가 결실되었다. 器壁은 넓게 바라지다가 급하게 꺾어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며, 지름 7.0cm의 內底圓角을 희미하게 표현하였다. 굽은 오목굽으로 외면에는 여러 차례 돌려 깎아 마디가 형성되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2cm로 상당히 좁으며,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아 중앙이 볼록하게 솟아 있다. 유약은 굽 주변에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구경 10.0cm, 높이 4.4cm, 저경 4.5cm, 두께 0.35~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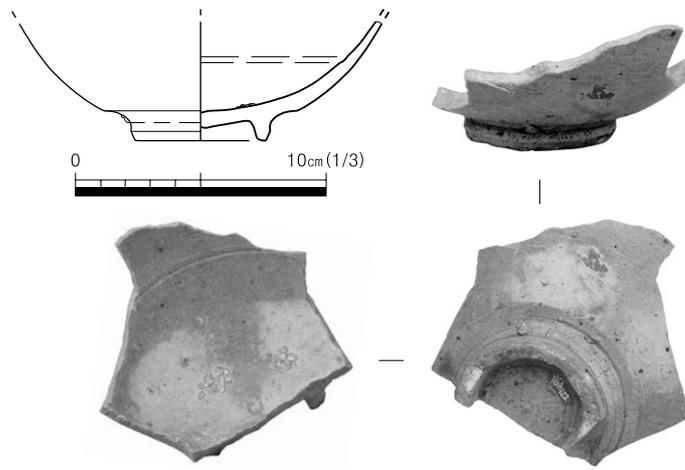
52. 짙은 녹갈색의 粉靑沙器 底部片으로 내면은 귀얄기법으로 백토분장하여 회백색을 띠고 있다. 內底面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굽 안쪽은 나선형의 형태로 돌려 깎았다. 굽 안바닥은 중앙이 볼록하게 솟아 있으며, 굽 접지면의 너비는 1.0~0.3cm로 일정하지 않았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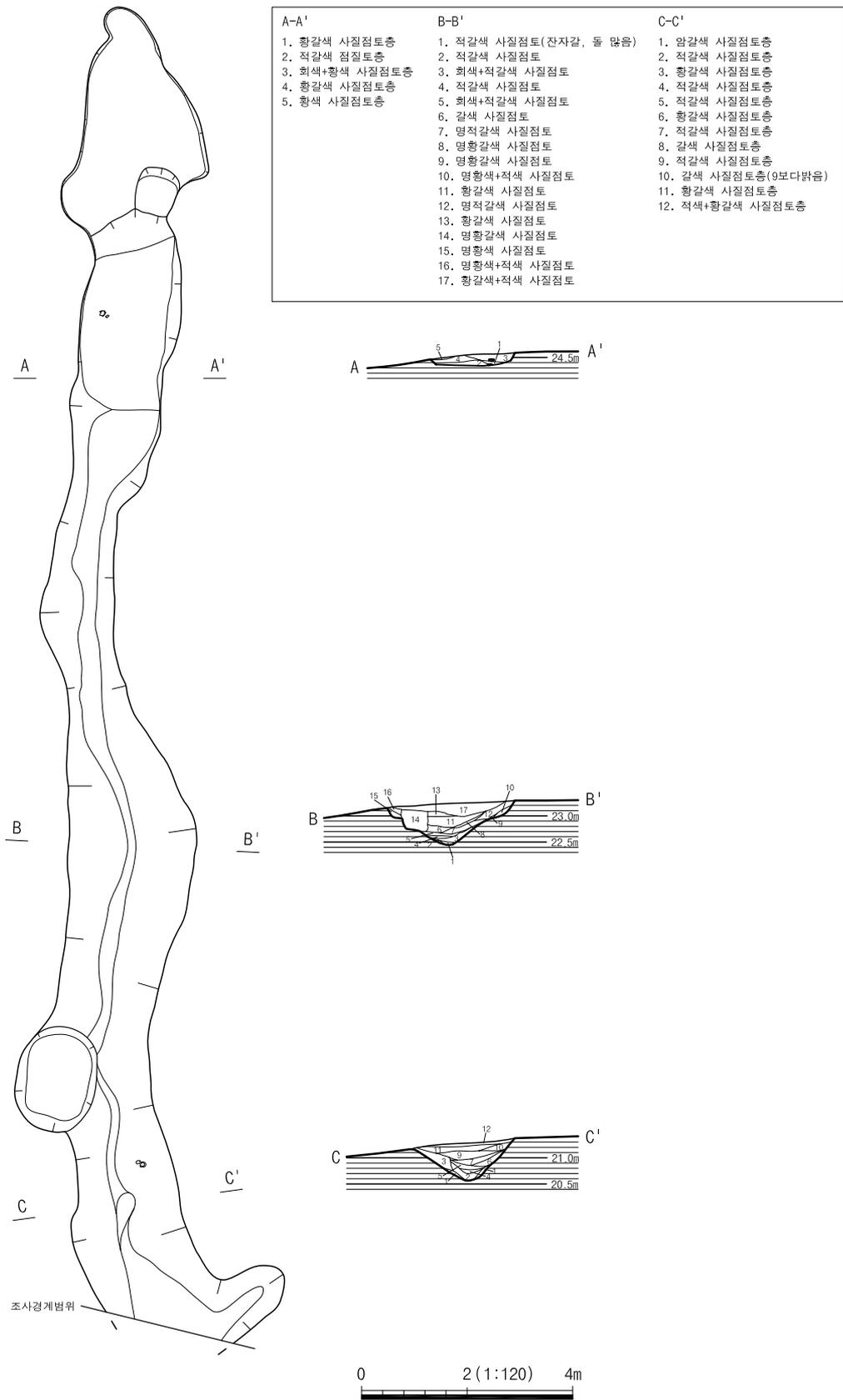
[잔존높이 1.9cm, 저경 3.8cm, 두께 0.4~0.85cm]

53. 녹갈색을 띠는 粉靑沙器 대접의 底部片이다. 器壁은 구형태로 바라져 오르며, 내면에는 1조의 針線을 돌려 장식하였다. 內底面은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바닥에서 1.0cm 높이 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여 기벽이 깊게 파여 있으며, 굽 외면에는 마디를 표현하였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cm로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쪽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중앙이 볼록하게 솟아 있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내저면에 모래를 이용한 태도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53

[잔존높이 4.7cm, 저경 5.1cm, 두께 0.3~0.7cm]



【도면 24】 조선시대 7호 구상유구 토층 및 평면도

#### 4) 墳墓遺構

##### (1) 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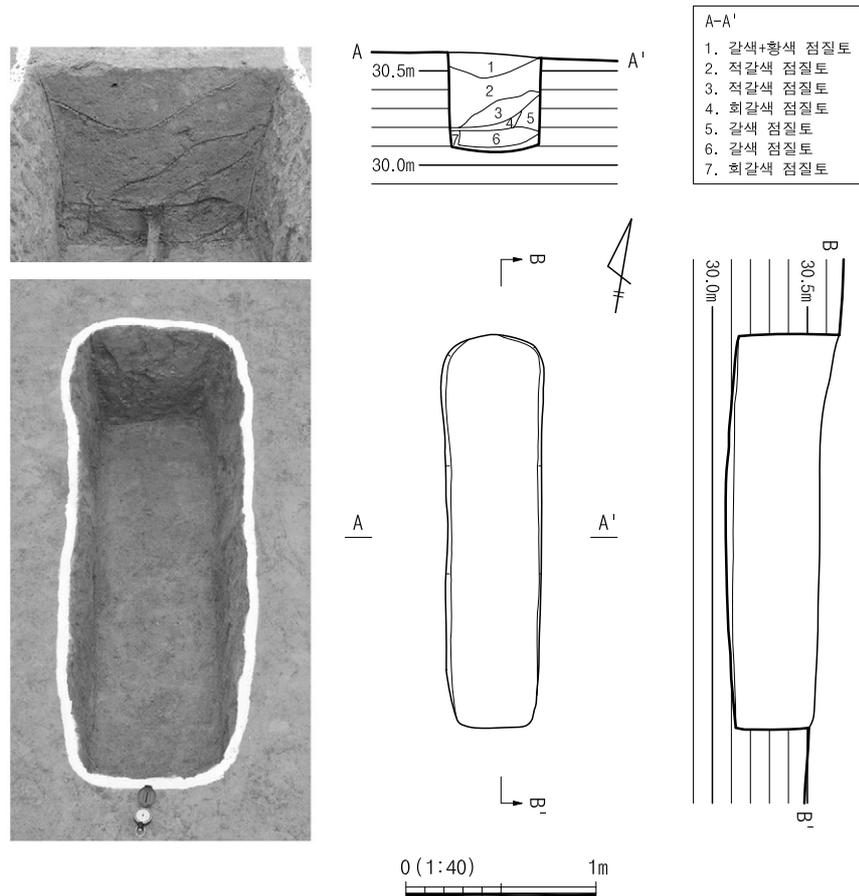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 중앙 정상부인 해발고도 30.5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지표상에서 封墳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흔적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묘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81cm, 너비 48~53cm로 북쪽이 약간 넓은 편이며, 평면형태는 頭廣足狹 형태의 장방형이다. 깊이는 52cm가 잔존하였다. 長軸方向은 N-10°-W로 경사방향과 나란하였다. 바닥은 편평한 편으로 중앙이 약간 들어가 있어 頭部와 足部가 약간 높게 조성된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신을 안치한 후 측면에 회갈색 점



【사진 27】 조선시대 1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25】 조선시대 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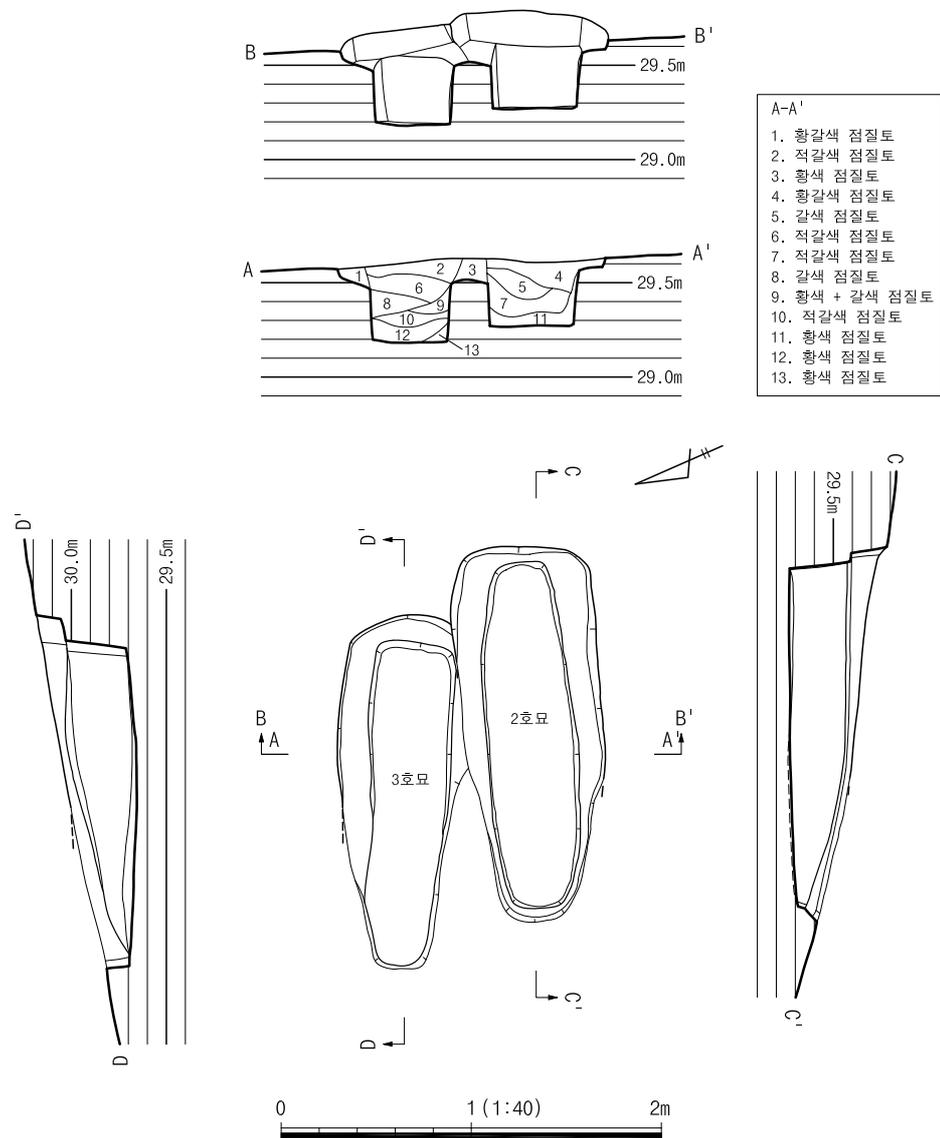
질토를 채우고 그 위에 굴토한 갈색과 적갈색 점질토를 복토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2) 2號墓

###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구릉 정상부인 해발고도 30.0m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3號墓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약 5cm 정도 제거하자 북쪽이 넓은 형태로 묘광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號墓는 二段壙



【도면 26】 조선시대 2호·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式 土壙墓로 경사면 아래쪽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9cm, 너비 73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었다. 長軸方向은 E-24°-S로 경사방향과 나란하다. 內壙은 단벽의 경우 외광에 바로 인접하여 단을 이루는 반면 측벽은 20cm정도 거리의 단을 두고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2cm, 너비 49cm이며, 높이는 31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신을 안치한 후 밝은 황색 점질토를 측면에 채운 후 상부에 굴토된 황색과 적갈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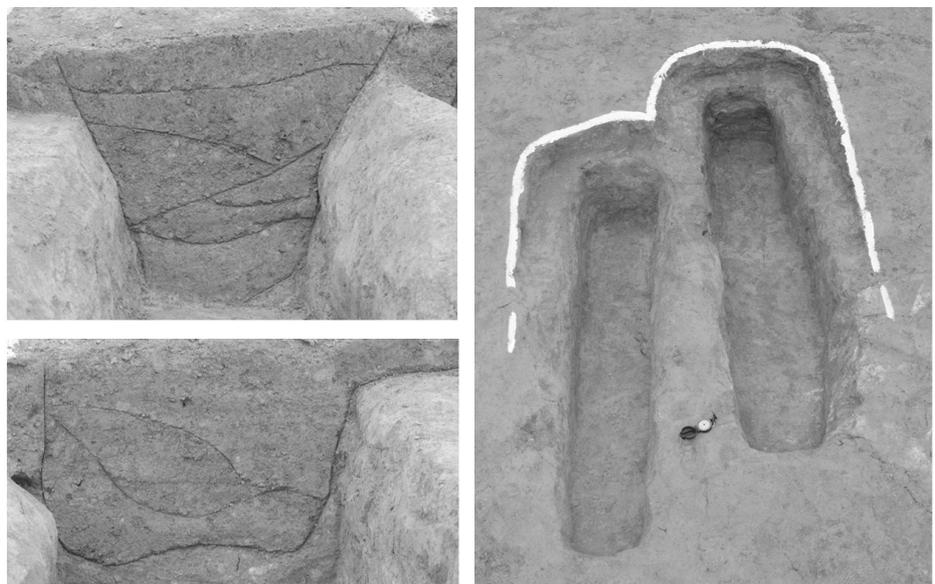
### (3) 3號墓

####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구릉 정상부인 해발고도 30.0m 높이에 2號墓와 중복되어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동남쪽 부분은 2호묘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경사면 아래쪽 상부구조가 유실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墓壙은 남쪽 측벽과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평면형태는 단벽을 약간 등글게 처리한 장방형으로 추정되었다. 잔존하는 규모는 길이 187cm, 너비 68cm이며, 바닥까지의 깊이는



【사진 28】 조선시대 2호·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51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24°-S이다. 內壙은 묘광에서 15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36~44cm로 동쪽이 넓은 頭廣足狹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었다. 바닥은 중앙이 약간 들어가 있는 편으로 頭部쪽과 足部쪽이 약간 높게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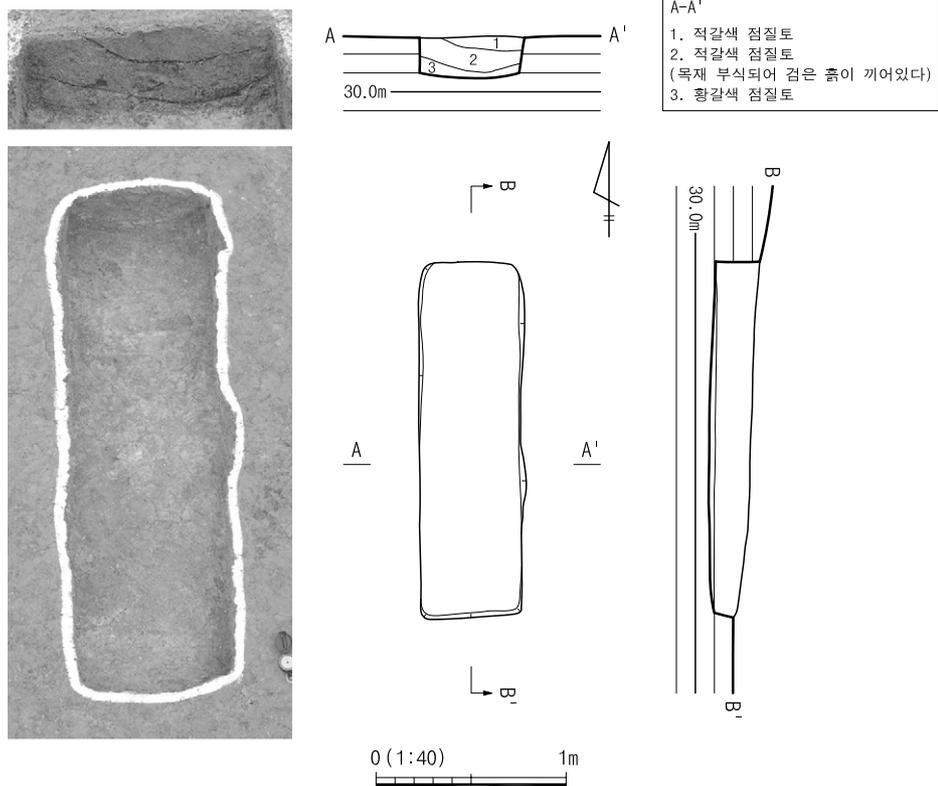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인 확인되지 않았다. 대체로 시신을 안치한 후 측면에 밝은 황색 점질토를 채운 후 상부에 황색과 적갈색 점질토를 덮은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4) 4號墓

#####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구릉 정사부인 해발고도 31.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에 인접하여 5號墓가, 동쪽으로 약 3.6m 거리에 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묘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號墓는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상부의 구조는 알 수 없었으나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사진 29】 조선시대 4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27】 조선시대 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89cm, 너비 55cm, 깊이 22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0°로 정북방향이다. 바닥은 편평한 편으로 頭部쪽인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으며, 일부 목관 관재가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황갈색 점질토와 적갈색 점질토를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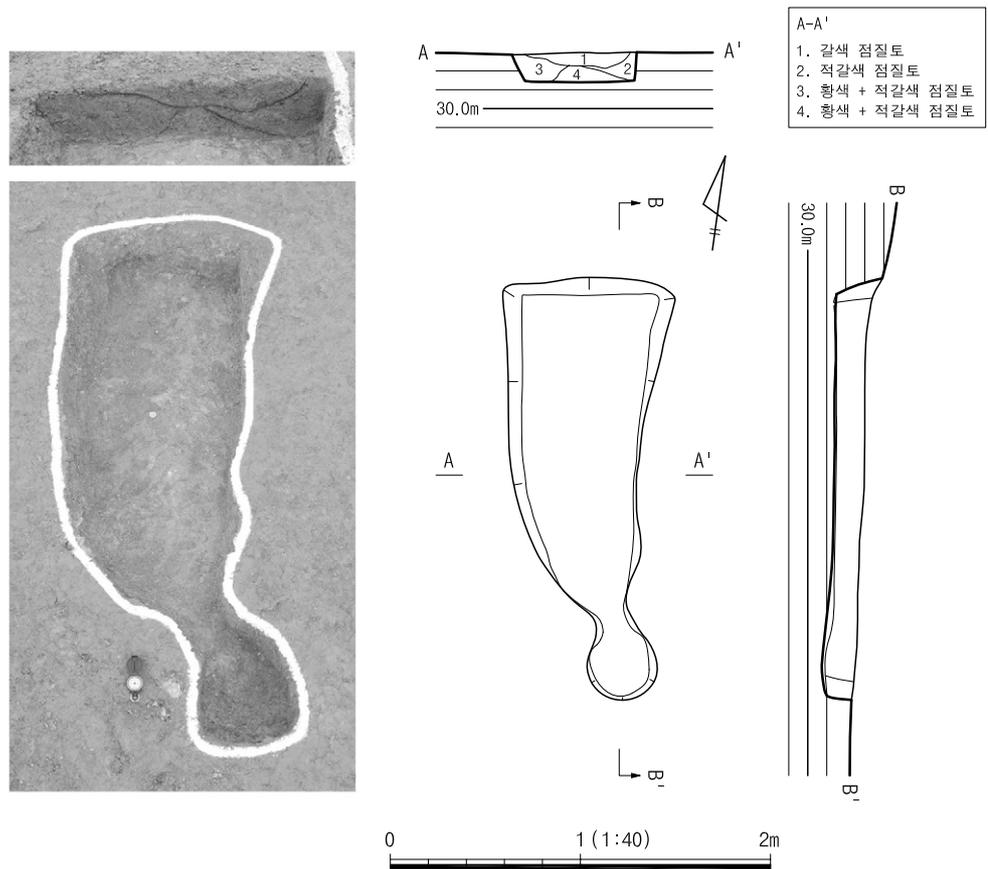
(5) 5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구릉 정상부인 해발고도 31.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인접하여 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형태로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에 장축방향과 직교하도록 탐색Pit를 설치한 후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號墓는 상부구조와 경사면 아래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사진 30】 조선시대 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28】 조선시대 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으로 추정되며, 남쪽부분은 다소 부정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223cm, 너비 80cm 정도이며, 깊이는 15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8-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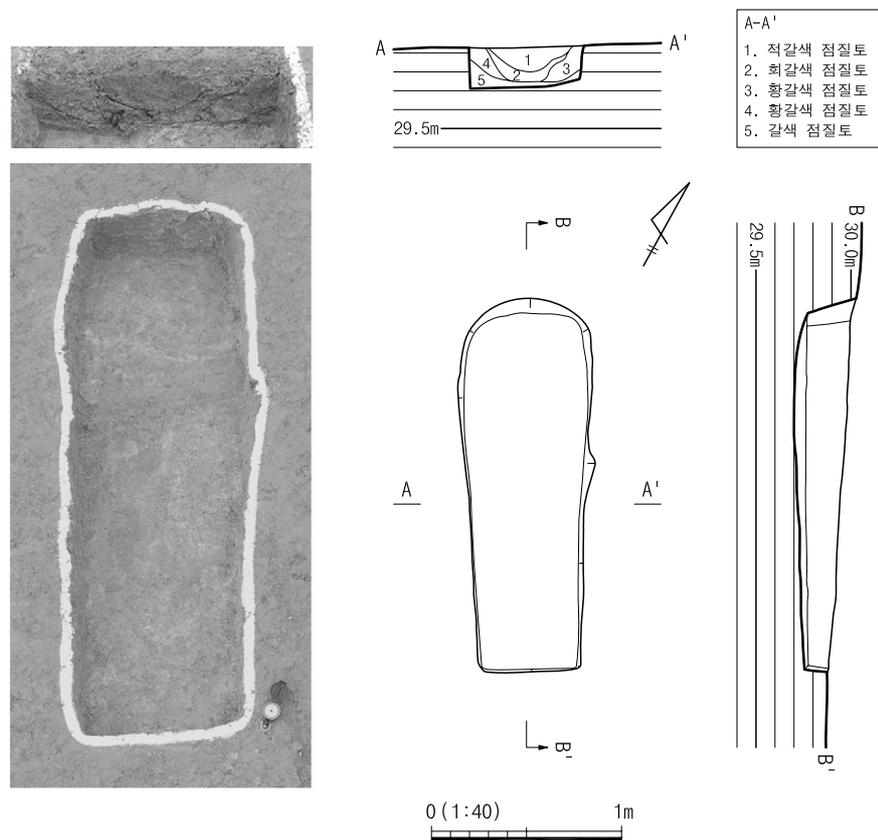
## (6) 6號墓

###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구릉 정상부인 해발고도 30.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0.9m 거리에 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향으로 묘광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결과 6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頭廣足狹의 장방형이며, 북단벽은 약간 둥글게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98cm, 너비 55~70cm이며, 깊이는 21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9°-W이다. 바닥은



【사진 31】 조선시대 6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29】 조선시대 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편평한 편으로 북쪽이 약간 깊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었다. 우선 바닥에 갈색 점질토를 깔아 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하고 관을 안치한 후에 측면에 황갈색 점질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적갈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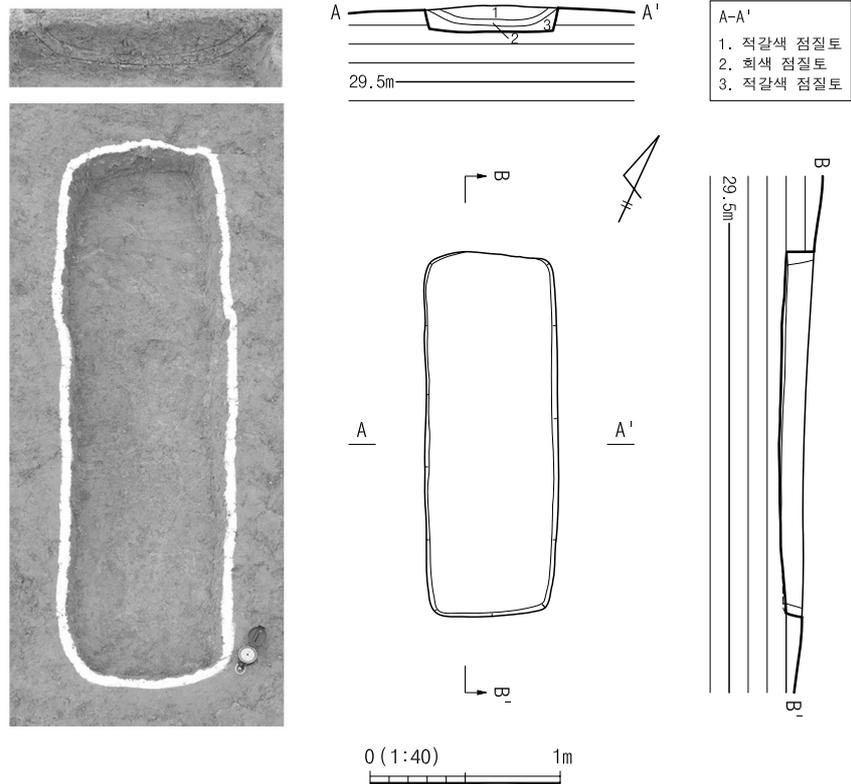
## (7) 7號墓

###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구릉의 정상부인 해발고도 30.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0.9m 거리에 6號墓가, 3.6m 떨어져서 10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4cm, 너비 70cm, 깊이 14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5°-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사진 31-1】 조선시대 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30】 조선시대 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과 회색 점질토가 중앙으로 합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 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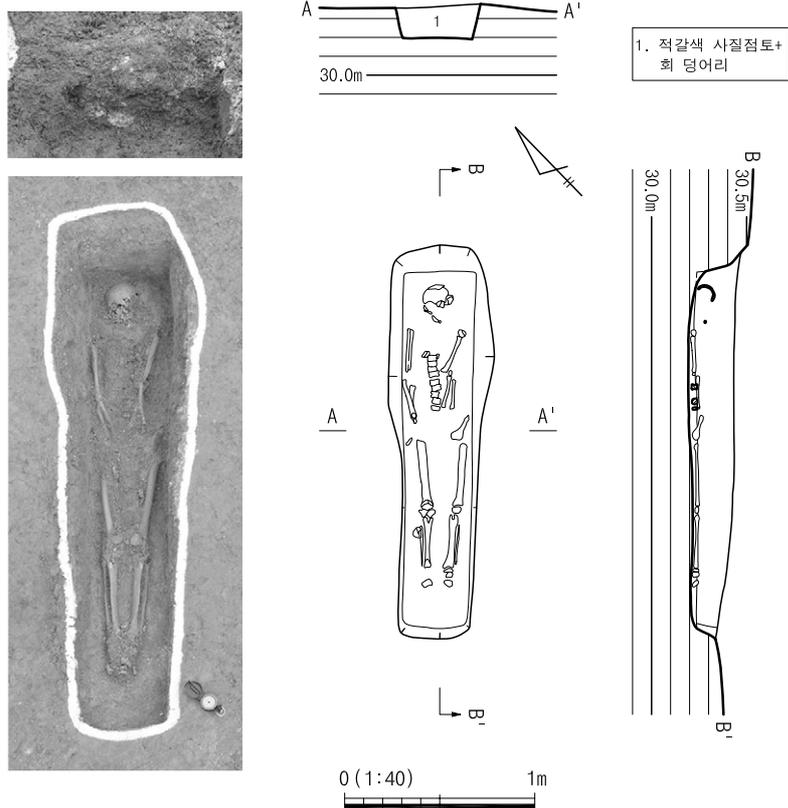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구릉 정상부인 해발고도 30.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3.6m 거리에 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일부 회가 관찰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號墓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상부구조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경사지게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경사면 위쪽의 경우 상부가 보다 넓은 편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9cm, 너비 40~50cm, 깊이는 20cm이다. 장축방향은 N-44°-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부에서 회 일부가 확인되는 것



【사진 32】 조선시대 8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31】 조선시대 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으로 보아 봉분 성토시 회가 일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의 경도는 모래의 비율이 높아 낮은 편이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으며, 인골만이 확인되었다.

## (9) 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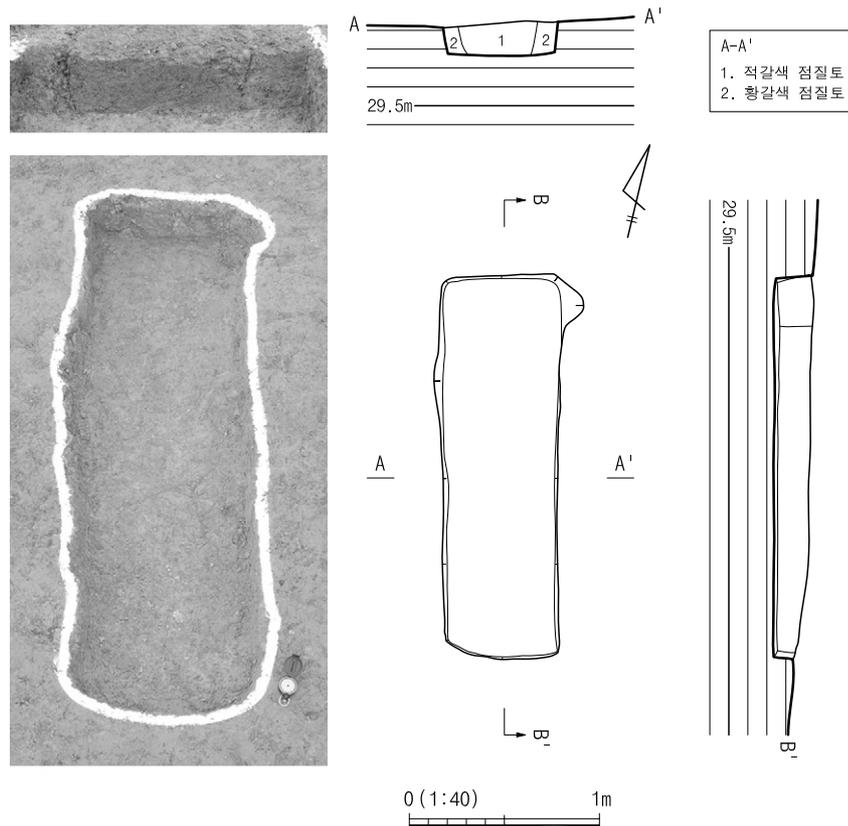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인 해발고도 30.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2.7m 거리에 13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3cm, 너비 60cm, 깊이 18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3°-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는 木棺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목관의 너비는 약 40cm내외로 추정되며, 관 안치 후 측면에 황갈색 점질토를 채운 후 상부에는 적갈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3】 조선시대 9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32】 조선시대 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 1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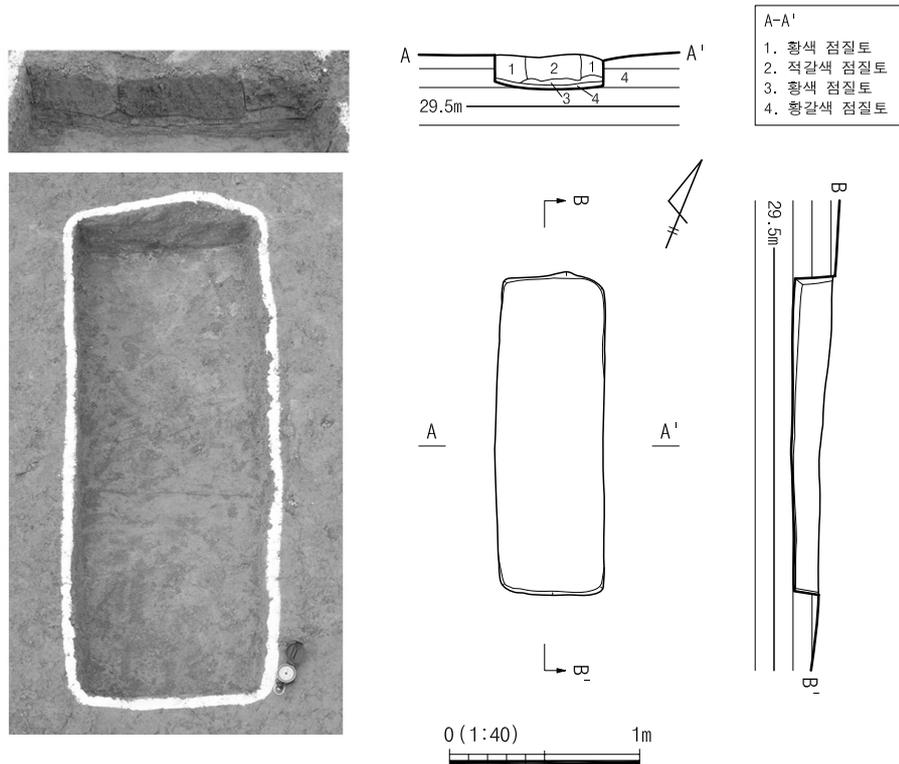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중앙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9.8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3.6m 거리에 7號墓가, 남동쪽으로 약 3.2m 떨어져서 11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69cm, 너비 57cm, 깊이 17cm이다. 長軸方向은 N-22°-W로 경사방향과 나란하였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는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너비는 대략 30c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상당히 좁은 편이다. 우선 최하층에는 황갈색과 황색 점질토를 깔아 바닥을 정지하고 곱을 안치하였으며, 관 측면에는 황색 점질토로 채웠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4】 조선시대 10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33】 조선시대 1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 1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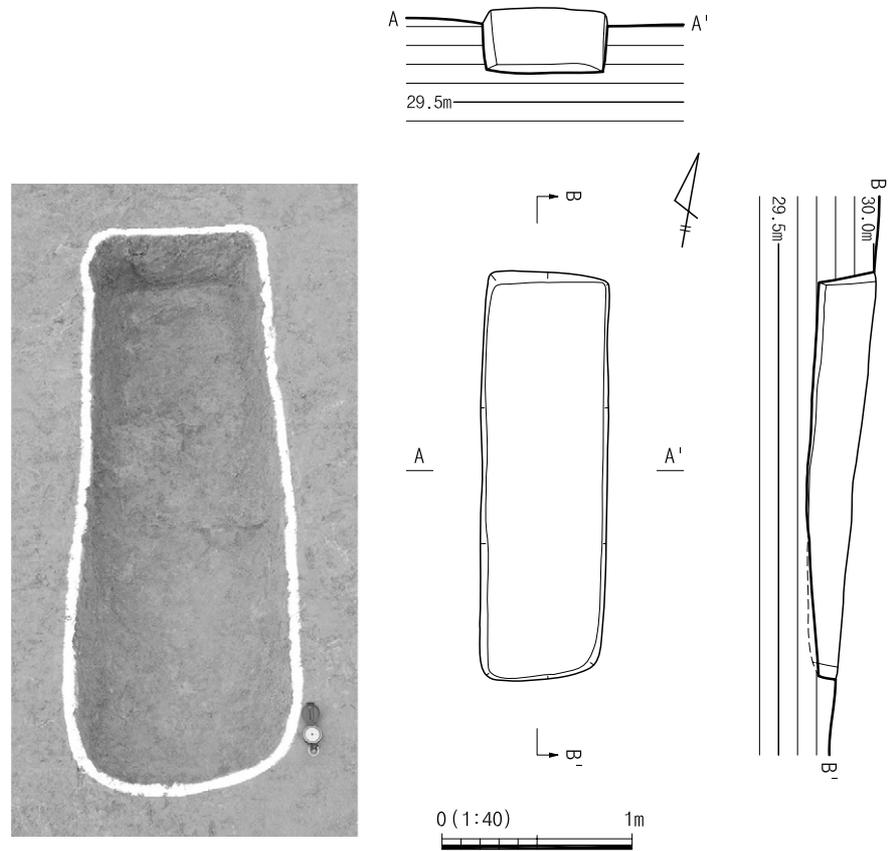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 중앙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30.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3.2m 거리에 10號墓가, 북동쪽으로 약 4.0m 거리에 12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장방형 형태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號墓는 一段壙式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6cm, 너비 66cm, 깊이 26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라한 N-10°-W이다. 바닥은 편평한 편으로 중앙이 약간 들어가 있어 頭部와 足部가 높게 조성되었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5】 조선시대 11호묘 조사 後 전경 / 【도면 34】 조선시대 11호묘 평면 및 입단면도

## (12) 12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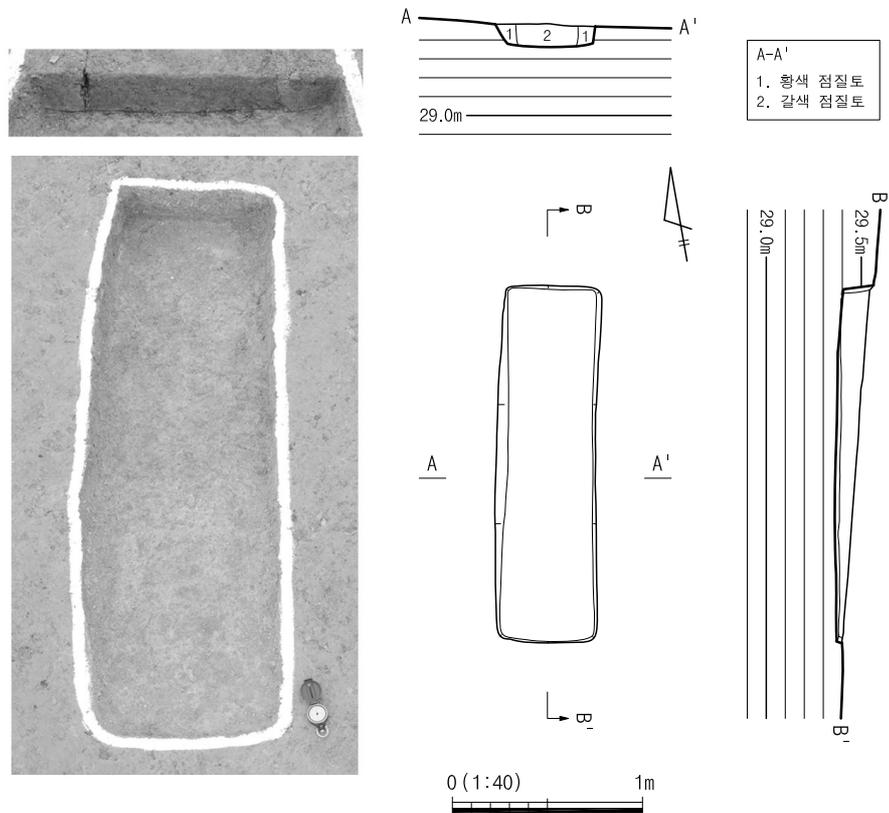
조사지역 중앙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9.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4.0m 떨어져서 11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10cm 정도 제토하자 장방향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2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擴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9cm, 너비 53cm, 깊이 12cm로 상당히 낮게 남아있었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0°-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경사면 아래쪽으로 약하게 경사를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의 너비는 약 30cm 내외이며, 목관 안치 후 측면에 황색 점질토를 채웠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6】 조선시대 1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35】 조선시대 1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

(13) 13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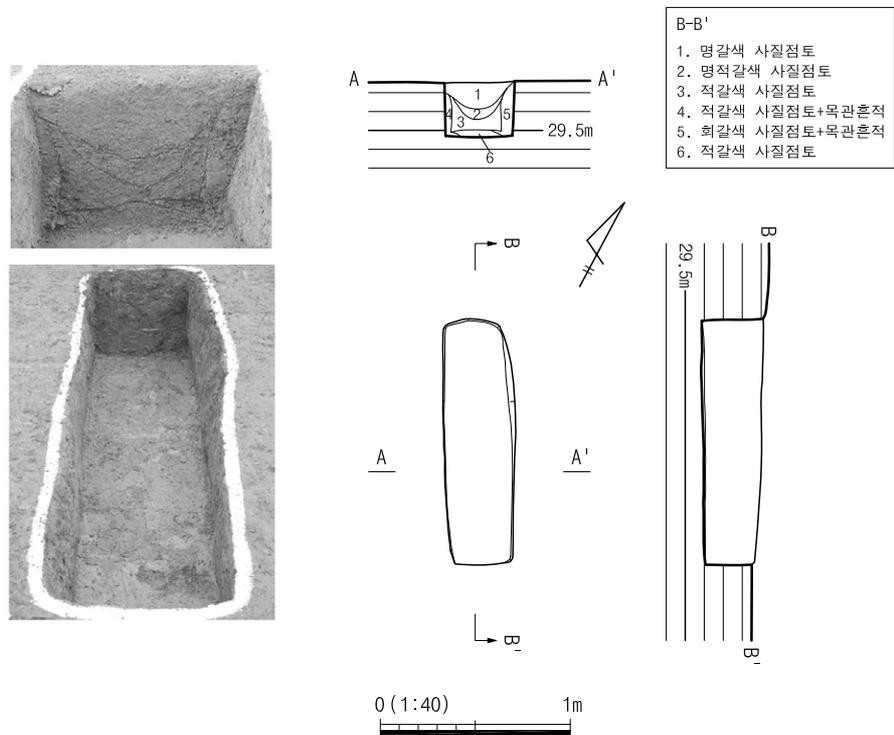
조사지역 중앙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9.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2.7m 거리에 9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

자 장방향으로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3號墓는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37cm, 깊이 29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8°-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목관의 너비는 약 28cm 정도이다. 바닥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깔고, 목관을 안치한 후 측면에 적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그 위에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명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7】 조선시대 1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36】 조선시대 1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4) 14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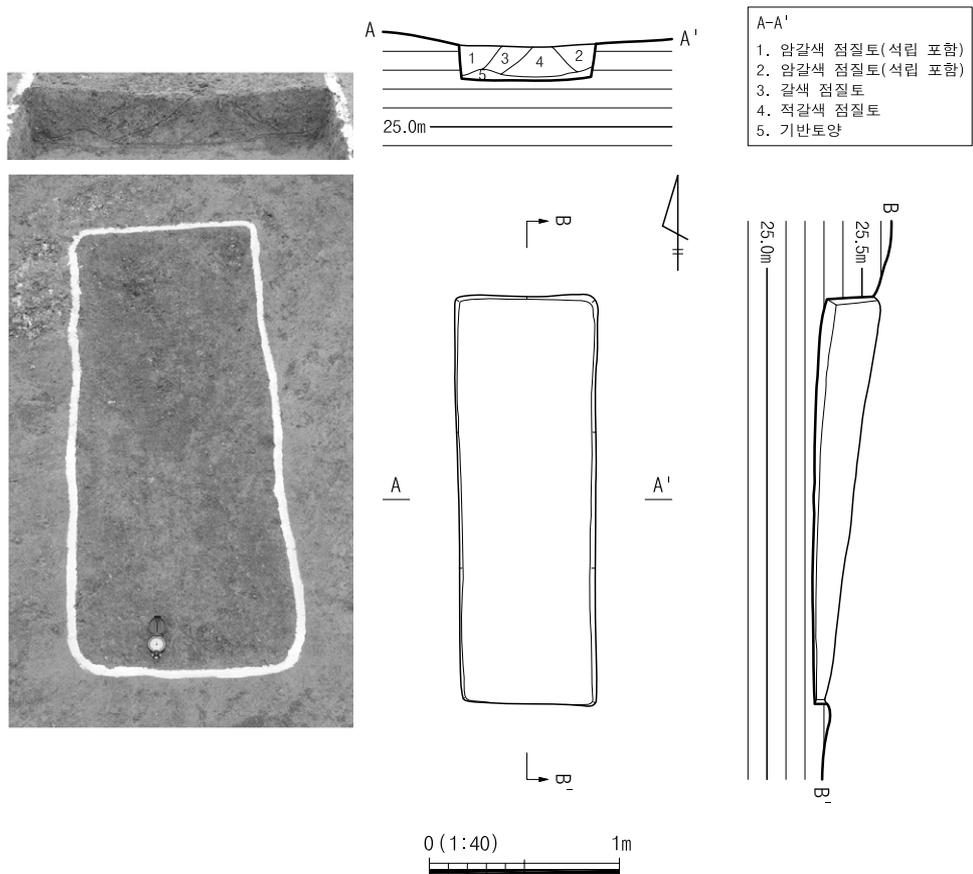
조사지역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6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4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15cm, 너비 72cm 정도로 약간 경사면 위쪽이 약간 넓어 평면형태는 頭廣足狹의 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깊이는 17cm 정도 남아있었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0°으로 정북 방향이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 갈색, 암갈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8】 조선시대 14호묘 토층 및 조사 전 전경 / 【도면 37】 조선시대 1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5) 15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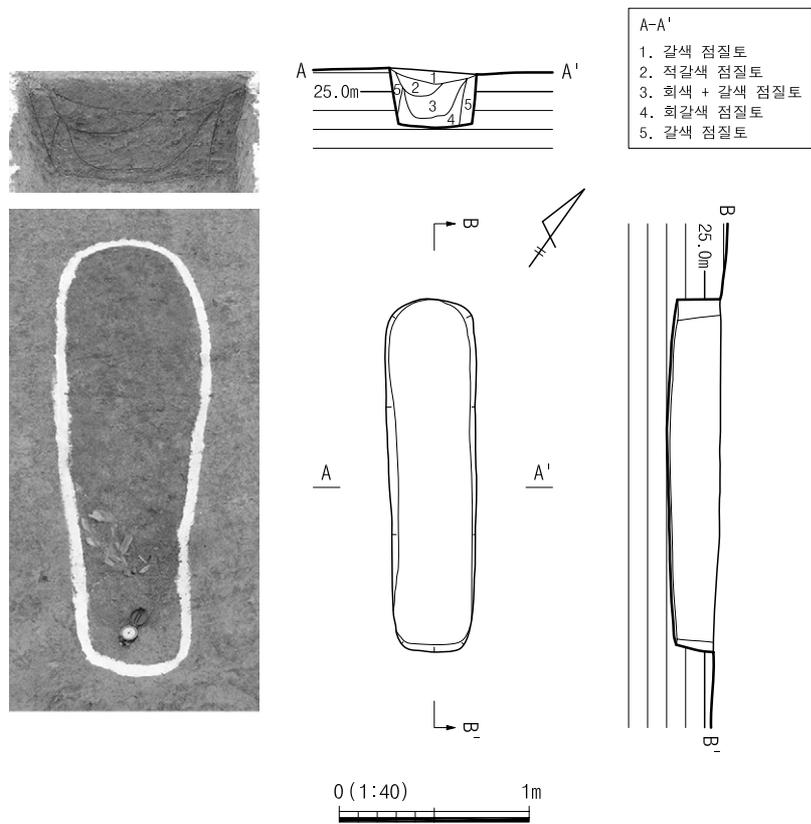
조시지역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1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흔적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5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7cm, 너비 38~47cm 정도로 頭廣足狹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깊이는 30cm 정도가 잔존하였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5°-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중앙이 약간 깊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목관 너비는 33cm 정도이다. 대체로 목관을 안치한 후 측면에 갈색 점질토를 채웠으며, 그 상부에는 회갈색, 적갈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39】 조선시대 15호묘 토층 및 조사 前 전경 / 【도면 38】 조선시대 1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6) 1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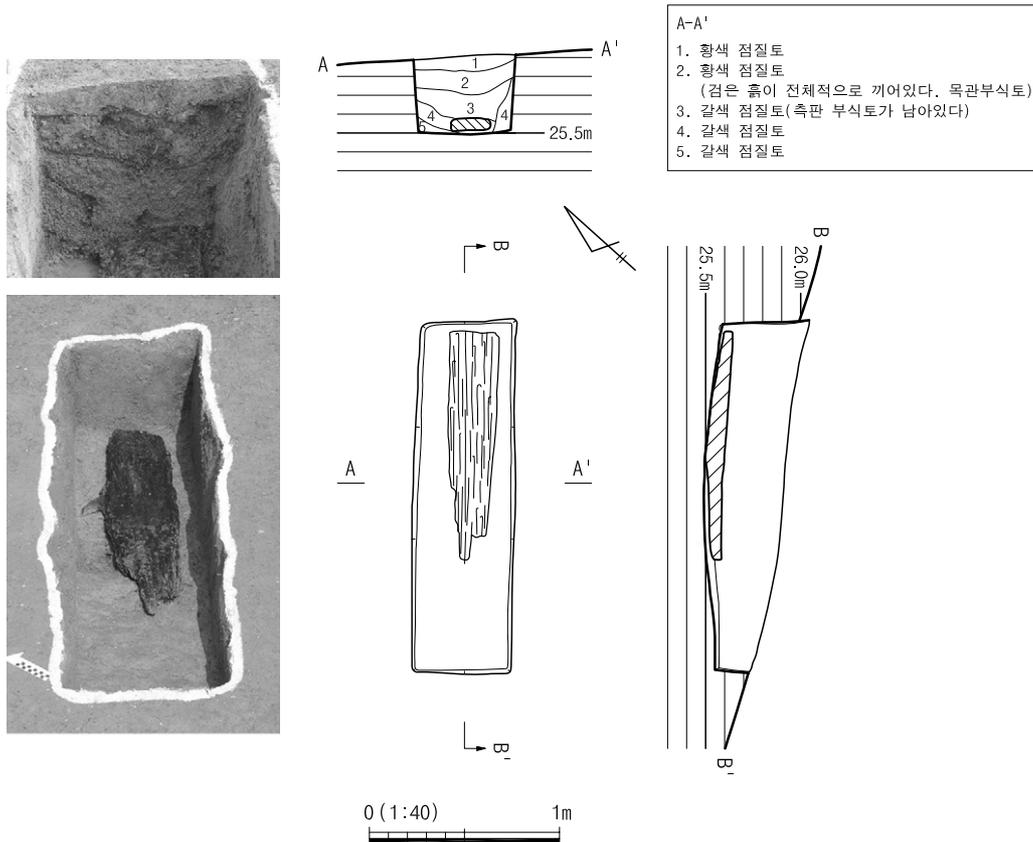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동쪽 경사면 일대의 하단부인 해발고도 26.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6號墓는 一段壙

式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점질토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6cm, 너비 54cm, 깊이 4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8°-E이다. 바닥은 중앙이 약 8cm 정도 깊게 조성하였다. 바닥에는 木棺의 하판이 남아있었으며, 목관 측면에는 갈색 점질토를 채운 후 그 위에 갈색 점질토와 황색 점질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사진 40】 조선시대 16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39】 조선시대 1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7) 17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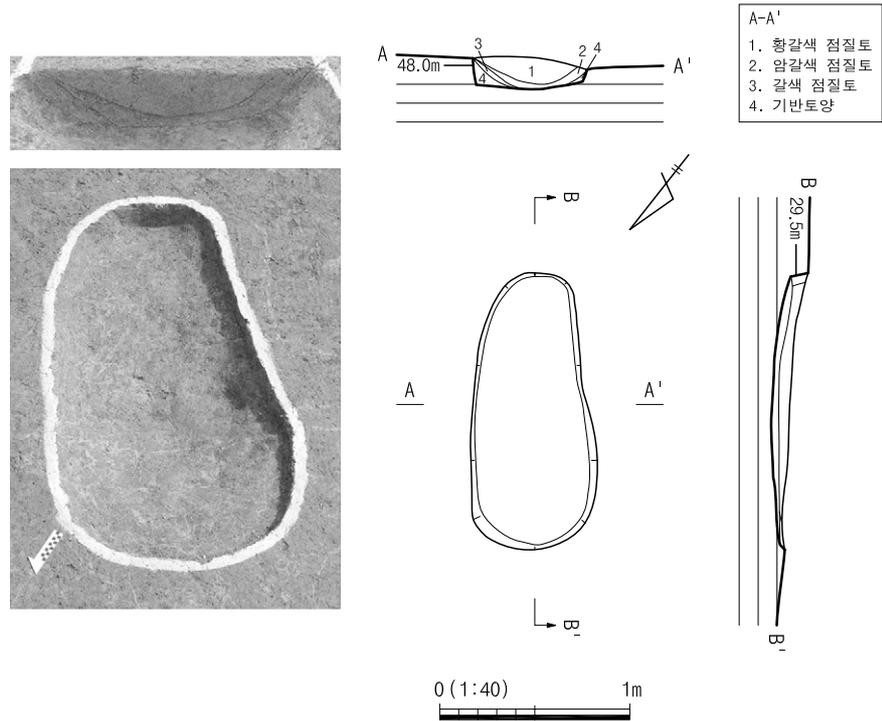
조사지역 북동쪽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9.5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7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경사면 아래쪽이 넓은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147cm, 너비 60cm, 깊이 17cm이며, 장축

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S-38°-E이다. 바닥은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갈색과 암갈색, 황갈색 사질점토가 중상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1】 조선시대 1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40】 조선시대 1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8) 1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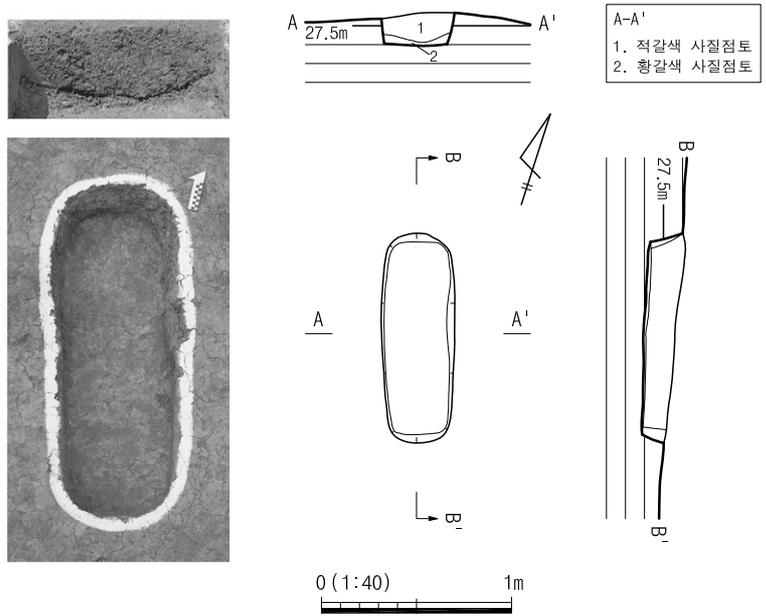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 일대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7.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6m 거리에 44號墓가, 남동쪽으로 2m 거리에 62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12cm, 너비 38cm, 깊이 17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8°-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頭部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2】 조선시대 1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41】 조선시대 1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9) 1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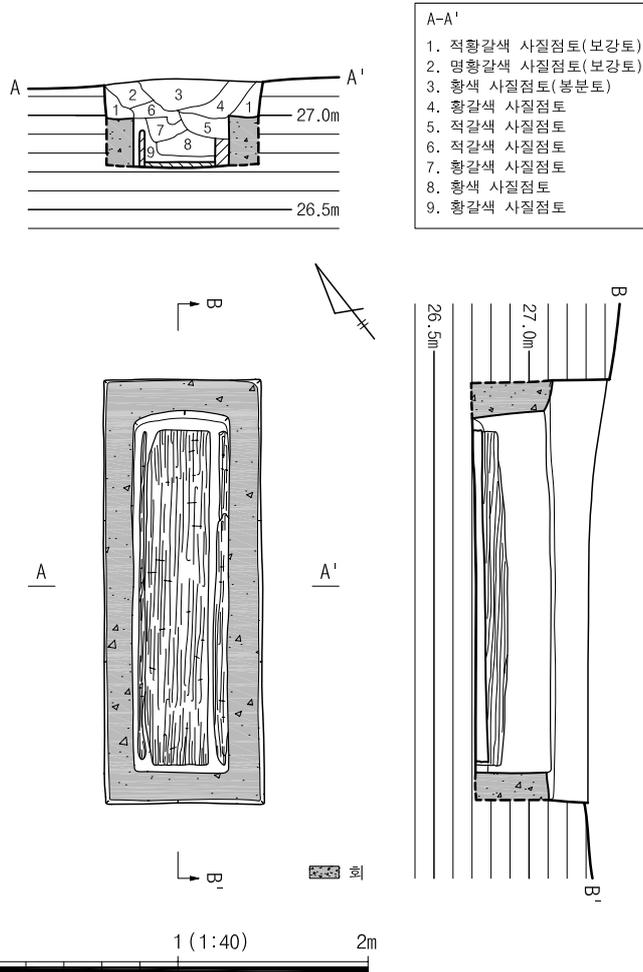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 일대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7.5m 높이에 조성되었다. 북서쪽으로 약 2m 거리에 19號墓가, 동쪽으로 약 5.6m 떨어져서 49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과 함께 회 일부가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9號墓는 灰槨墓로 회의 비율이 낮아 天蓋는 모두 붕괴된 상태였으며, 내부에서 木棺이 일부 잔존하였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4cm, 너비 83cm, 깊이 47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8°E이다. 내부에는 길이 188cm, 너비 50cm, 높이 40cm 정도의 규모로 회곽을 조성하였는데, 대부분 회의 비율이 낮고 적갈색의 사질점토를 채운 반면 상부에는 회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내부에 목곽의 하판과 측판 일부가 남아있었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178cm, 너비 45cm 정도이다.

내부 토층은 회곽 상부에 덮었던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중앙으로 함몰된 양상이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3】 조선시대 1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42】 조선시대 1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20) 2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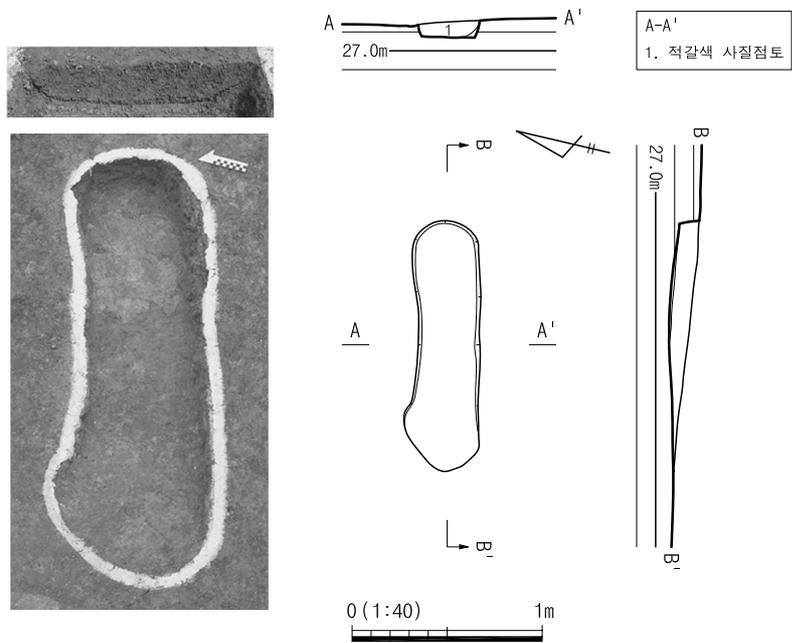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7.2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2m 거리에 19號墓가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작은 규모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0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북쪽과 남쪽의 단벽은 등글게 처리하였다. 규모는 길이 133cm, 너비 32cm, 깊이 8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23°-N이다. 바닥은 중앙을 낮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4】 조선시대 2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43】 조선시대 2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1) 2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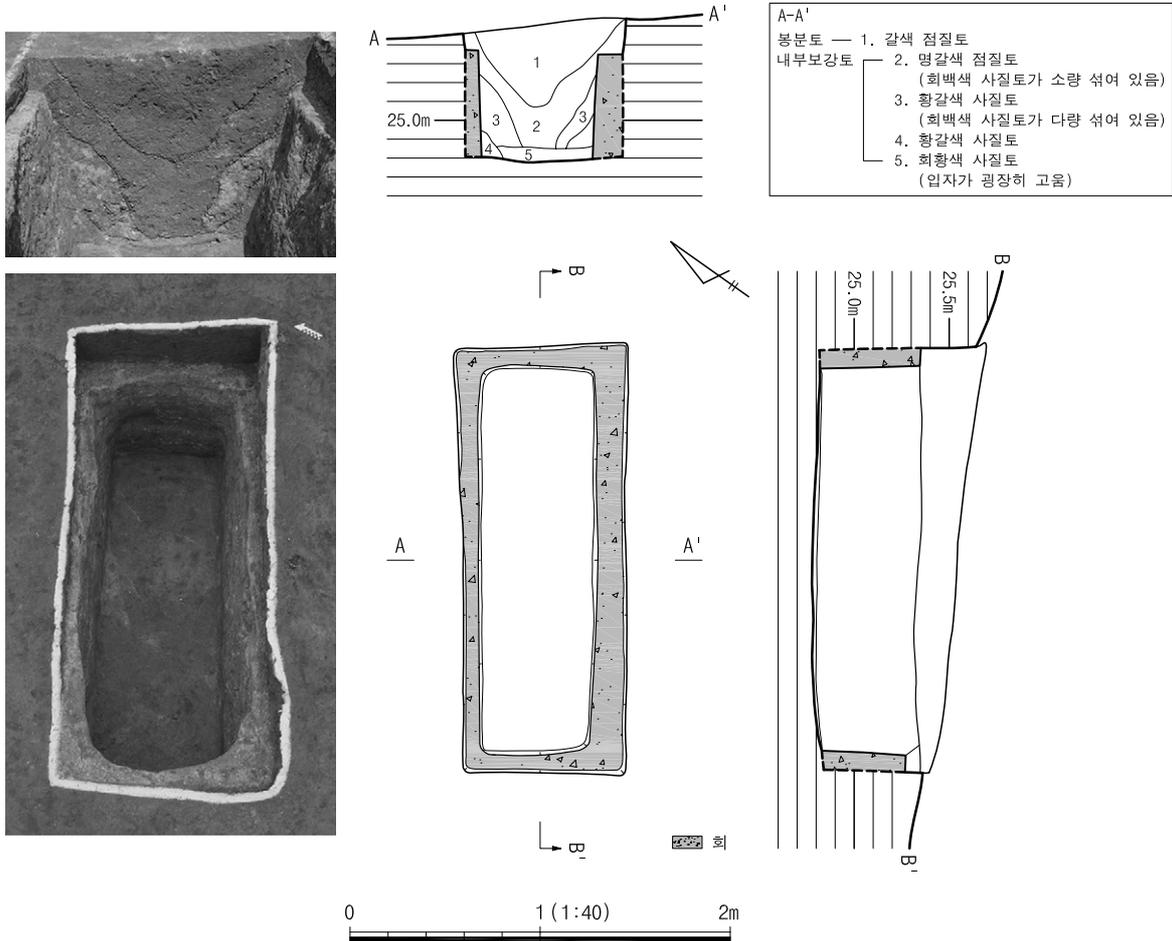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 일대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상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5.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4.8m 떨어져서 22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과 내부 가장자리에 일부 회가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1호묘는 회곽묘로 天蓋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적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6cm, 너비 86cm, 너비 73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55°-E이다. 내부에는 길이 203cm, 너비 58cm, 높이 50cm 정도의 규모로 灰槨을 조성하였다. 대체로 사립의 비율이 높아 회의 강도는 낮은 편이다. 바닥은 중앙을 약간 낮게 정지하였으며, 木槨의 흔적은 없었다.

내부 토층은 회의 혼합비율이 낮은 천개가 중앙으로 함몰된 양상이었으며, 천개 상부에는 굴토된 갈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5】 조선시대 2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44】 조선시대 2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22) 22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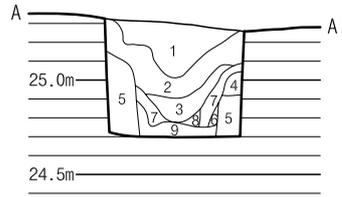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 일대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5.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4.8m 거리에 21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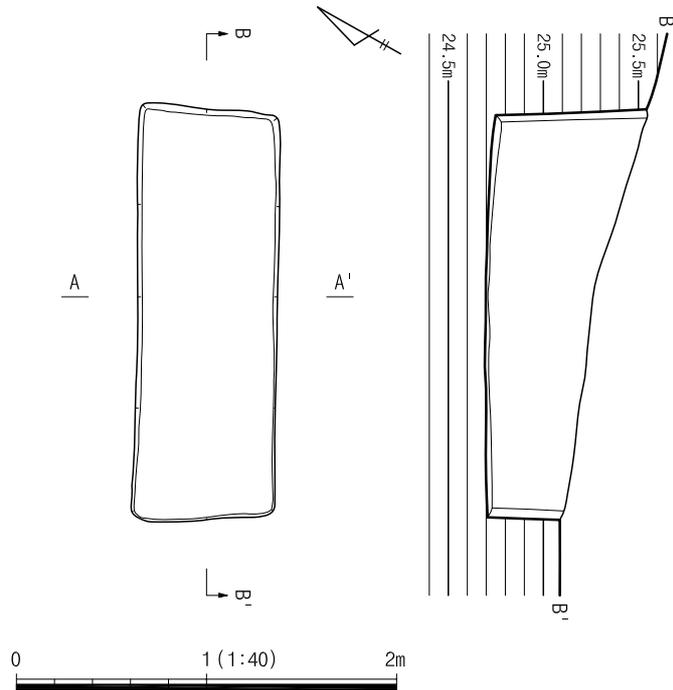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2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8cm, 너비 73cm, 깊이 60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60°-E이다. 바닥은 頭部쪽인 북쪽을 약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의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측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고 그 위에는 회황색과 적갈색 사질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A-A'
1. 적갈색 사질토
  2. 명황갈색 사질토(백색때음)
  3. 적갈색 사질토
  4. 회황색 사질토
  5. 적황색 사질점토(목관뒤 보강토)
  6. 황갈색 사질토
  7. (우)회황색 사질토(백색토가 많이 섞임)
  8. (좌)회황색 사질토(적갈색 흙덩이(점질토가) 섞임)
  9. 회황색 사질토



【사진 46】 조선시대 2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45】 조선시대 2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23) 23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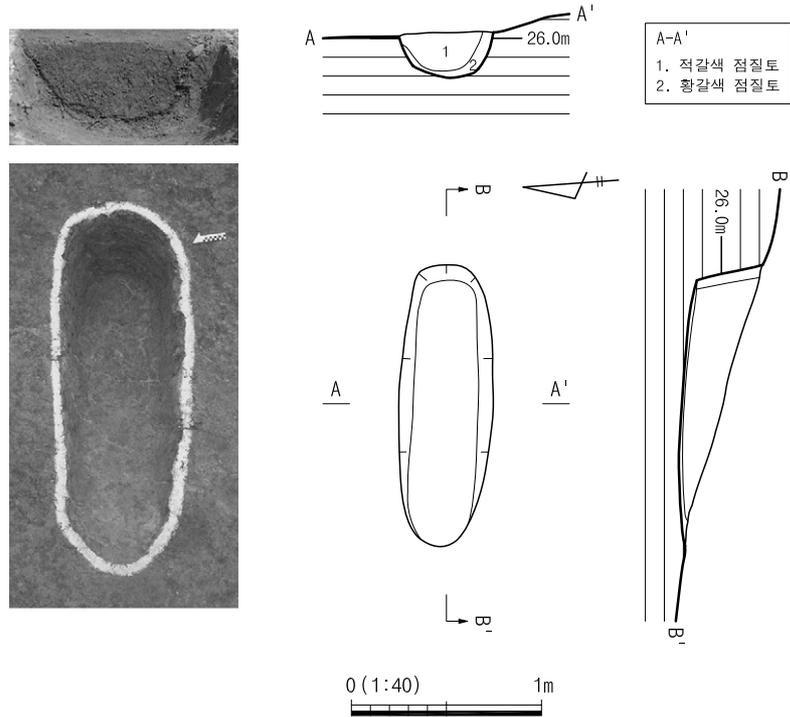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6.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약 1.8m 거리에 2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으로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3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의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49cm, 너비 50cm, 깊이 24cm 정도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4°-S으로 정동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횡단면은 ‘U’자 형태를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7】 조선시대 2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46】 조선시대 2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24) 24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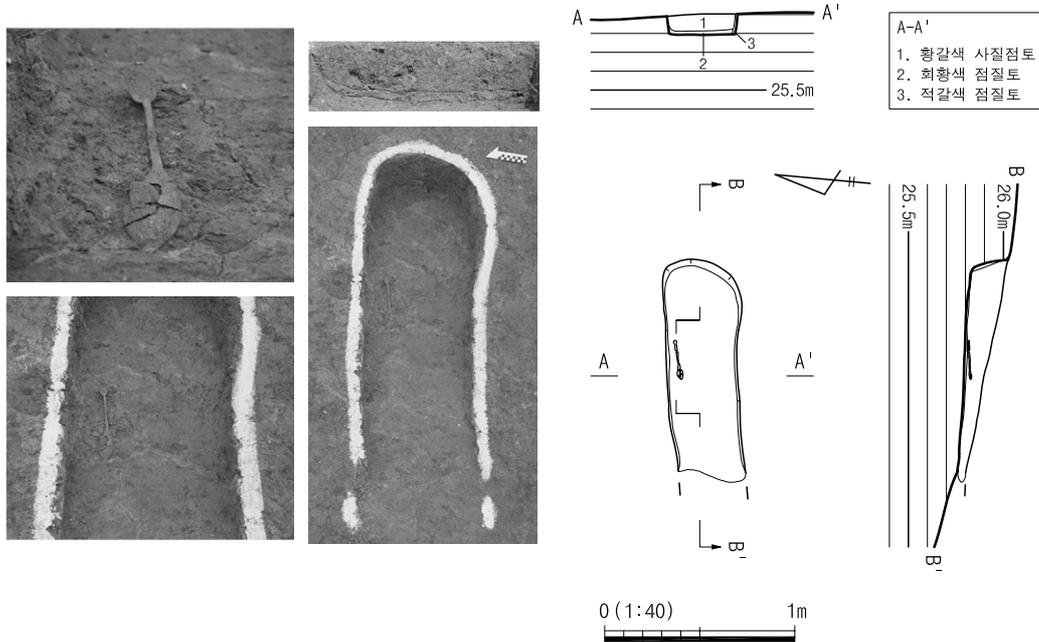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 일대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6.0m 높이에 위치하였다. 북쪽으로 약 1.8m 거리에 23號墓가, 동쪽으로 약 2m 떨어져서 24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4號墓는 상부구조와 경사면 아랫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한 형태로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112cm, 너비 37cm, 깊이 11cm 정도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5°-N으로 정동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동쪽이 약간 넓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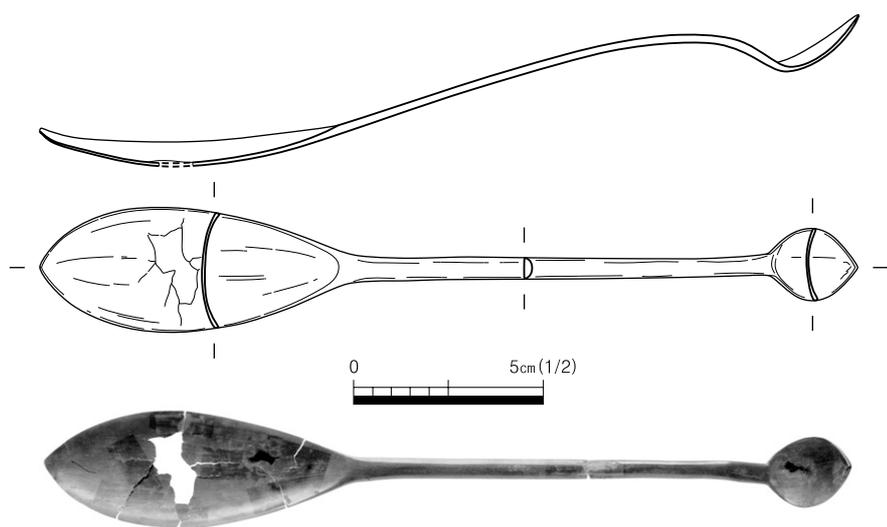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바닥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이 수습되었다.



【사진 48】 조선시대 24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47】 조선시대 2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② 遺物 (일련번호)

54. 담청색의 청동제 숟가락으로 匙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の 형태는 柳葉形이며, 자주 사용되어 끝부분 좌측이 마모되어 있다. 柄部는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 병단부에서 곡선의 형태 뻗다가 단부에서 급하게 꺾어 柄端部를 성형하였다. 평면형태는 匙面에서부터 柄端部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끝부분은 ㄷ形으로 장식하였다. 匙의 너비는 2.2cm, 길이 2.3cm이다. 断面은 윗면을 볼록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에는 가 질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1.6cm, 시부길이 7.8cm, 시부너비 3.3cm, 병부너비 0.6cm, 두께 0.1~0.2cm]

(25) 25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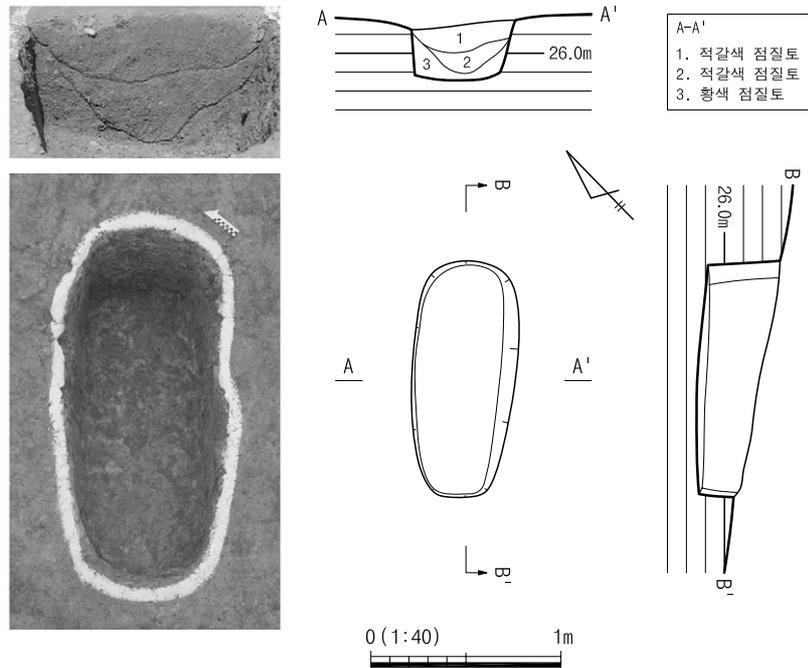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 내려오는 경사면의 상부인 해발고도 26.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2m 거리에 25號墓가, 동쪽으로 약 1m의 지근거리에 5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소형으로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5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당히 소형이며,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25cm, 너비 54cm, 깊이 3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4°-E이다. 바닥은 頭部쪽을 약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과 적갈색 점질토가 ‘U’ 자 형태로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49] 조선시대 2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48] 조선시대 2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6) 2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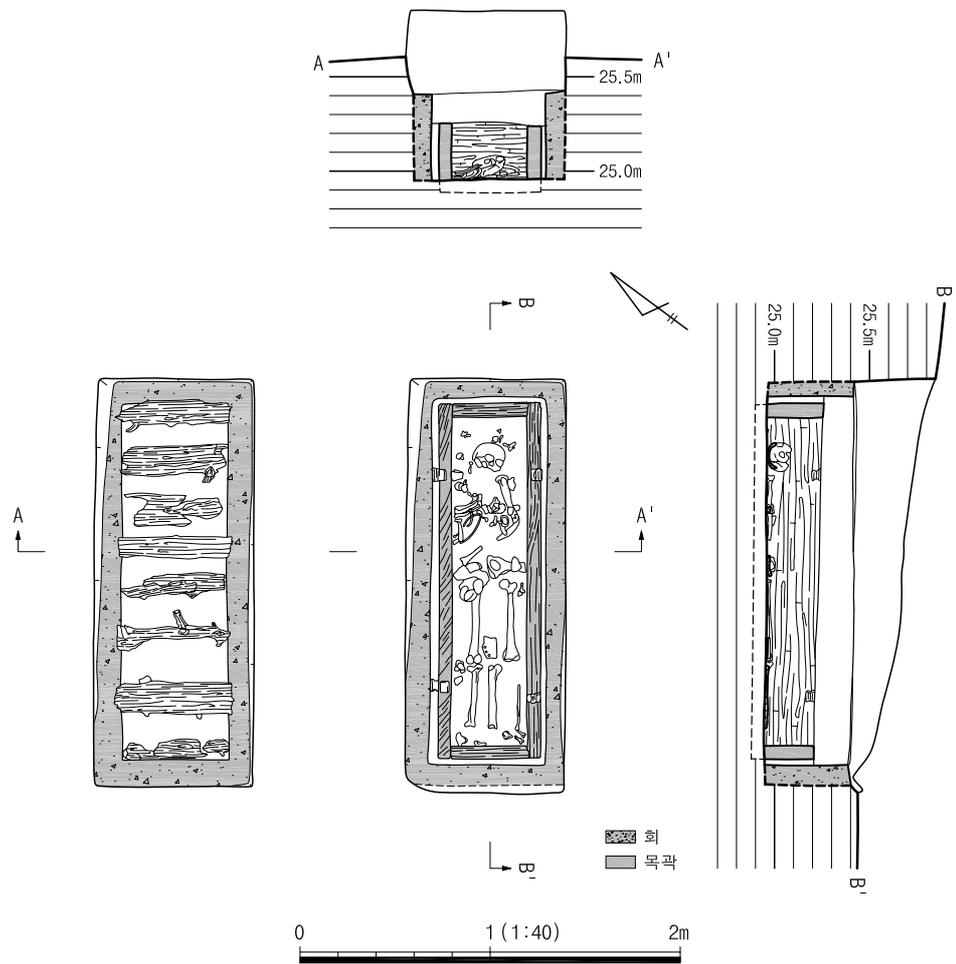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5.9m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남서쪽으로 약 1m의 지근거리에 27號墓가, 북동쪽으로 약 2.4m 떨어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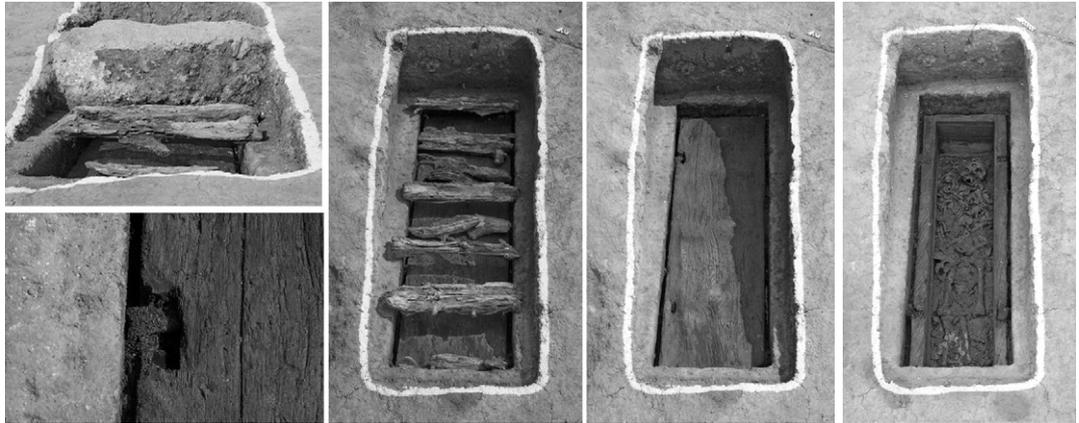
55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15cm 정도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과 함께 내부에 회곽이 노출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천개의 두께와 내부구조, 내부 잔존상태를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6號墓는 회곽묘로 횡대와 그 아래 목관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관 내부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9cm, 너비 84cm, 깊이 89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53°-E이다. 묘광 내부에는 회의 비율이 높은 길이 196cm, 너비 60cm, 높이 47cm 정도의灰槨을 조성하였다. 바닥은 별도의 회다짐을 하지 않고 생토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회곽 내부에는 길이 192cm, 너비 55cm, 높이 30cm 정도의 목관을 안치하고, 상부에 8매의 횡대를 올린 후 약 25cm 두께로 회를 다짐하였다. 목관은 나비장으로 결구한 형태이며, 약간 頭廣足狹의 형태를 보였다. 관 내부에서는 인골의 확인되었으며, 별도의 부장유물은 없었다.



【도면 49】 조선시대 2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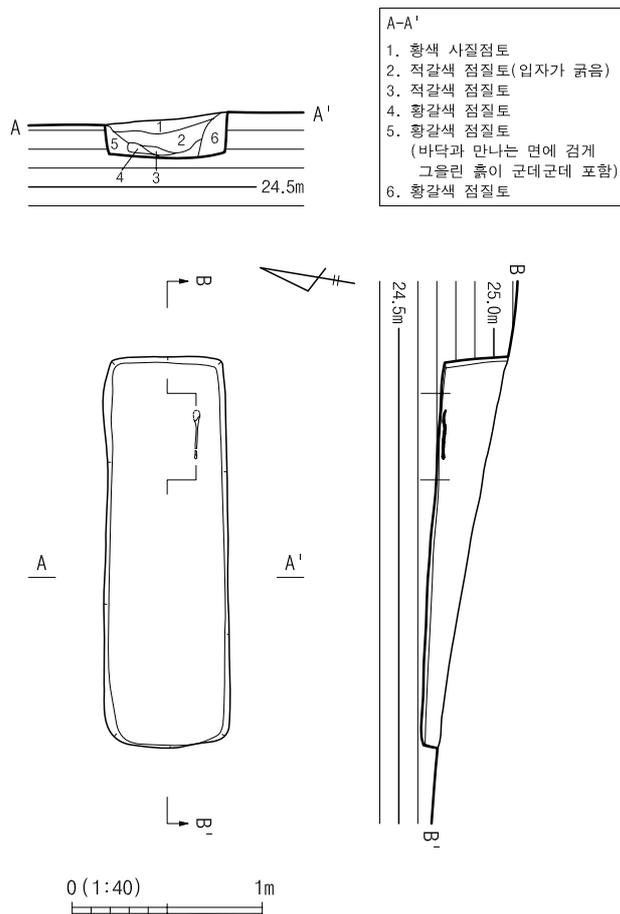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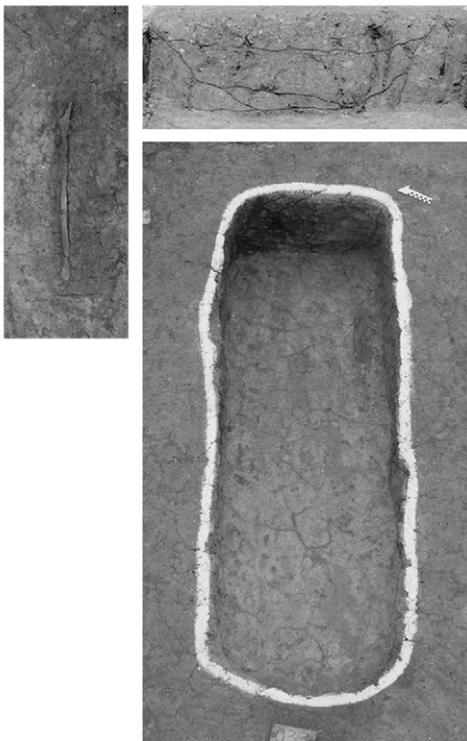


【사진 50】 조선시대 2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27) 27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5.1m 높이에 위치하였다. 북동쪽으로 지근거리에 26號墓가, 북서쪽



【사진 51】 조선시대 2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50】 조선시대 2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으로 약 2.2m 거리에 2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지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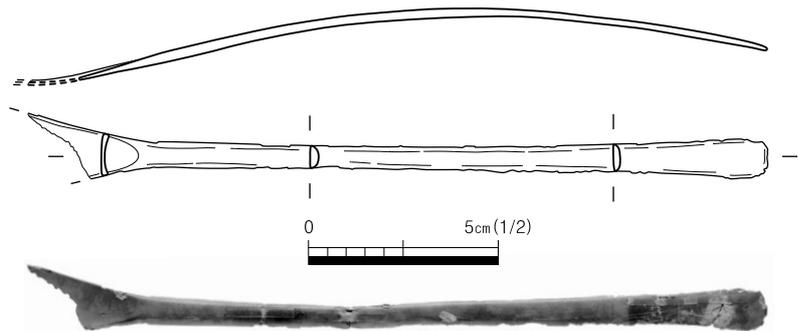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7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7cm, 너비 65cm, 깊이 20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9°-N으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頭部쪽인 동쪽을 약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의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측면에는 황갈색 점질토를 채우고 그 위에는 적갈색과 황색 사질점토로 덮었다. 유물은 두부쪽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청동순가락 1점이 확인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55)

55. 담청색의 청동제 순가락으로 匙部가 결실되었 부식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였다. 匙部の 형태는 柳葉形으로 추정되며, 柄部는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 병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며, 단부는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형태를 띠고 있다. 병부 단면은 반원형이며, 표면에는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19.5cm, 병부너비 0.7cm, 두께 0.1~0.2cm]

## (28) 28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4.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2.2m 거리에 27號墓가, 북동쪽으로 약 1.8m 거리에 29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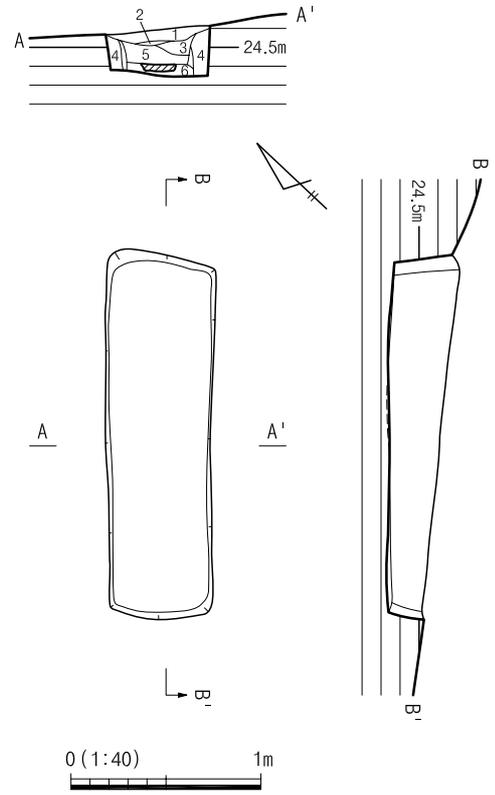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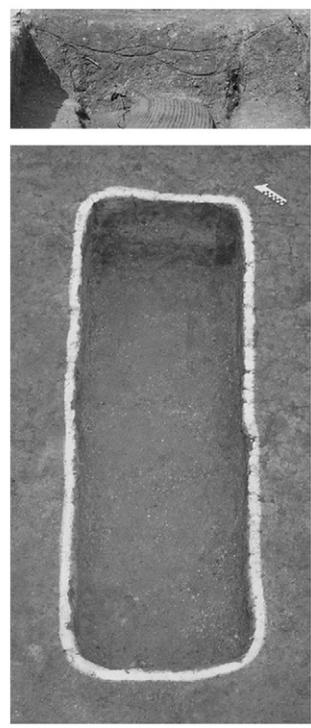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8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는 유실된 상태였으며, 바닥에서 목관의 하관 일부가 확인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단벽쪽은 다소 부정형한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207cm, 너비 55cm, 깊이 25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7°-E이다.

내부 바닥에서는 목관의 하관이 남아있었다. 관 측면에는 회가 일부 포함된 황갈색 사질토를 채웠다. 그 위에는 적갈색 사질토를 덮었으며, 일부 회가 소량 포함된 층도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A-A'
1. 적갈색 사질토(균데균데 커다란 회덩어리가 포함)
  2. 적갈색 사질토(3과 큰 차이가 없으며, 회의 함량이 적음)
  3. 적갈색 사질토(균일상 4와 큰 차이는 없으며, 회의 함량이 적음)
  4. 6번 뒤에 채움. 관위 채움토(황갈색 회가 섞여 있음)
  5. 적갈색 사질토(입자가 굵음. 목관과 4번이 맞닿는 경계. 회색 사질토)
  6. 목관 부식토 녹회색



【사진 52】 조선시대 2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51】 조선시대 2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29) 29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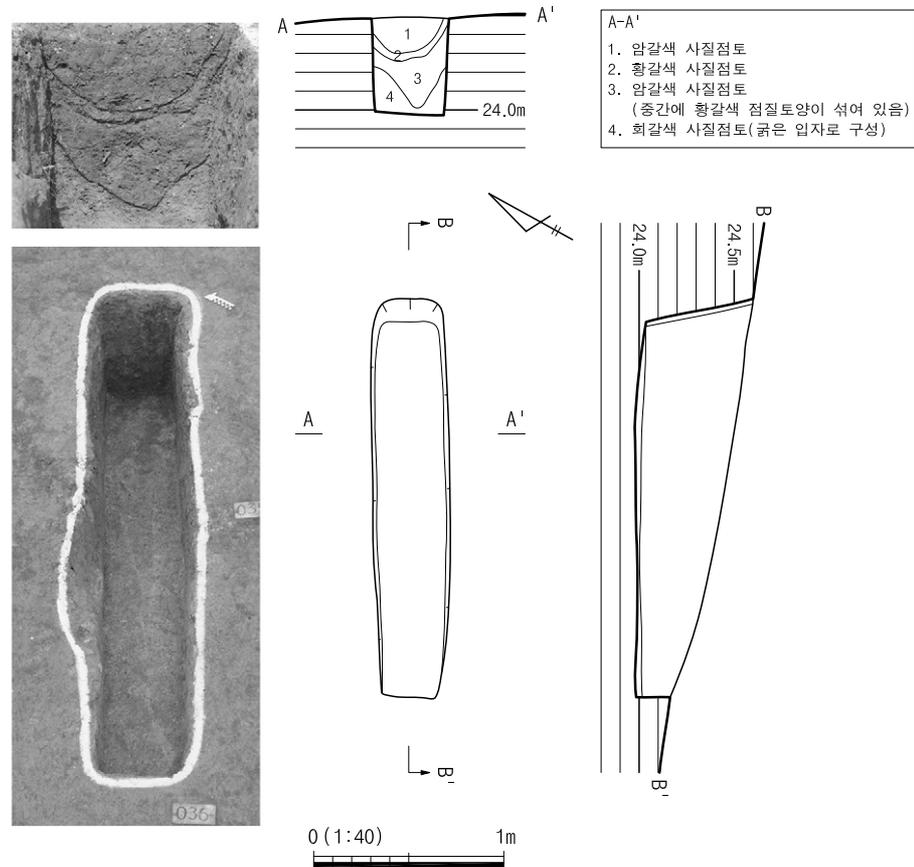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중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4.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1.0m 거리에 27號墓가, 북쪽으로 약 1.7m 거리

에 2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29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확인되었으며, 상부구조는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1cm, 너비 41cm, 깊이 51cm로 상당히 세장되었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0°-N이다. 바닥은 중앙부분을 약간 낮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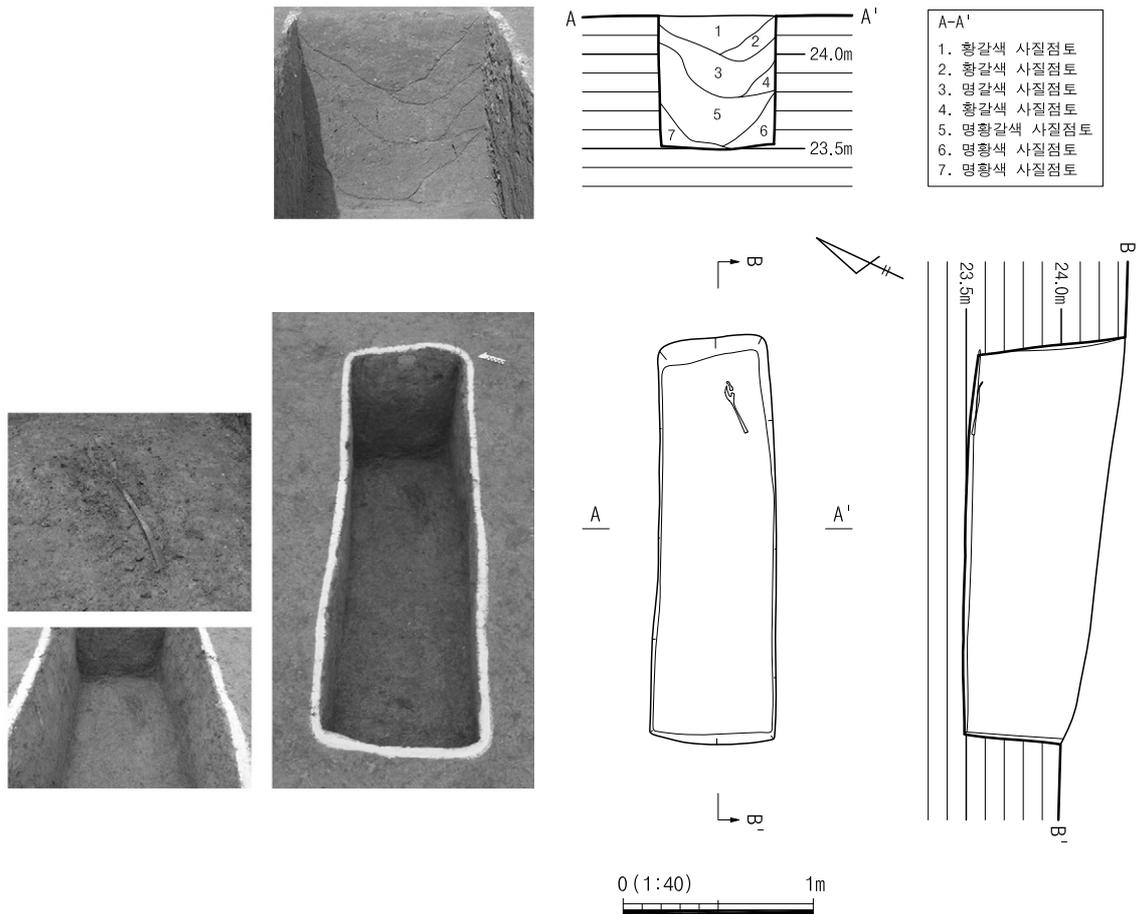
【사진 53】 조선시대 2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52】 조선시대 2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30) 30號墓

####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동쪽 중상부에 해방되는 해발고도 24.3m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약 2.0m 거리에 28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2.3m 떨어져서 31號

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15cm 정도 제토 하자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사진 54】 조선시대 3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53】 조선시대 3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0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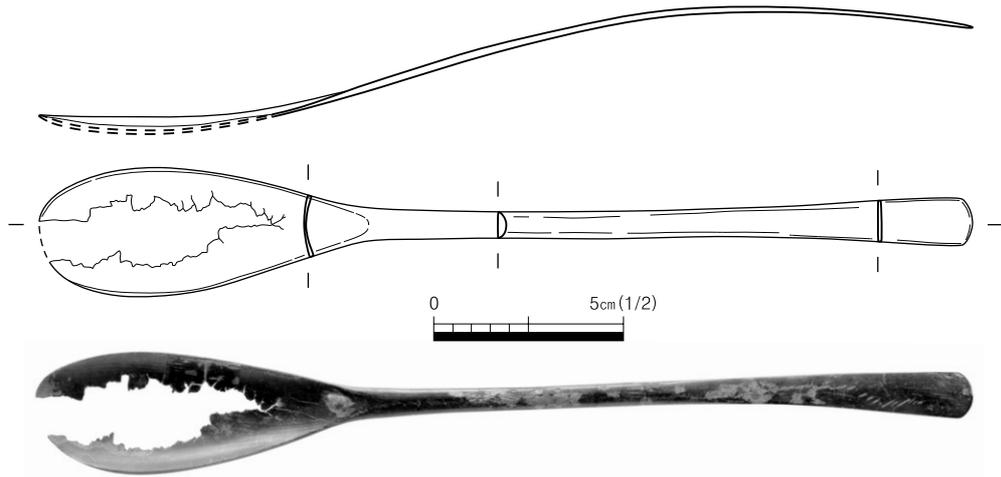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경사면 아래쪽이 약간 넓은 편이다. 규모는 길이 216cm, 너비 62cm, 깊이 71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25°-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頭部쪽인 동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희미하게 목관 흔적은 확인되며, 측면에 명황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상주에는 명황색과 황갈색 명갈색 사질점토가 중앙에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남동쪽에 치우쳐 청동손가락 1점이 수습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56)

56. 담청색 청동제 숟가락으로 匙部 중앙부분이 결시되었다. 匙部の 형태는 柳葉形으로 匙端部는 사용에 의해 좌측부분이 마모되었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병단부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弧形이다. 측면은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반원형이며, 병단부는 얇은 장방형이다. 표면은 다소 부식이 이루어진 상태로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56



[길이 24.6cm, 시부길이 8.7cm, 시부너비 3.4cm, 병부너비 0.7cm, 두께 0.05~0.25cm]

### (31) 3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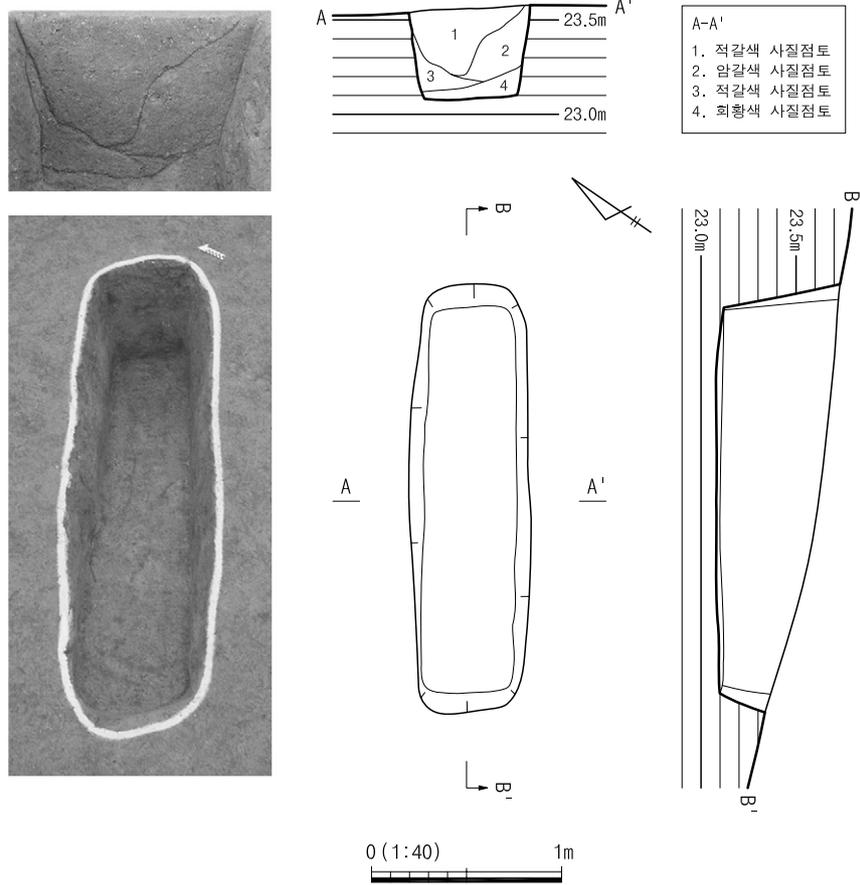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3.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3m 거리에 30號墓가, 남동쪽으로 약 3.0m 떨어져서 74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1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경사방향을 따라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7cm, 너비 64cm, 깊이 48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55°-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적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55】 조선시대 31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54】 조선시대 3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32) 32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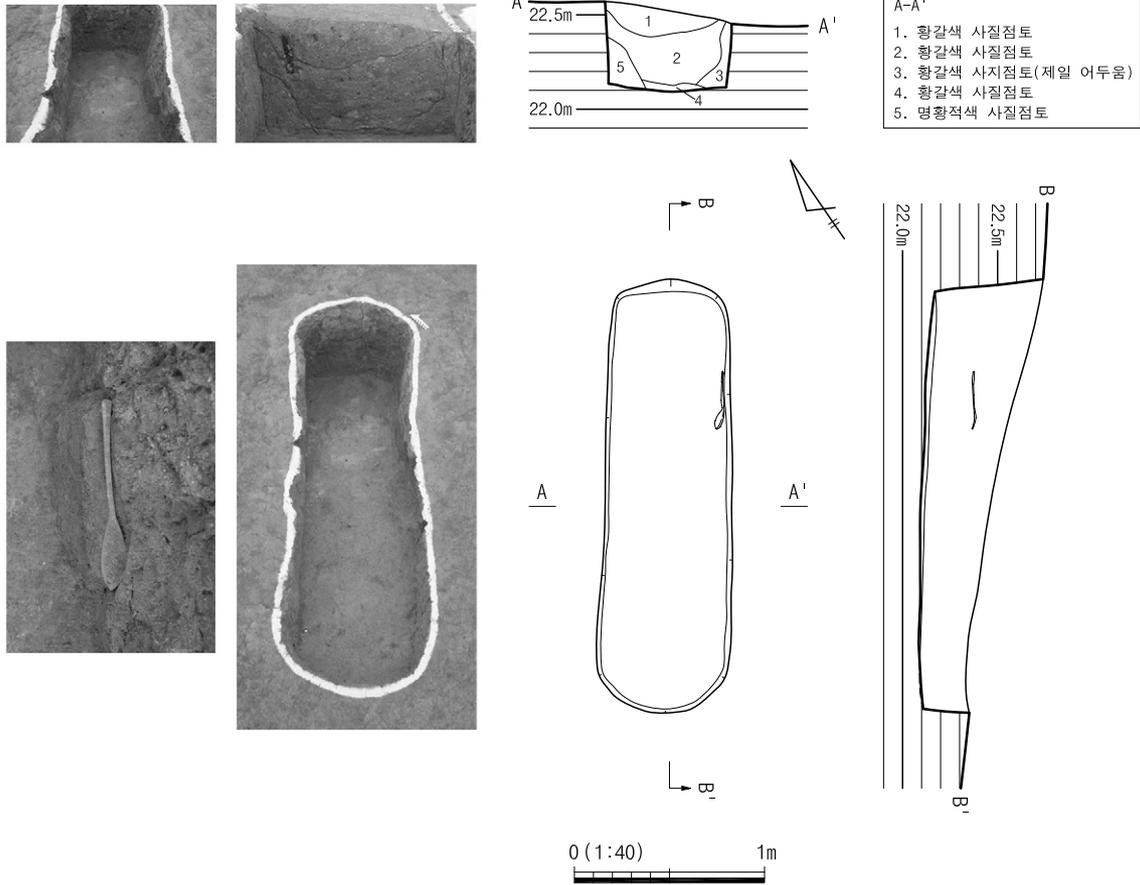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형성된 묘역내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하단부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약 2.5m 거리에 33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2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는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67cm, 깊이 42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라한 N-34°-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頭部쪽을 약간 높게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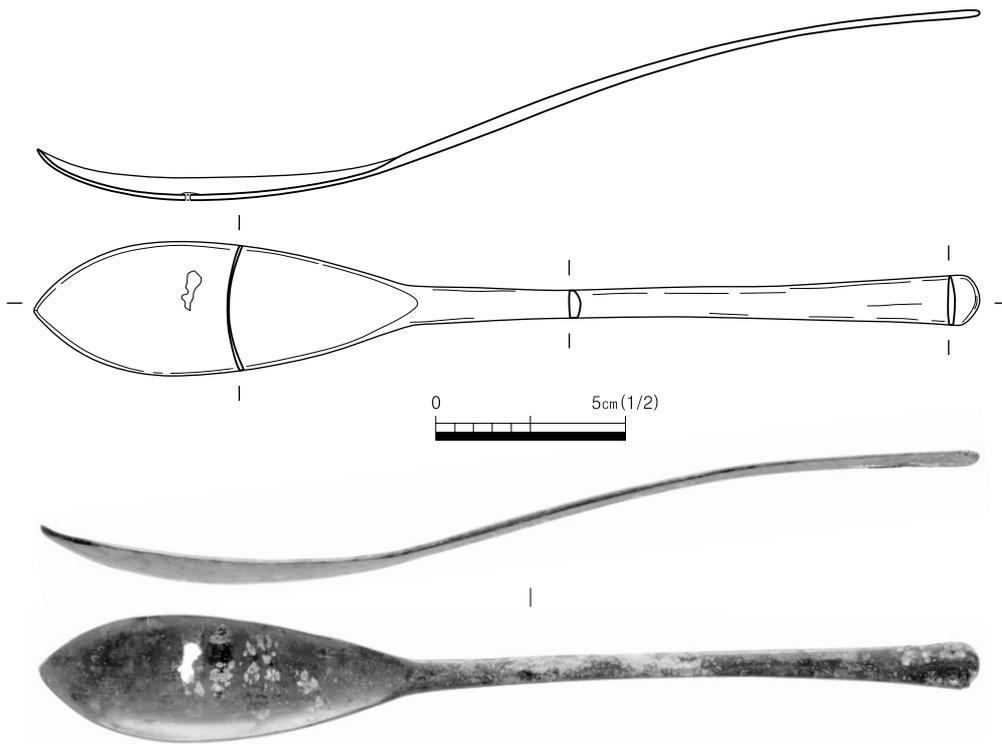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 측면에는 황갈색과 명황적색을 띠는 사질점토를 채워져 있으며, 중앙에는 황갈색 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바닥에서 27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북동쪽에 치우쳐 청동순가락 1점이 수습되었다.



【사진 56】 조선시대 32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55】 조선시대 3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② 遺物 (일련번호 57)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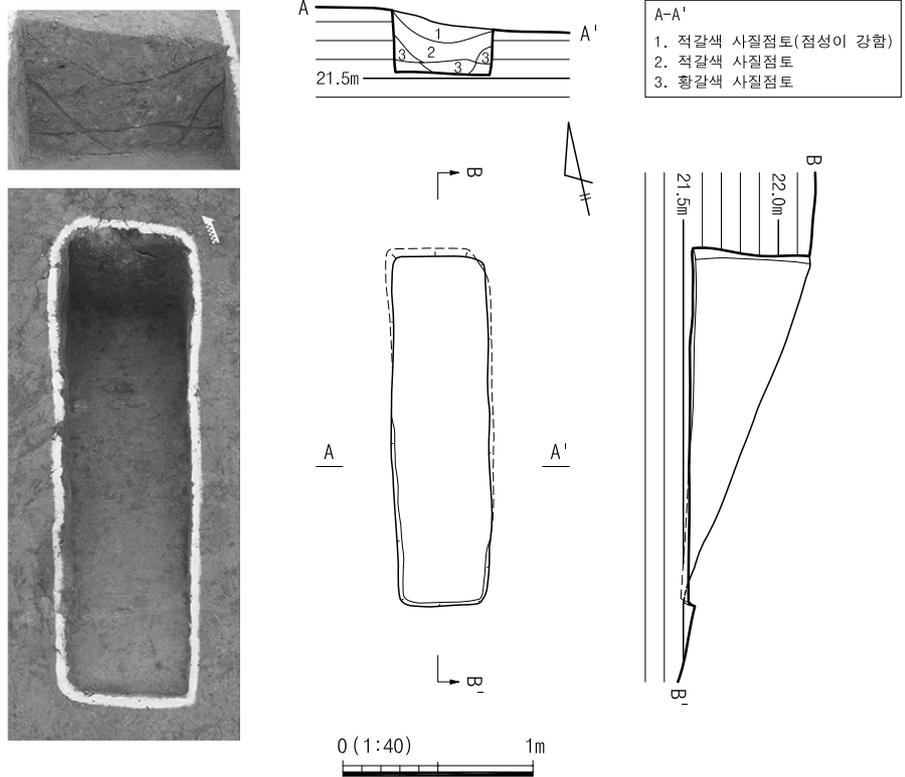
[길이 24.9cm, 시부길이 10.1cm, 시부너비 9.5cm, 병부너비 0.8cm, 두께 0.05~0.3cm]

57. 원형이 잘 남아있는 담청색의 청동계 순가락이다. 匙部の 형태는 柳葉形으로 중앙은 다소 편평하며, 匙端部는 사용에 의해 좌측부분이 마모되었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윗면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표면은 일부 부식되어 있으며,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33) 33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2.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3.0m 거리에 34號墓가, 동쪽으로 약 3.2m 거리에 75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세 장방형의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57】 조선시대 3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56】 조선시대 3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33號墓는 一段壙

式土壙墓로 지형 식평에 의해 경사면 아랫부분이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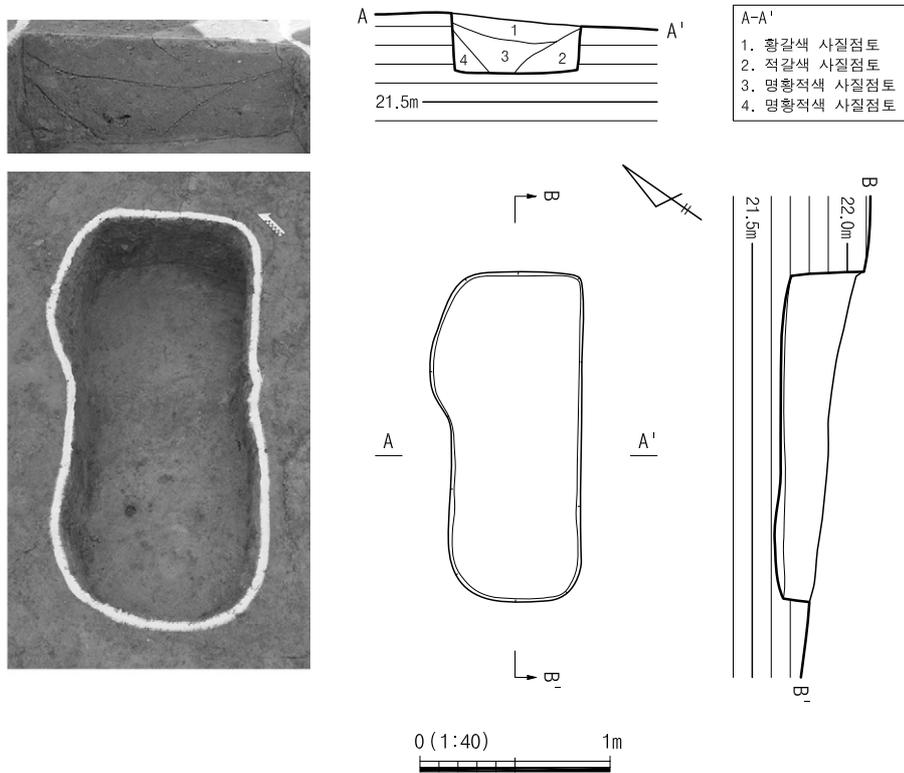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86cm, 너비 51cm, 깊이 62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2°-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내부에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34) 34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2.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3.0m 거리에 3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 흔적이 확인되었다.



【사진 58】 조선시대 3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57】 조선시대 3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4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一段壙式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적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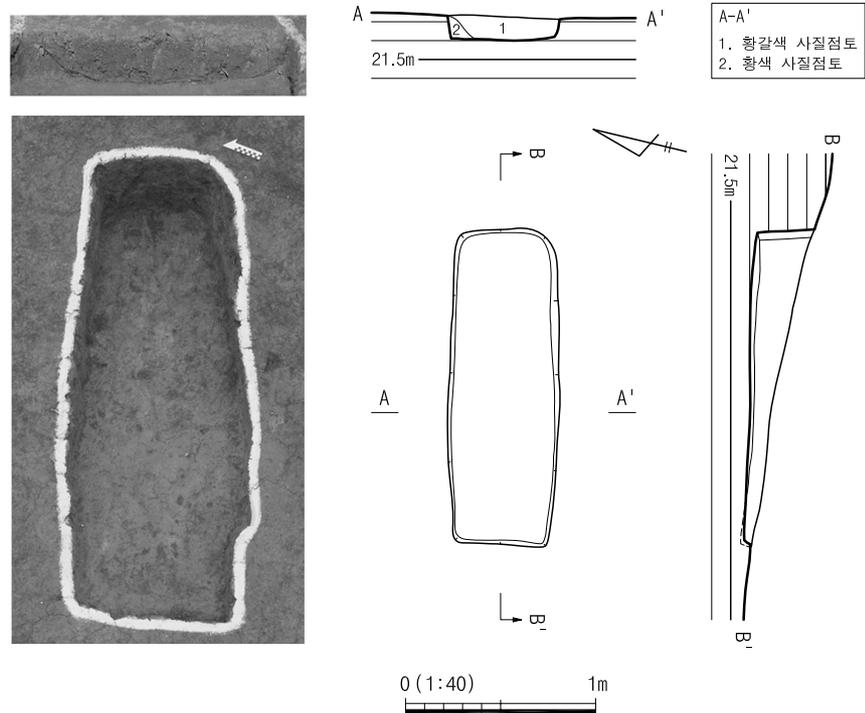
서장벽의 경우 다소 부정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75cm, 너비 68cm, 깊이 40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55°-E이다. 바닥은 아래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측면에 적갈색과 명황적색을 띠는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그 위에는 명황적색과 황갈색을 띠는 사질점토가 함몰되는 양상으로 덮여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35) 35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1.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8.2m 떨어져서 3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형태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59】 조선시대 3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58】 조선시대 3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5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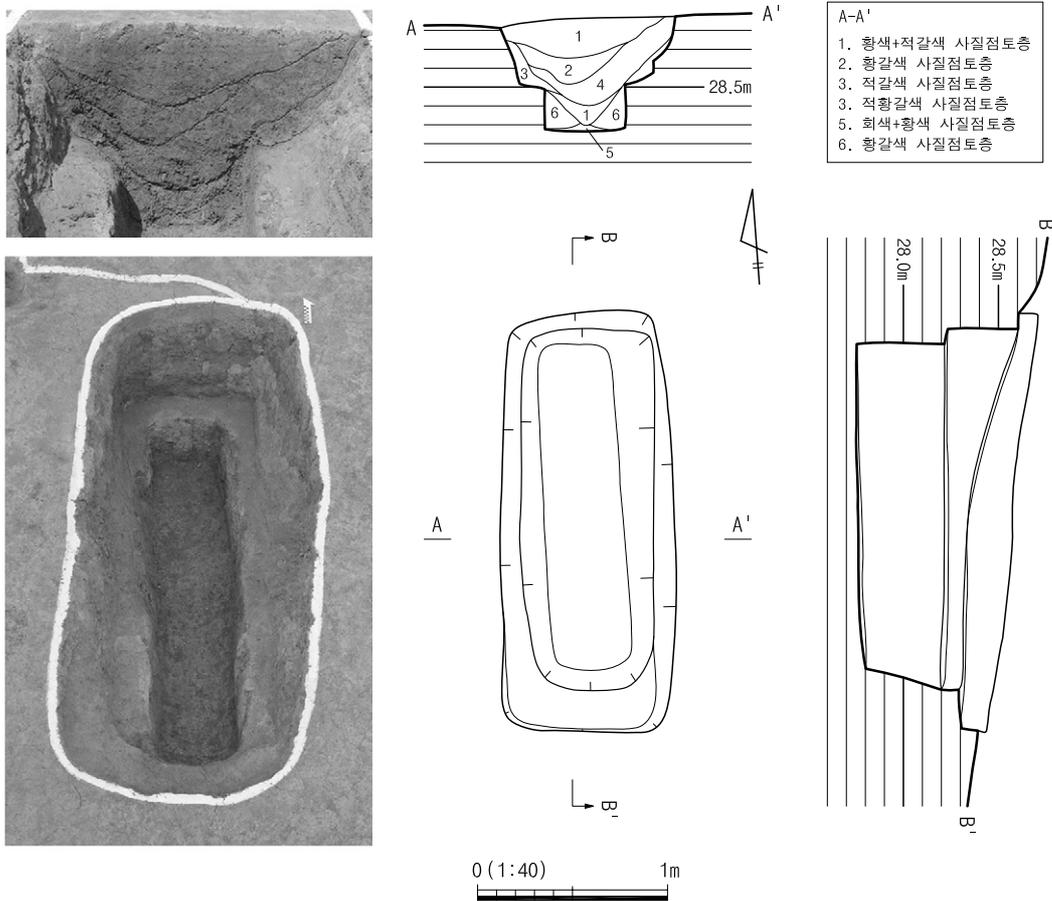
방향이며, 규모는 길이 167cm, 너비 59cm, 깊이 31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13°-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頭部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36) 36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의 최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8.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인접하여 3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37號墓와 함께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60】 조선시대 36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59】 조선시대 3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묘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6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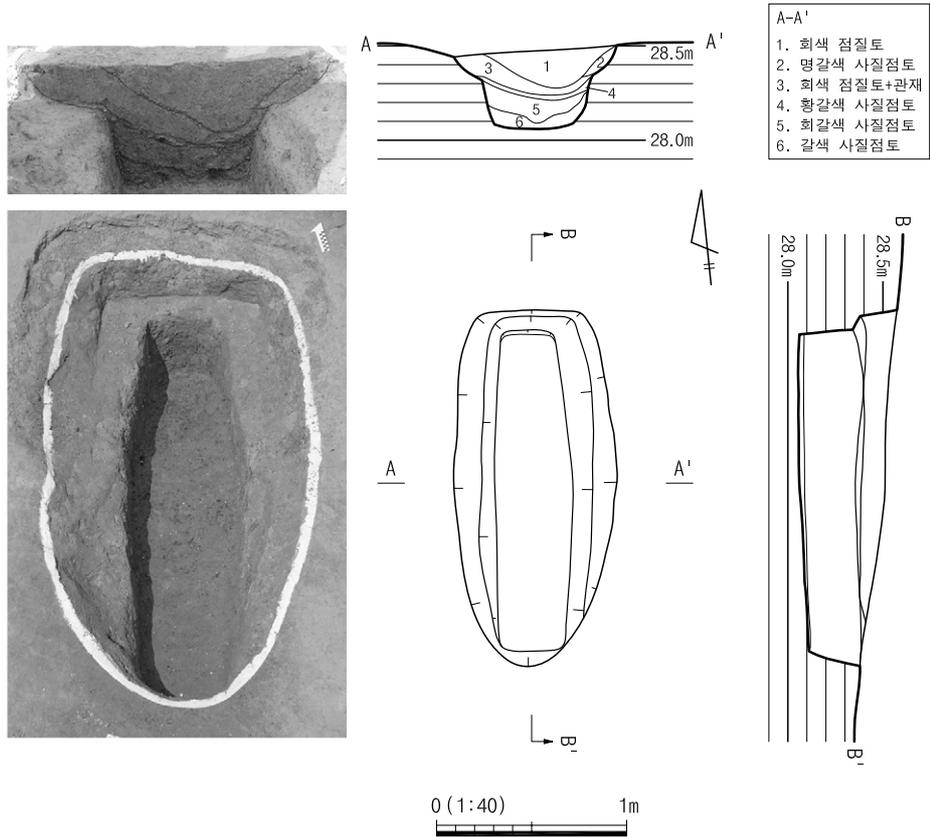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북단벽만 수직이고, 나머지 측벽과 남단벽은 경사를 이루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1cm, 너비 92cm, 깊이 86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E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묘광 내부에는 세장방향으로 내광을 조성하였는데, 장축이 외광의 주축방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정북방향의 장축을 이루고 있었다. 內壙의 규모는 길이 173cm, 너비 40cm, 높이 47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 위에는 황갈색, 적황갈색, 적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었으며, 토층에서 중앙으로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37) 37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8.6m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동쪽으로 인접하여 36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성위치로 보아 36호묘와 친연적 관계로 판단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다.



【사진 61】 조선시대 3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60】 조선시대 3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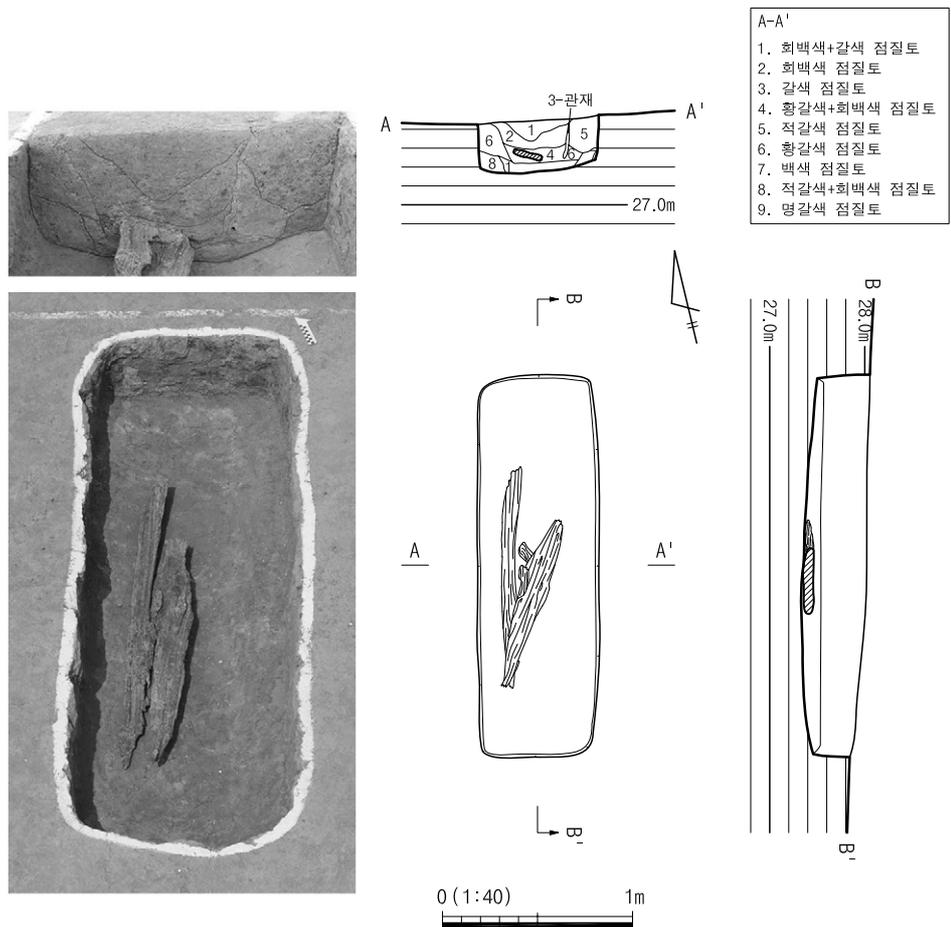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7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는데, 대체로 북단벽은 수직인 반면 측벽과 남단벽을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측벽 중앙을 넓게 조성하여 장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189cm, 너비 85cm, 깊이 53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6°-E이다. 내부에는 중앙에 주축방향에 맞추어 세장 방형으로 내광을 조성하였다. 내광의 규모는 길이 168cm, 너비 30~40cm이며, 높이는 28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는데, 남쪽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앙으로 갈색과 회갈색 명갈색 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목관 또는 목개를 덮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38) 38號墓

① 遺構



【사진 62】 조선시대 3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61】 조선시대 3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상부에 해방되는 해발고도 28.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3.3m 거리에 39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3.1m 떨어져서 41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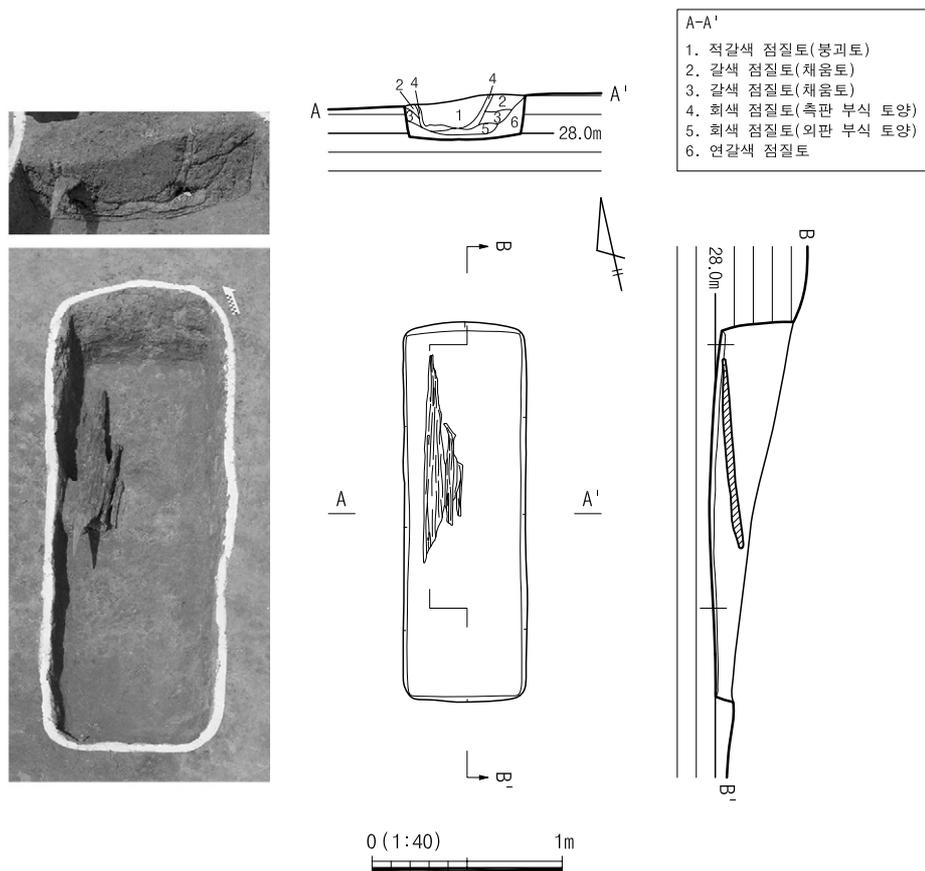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3cm, 너비 64cm, 깊이 41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3°-E이다. 바닥은 頭部쪽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에서는 목관 일부가 잔존하였으며, 목관의 너비는 약 40cm 정도로 확인되었다. 목관 측면에는 적갈색과 황갈색 점질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굴토되었던 갈색과 회백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39) 39號墓

① 遺構



【사진 63】 조선시대 39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62】 조선시대 3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8.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3.3m 거리에 38號墓가, 서쪽으로 약 3.0m 거리에 40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39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1cm, 너비 64cm, 깊이 4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3°-E이다. 바닥은 북쪽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木棺 일부가 잔존한 상태였으며, 목관의 너비는 약 40cm 정도로 추정되었다. 우선 바닥에 연갈색 점질토를 깔아 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하고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목관 측면에는 갈색 점질토를 채웠다. 그 위에는 적갈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40) 4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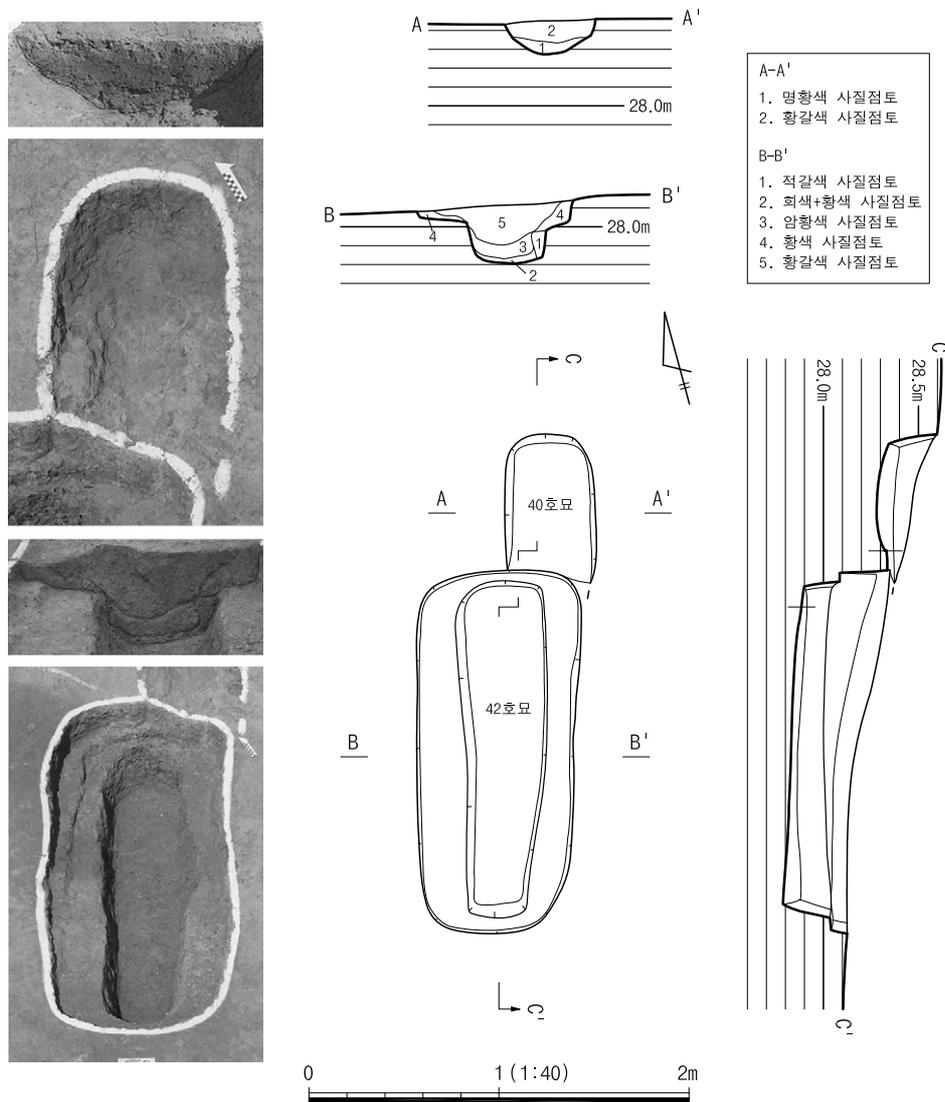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8.6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는데, 이미 42號墓에 의해 남쪽부분이 유실된 상태였다.

調査는 墓의 잔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잔존하는 묘광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부분을 먼저 조사하였으며, 내부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0號墓는 상부구조와 남쪽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판단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72cm, 너비 48cm, 깊이 30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5°-E이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명황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64】 조선시대 40·42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63】 조선시대 40·4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41) 41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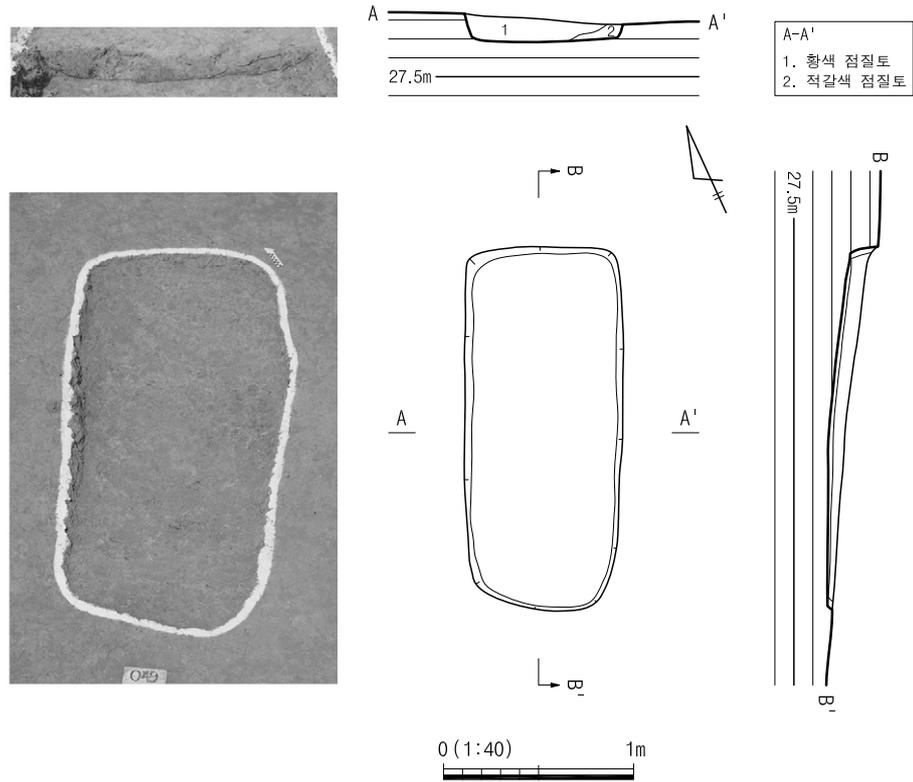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북쪽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7.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3.1m 거리에 38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2.9m 떨어져서 45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1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2cm, 너비 83cm, 깊이 12cm이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4°-E이다. 바닥은 북쪽을 다소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65】 조선시대 4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64】 조선시대 4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42) 42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상부인 해발고도 28.3m 높이에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이미 조선시대 2號 住居址와 40號墓를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서쪽으로 2.8m 떨어져 43號墓가 위치하였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2號墓는 이단광식 토광묘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2cm, 너비 82cm, 깊이 47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5°-E이다. 묘광 내부에는 주축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내광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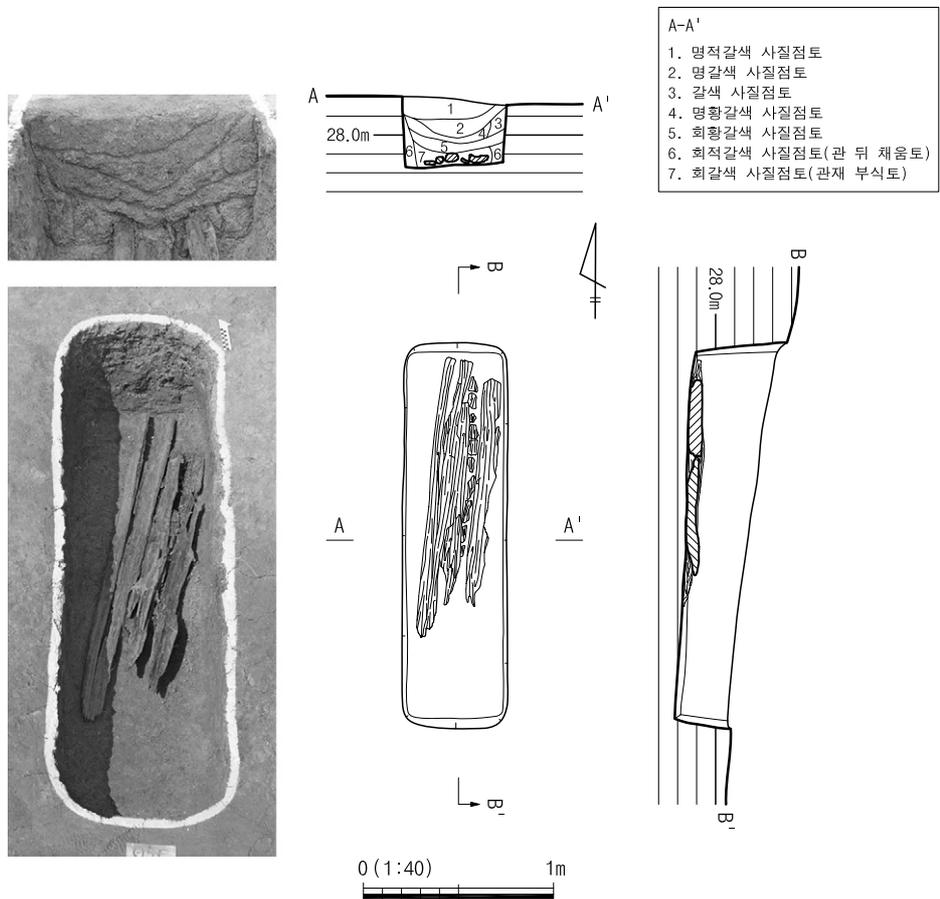
內壙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30~45cm로 頭廣足狹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으며, 높이는 24cm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바닥은 남쪽을 낮게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나 암황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중앙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목관 또는 목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43) 43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북쪽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8.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2.8m 떨어져 42號墓가, 서쪽으로 약 3.0m 거리에 44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66】 조선시대 4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65】 조선시대 4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3號墓는 一段壙

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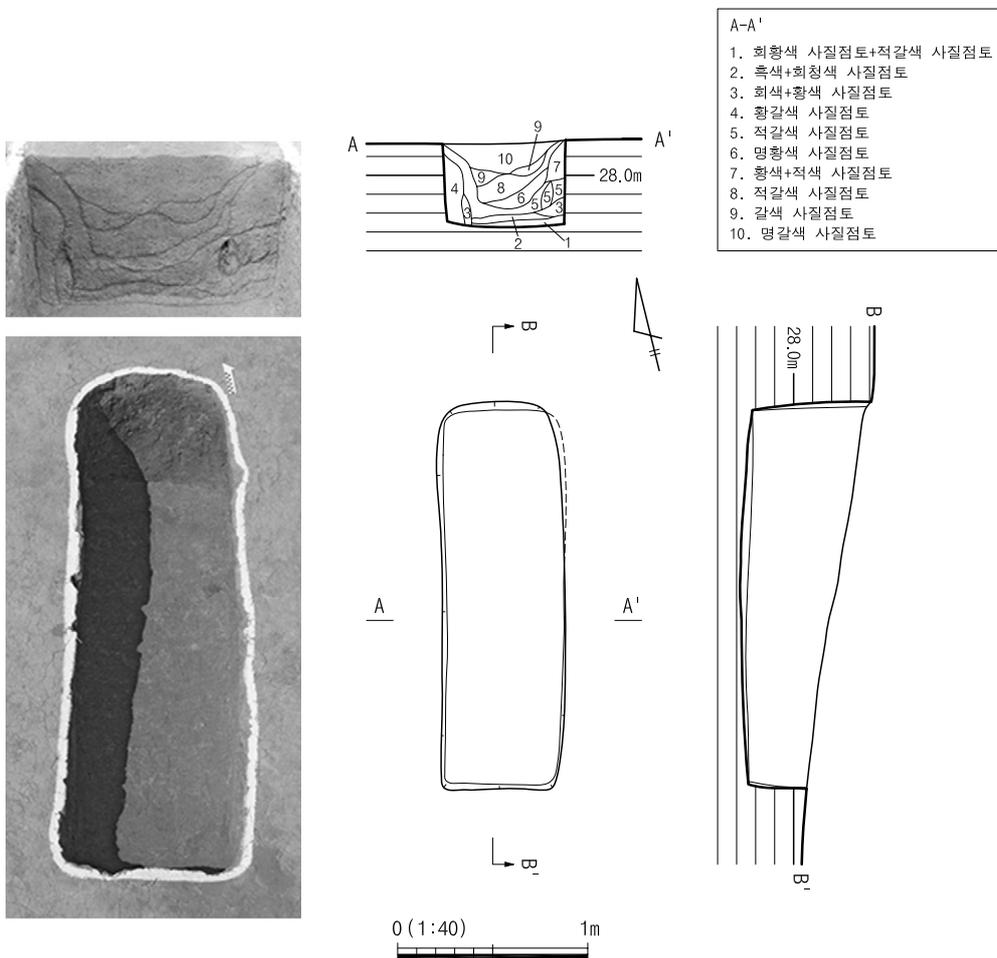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5cm, 너비 55cm, 깊이 5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0°로 정북방향이었다. 바닥은 남쪽을 낮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木棺 下板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일부 남아있었다. 목관의 너비는 약 40cm 정도로 판단되었다. 목관 측면에는 회색과 회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44) 44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8.4m에 위치하였으며 동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져서 43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곽이 확인되었다.



【사진 67】 조선시대 44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66】 조선시대 4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44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경사면을 따라 남쪽부분 상부가 유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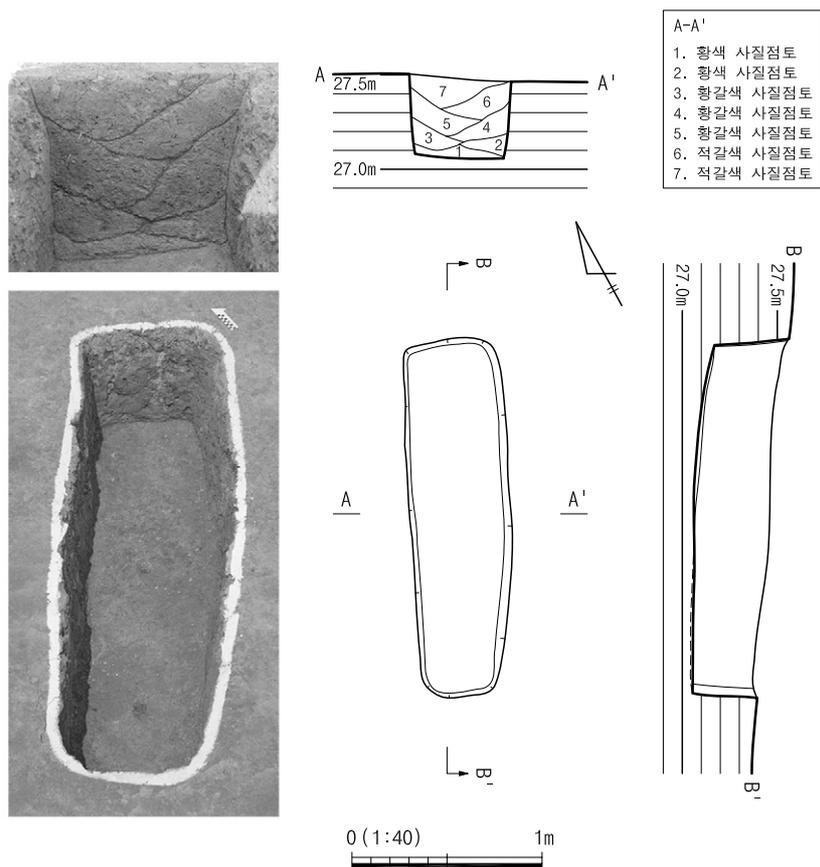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5cm, 너비 65cm, 깊이 44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4°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중앙이 약간 낮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잘 남아있었다. 棺의 너비는 대략 40cm 내외이며, 측면에는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고, 관 위에는 명황색과 적갈색, 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45) 45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9m 떨어져 41號 土壙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약 15cm 정도 제토하자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68】 조선시대 4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67】 조선시대 4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5號墓는 一段擴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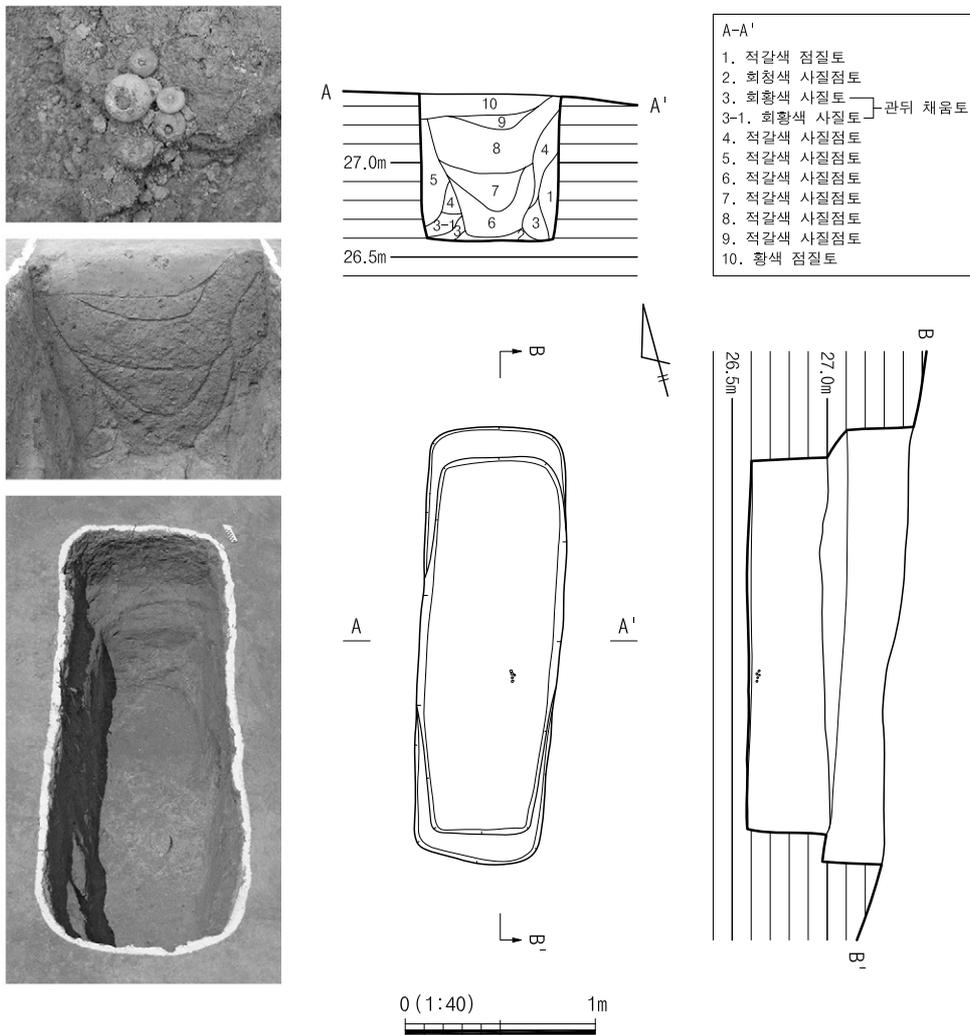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54cm, 깊이 4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8°-E이다. 바닥은 頭部쪽인 북쪽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46) 46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5m 높이에 조



【사진 69】 조선시대 4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68】 조선시대 4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4.0m 떨어져 47號墓가, 북서쪽으로 약 3.1m 떨어져 62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6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내광을 다른 이단광식 토광묘에 비해 크게 조성하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32cm, 너비 75cm, 깊이 85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5°E이다. 內壙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75~50cm 정도로 중앙이 측벽 붕괴로 인해 편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 頭廣足狹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었다. 높이는 40cm 정도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잘 남아있었다. 관의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판단되었으며, 목관 안치 후 측면에 회황색 사질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그 위에 굴토되었던 적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바닥 중앙에서는 구슬 7점이 수습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58~64)

58. 흑갈색을 띠는 석재 구슬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종단면은 장방형으로 납작한 타원형에 가깝다. 중앙에는 지름 0.35cm 크기의 穿孔을 뚫었다. 표면은 매끈하게 가공되었다.

[지름 1.6cm, 두께 1.2cm]

59.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짙은 청색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9cm 크기의 천공을 뚫었다. 표면은 매끈하게 가공하였다.

[지름 2.1cm, 두께 1.1cm]

60.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밝은 청녹색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3cm 크기의 천공을 뚫었다. 표면은 일부 결실되었으나 매끈하게 가공한 편이다.

[지름 1.15cm, 두께 0.75cm]

61. 유리제 관옥으로 원형의 막대를 나선형으로 꼬아 성형하였다. 색조는 밝은 청녹색이다. 단면은 원형이며, 중앙에 0.2cm 크기의 구멍을 조성하였다.

[길이 0.6cm, 너비 0.5cm]

62. 유리제 관옥으로 원형의 막대를 나성형으로 꼬아 성형하였다. 색조는 밝은 청녹색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중앙에 0.2cm 크기의 구멍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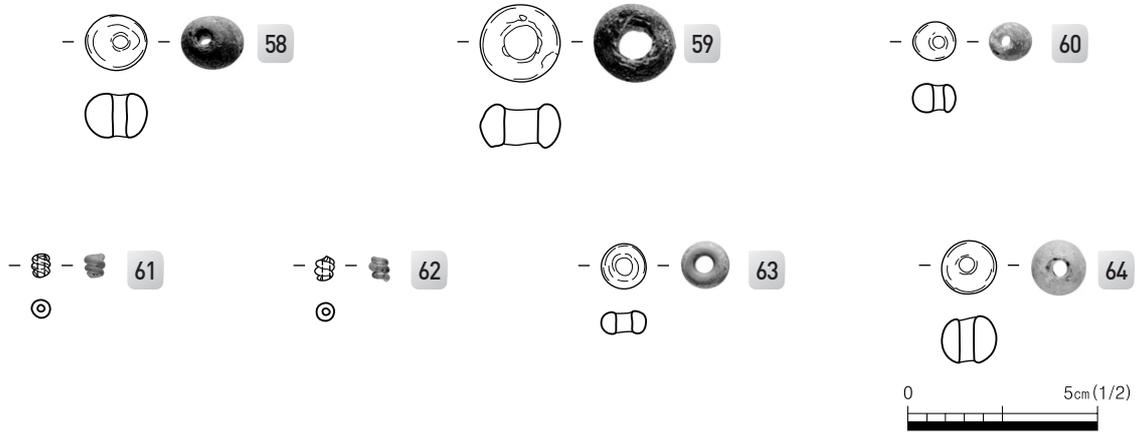
[길이 0.65cm, 너비 0.5cm]

63. 밝은 청녹색을 띠는 유리제 구슬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45cm 크기의 천공을 뚫었다. 표면은 매끈하게 가공하였다.

[너비 1.2cm, 두께 0.6cm]

64.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반투명한 백색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중앙에는 0.4cm의 천공을 뚫었다. 표면은 매끈하게 가공하였다.

[너비 1.45cm, 두께 1.25cm]



(47) 47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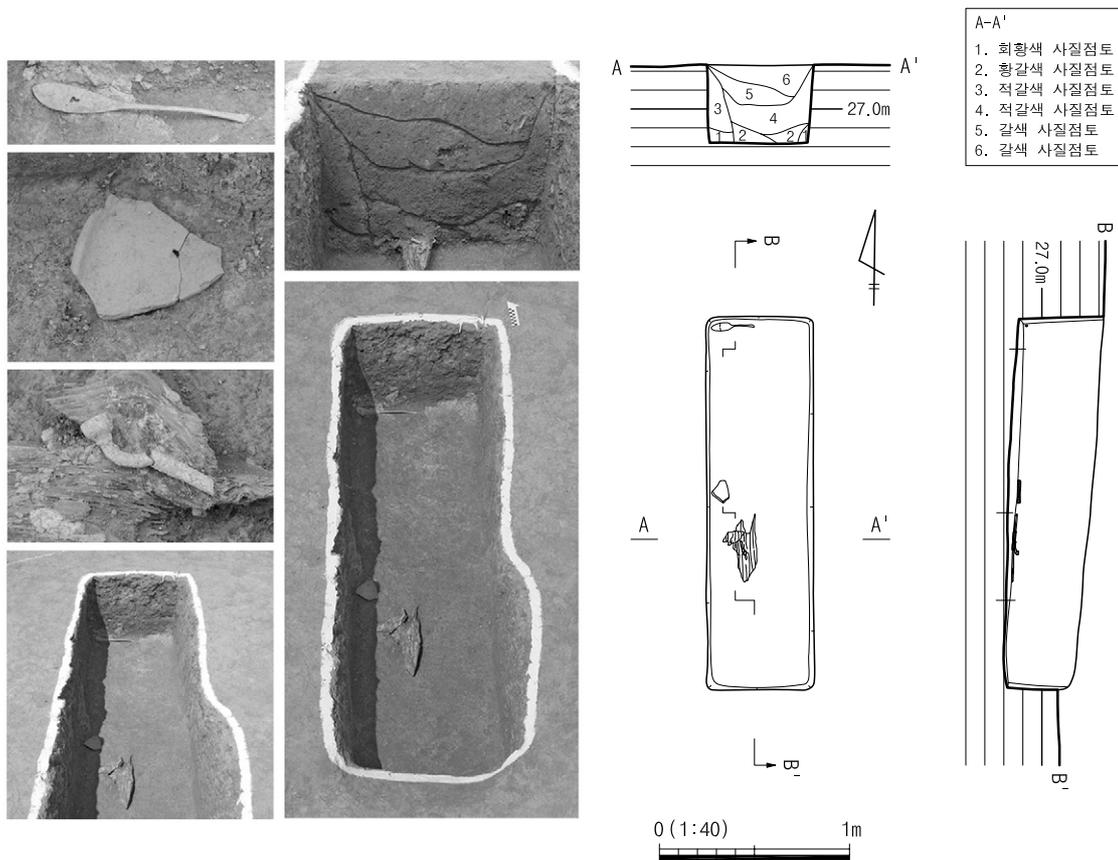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쪽 경사면의 중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7.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4.0m 거리에 46號墓가, 서쪽으로 약 3.0m 떨어져 47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調査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세장방향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7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적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8cm, 너비 56cm, 깊이 41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W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북쪽을 약간 높게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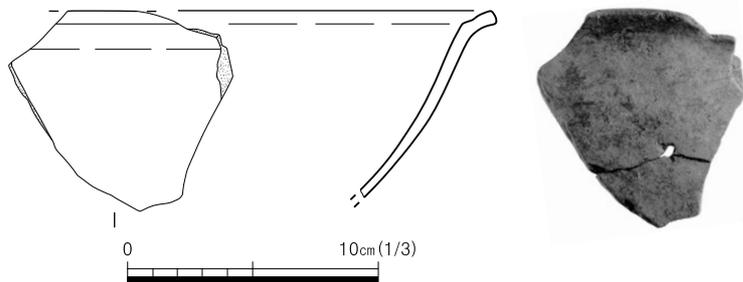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은 묘광 주축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안치하였으며, 너비는 40cm 정도로 추정되었다. 목관 측면에는 회황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유물은 동쪽 측면에서 토기편 1점과 복단벽에 접해 청동순가락 1점, 청동곰방대 1점이 수습되었다. 토기편의 경우 부장유물은 아니며, 목관 측면의 채움토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청동순가락은 관 밖에 부장한 반면 청동곰방대는 관 내부 시신의 허리부분에 부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진 70】 조선시대 4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69】 조선시대 4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② 遺物 (일련번호 65~67)

65. 회청색을 띠는 자배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급하게 외반시켜 성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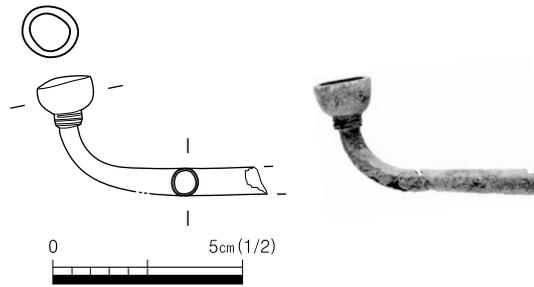


65

였으며, 구순은 'Σ' 형태로 약하게 흡이 형성되었다. 내·외면에 특별한 문양은 관찰되지 않았다.

[잔존길이 7.9cm, 두께 0.3~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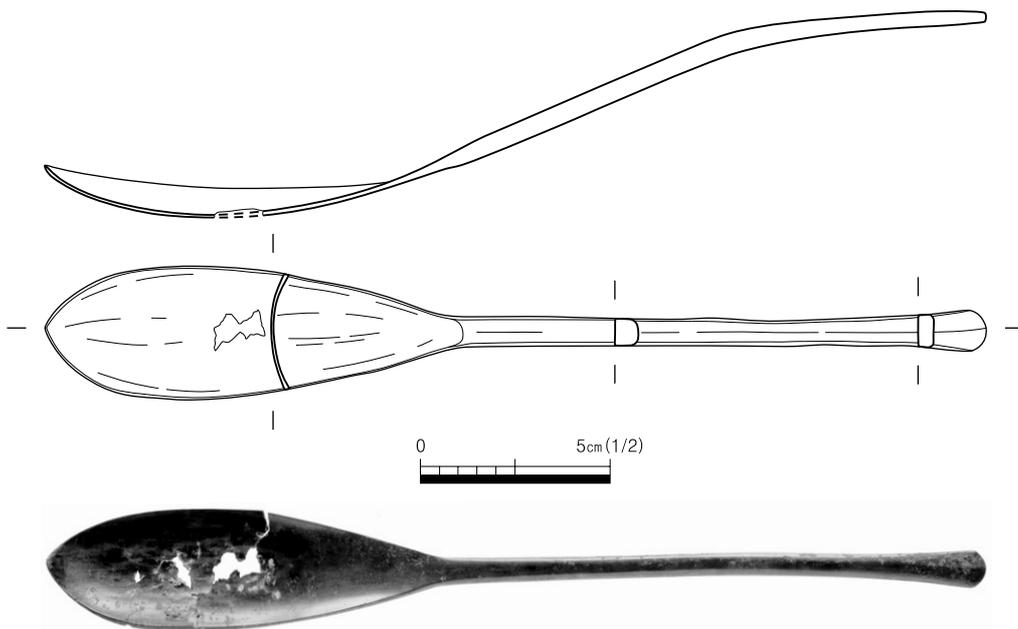
66. 담녹색을 띠는 청동제 곰팡대이다. 설대(煙道)와 물부리 부분은 유실되고 대통(雁首)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L' 자형이며, 연도부의 구멍 지름은 0.7cm로 머리 부분으로 갈수록 구멍의 지름이 좁아진다. 머리부분에는 나팔상으로 벌어진 담배꽃이를 부착하였다. 담배꽃이 입지름은 2.0cm, 깊이는 1.8cm 정도이다.



66

[잔존길이 6.05cm, 높이 3.15cm, 두께 0.05~0.2cm]

67. 匙部 바닥이 일부 결실되었을 뿐 원형으로 잘 남아있는 담청색의 청동제 숟가락이다. 匙部の 형태는 柳葉形으로 중앙은 다소 편평하며, 匙端部는 사용에 의해 좌측 일부가 마모되었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병단부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방형의 형태를 띠고 윗면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병단부는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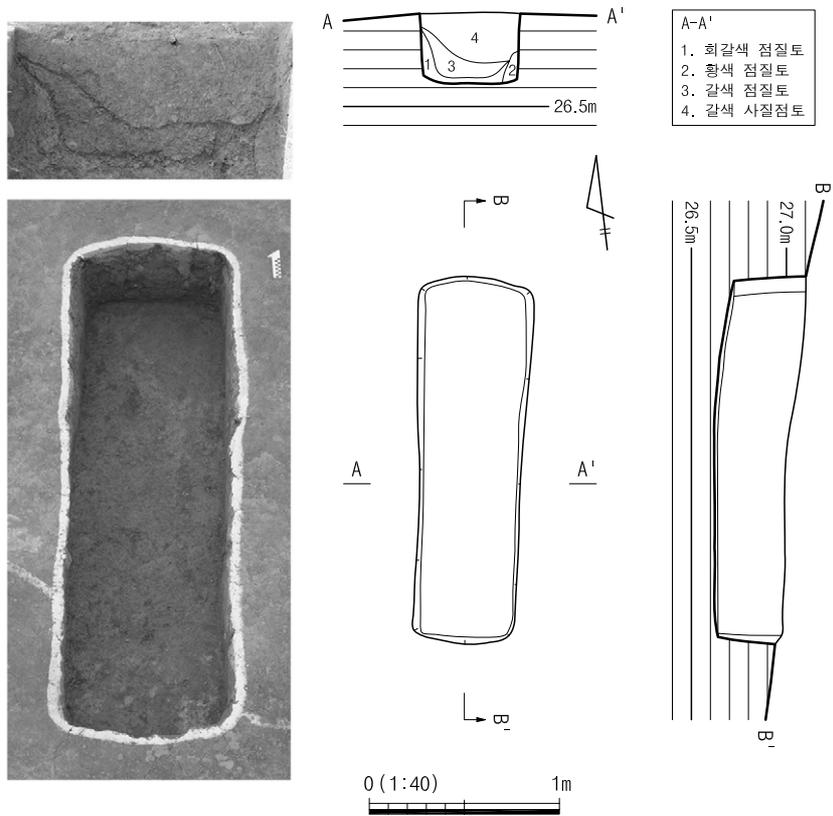
장방형이다. 표면에는 가질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24.8cm, 시부길이 11.0cm, 시부너비 3.4cm, 병부너비 0.7cm, 두께 0.05~0.6cm]

(48) 48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3.0m 떨어져 4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71】 조선시대 48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70】 조선시대 4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8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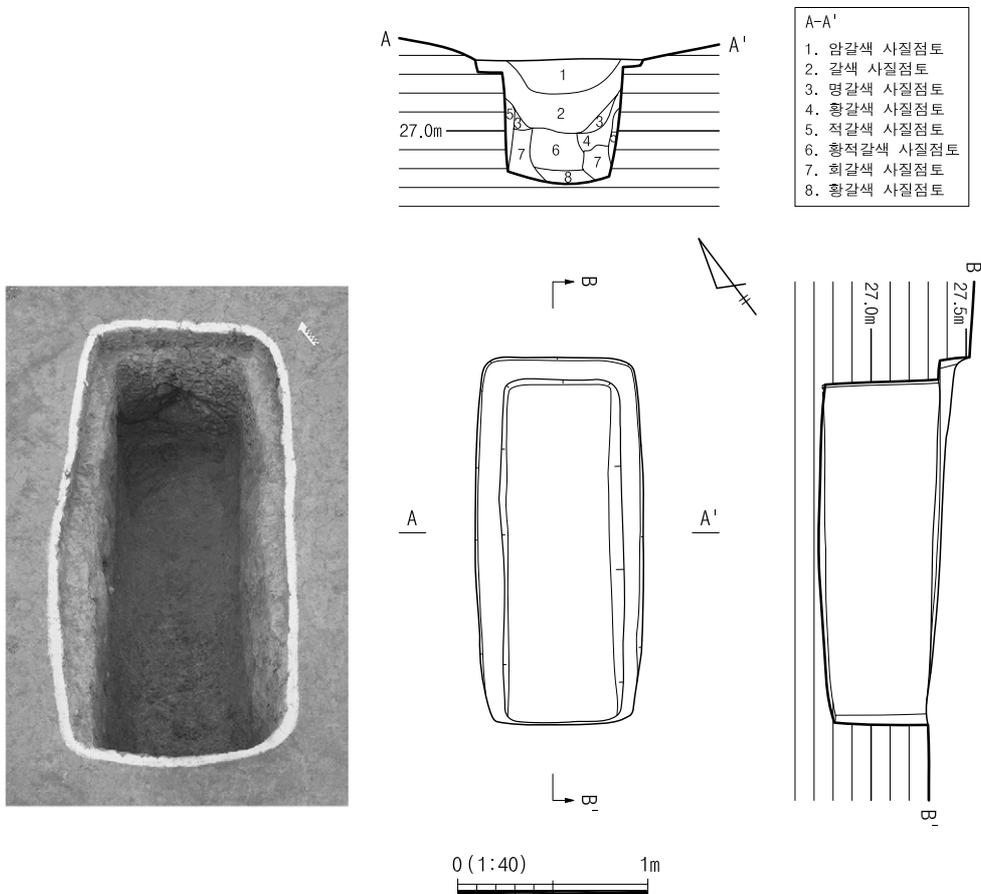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95cm, 너비 53cm, 깊이 40cm이며, 평면형태는 북쪽이 약간 넓은 頭廣足狹의 장방형 형태를 띠고 있었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7°-E이다. 바닥은 頭部쪽인 북쪽을 높게 조성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규모는 너비 40c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측면에는 회갈색과 황색 점질토를 채우고, 관 위에는 갈색 점질토와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49) 49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7.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5.5m 떨어져서 19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72】 조선시대 49호묘 조사 後 전경 / 【도면 71】 조선시대 4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49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5cm, 너비 88cm, 깊이 65cm이다. 長軸方向은 N-37°-E로 경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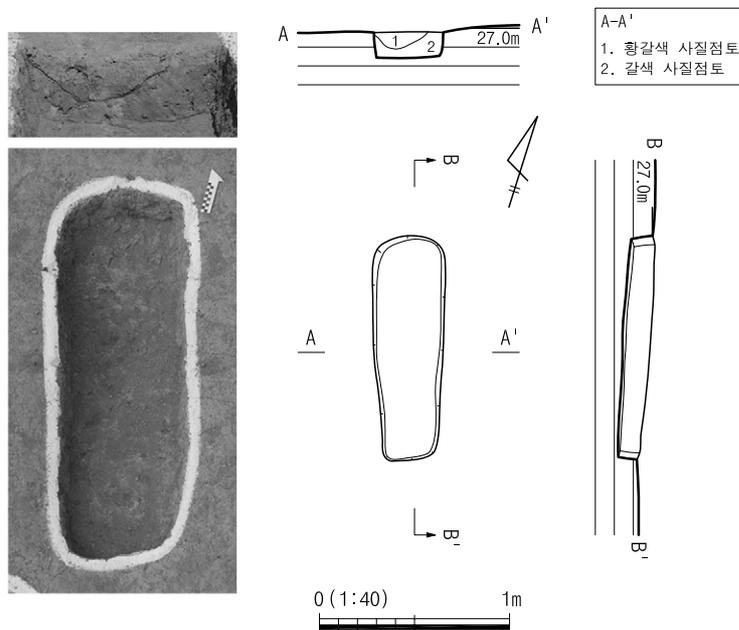
과 나란하다. 내광은 묘광의 남쪽에 치우쳐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64cm, 높이 60cm 정도로 크고 높게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木棺을 안치하였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50) 50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에 인접하여 6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소형의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73】 조선시대 5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72】 조선시대 5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0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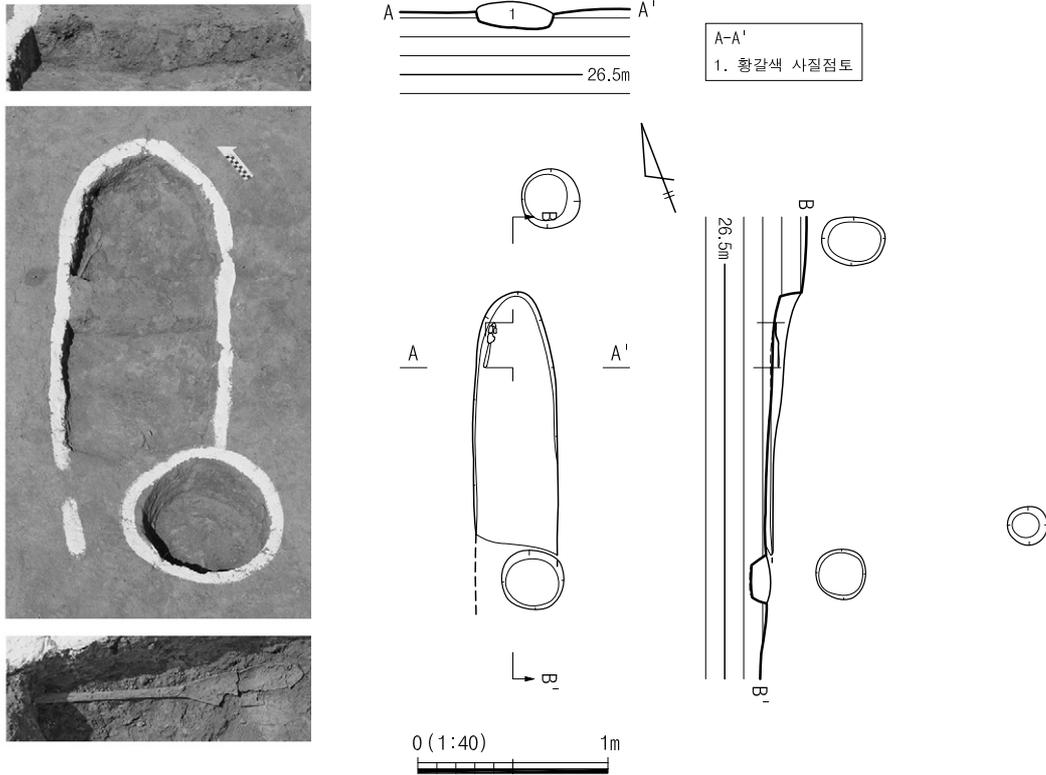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頭廣足狹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규모는 길이 119cm, 너비 36cm, 깊이 14cm로 소형에 해당된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7°-W이다. 바닥은 북쪽을 높게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51) 51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6.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져 52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 형태로 묘광의 확인되었다.



【사진 74】 조선시대 5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73】 조선시대 5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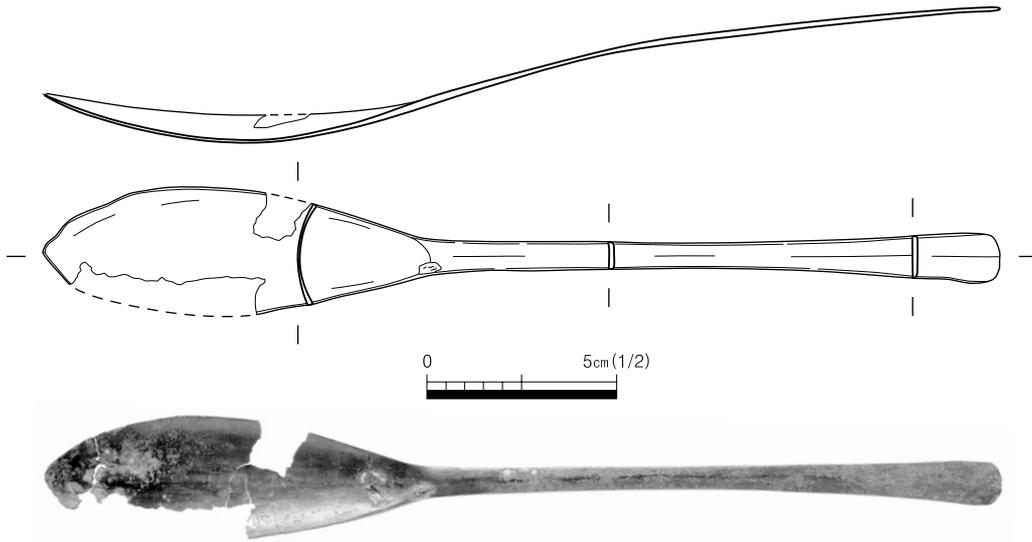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1號墓는 상부구조와 남쪽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상당히 세장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133cm, 너비 41cm, 깊이 14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1°-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북서쪽에서 청동손가락 1점이 수습되었다.

② 遺物 (일련번호 68)

68. 담청색의 청동제 손가락으로 시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윗면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표면은 일부 부식되어 있으며,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68

[길이 25.2cm, 시부길이 10.2cm, 시부너비 3.2cm, 병부너비 0.8cm, 두께 0.05~2.0cm]

## (52) 52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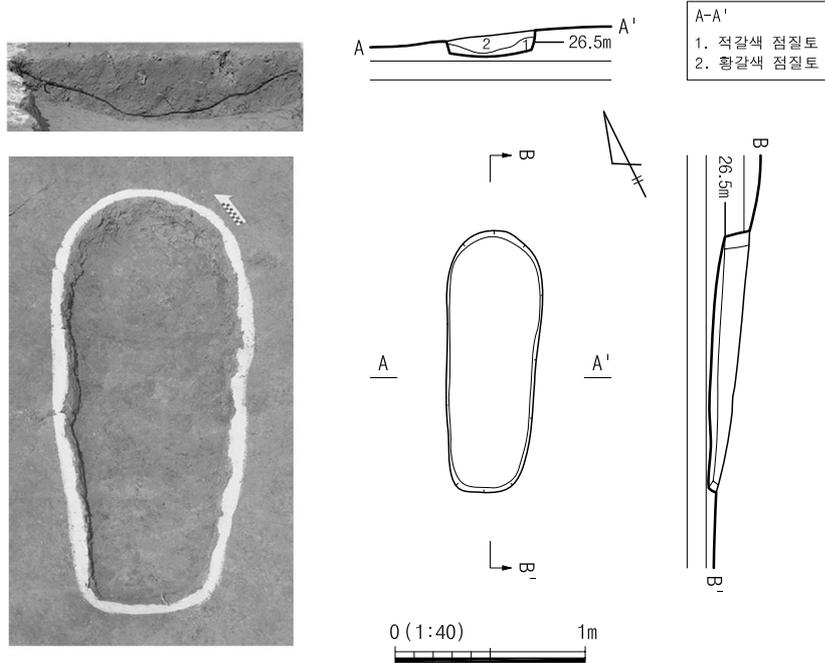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형성된 묘역내 남서사면 중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6.6m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2.0m 떨어져 51號墓가, 서쪽으로 약 1.3m 거리에 5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남쪽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2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頭廣足狹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규모는 길이 139cm, 너비 47cm, 깊이 11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6°-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적갈색과 황갈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75】 조선시대 5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74】 조선시대 5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53) 53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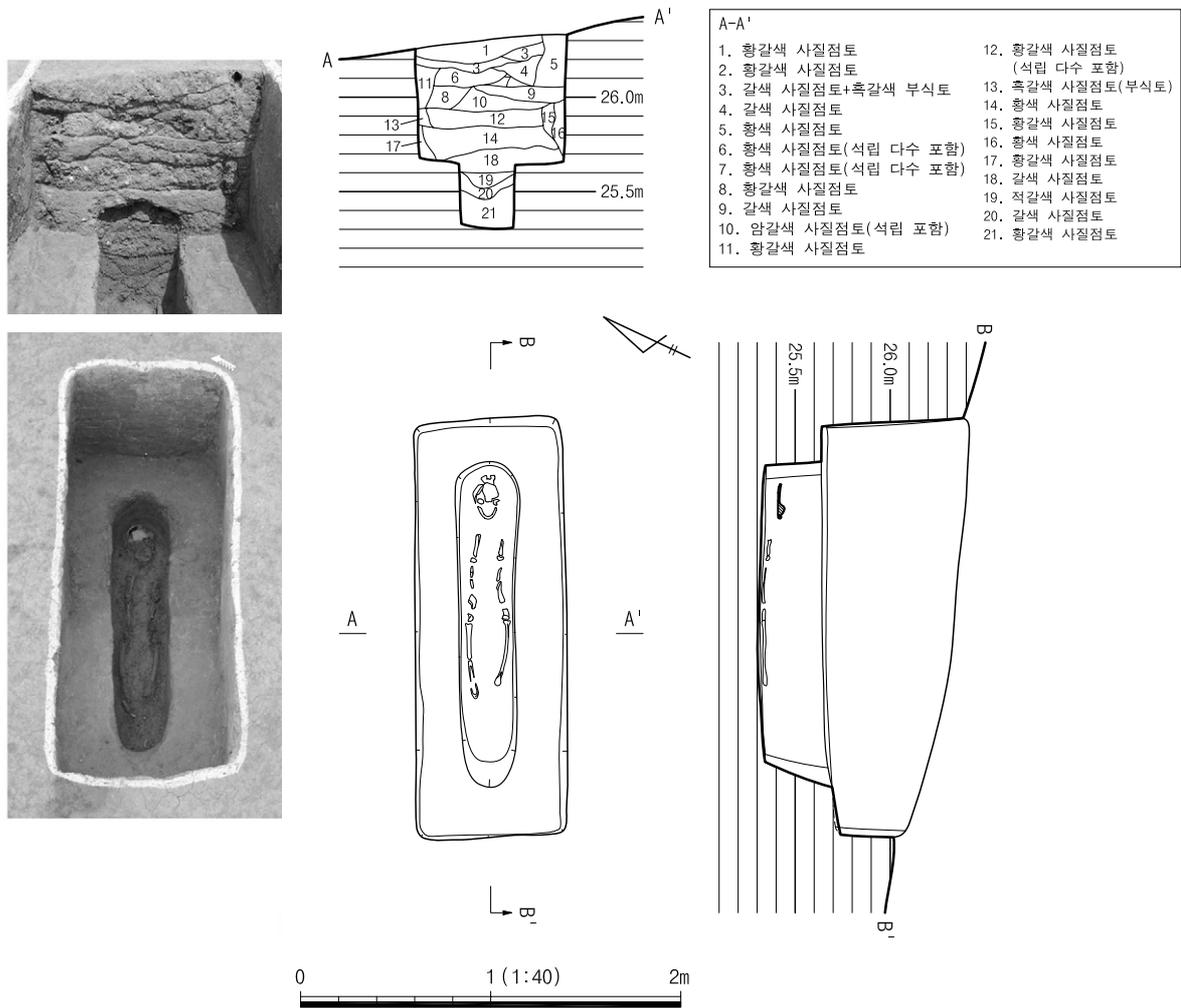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6.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1m의 지근거리에 25號墓가, 동쪽으로 약 1.3m 떨어져 52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3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2cm, 너비 80cm, 깊이 100cm이다. 長軸방향은 E-25°-N으로 경사방향과 나란하였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頭部와 足部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광은 묘광 주축방향에 맞추어 중앙에 세장방향으로 조성하였으며, 단벽은 반원형을 이루었다.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30cm, 높이 30cm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신 안치 후 그 위에 황갈색, 갈색,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인골이 확인되었을 뿐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76】 조선시대 5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75】 조선시대 5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54) 54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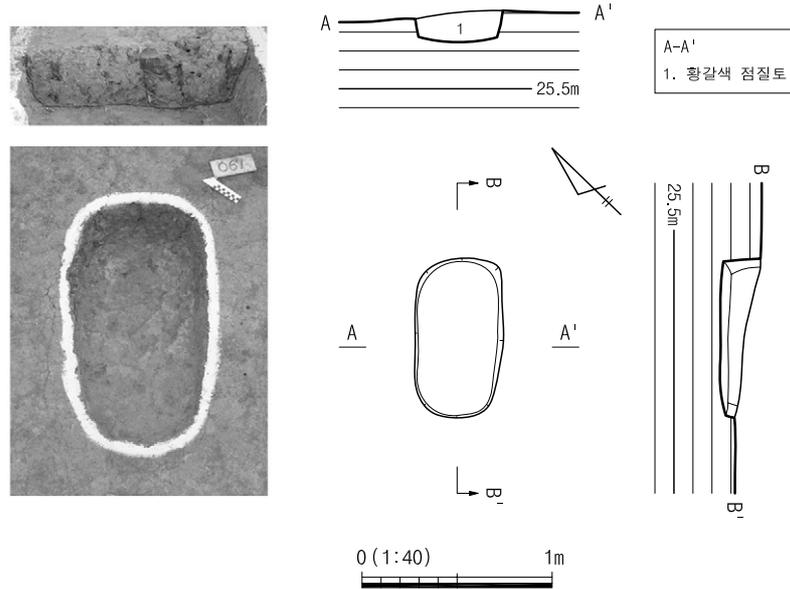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5.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0.9m 거리에 53號墓가, 남쪽으로 약 1.2m 떨어져 55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4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84cm, 너비 46cm, 깊이 22cm로 상당히 소형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6°-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77】 조선시대 54호묘 토층 및 조사 후 전경 / 【도면 76】 조선시대 5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55) 55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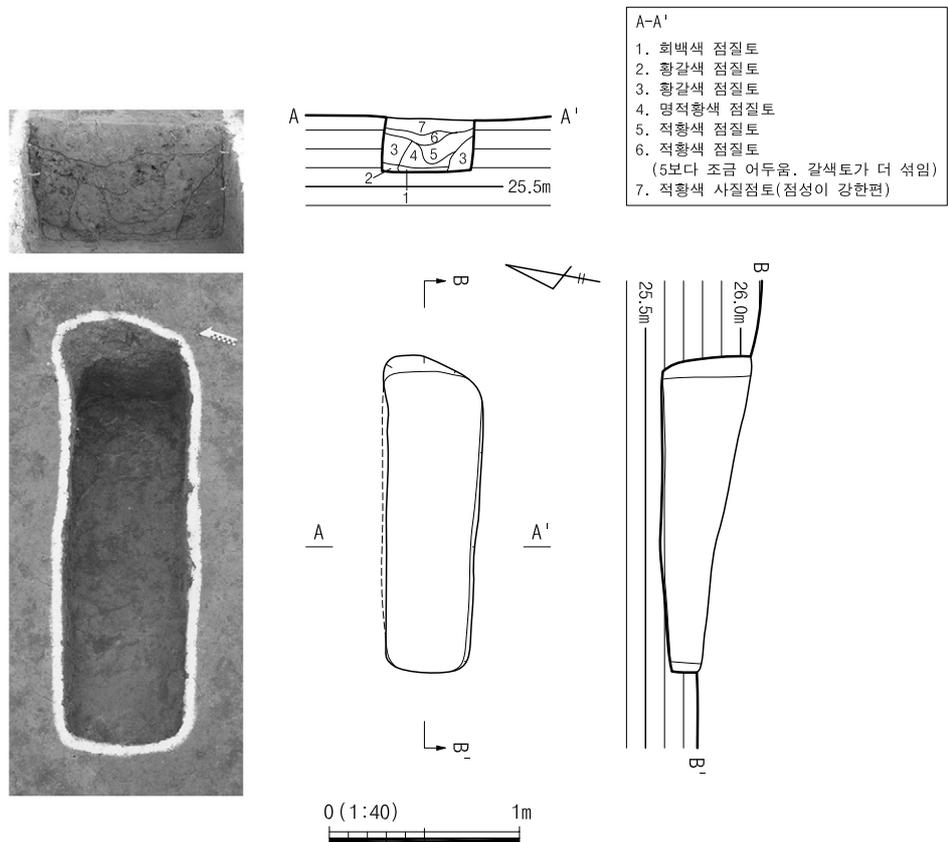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2.4m 거리에 26號墓가, 북쪽으로 약 1.2m 떨어져서 54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封墳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5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추정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頭廣足狹의 장방형으로 동쪽 단벽은 다소 부정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68cm, 너비 46cm, 깊이 47cm이며, 長軸方向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E-10°-N이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의 너비는 대략 28cm 정도로 좁으며, 측면에는 황갈색 점질토를 채우고, 그 위에는 적황색 점질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78】 조선시대 5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77】 조선시대 5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56) 5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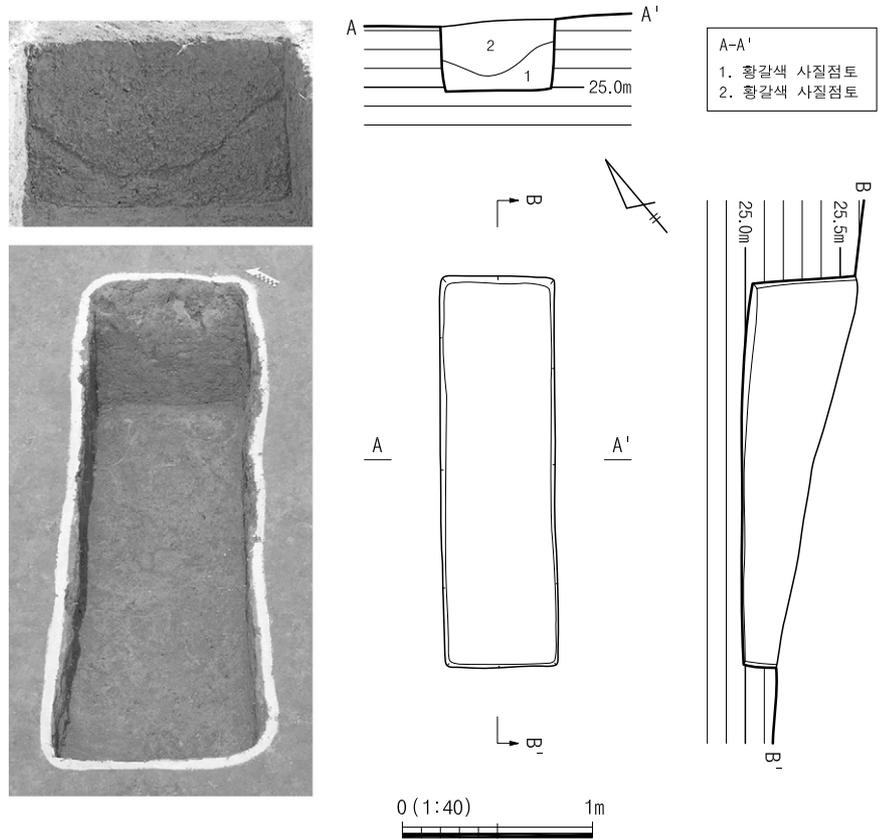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서사면의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5.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1.9m 떨어져서 70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세장방향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6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추정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08cm, 너비 60cm, 깊이 54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0°-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頭部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79】 조선시대 5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78】 조선시대 5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57) 57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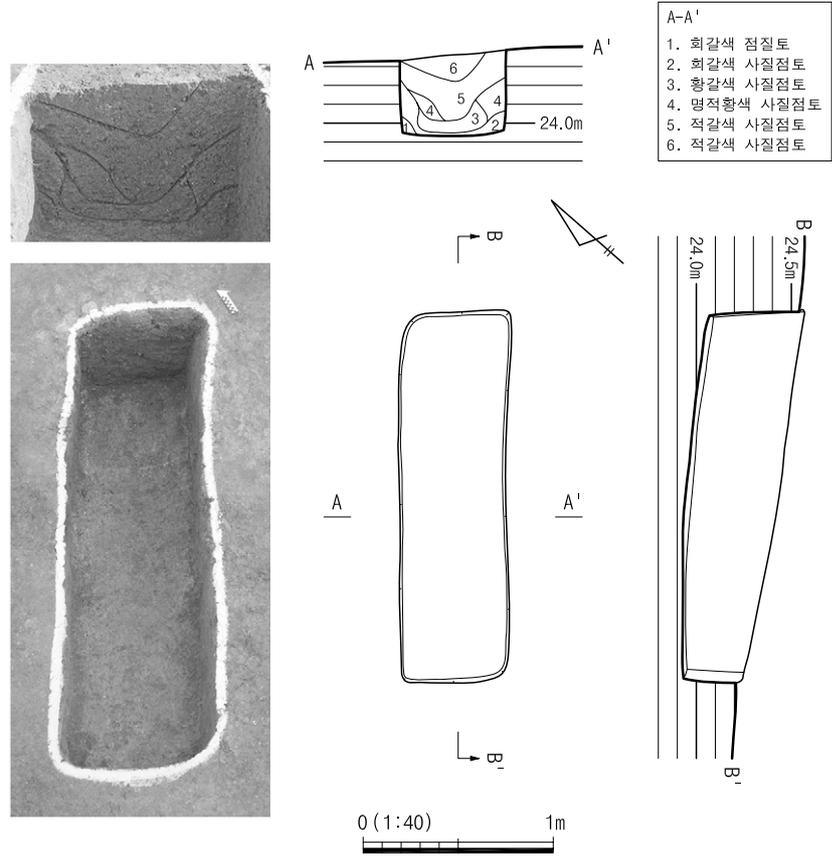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4.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1.0m 거리에 70號墓가, 동쪽으로 약 2.1m 떨어져 111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7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97cm, 너비 56cm, 깊이 48cm이며,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8°-E이다. 바닥은 두부쪽인 북쪽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너비는 대략 38cm로 추정되었으며, 측면에는 회갈색 사질점토를 채웠고, 관 위에는 황갈색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80】 조선시대 5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79】 조선시대 5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58) 5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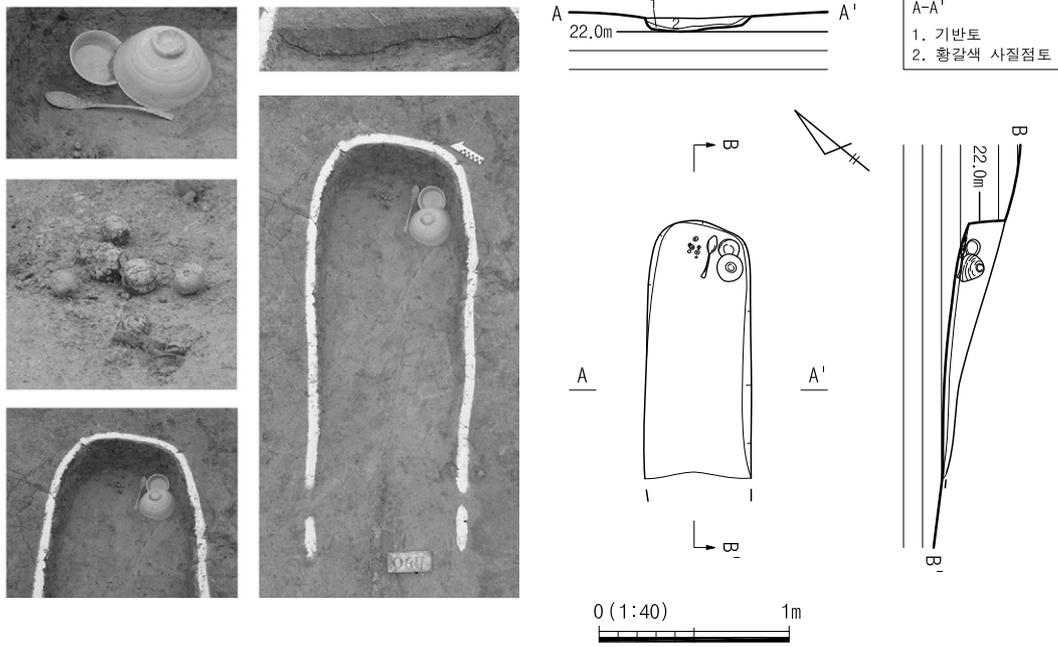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서사면의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2.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3m 떨어져서 110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래쪽이 유실된 장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133cm, 너비 56cm, 깊이 18cm 정도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0°-E이다. 바닥은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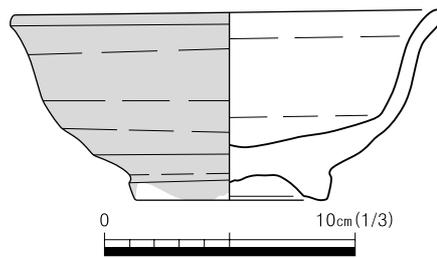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북쪽 단벽에 접해서 백자 대접과 접시, 청동술가락 각 1점씩 세트로 부장되었으며, 청동술가락 우측으로 유리제 구슬 7점이 수습되었다.



【사진 81】 조선시대 5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80】 조선시대 5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② 遺物 (일련번호 6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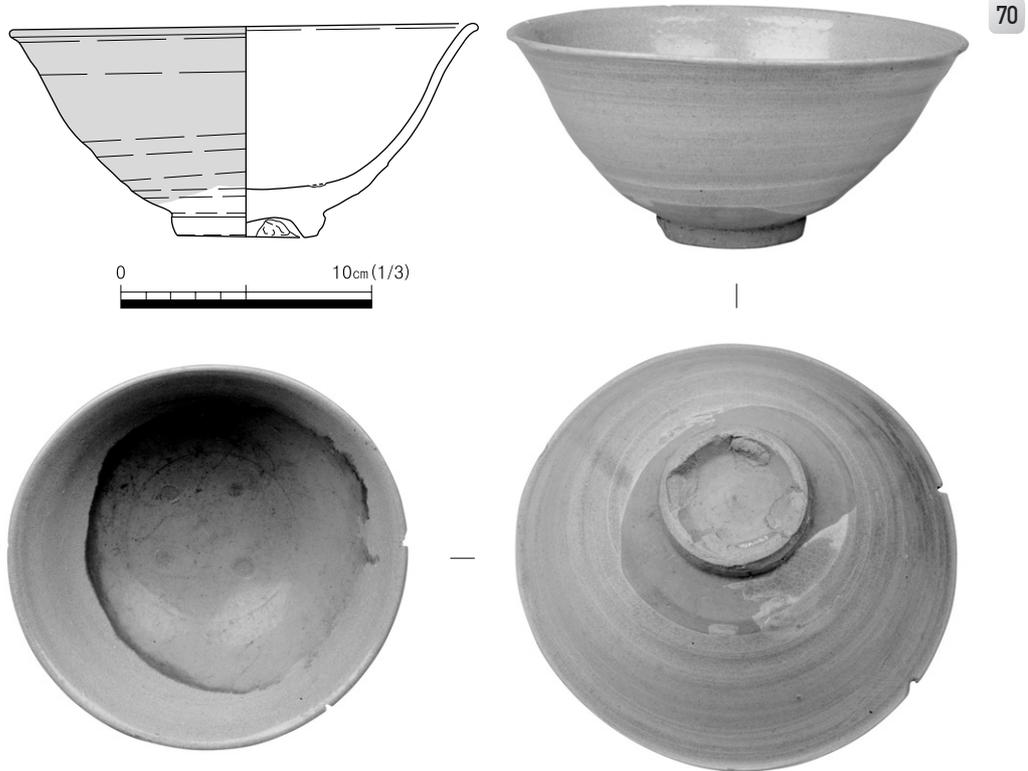
69. 회백색을 띠는 白磁 접시이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다가 급하게 꺾여 口緣部에 이르며, 단부를 그대로 외반시켜 구연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다. 기벽 내 면에는 지름 8.4cm의 內底圓角을 희미하게 표현하였다. 內底面은 나선형으로 마무리



[구경 11.15cm, 높이 5.05cm, 저경 5.1cm, 두께 0.4~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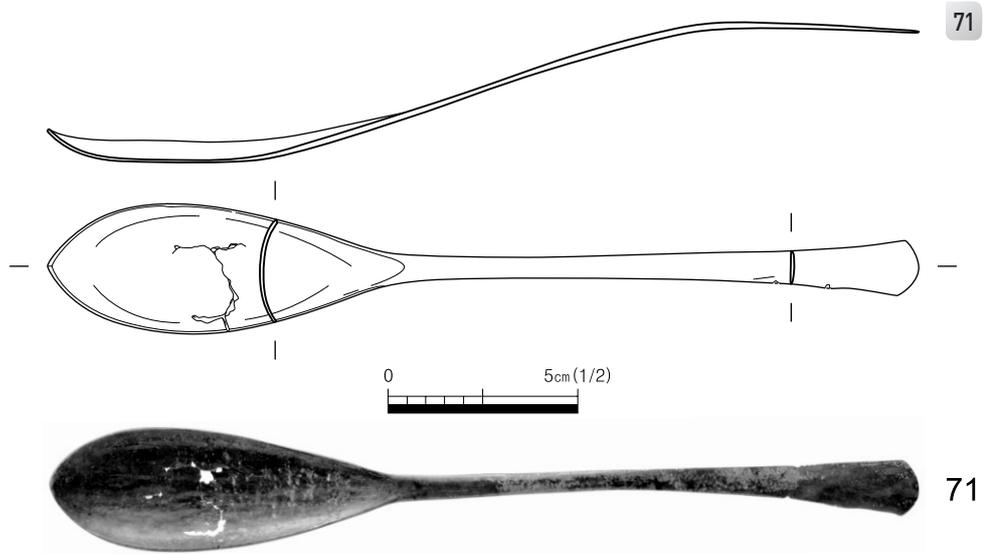
하여 중앙이 약간 솟아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수직을 이루며, 외면은 바닥에서 1.0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마디가 형성되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 중앙이 솟아있다. 굽 접지면은 안쪽이 살짝 들여 있으며, 태토받침을 때 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70. 회백색 白磁 대접으로 진한 갈색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구연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다. 내면에는 지름 8.3cm의 內底圓角을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편평하다. 굽은 오목굽으로 수직을 이루며, 바닥에서 1.1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외면에 마디가 형성되었다. 굽과 기벽 경계에 깊은 홈이 파여 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았으며, 바닥이 높게 솟아 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cm 정도로 바깥쪽이 살짝 들려 있다. 내저면과 굽 주변에 태토받침을 때 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높이 13.5cm, 구경 18.0cm, 저경 5.5cm, 두께 0.4~1.4cm]

71. 담청색의 청동제 숟가락이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바닥은 편평하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약간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반원형이다. 표면은 일부 부식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23.0cm, 시부길이 9.4cm, 시부너비 1.75cm, 병부너비 0.6cm, 두께 0.1~0.2cm]

72.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반투명 백색이며, 열게 갈색빛이 감돈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4cm의 천공을 뚫었다.

[길이 1.0cm, 너비 1.1cm]

73.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밝은 갈색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25cm의 천공을 뚫었다. 표면은 매끈하게 가공하였다.

[길이 0.8cm, 너비 1.2cm]

74.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갈색이다. 평면은 원형으로 다소 부정형한 형태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45cm 크기의 천공을 뚫었다.

[길이 0.7cm, 너비 1.0cm]

75.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짙은 갈색이다. 평면은 측면을 깎아 화형으로 성형하였으나 정연하지 못하며,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중앙에는 0.3cm 크기의 천공을 뚫었다.

[길이 1.4cm, 너비 1.4cm]

76. 유리제 구슬로 색조는 짙은 청녹색을 띠고 있다. 평면은 측면을 깎아 화형으로 성형하였다. 단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중앙에는 0.35cm 크기의 천공을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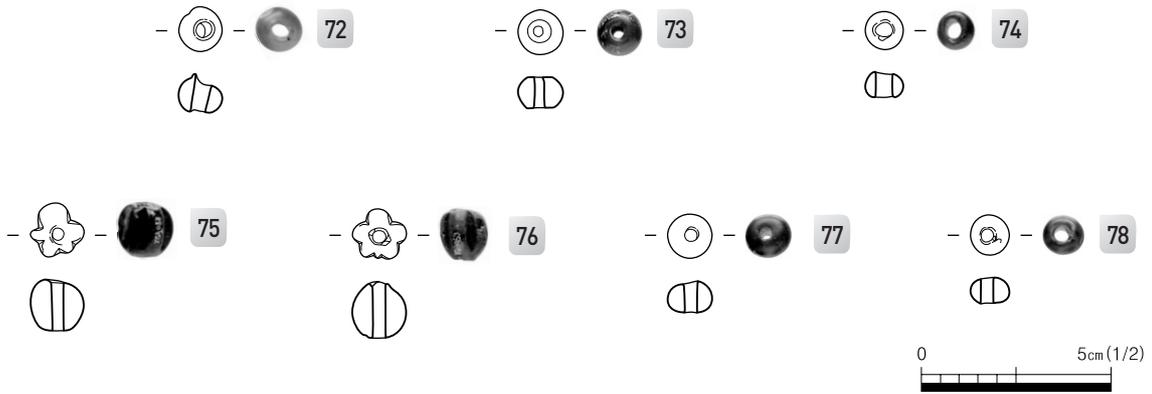
[길이 1.5cm, 너비 1.4cm]

77. 옅은 갈색을 띠는 유리제 구슬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

다. 중앙에는 0.3cm 크기의 천공을 뚫었으며, 표면은 매끄럽게 가공하였다.

[길이 0.8cm, 너비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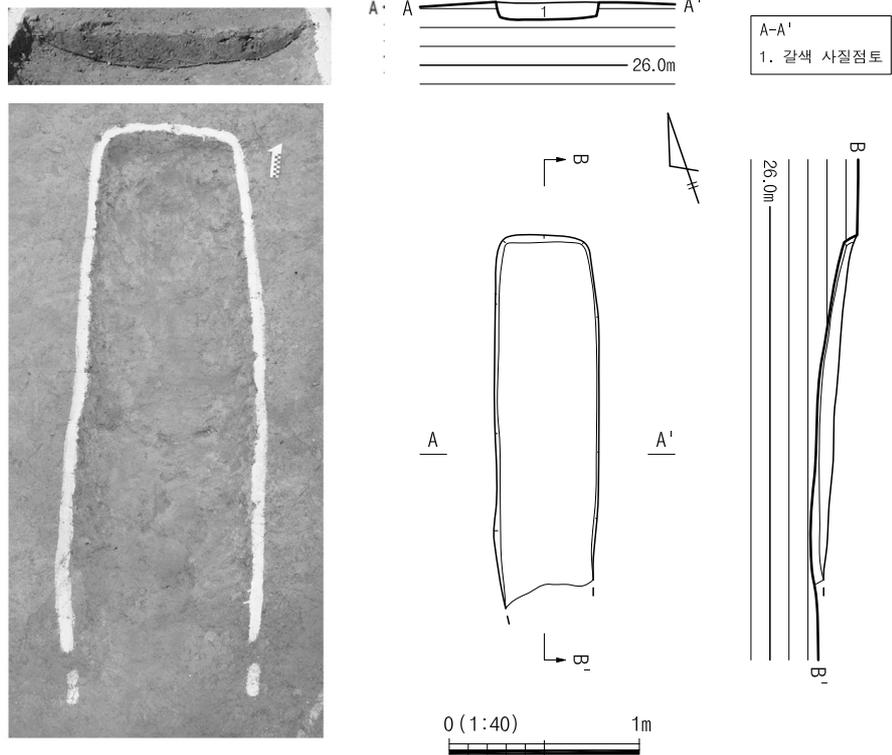
78. 옅은 갈색을 띠는 유리제 구슬이다. 평면은 원형이며,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35cm 크기의 천공을 뚫었으며, 표면은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59) 59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상부인 해발고도 26.4m 높이에 조



【사진 82】 조선시대 5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81】 조선시대 5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0m 거리에 65號墓가, 남서쪽으로 0.9m 정도 떨어져 6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59號墓는 상부구조를 포함한 경사면 아래쪽 대부분이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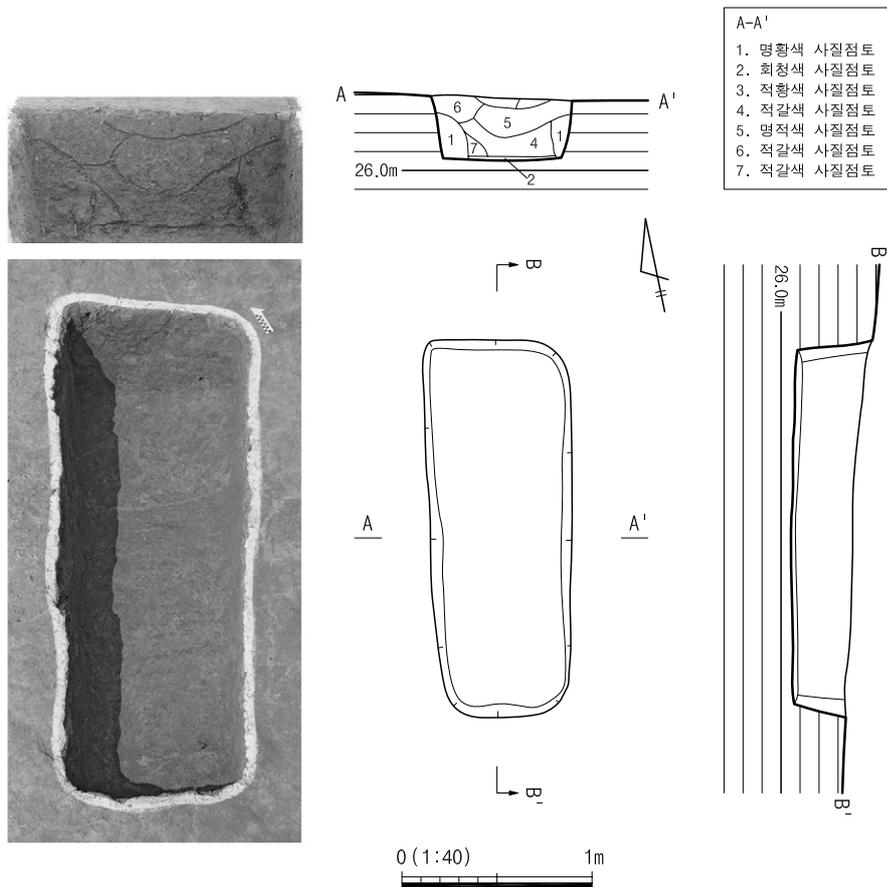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평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185cm, 너비 54cm, 깊이 9cm 정도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9°E이다. 바닥은 남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60) 60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6.5m 높이에 조



【사진 83】 조선시대 6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82】 조선시대 6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7.0m 떨어져 61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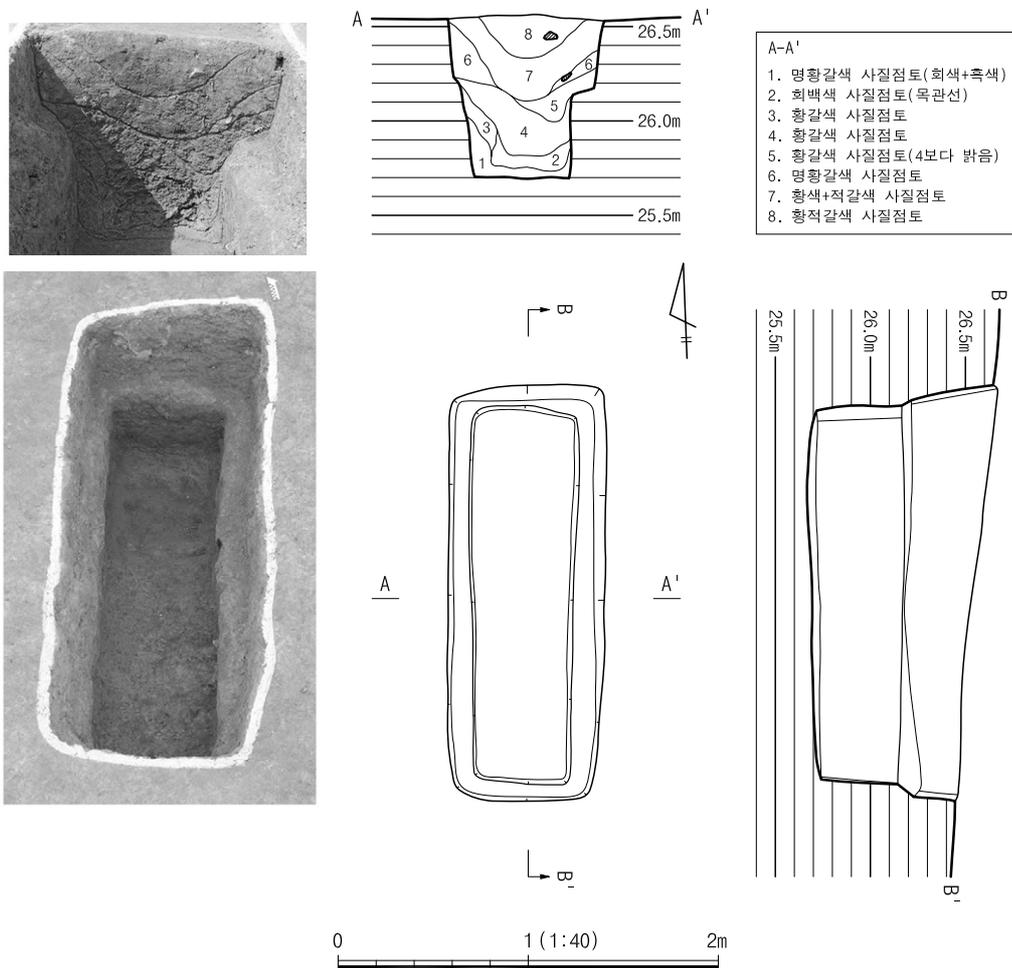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0號墓는 一段擴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頭廣足狹 형태의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74cm, 깊이 33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2°-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목관의 너비는 대략 46cm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명황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관 상부에는 적갈색과 명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61) 61號墓

① 遺構



【사진 84】 조선시대 61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83】 조선시대 6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6.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7.0m 거리에 60號墓가, 남쪽으로 약 3.5m 떨어져 116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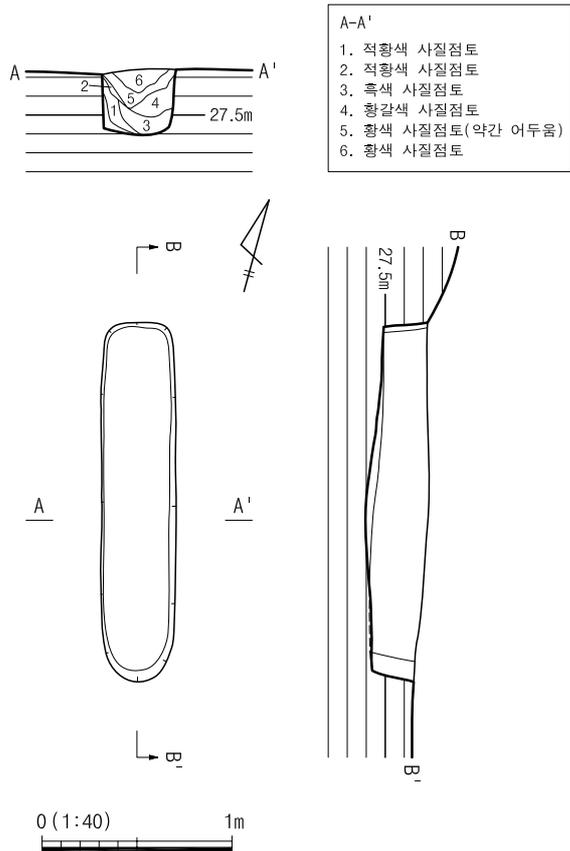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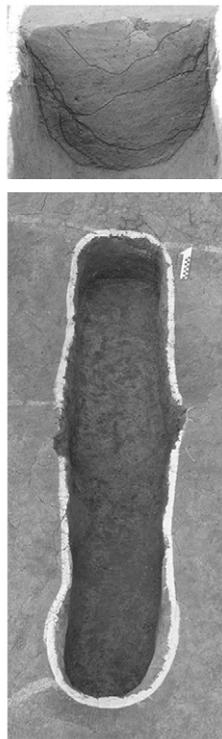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1호묘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경사지게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82cm, 깊이 98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E으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내부에는 규모 길이 200cm, 너비 53cm, 높이 50cm 정도의 내광을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내광 주축방향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木棺을 안치하였다. 목관의 너비는 약 42cm 정도로 흔적이 남아있었다. 목관 측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황갈색과 황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62) 62號墓

① 遺構



【사진 85】 조선시대 62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84】 조선시대 6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7.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2.0m 떨어져 18號墓가, 남동쪽으로 약 3.1m 거리에 46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긴 부정형의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1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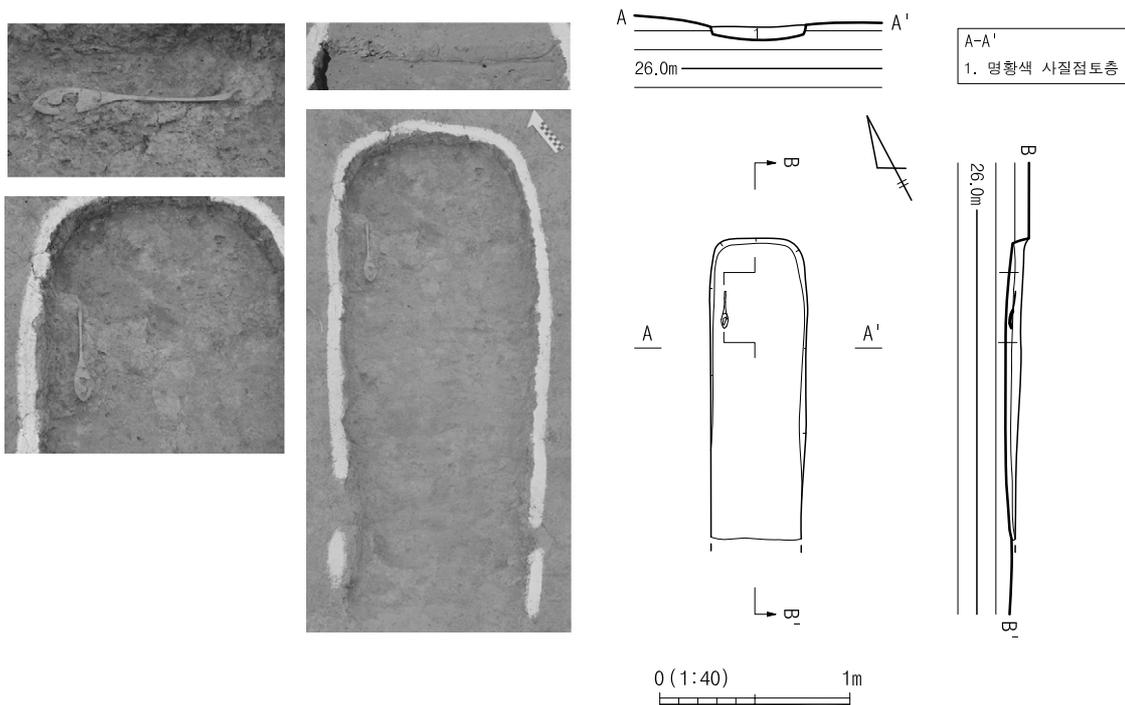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39cm, 깊이 34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5°-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는데, 중앙이 약간 깊어 단면이 ‘U’ 자형을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황색, 황갈색, 황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63) 63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1.0m 거리에 59號墓가, 남쪽으로 인접하여 64號墓가



【사진 86】 조선시대 6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85】 조선시대 6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곽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경사면 아랫부분은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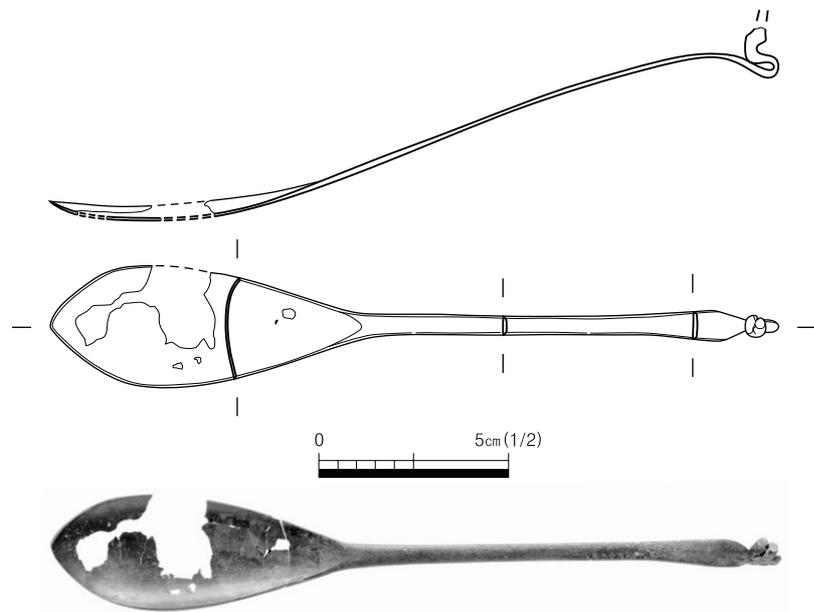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부분을 먼저 조사한 후 전체적인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63號墓는 상부구조를 비롯한 남쪽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판단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159cm, 너비 50cm, 깊이 8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8°-E 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명황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북서쪽에서 청동순가락 1점이 수습되었다.

## ② 遺物 (일련번호 79)

79. 담청색의 청동제 순가락으로 시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바닥은 편평하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구부러 보주형으로 장식하였다. 측면은 일직선에 가깝게 오르며, 병부 단면은 장방형으로 상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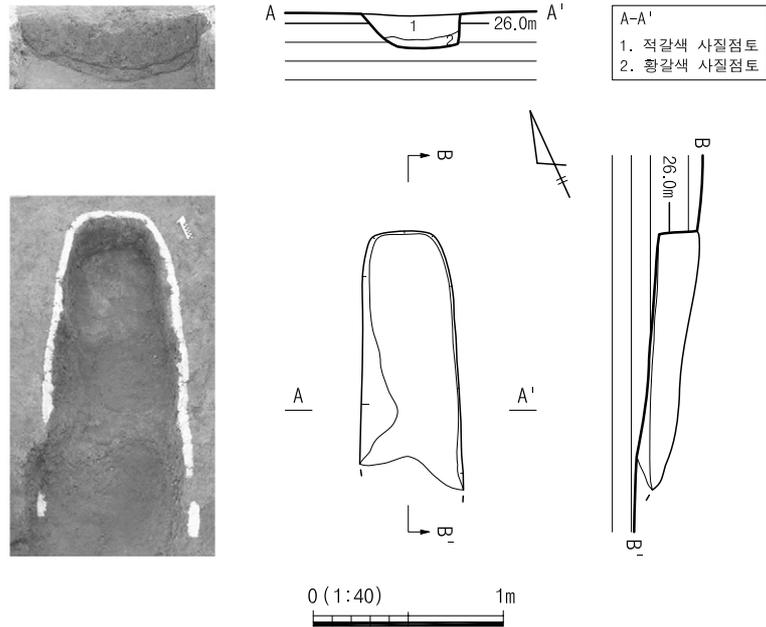
79

[길이 19.2cm, 시부길이 8.2cm, 시부너비 3.2cm, 병부너비 0.6cm, 두께 0.05~0.2cm]

## (64) 64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인접하여 63號墓가, 남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 11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경사면 아랫부분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 87】 조선시대 6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86】 조선시대 6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4호묘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었으며, 북쪽의 너비가 좁은 편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119cm, 너비 52cm, 깊이 20cm이며,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4°-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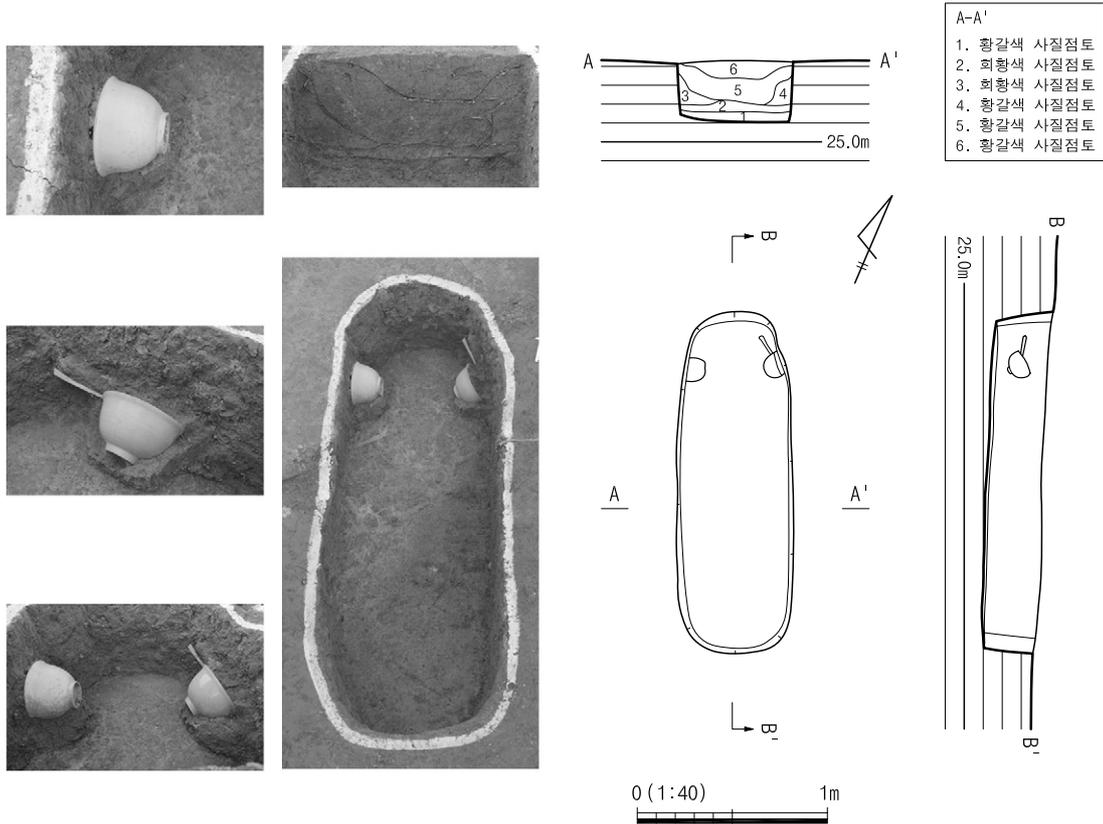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65) 65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5.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2.0m 거리에 59號墓가, 동쪽으로 약 2.4m 떨어져 66號墓

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88】 조선시대 6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87】 조선시대 6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1호묘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擴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81cm, 너비 61cm, 깊이 32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3°-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내부 토층에서는 희미하게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바닥에 황갈색 사질점토를 깔고 안치하였으며, 목관의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추정되었다. 목관 측면에는 회황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유물은 頭部쪽 측면에 백자대접 1점씩을 각각 배치하고 동쪽에는 추가로 청동술가락 1점을 부장하였다. 대체로 바닥에서 10cm 정도 떠 있는 것으로 보아 관 위에 부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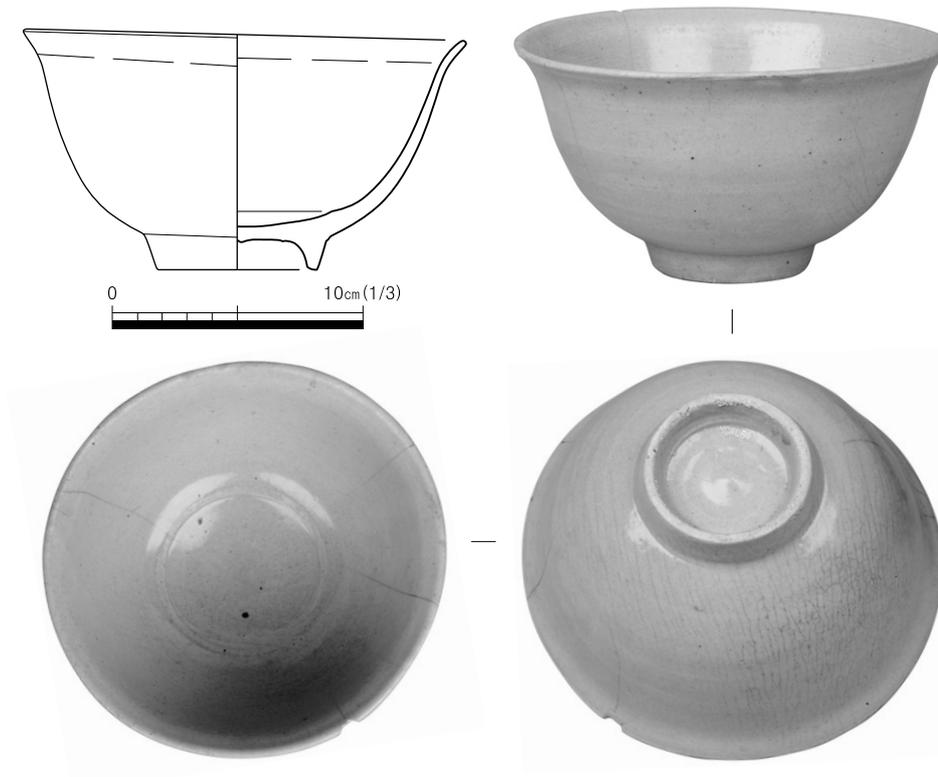
80. 운백색을 띠는 白磁 대접으로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거의 수직으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름 7.7cm의 內底圓角을 뚜렷하게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편평하다. 굽은 수직굽으로 굽과 기벽 사이에 깊은 홈이 형성되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2cm이며, 굽 안쪽 바닥은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굽 주변에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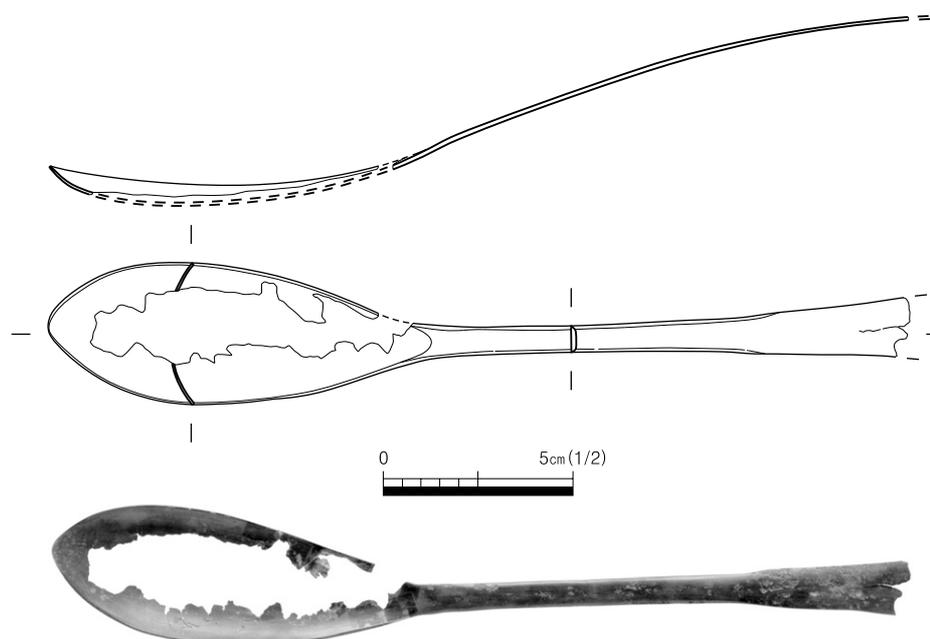
[구경 17.5cm, 높이 10.0cm, 저경 6.8cm, 두께 0.4~1.2cm]

81. 약간 푸른 운백색의 白磁 대접으로 옅게 갈색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거의 수직으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器壁은 매끄럽게 성형하였으며, 내면에 지름 7.0cm 정도의 內底圓角을 표현하였다. 內底面은 편평한 편이다. 굽은 수직굽으로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25cm로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쪽 바닥은 편평한 편으로 중앙이 약간 솟아 있으며, 굽 주변에 모래받침 흔적이 약간 남아있다. 유약은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높이 9.5cm, 구경 16.6cm, 저경 6.3cm, 두께 0.3~0.6cm]

82. 담청색의 청동제 숟가락으로 시부와 병단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약간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에서 갑자기 넓지는 형태로 잔존상태로 보아 燕尾形으로 추정된다. 측면은 일직선에 가깝게 오르며, 병부 단면은 납작한 반원형이다. 표면에서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22.6cm, 시부길이 10.1cm, 시부너비 3.7cm, 병부너비 0.8cm, 두께 0.05~0.15cm]

(66) 6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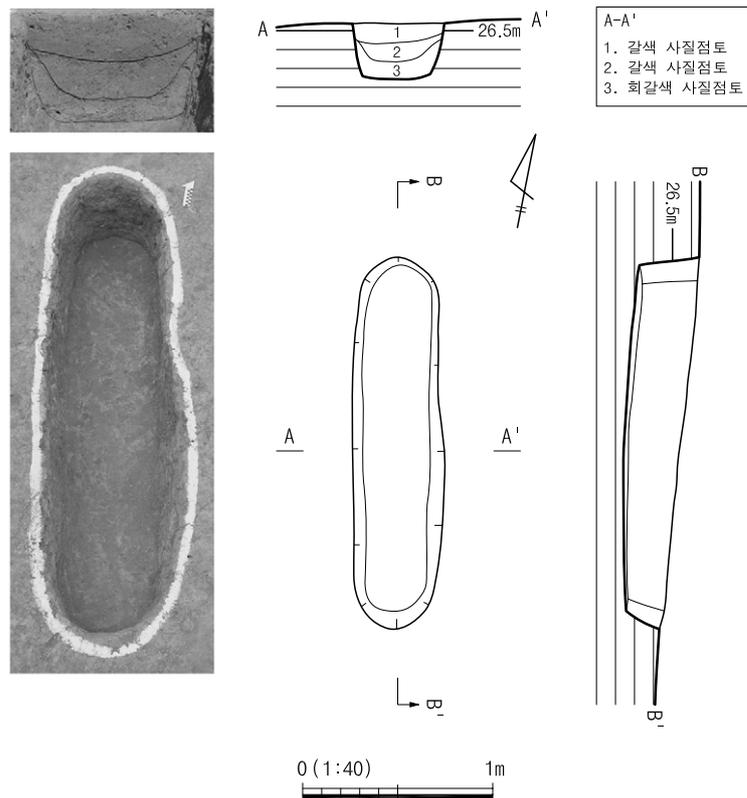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상부인 해발고도 26.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2.4m 떨어져 65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66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나 평면형태와 내부 토층양상으로 보아 二段壙式 土壙墓의 내광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단벽쪽을 둥글게 굴광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97cm, 너비 48cm, 깊이 35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1°-W이다. 바닥은 남쪽으로 약하게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회갈색과 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89】 조선시대 6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88】 조선시대 6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67) 67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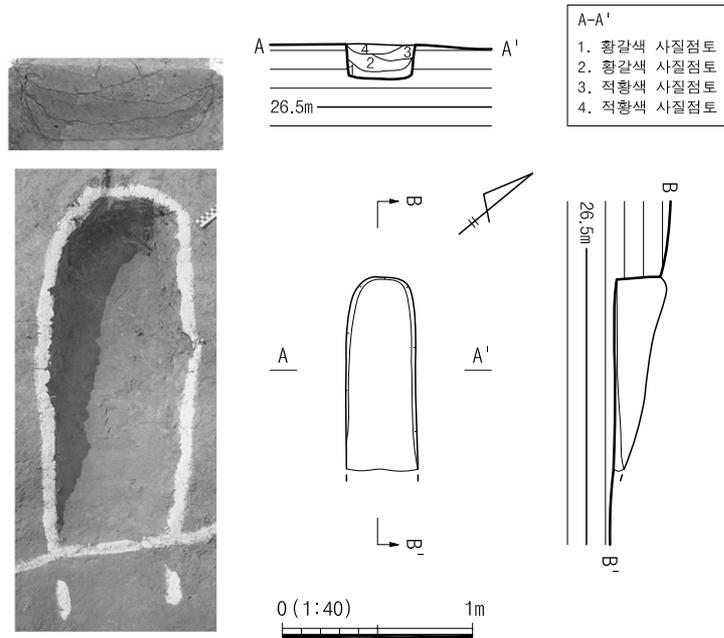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서사면 중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6.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에 인접하여 50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장타원형의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잔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부분을 먼저 조사하고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한 뒤 전체적인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7號墓는 상부구조와 남쪽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102cm, 너비 36cm, 깊이는 24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에서 약간 서쪽으로 틀어진 W-40°-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황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90】 조선시대 6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89】 조선시대 6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68) 68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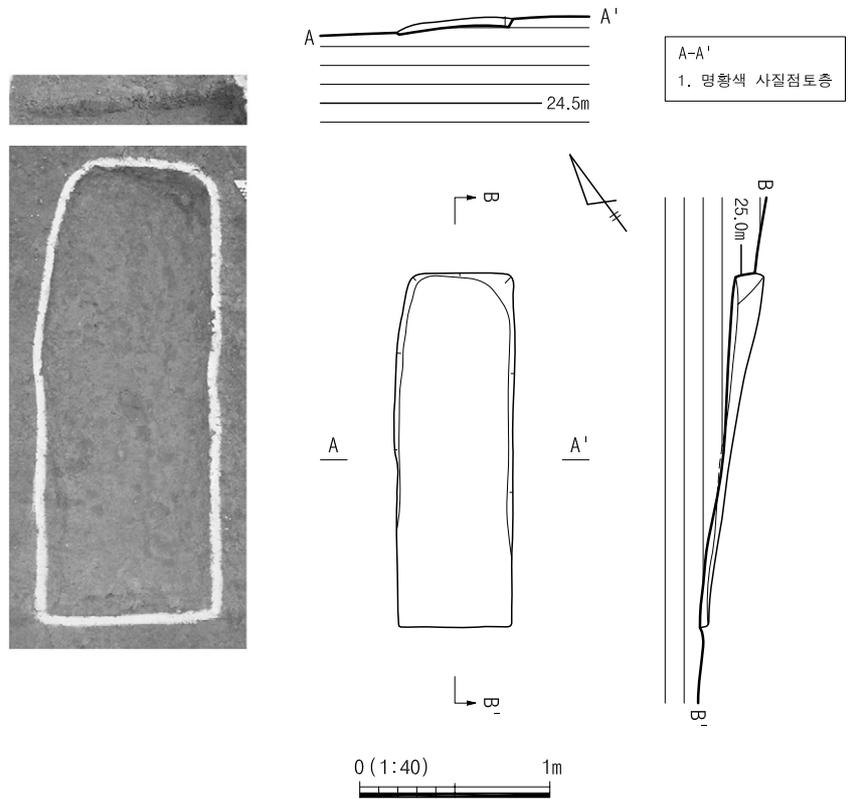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에서 북서쪽 중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5.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2.4m 거리에 26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1.8m 떨어져서 2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내부 구조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88cm, 너비 61cm, 깊이 4c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6°-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남쪽부분이 단을 이루며, 낮았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명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91】 조선시대 6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90】 조선시대 6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69) 69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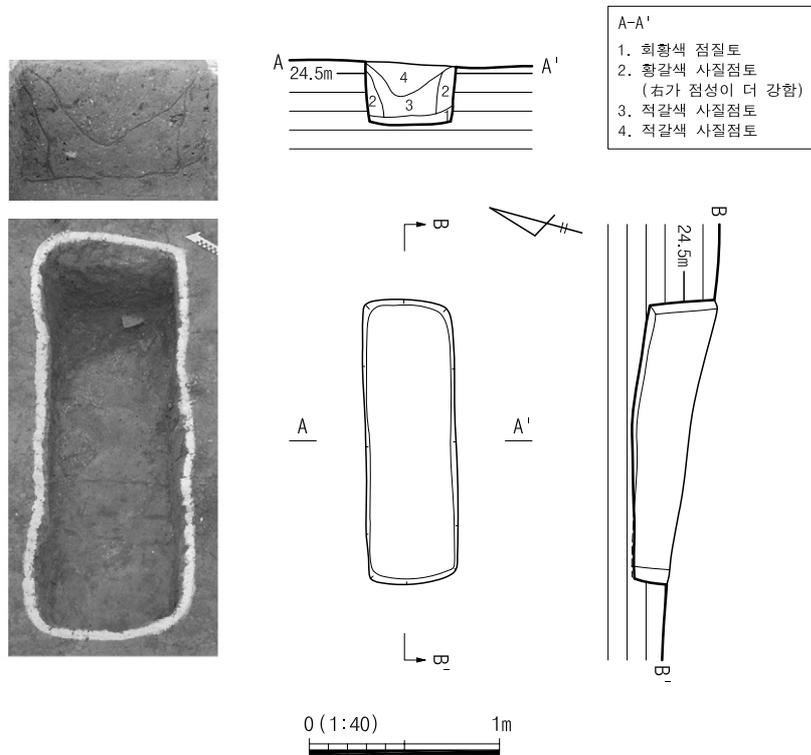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4.6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

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69號墓는 一段壙式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51cm, 너비 61cm, 깊이 40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15°-N이다. 바닥은 두부쪽을 상당히 높게 조성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목관의 너비는 대략 30cm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의 안치는 우선 바닥에 회황색 점질토를 깔고 안치하였으며, 측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관 위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92】 조선시대 69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91】 조선시대 6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70) 7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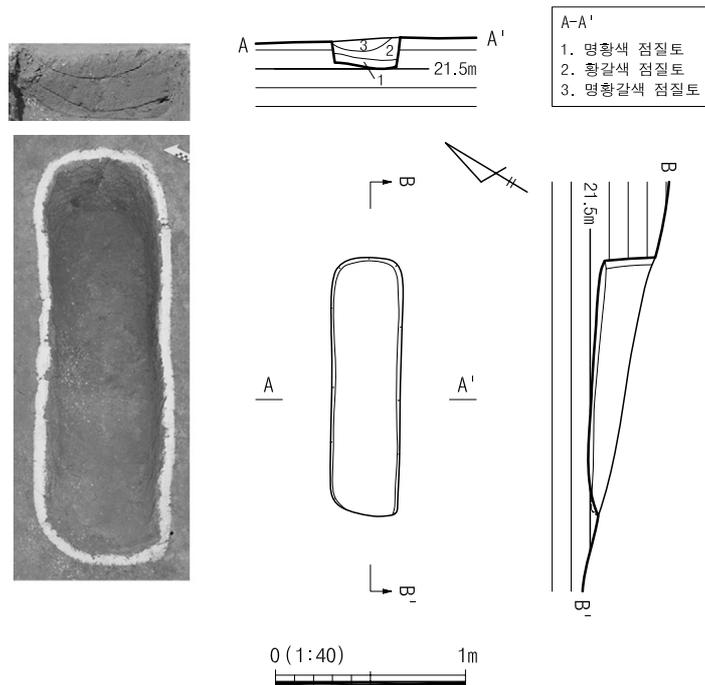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약 1.0m 거리에 57號墓가, 북쪽에 인접하여 71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0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일단광식 토광묘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37cm, 너비 36cm, 깊이 34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1°-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동쪽이 다소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과 명황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93】 조선시대 70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92】 조선시대 7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71) 7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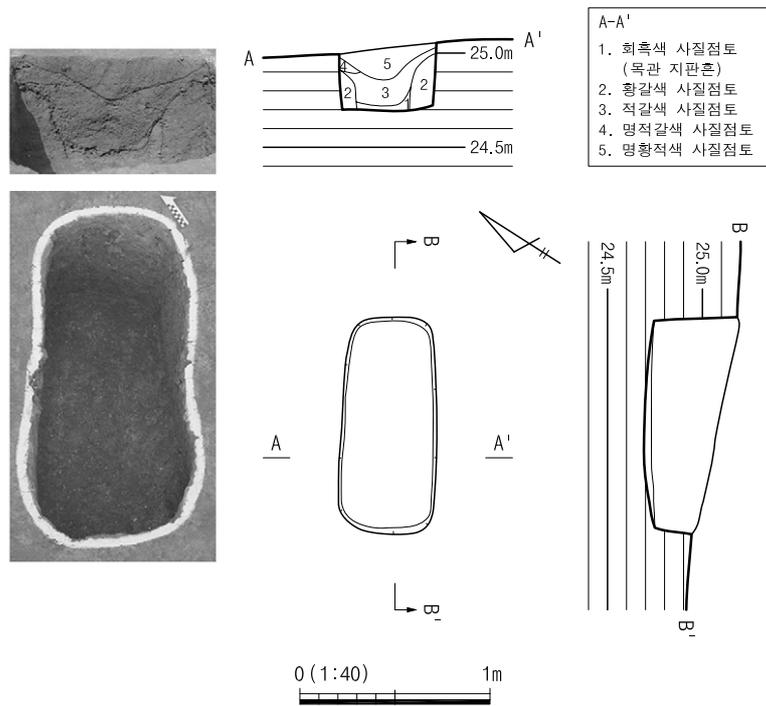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2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인접하여 70號墓가, 남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56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1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15cm, 너비 51cm, 깊이 48cm 정도로 소형에 해당된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3°-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중앙이 약간 깊은 편이었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규모는 대략 너비 30cm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목관 측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관 위에는 적갈색 명황적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94】 조선시대 기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93】 조선시대 기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72) 72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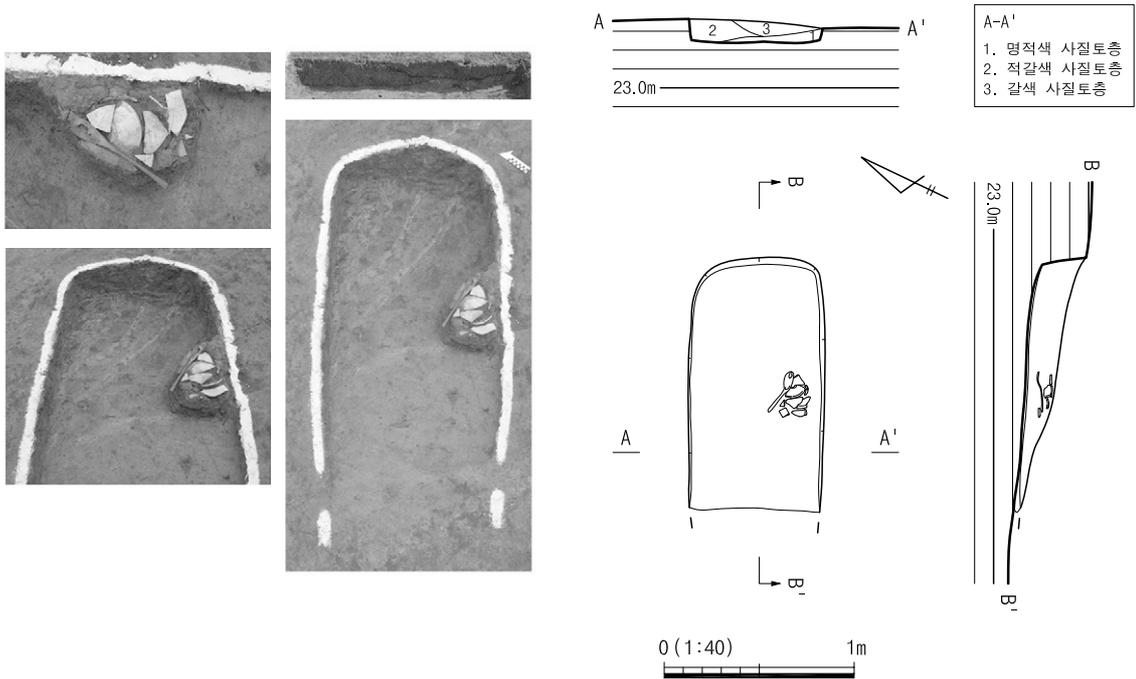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하부인 해발고도 23.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3.1m 떨어져서 109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래쪽이 유실된 상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2號墓는 상부구조와 남동쪽부분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133cm, 너비 70cm, 깊이 28cm이다. 장축방향은 경

사방향과 나란한 E-24°-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두부쪽이 약간 높게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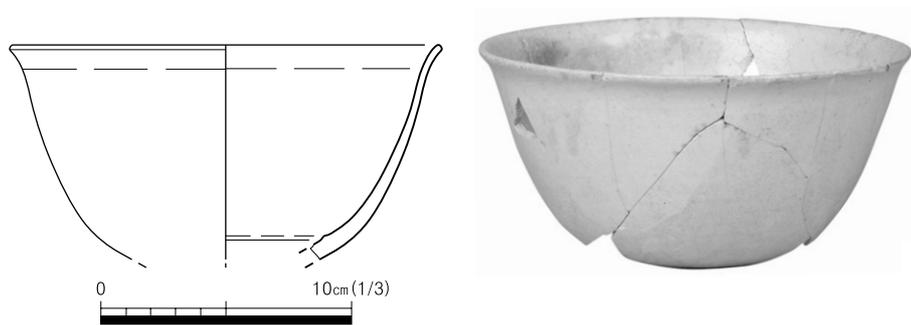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나 적갈색 사질점토가 북서쪽에 채워져 있고 유물들이 바닥에서 10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목관을 안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남동쪽에서 백자 대접 구연편과 접시 2점, 청동순가락 1점이 수습되었다.



【사진 95】 조선시대 72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94】 조선시대 7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② 遺物 (일련번호 8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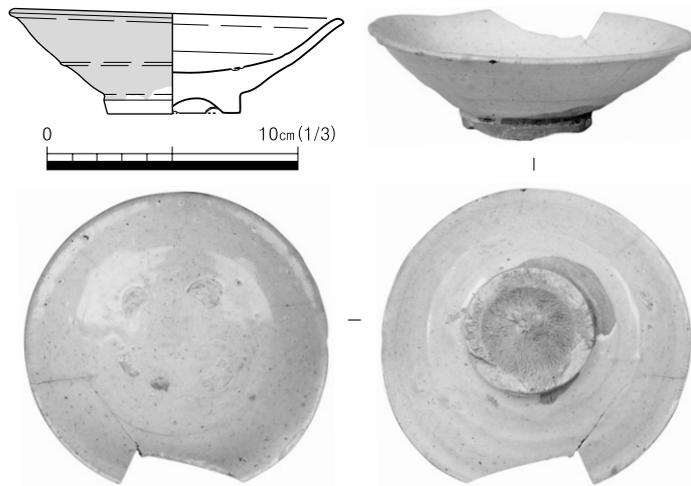
83. 푸른빛이 감도는 백색의 白磁 대접으로 底部가 결실되었다. 器壁은 거의 수직으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름 8.0cm의 內底圓角을 희미하게 표현하였다.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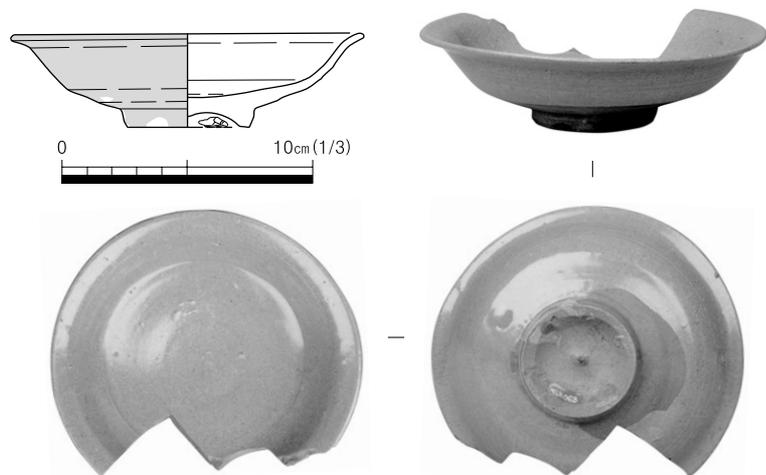
【구경 17.0cm, 잔존높이 8.5cm, 두께 0.3~0.65cm】

84. 푸른빛이 감도는 백색의 白磁 접시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器壁은 底部에서 넓게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그대로 마무리하여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기면이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면에는 지름 8.6cm의 內底圓角을 희미하게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굽은 오목굽으로 외면은 바닥에서 1.0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과 기벽의 경계부분에는 깊은 홈이 형성되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5~0.7cm로 일정하지 않으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 중앙이 높게 솟아 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 태토받침을 때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구경 12.7cm, 높이 4.2cm, 저경 5.3cm, 두께 0.3~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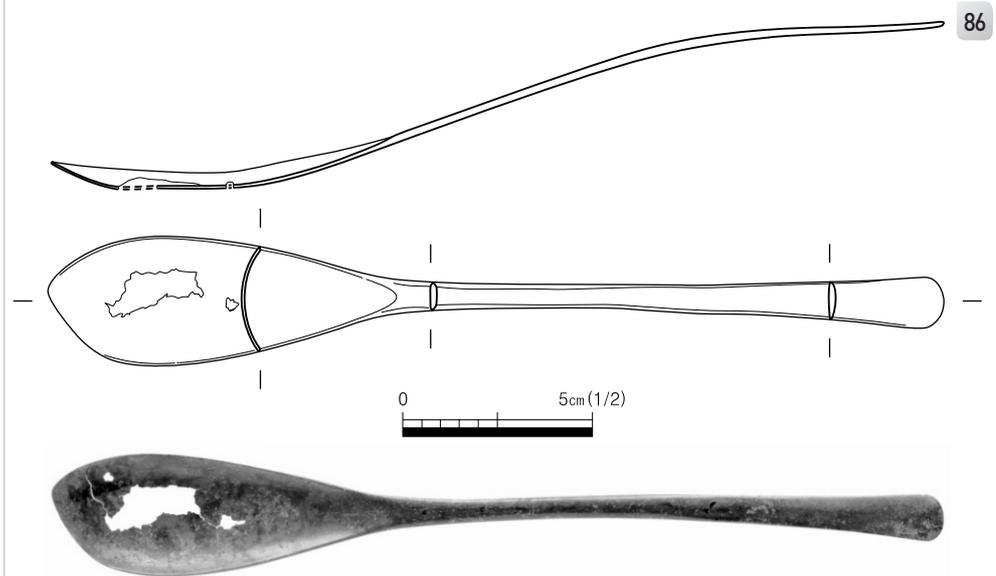
85. 진한 회백색을 띠는 白磁 접시로 옅은 갈색빛이 감돌며, 口緣 일부가 결실되었다. 器壁은 底部에서 넓게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



[구경 13.5cm, 높이 3.8cm, 저경 4.8cm, 두께 0.3~0.8cm]

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름 9.1cm의 內底圓角을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중앙이 약간 들어가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외면은 0.9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과 기벽 사이에는 얇은 홈이 형성되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0.6cm이며, 안쪽이 살짝 들려 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았으며, 바닥 중앙이 높게 솟아 있다. 굽 주변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86. 담청색의 청동제 손가락으로 시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바닥은 편평하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납작한 반원형이다. 표면에는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23.6cm, 시부길이 9.2cm, 시부너비 3.4cm, 병부너비 0.7cm, 두께 0.05~0.15cm]

### (73) 73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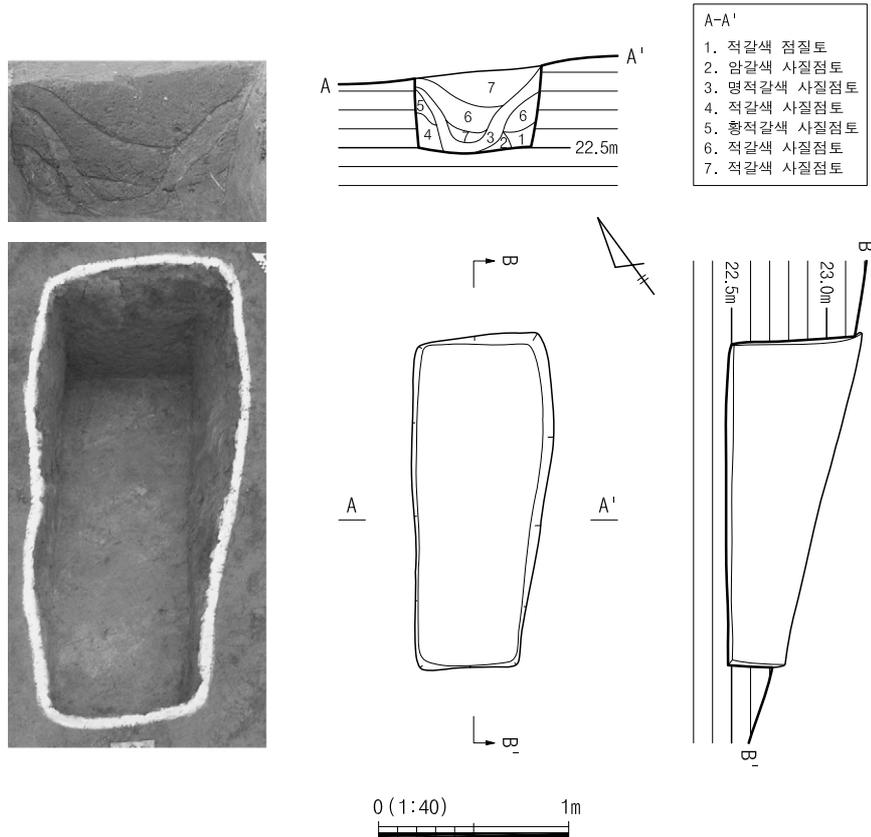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3.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1.8m 떨어져 7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장방형의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66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75cm, 너비

55~70cm, 깊이 68cm이며, 평면형태는 頭廣足狹의 역제형을 띠고 있었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6°-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관의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판단되었다. 목관 측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명정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96】 조선시대 7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95】 조선시대 73호묘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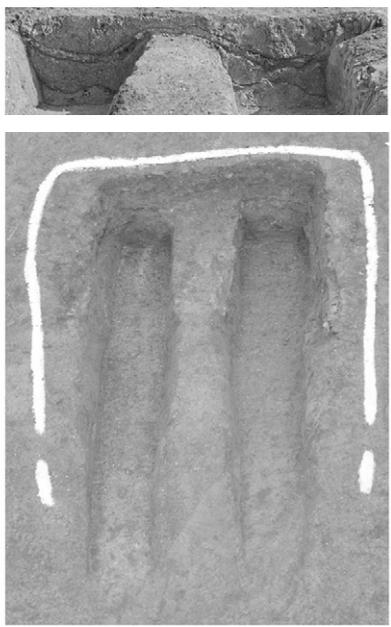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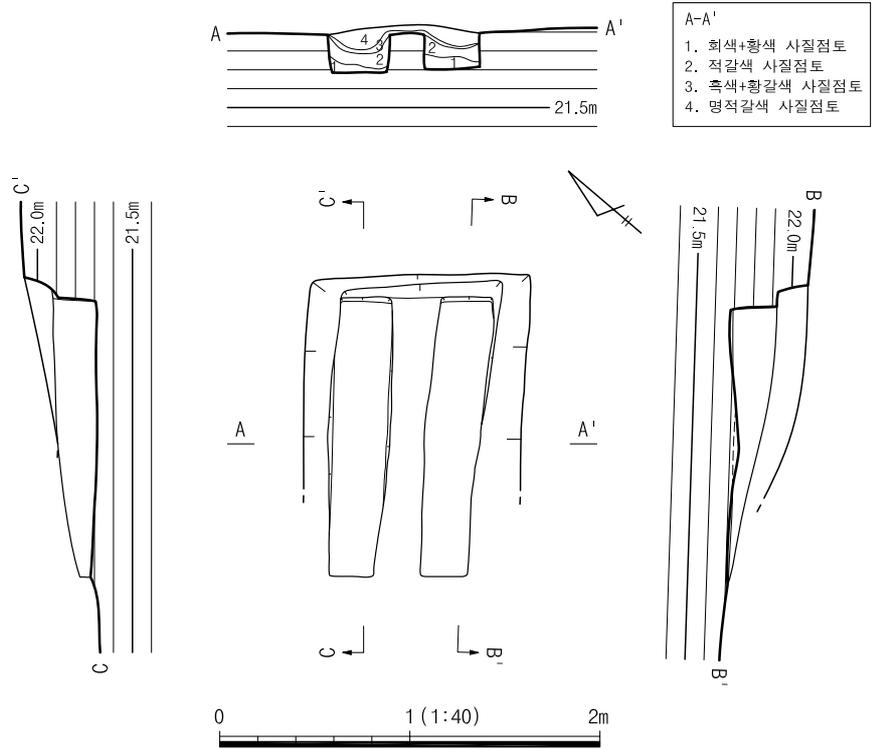
## (74) 74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2.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3.0m 거리에 31號墓가, 남동쪽으로 약 1.8m 떨어져서 7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방향의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4號墓는 2개의 내광을 조성한 합장묘로 묘광 남쪽부분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161cm, 너비 114cm, 깊이 40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9°-E이다. 묘광 내부에는 2개의 내광을 20cm의 간격을 두고 조성하였다. 內壙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규모는 좌측의 경우 길이 148cm, 너비 33cm이며, 우측은 길이 148cm, 너비 29cm이며, 높이는 모두 28cm 정도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사진 97】 조선시대 7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96】 조선시대 7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내광을 모두 덮은 목개 흔적이 남아있어 두 내광은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광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운 후 목개를 덮고, 그 위에 명적갈색 사질점토를 복토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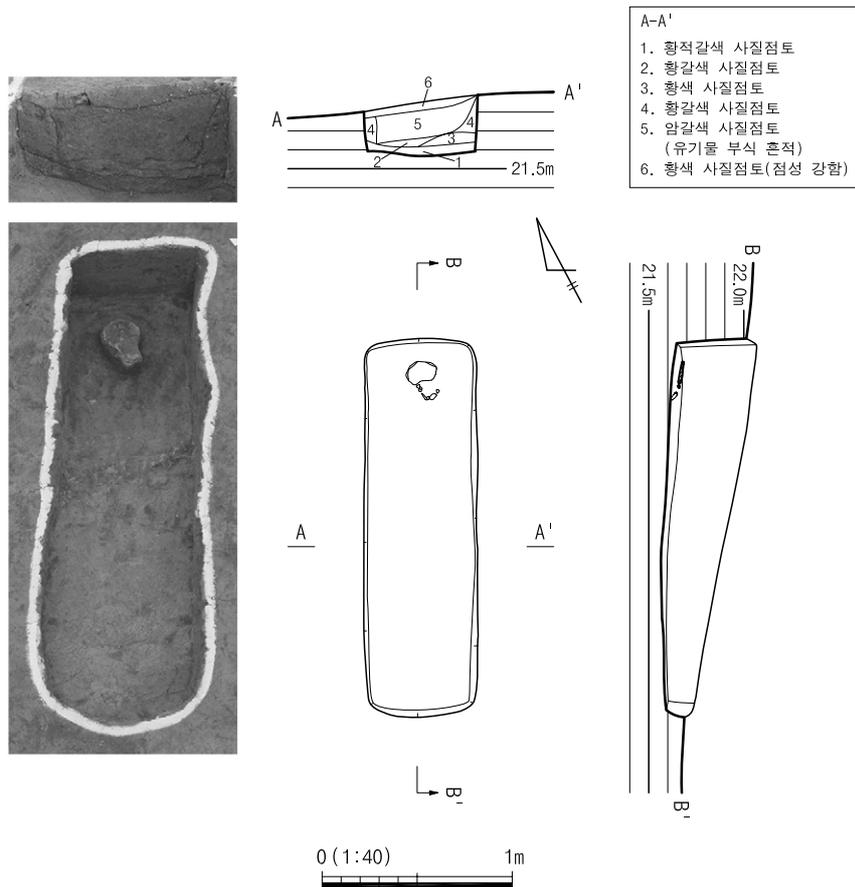
(75) 75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2.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3.2m 떨어져 33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긴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5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60cm, 깊이 38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8°-



【사진 98】 조선시대 7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97】 조선시대 7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목관 너비는 대략 45cm로 추정되었다. 관은 바닥에 황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어 면을 정지한 후 안치하였으며, 측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관 위에는 암갈색과 황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내부에서 인골의 두개골의 확인되었을 뿐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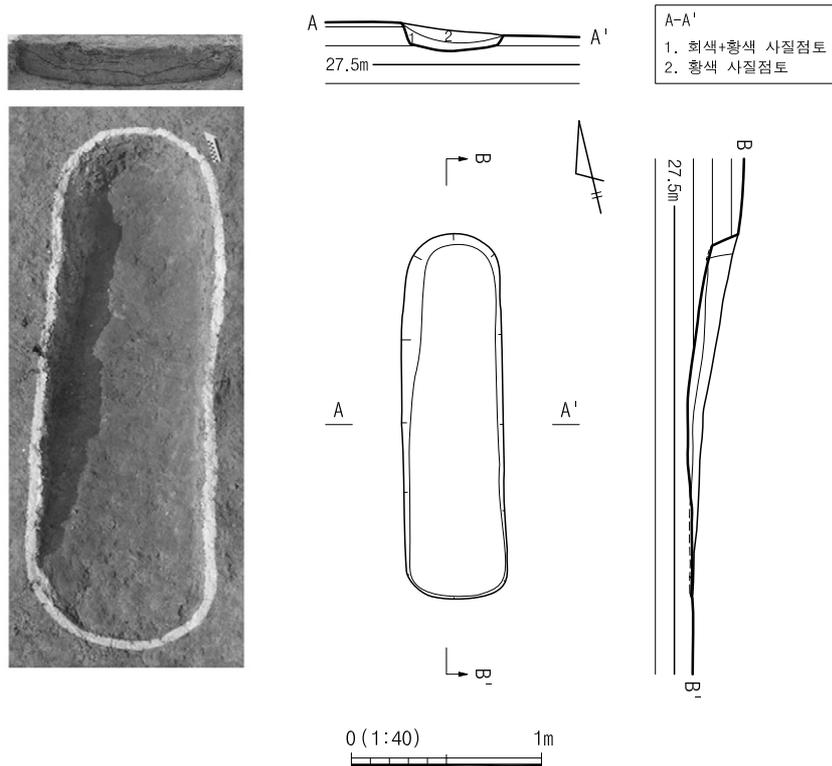
(76) 76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향사면의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도고 27.8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9.0m 떨어져 7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6호묘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93cm, 너비 53cm, 깊이 11cm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경사방향과 나란하였다. 바닥은 북쪽을 다소 높게 정지하였다.



【사진 99】 조선시대 7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98】 조선시대 7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회색과 황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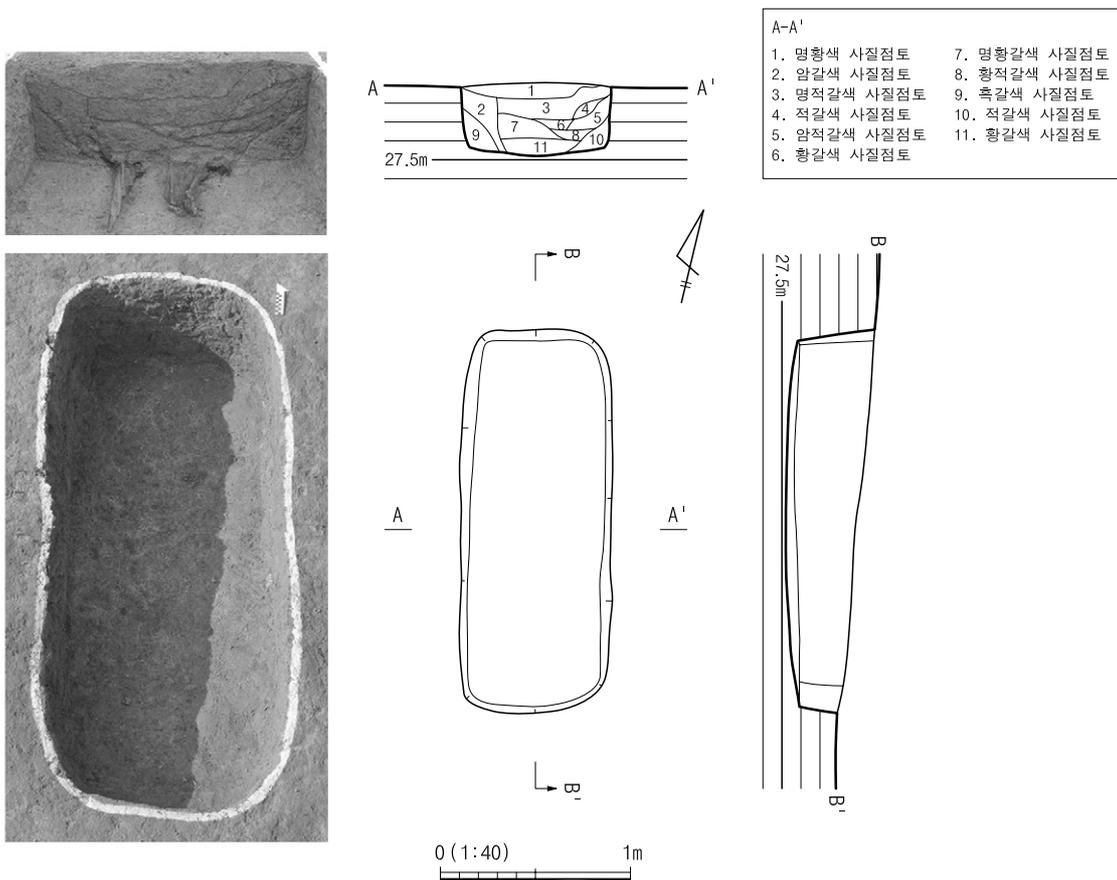
(77) 77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8.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2.1m 거리에 78號墓가, 서쪽으로 약 9.0m 떨어져서 76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7號墓는 一段壙式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묘광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3cm, 너비 79cm, 깊이 43cm이다. 長軸方向은 N-13°-W로 경사방향과 일치하였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사진 100】 조선시대 7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99】 조선시대 7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과 목관 잔해가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너비 대략 40cm 내외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회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적갈색과 황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78) 7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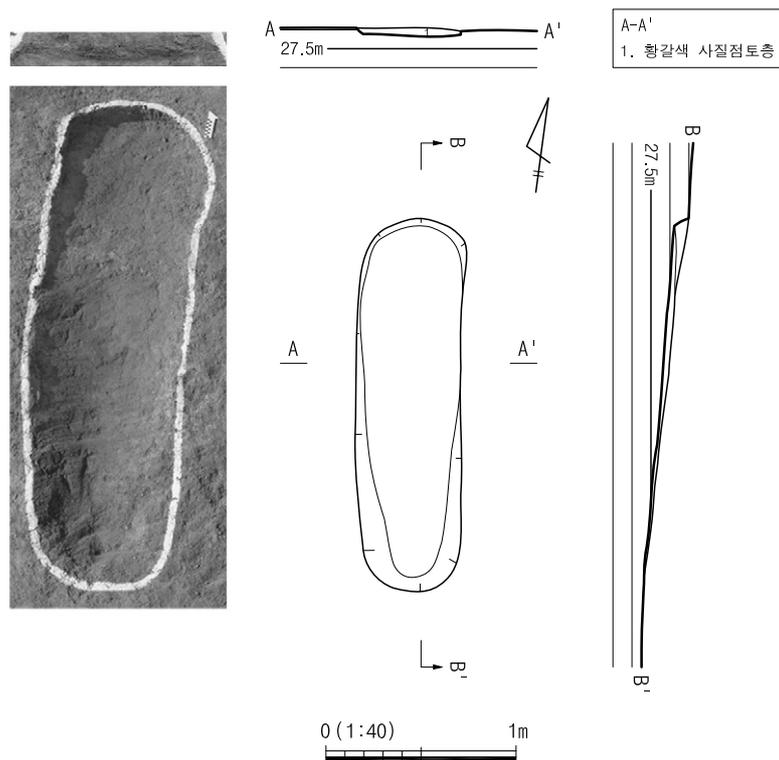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7.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2.1m 떨어져 7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형을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97cm, 너비 55cm, 깊이 5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8°-W이다. 바닥은 남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01】 조선시대 7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0】 조선시대 7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79) 7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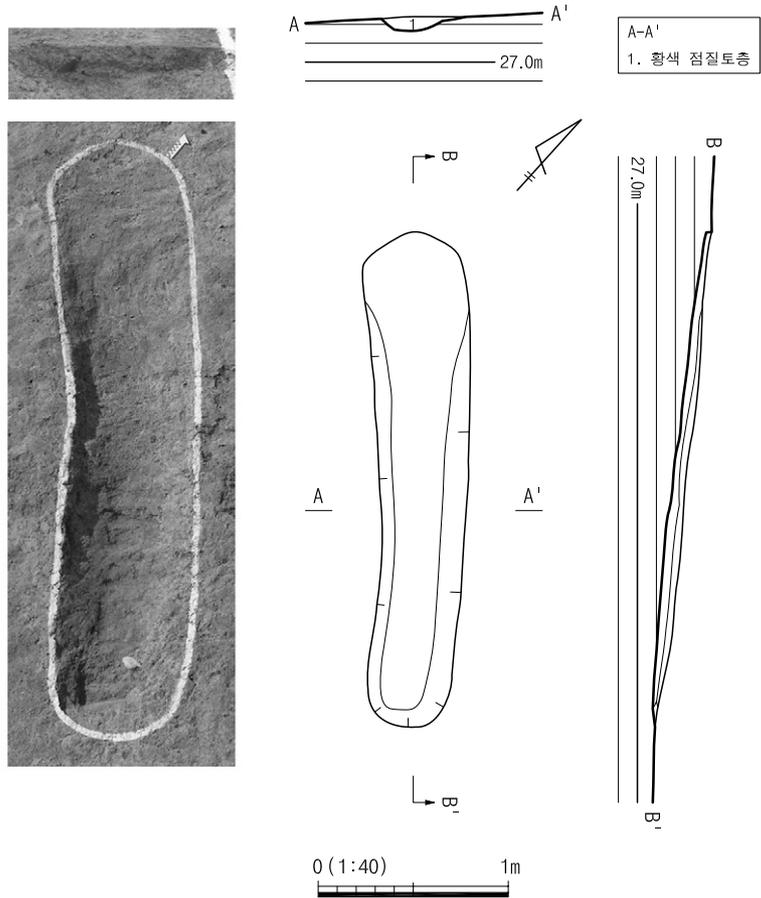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6.1m 떨어져서 78號墓가, 서쪽으로 약 3.2m 거리에 80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79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다소 부정형한 말각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262cm, 너비 45cm, 깊이 8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2°-E이다. 바닥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단면 ‘U’ 장형을 이루었다.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02】 조선시대 79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1】 조선시대 7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0) 8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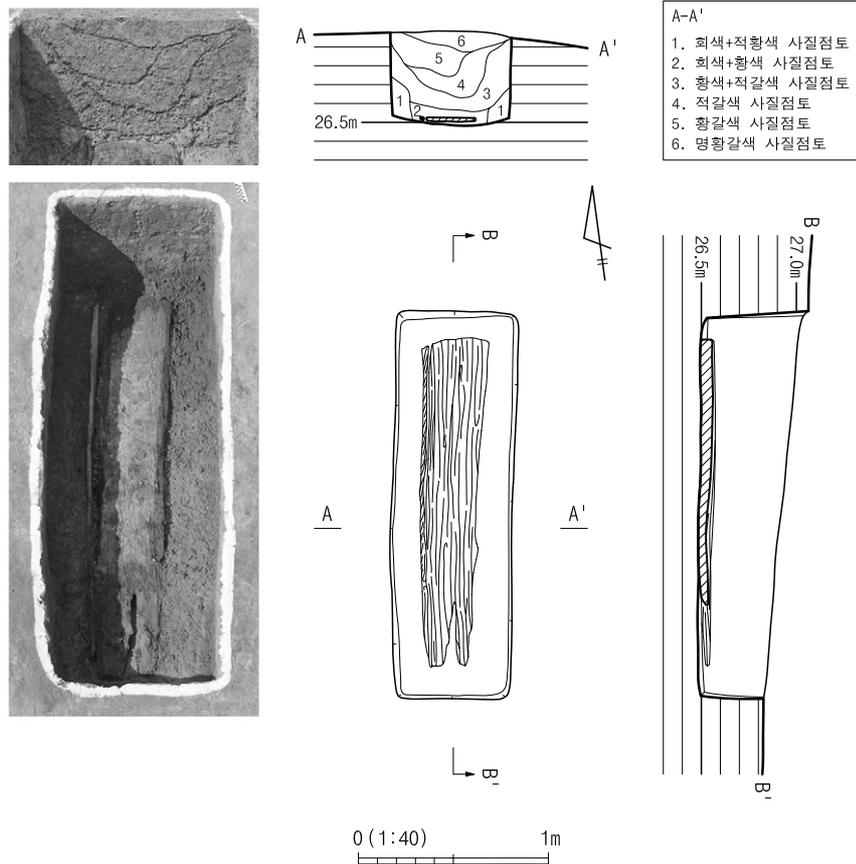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3.2m 거리에 79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아랫부분이 약간 넓은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0號墓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5cm, 너비 64cm, 깊이 5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8°-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木棺의 下板 잔해가 남아있었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40cm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회색과 적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적갈색,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03】 조선시대 8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2】 조선시대 8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1) 8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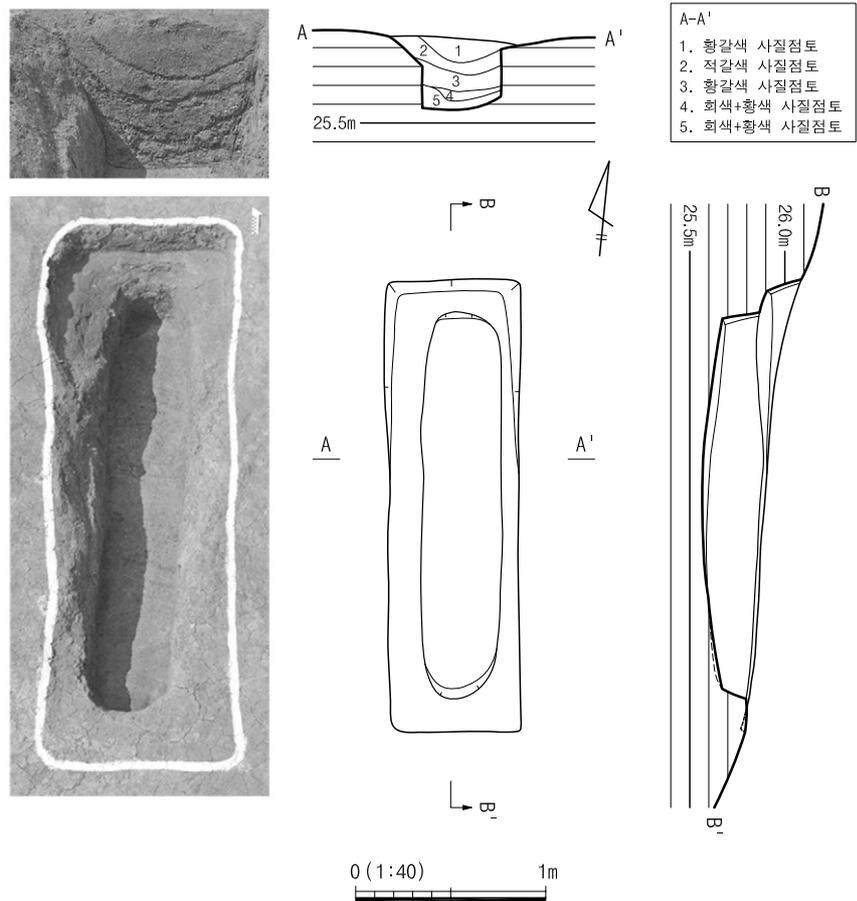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3.1m 떨어져 82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1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와 남쪽부분이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68cm, 깊이 48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6°-E이다. 內壙은 묘광 주축방향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단벽부분을 등글게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204cm, 너비 40cm, 높이가 30cm이다. 바닥은 중앙을 낮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회색과 황갈색, 적갈색 사질점토가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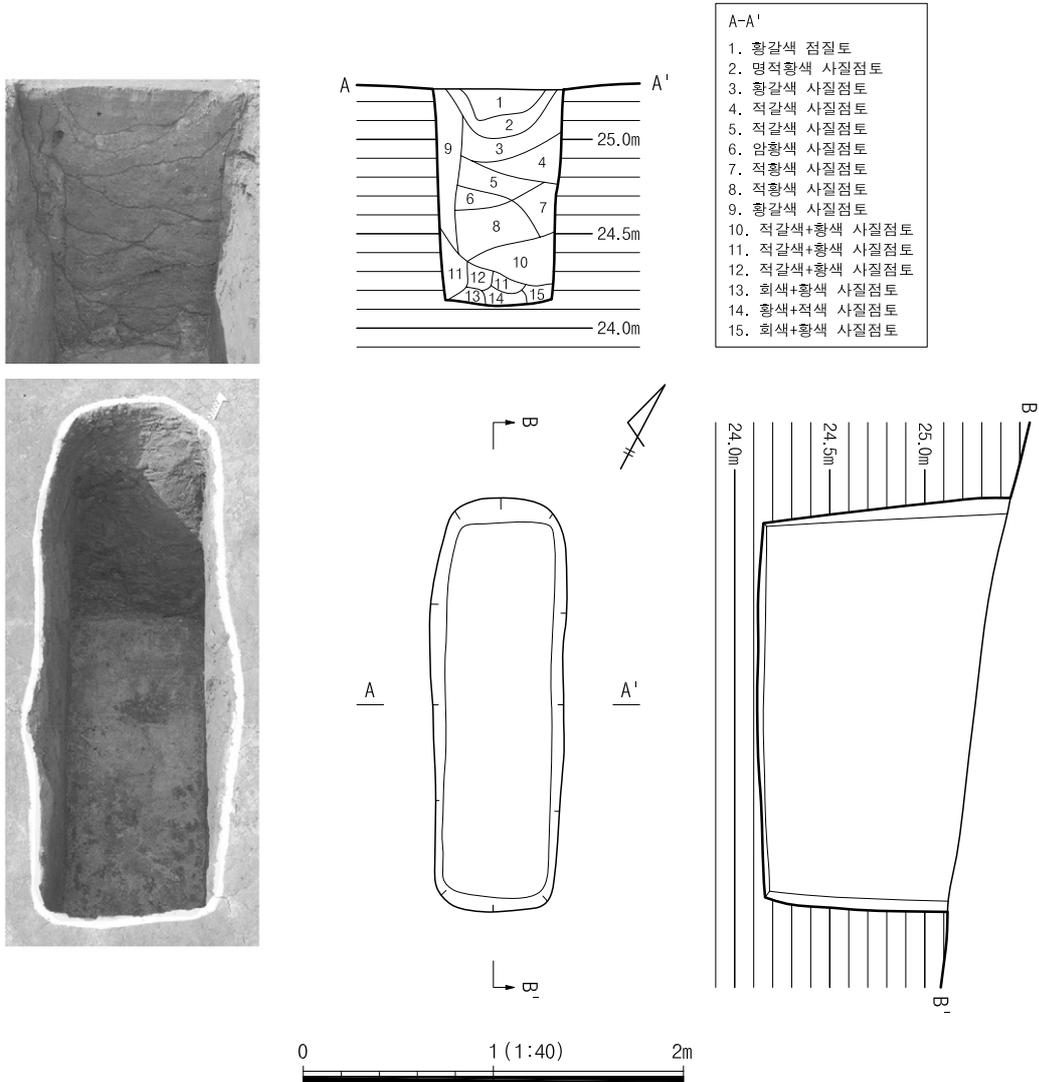


【사진 104】 조선시대 8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3】 조선시대 8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82) 82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향사면의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6.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3.1m 거리에 81號墓가, 남쪽으로 약 3.0m 거리에 8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05】 조선시대 8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4】 조선시대 8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2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본래의 형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

방향이며, 규모는 길이 219cm, 너비 69cm, 깊이 13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8°-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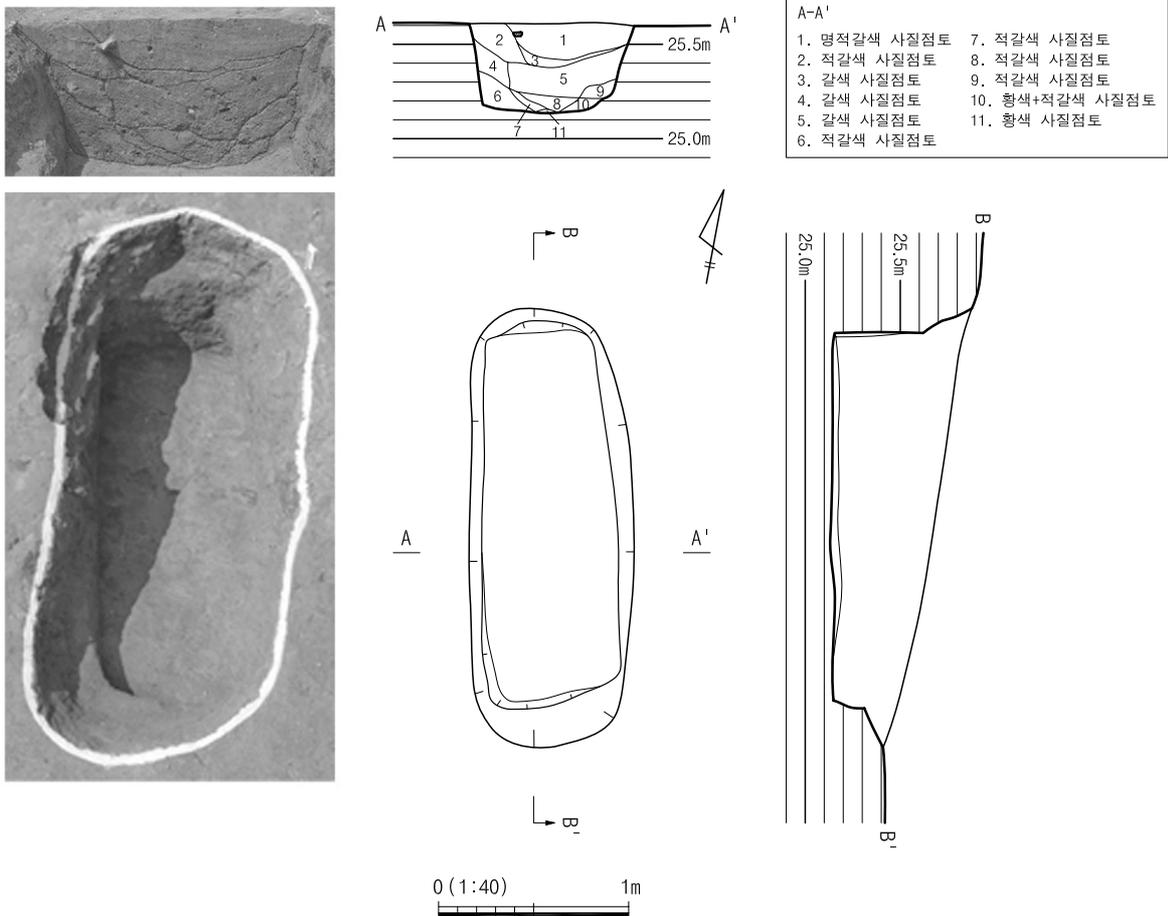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동쪽으로 치우쳐 안치하였으며,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적갈색과 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적갈색, 황갈색, 암적황색 사질점토로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3) 83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5.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3.0m 거리에 82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3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사진 106】 조선시대 8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05】 조선시대 83호묘 토층 및 평·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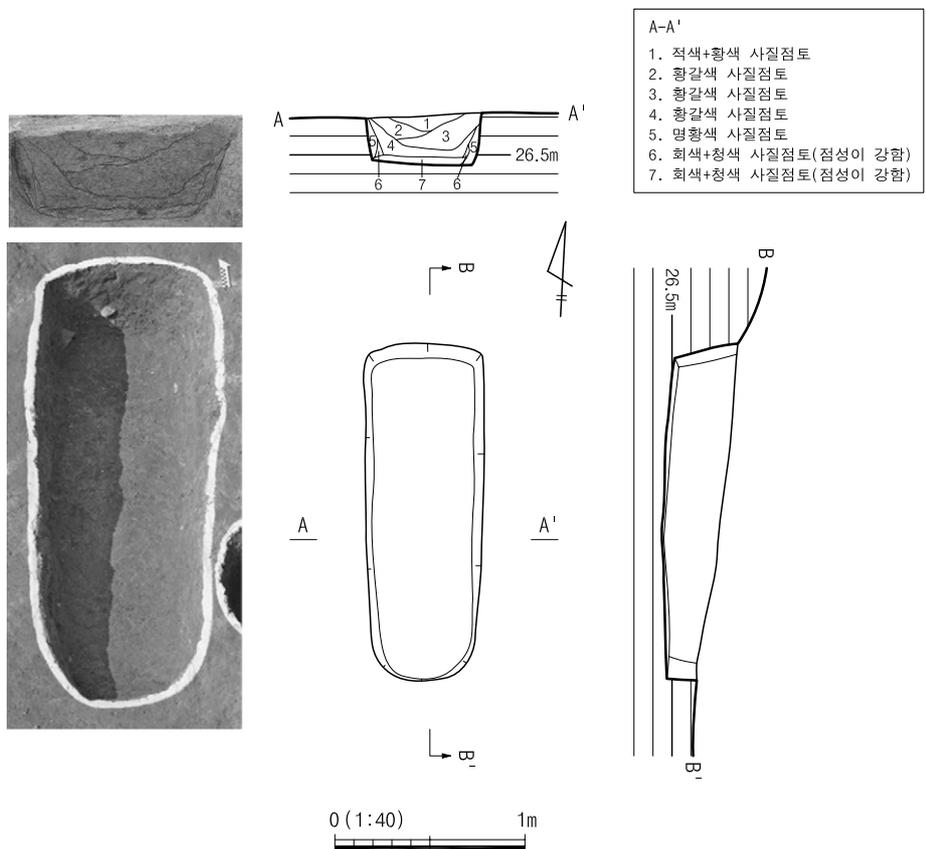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남쪽 부분이 약간 넓은 편이며, 규모는 길이 233cm, 너비 87cm, 깊이 72cm이다. 전체적으로는 일단광식의 형태이지만 남쪽 부분이 이단광식으로 단을 이루고 있었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1°-W이다. 바닥은 남쪽부분을 다소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너비는 대략 40cm 정도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4) 84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8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5.0m 떨어져서 85號墓가, 북동쪽으로 약 3.2m 거리에 10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07】 조선시대 84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06】 조선시대 8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간준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4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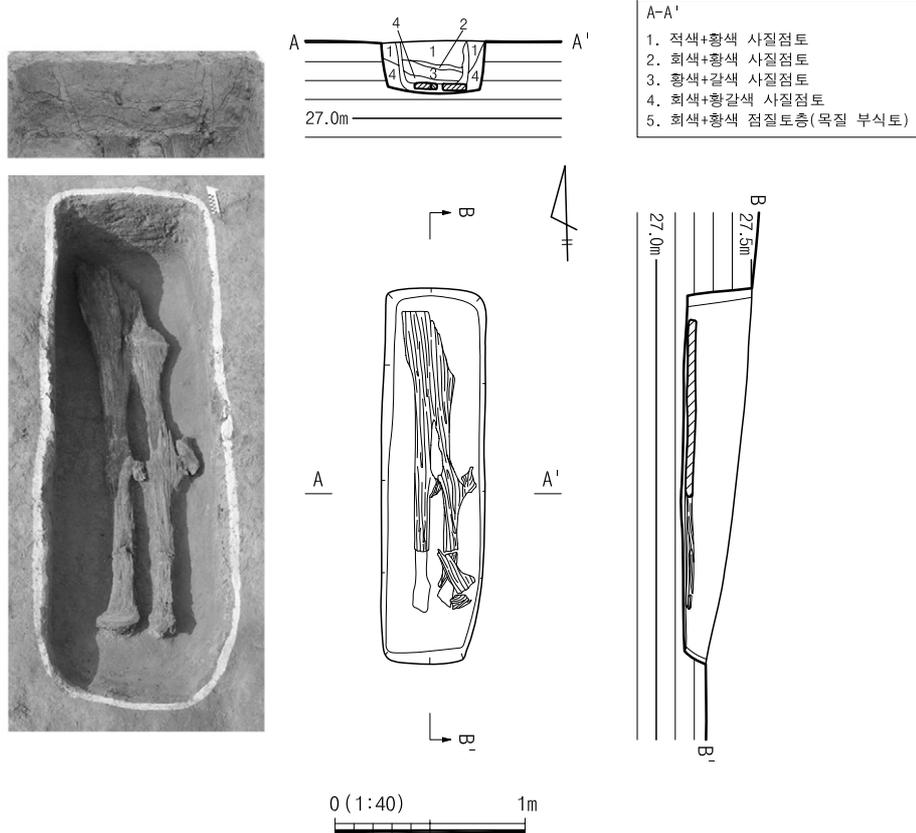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78cm, 너비 55~62cm로 평면형태가 頭廣足狹을 띠고 있었으며, 깊이는 37cm정도가 잔존하였다. 長軸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W으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너비 대략 42cm 내외로 판단되었다. 관 측면에는 명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위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로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5) 85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7.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약 5.0m 거리에 84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4.2m 떨어져 87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08】 조선시대 8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7】 조선시대 8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5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으며, 내부에 관재가 남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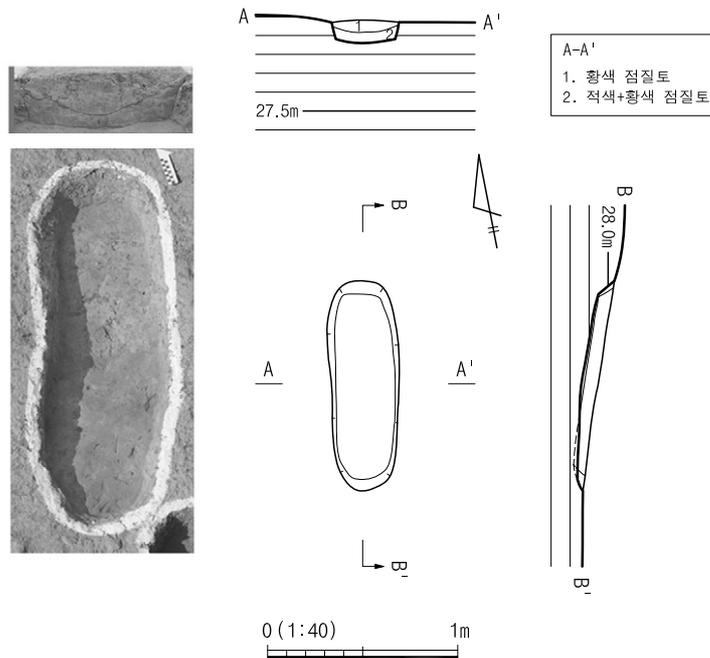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9cm, 너비 55cm, 깊이 35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E로 거의 남북장축을 이루었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木棺의 下板이 남아있었다. 관의 규모는 길이 160cm, 너비 36cm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회색과 황갈색, 적색과 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적색과 황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86) 86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상부인 해발고도 28.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3.8m 거리에 38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09】 조선시대 86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08】 조선시대 8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6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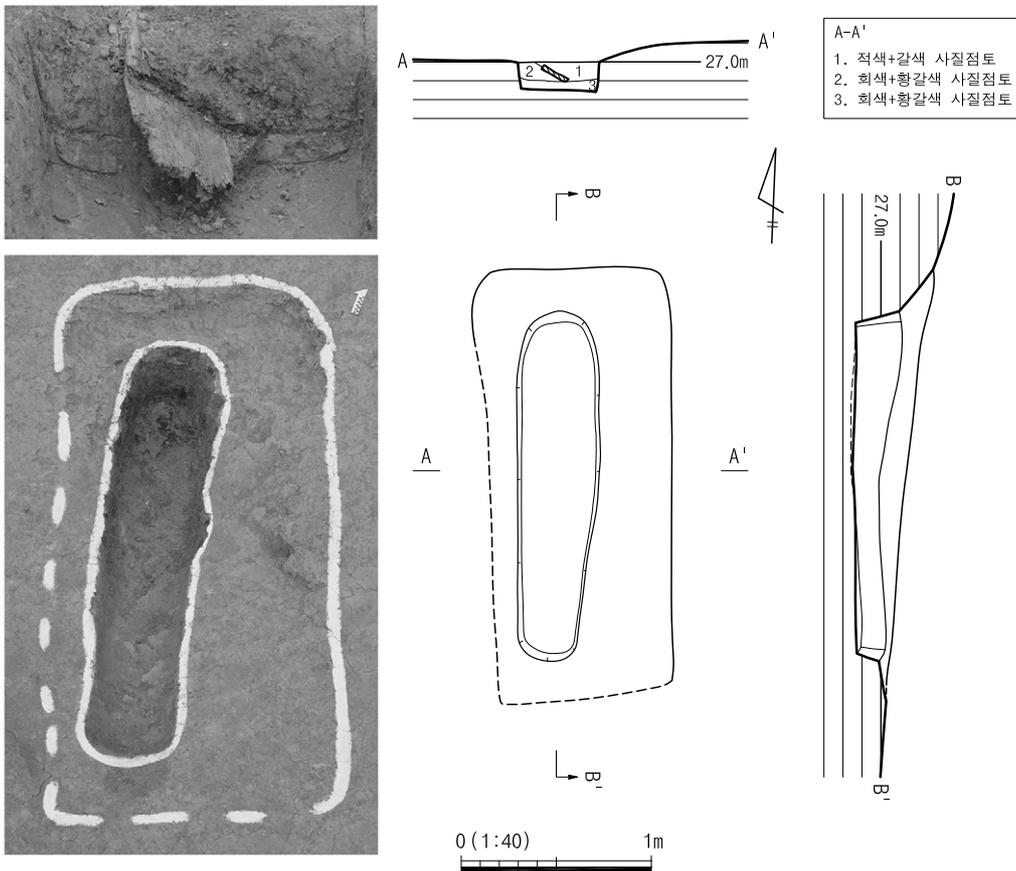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11cm, 너비 35cm, 깊이 12cm로 소형에 해당된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1°-E이다. 바닥은 북쪽을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색과 황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7) 87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향사면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7.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4.2m 떨어져 85號墓가, 서쪽으로 약 1.0m의 지근거리에 8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다. 표토를 제거하자 남쪽 부분이 유실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관재가 일부 노출되었다.



【사진 110】 조선시대 8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09】 조선시대 8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7호묘는 상부구

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二段壙式 土壙墓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나 상부구조의 잔존 상태와 내광의 축조양상으로 보아 一段壙式 土壙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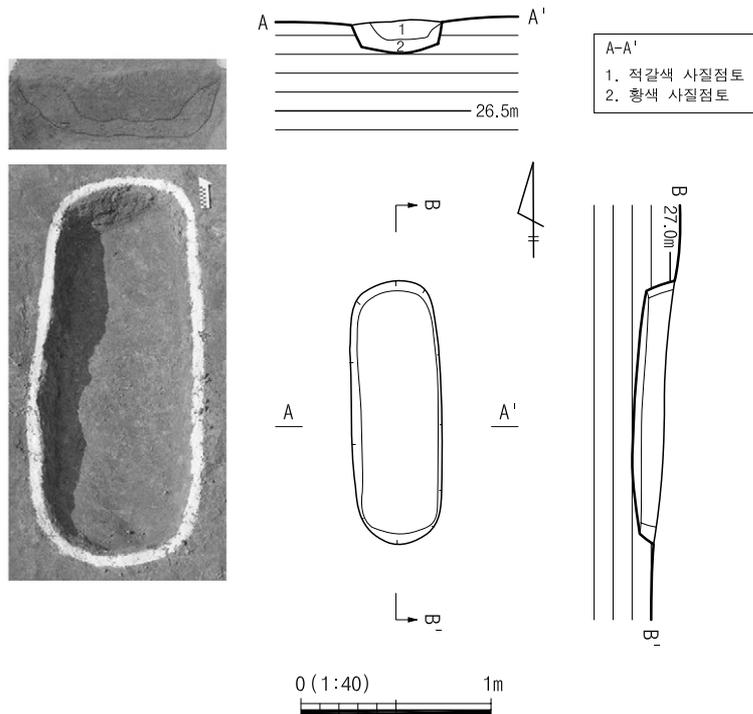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경사지도록 굴광하여 조성한 반면 내광은 수직을 이루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9cm, 너비 96cm, 깊이 42cm이다. 장축 방향은 N-2°-W로 정북방향이다. 內壙은 묘광 주축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된 타원형으로 북쪽이 넓어 頭廣足狹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85cm, 너비 43cm, 높이 24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는 관재가 잔존하고 있었다. 우선 바닥에 회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한 구 관을 안치하였으며, 관 위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8) 88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7.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1.0m의 지근거리에 87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11】 조선시대 8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10】 조선시대 8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8號墓는 상부구

조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을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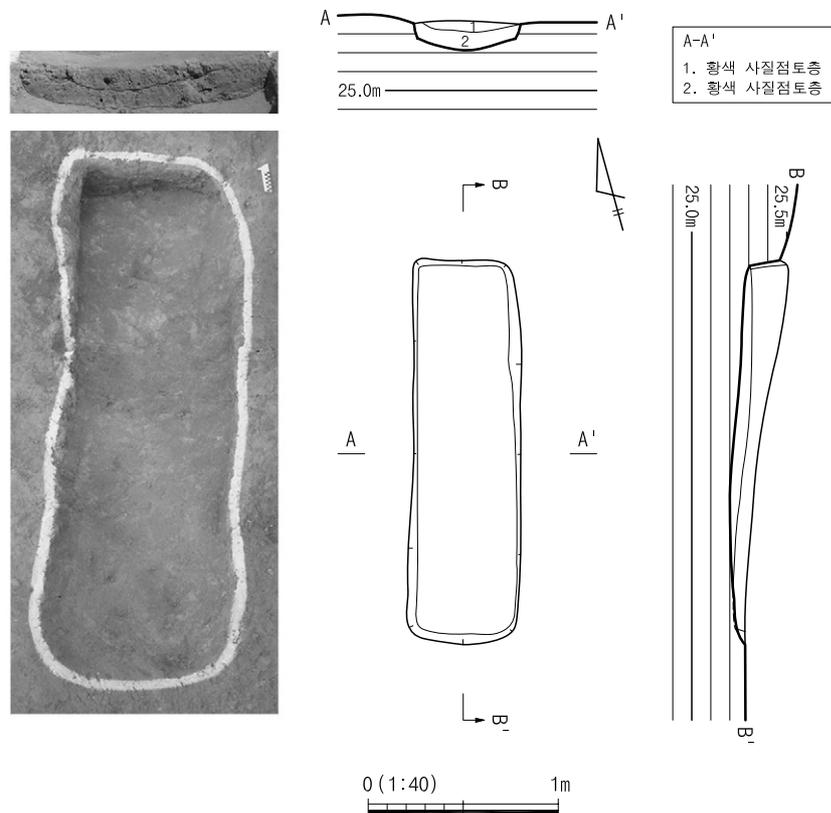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140cm, 너비 48cm, 깊이 17cm로 소형에 해당된다. 장축방향은 정북방향으로 경사방향과 나란하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89) 89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하부인 해발고도 25.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약 1.2m의 지근거리에 90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12】 조선시대 89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11】 조선시대 89호묘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89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으나 一段壙式 土壙墓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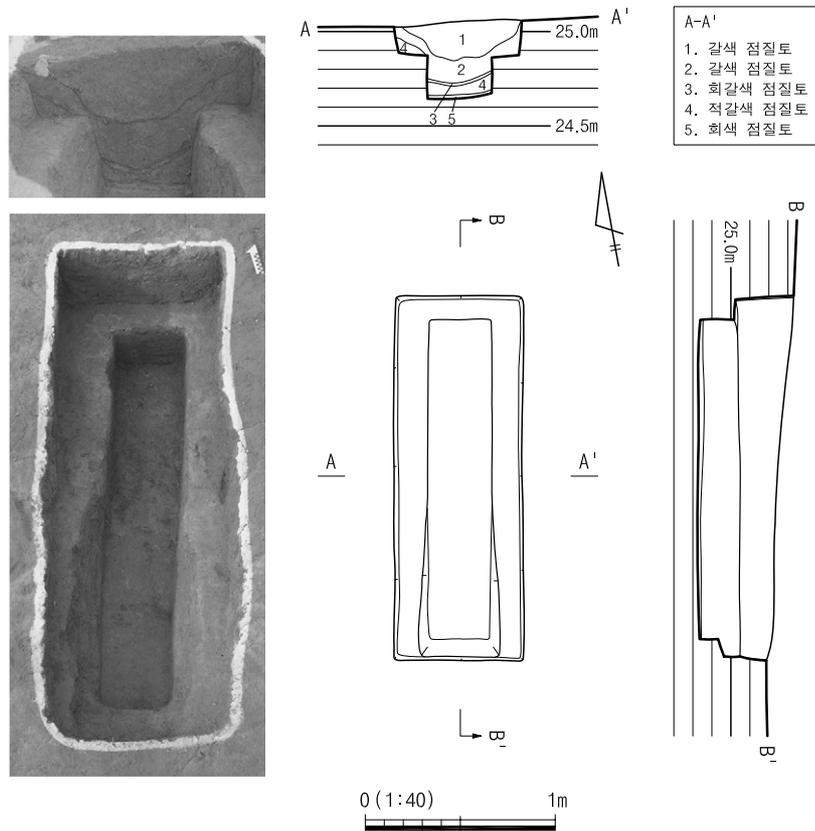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4cm, 너비 56cm, 깊이 24cm이다. 長軸方向은 N-15°-E로 경사방향과 나란하다. 바닥은 남쪽부분은 낮게 정지하였으며, 횡단면이 'U' 자형이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90) 90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하부인 해발고도 25.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1.2m의 지근거리에 89號墓가, 동쪽으로 약 2.2m 거리에 102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13】 조선시대 9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12】 조선시대 9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0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되었을 뿐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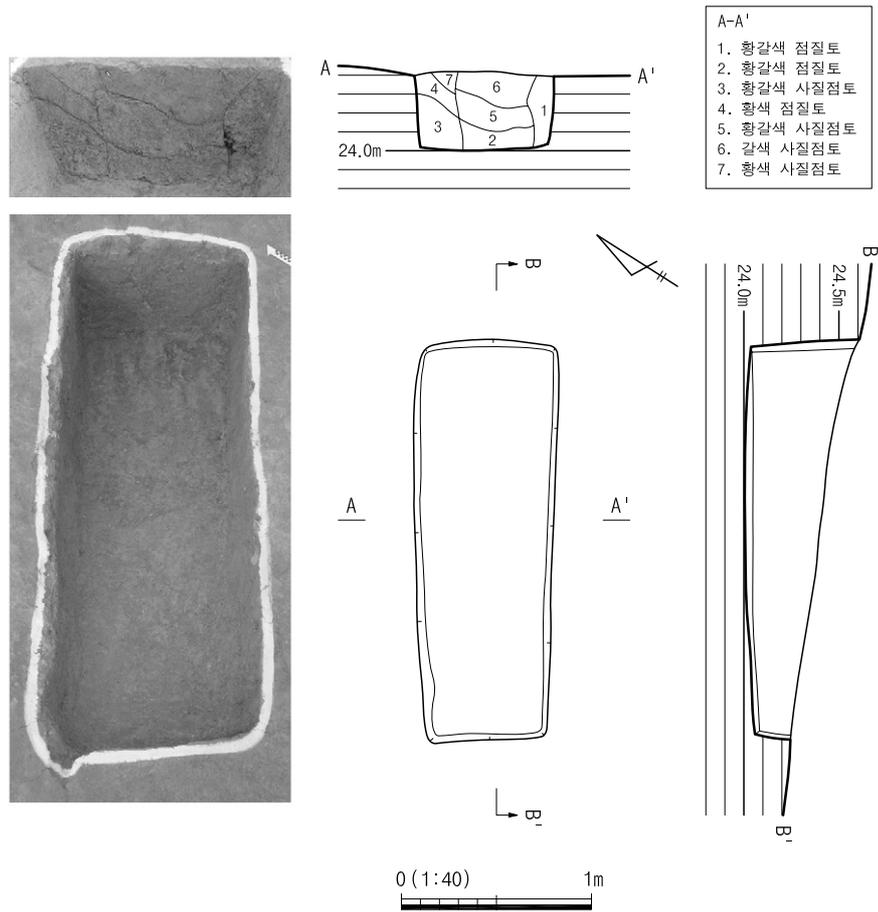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3cm, 너비 67cm, 깊이 5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0°-E이다. 내부에는 남쪽으로 치우쳐 내광을 조성하였다. 內壙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33cm, 높이 20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나, 바닥과 내광 중간부분에서 木蓋로 추정되는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 위에는 갈색 점질토가 중앙으로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91) 91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하부인 해발고도 24.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 90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1.7m 거리에 93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14】 조선시대 91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13】 조선시대 9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1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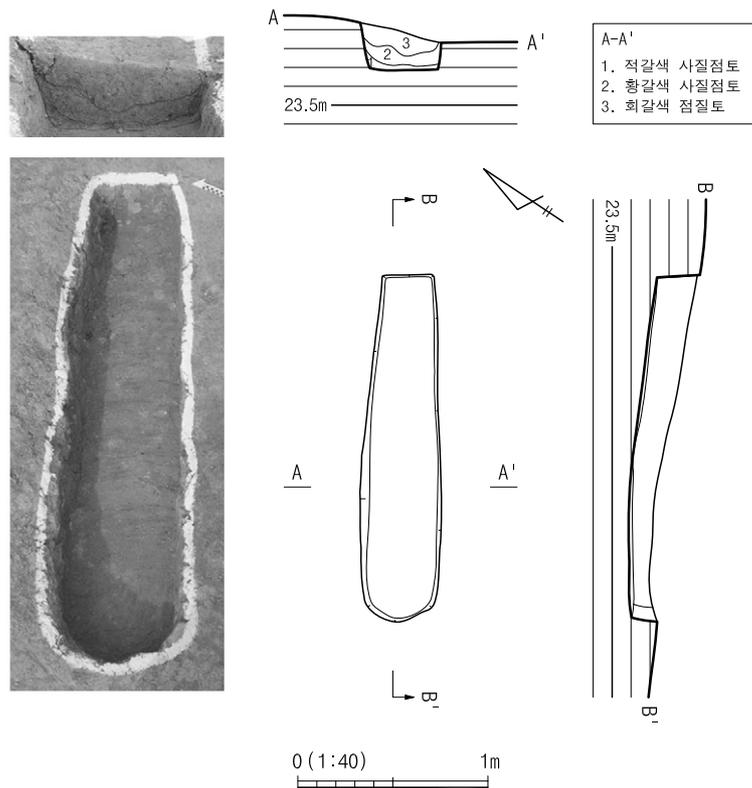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12cm, 너비 65~73cm로 평면형태가 頭廣足狹의 장방형이며, 깊이는 60cm 정도가 남아있었다. 長軸 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3°-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중앙이 약간 낮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너비는 대략 40cm 내외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황갈색 점질토를 채웠으며, 상부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92) 92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3.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에 인접하여 93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긴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15】 조선시대 9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도면 114】 조선시대 9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2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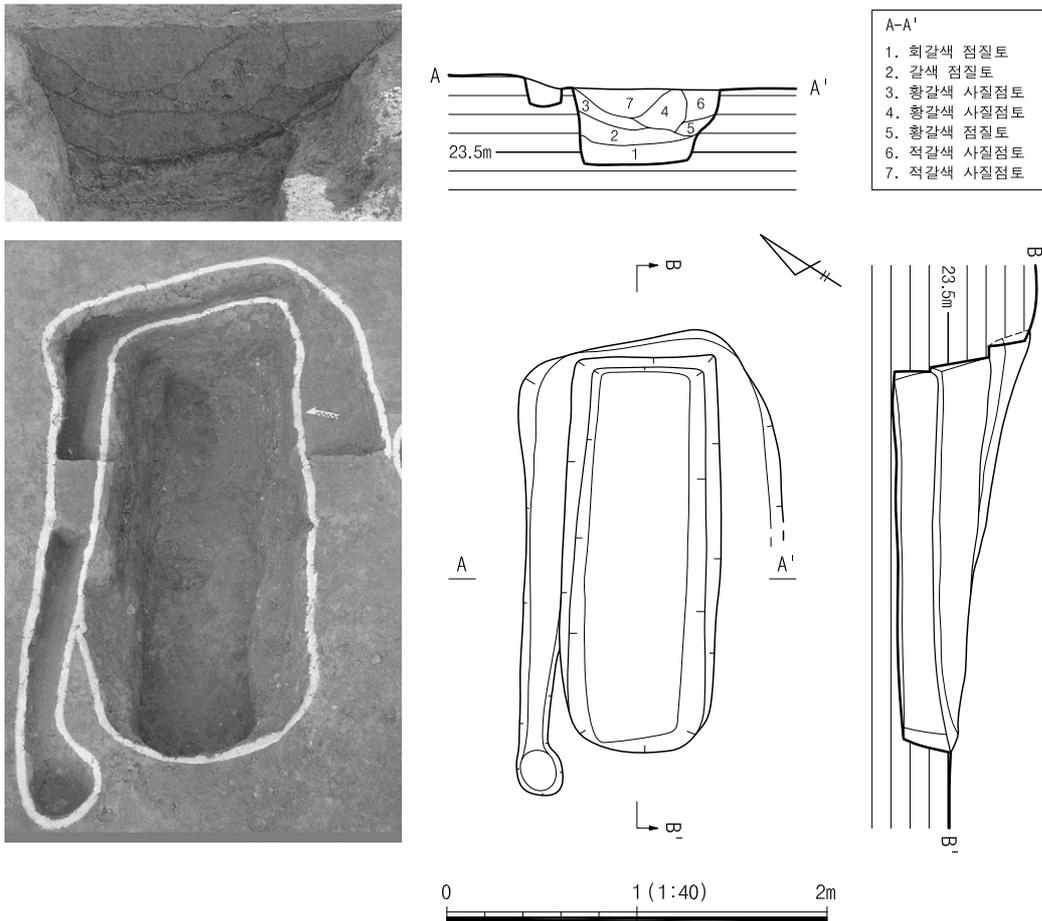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경사면 아랫부분이 보다 넓게 조성되었다. 규모는 길이 184cm, 너비 43cm, 깊이 2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4°-N이다. 바닥은 경사면 위쪽부분을 상당히 높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 (93) 93號墓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중하부인 해발고도 23.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과 남서쪽에 인접하여 92號墓와 94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사진 116】 조선시대 9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15】 조선시대 9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큰 규모의 장방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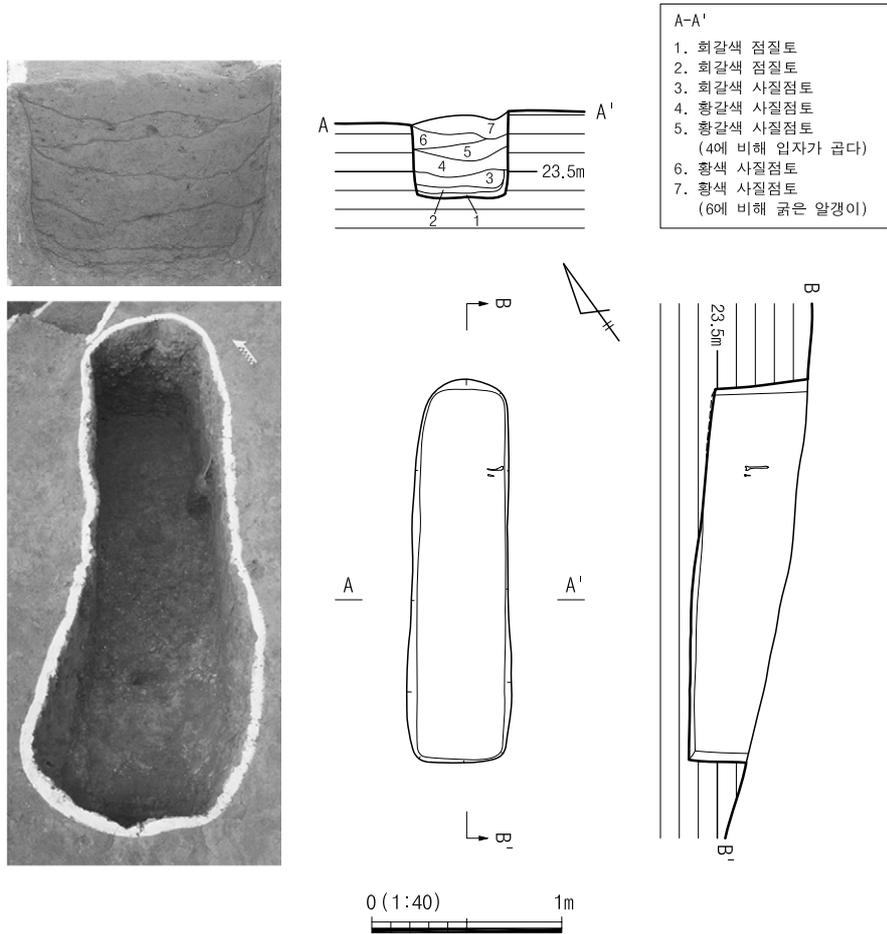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3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확인되었으나 외광과 내광의 구분이 모호하며, 외부에는 구 형태로 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정확한 용도와 형태는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84cm, 깊이 50cm이다. 長軸方向은 E-23°-N으로 경사방향과 일치하였다 內壙은 묘광 주축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195cm, 너비 68cm, 높이 20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과 갈색 점질토와 황갈색, 적갈색 사질점토가 중앙으로 약하게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94) 94號墓

① 遺構



【사진 117】 조선시대 9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16】 조선시대 9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3.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에 인접하여 93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이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세장방향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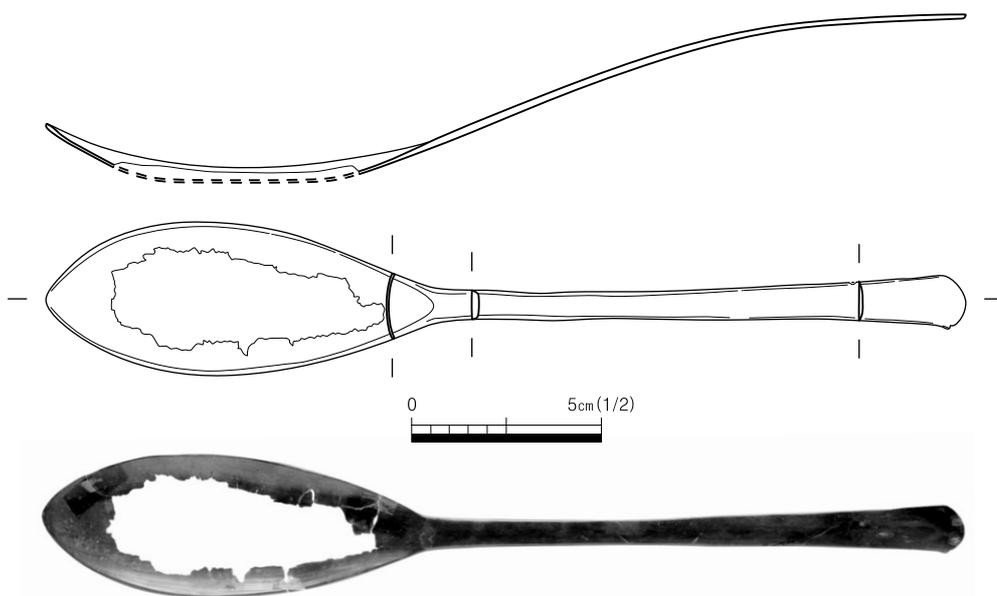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4號墓는 一段擴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향으로 경사면 아랫부분이 약간 넓은 편이며, 규모는 길이 203cm, 너비 51cm, 깊이 5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6°-E이다. 바닥은 북쪽을 높게 정지하여 경사를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 목관의 너비는 대략 40cm 내외로 판단되었으며, 관 위에는 황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내부 북동쪽에는 바닥에서 20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청동손가락 1점이 수습되었으며, 출토양상으로 보아 목관 위에 놓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② 遺物

87. 담청색의 청동제 손가락으로 시부 바닥이 결실되었다. 匙部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납작한 반원형이다. 표면에는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24.2cm, 시부길이 10.2cm, 시부너비 4.05cm, 병부너비 0.7cm, 두께 0.05~0.2cm]

87

(95) 95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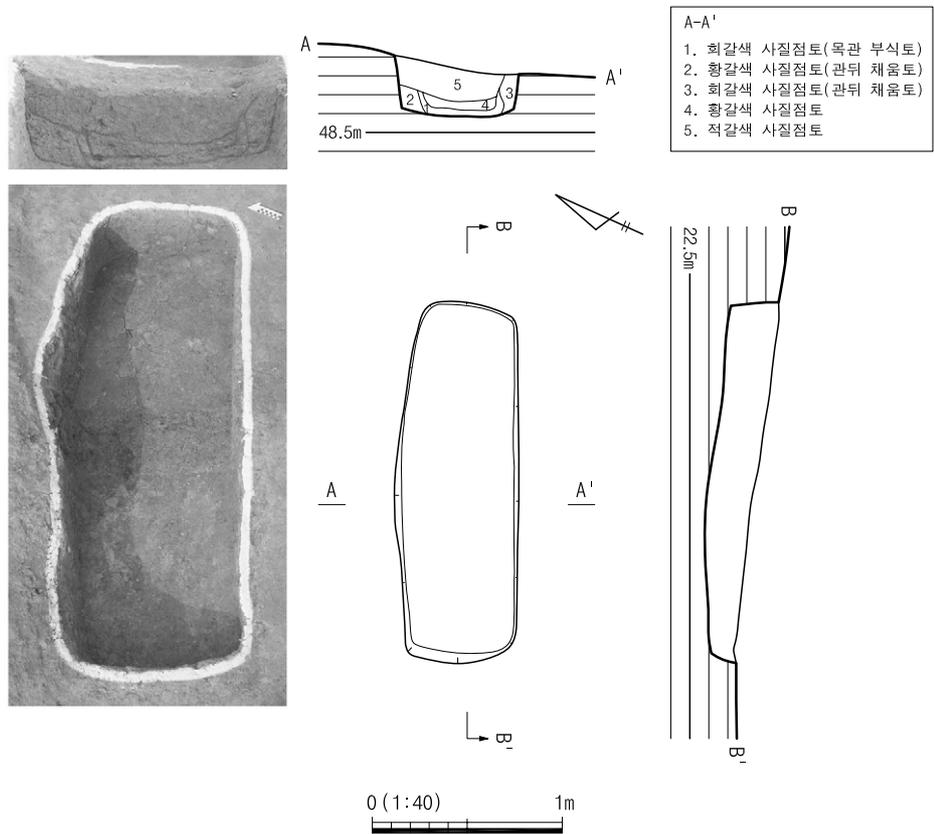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3.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5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경사면 아랫부분이 약간 넓은 편이며, 규모는 길이 191cm, 너비 65cm, 깊이 24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25°-N이다. 바닥은 경사면 위쪽을 높게 조성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너비 40cm 내외의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 측면에는 황갈색 사질 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18】 조선시대 9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17】 조선시대 9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6) 9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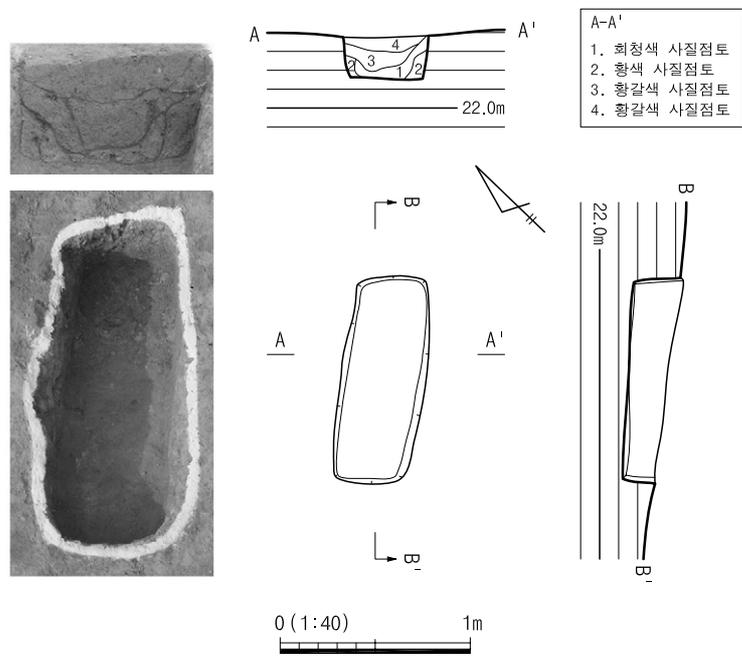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형성된 묘역내 남서사면 말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2.4m 높이에 조성되었다. 묘에서 북쪽으로 약 4.3m 거리에 95號墓가, 서쪽으로 약 3.0m 떨어져서 97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6號墓는 一段壙式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09cm, 너비 45cm, 깊이 21cm로 소형에 해당된다. 長軸方向은 경사방과 나란한 N-46°-E이다. 바닥은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너비는 대략 30cm 정도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19】 조선시대 9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18】 조선시대 9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7) 97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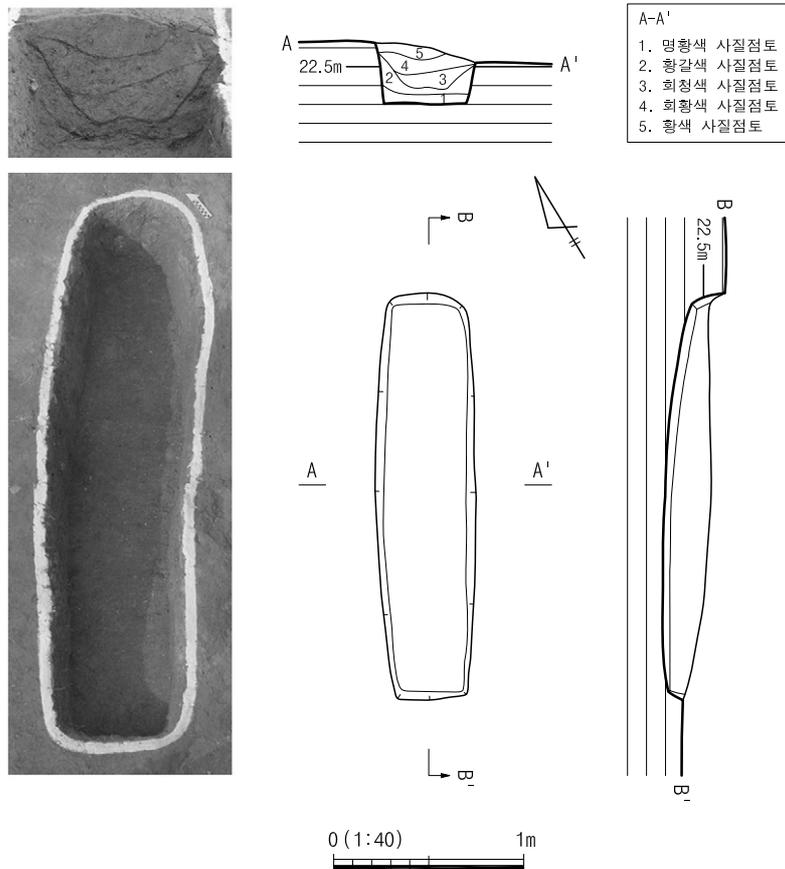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2.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동쪽으로 약 3.0m 거리에 96號墓가, 북동쪽으로 약 5.0m 떨어져서 95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

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7호묘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잔존상황과 내부 토층양상으로 보아 二段壙式 土壙墓의 내광으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6cm, 너비 53cm, 깊이 3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1°-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북쪽부분이 약간 높은 편이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회황색 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0】 조선시대 9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19】 조선시대 9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8) 98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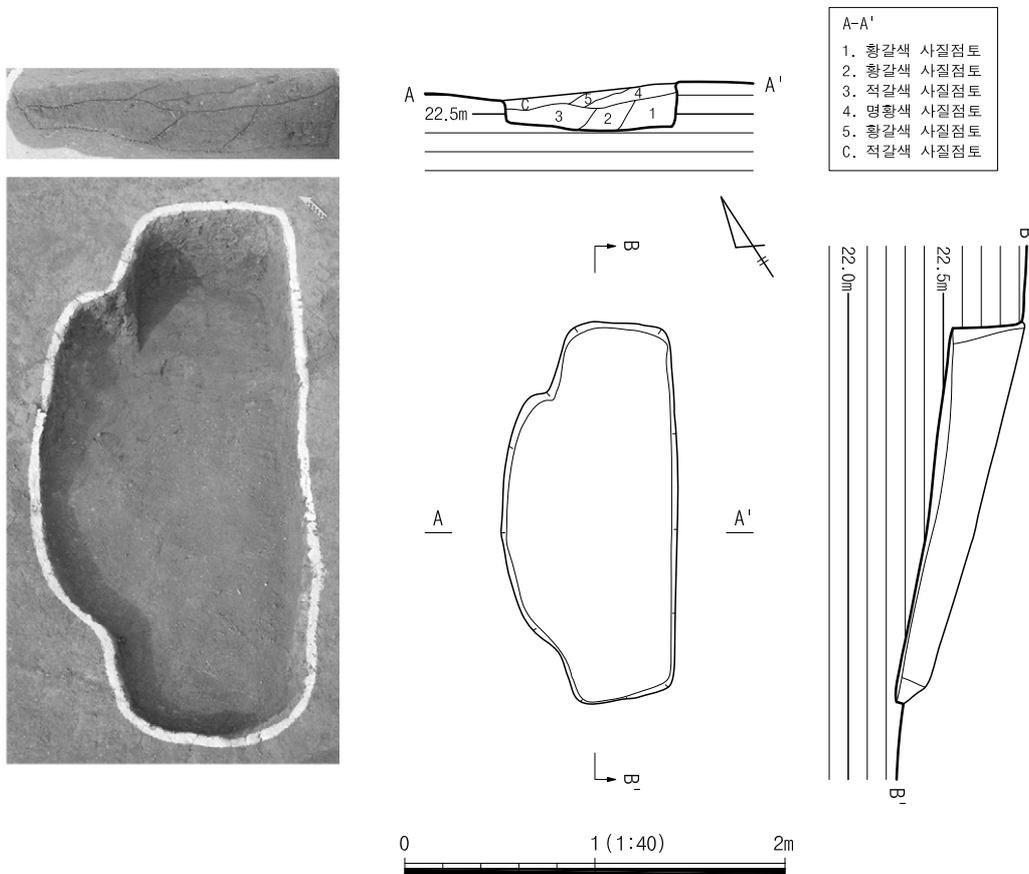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2.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을 약 3.3m 거리에 99號墓가, 서쪽으로 약 3.0m 떨어져서 100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의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을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서쪽부분이 도출되어 있는 형태였다. 규모는 길이 203cm, 너비 93cm, 깊이 21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3°-E이다. 바닥은 아래쪽으로 경사를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1】 조선시대 98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20】 조선시대 9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99) 99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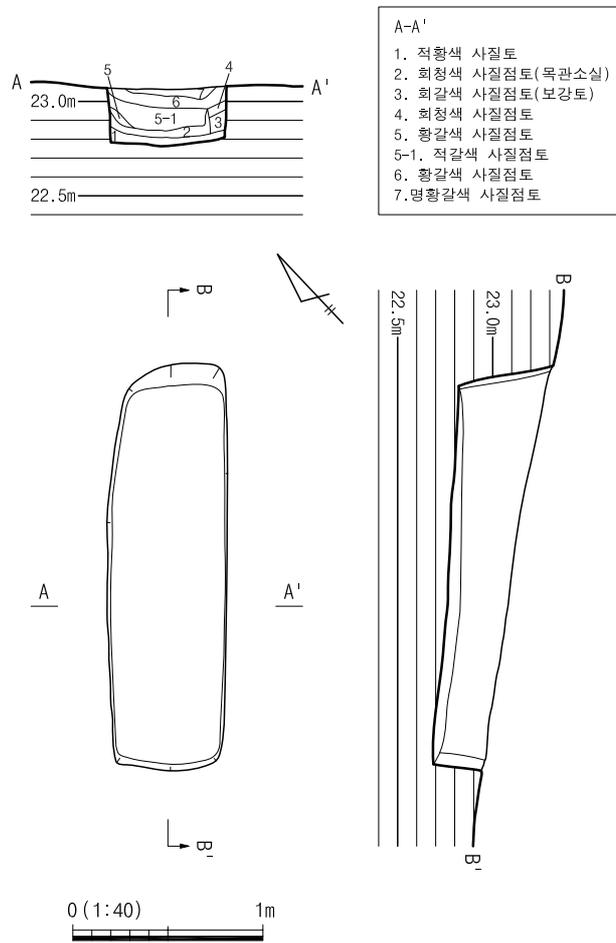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 하단부인 해발고도 23.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으로 약 3.3m 떨어져서 98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2.5m 거리에 100號

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99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15cm, 너비 63cm, 높이 52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3°-E이다. 바닥은 경사면 위쪽을 높게 정지하여 경사져 있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다. 목관 너비는 대략 40cm 내외이며, 측면에는 회갈색 사질점토를 채웠고, 관 위에는 적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도면 121. 조선시대 99호묘 토층 및 평 입단면도

(100) 10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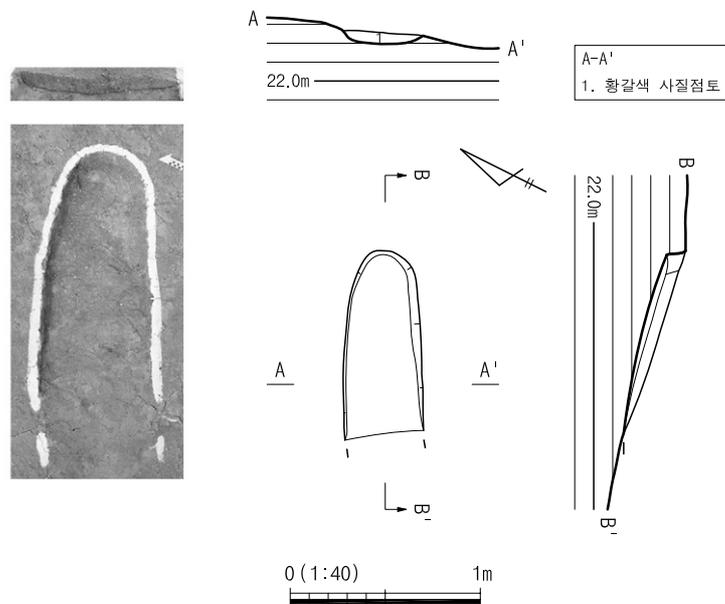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서사면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2.4m 조성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2.5m 거리에 99號墓가, 남서쪽으로 약 3.0m 떨어져서 9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래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0號墓는 상부 구조와 남쪽부분이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97cm, 너비 42cm, 깊이 6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27°-N이다. 바닥은 상당히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2】 조선시대 100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22】 조선시대 10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01) 101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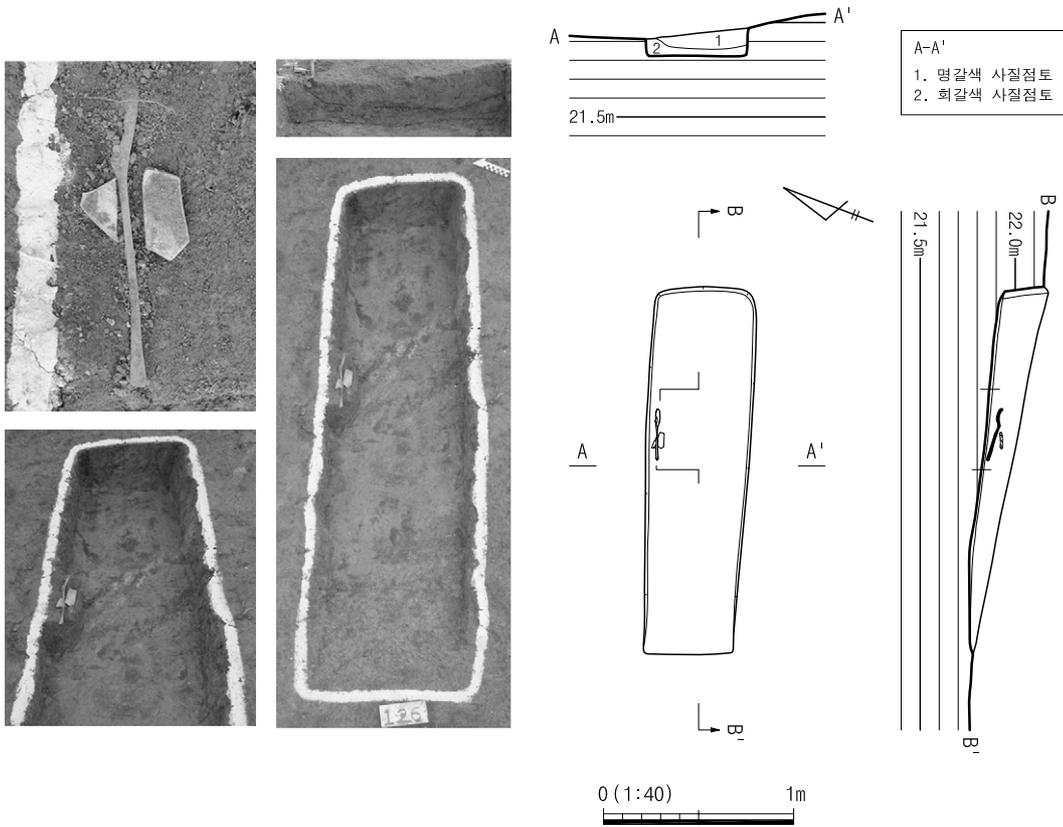
조사지역 남서쪽에 형성된 묘역내 남서쪽 말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2.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4.5m 떨어져서 58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1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으나 一段壙式 土壙墓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규모는 길이 195cm, 너비 55cm, 깊이 25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21°-N이다. 바닥은 남서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잔존깊이가 낮아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나 유물이 바닥에서 약 3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되어 목관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갈색과 명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청동손가락과 백자 구연부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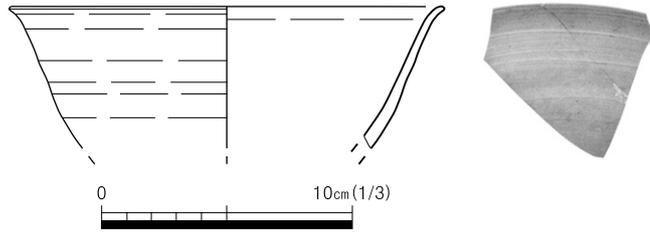
【사진 123】 조선시대 101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23】 조선시대 101호묘 토층 및 평·입면면도

② 遺物 (일련번호 88~89)

88. 맑은 회백색을 띠는 白磁 대접의 구연부편이다. 기벽은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유약의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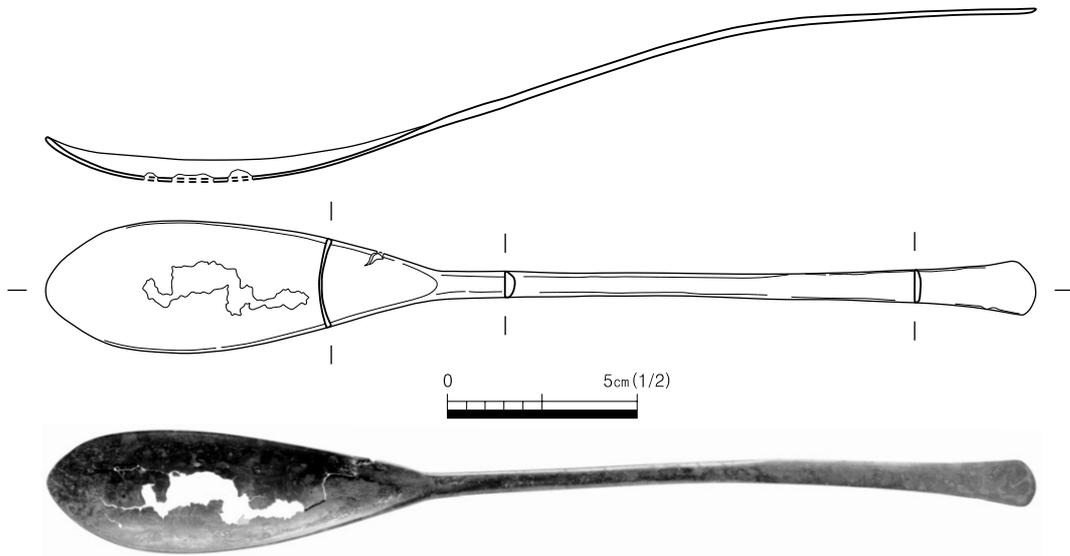
89. 담청색의 청동제 손가락으로 시부 바닥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의 평면형태는 柳葉形로 바닥은 편평한 편이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둥근 弧形이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반원형이며, 표면에는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88

[잔존높이 5.6cm, 복원구경 18.9cm, 두께 0.3~0.5cm]



89

[길이 26.1cm, 시부길이 5.3cm, 시부너비 3.5cm, 병부너비 0.6cm, 두께 0.05~0.25cm]

## (102) 102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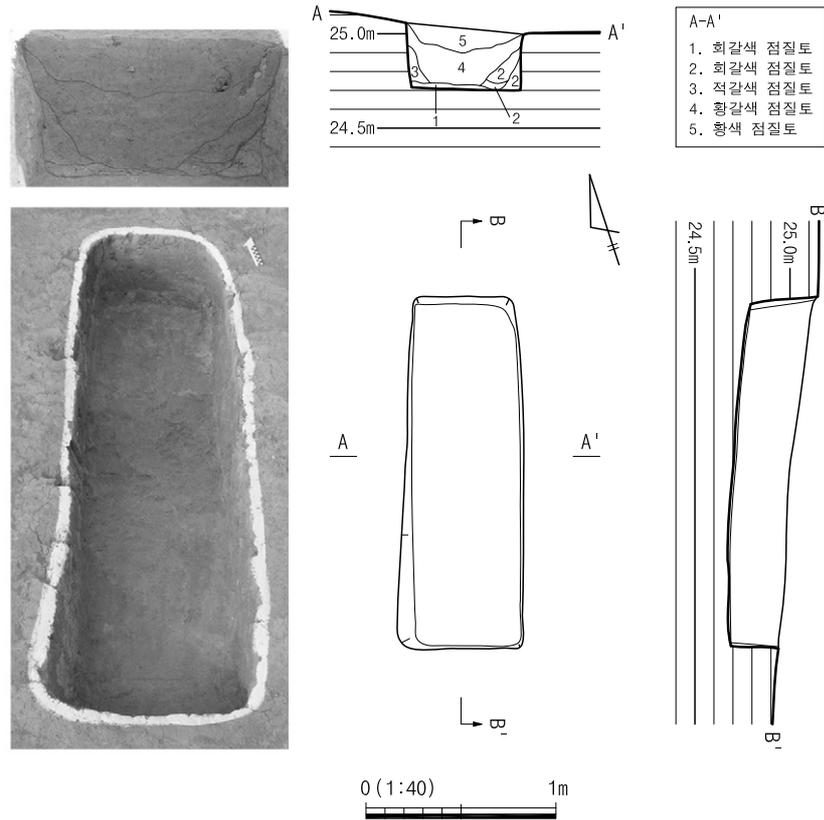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2.2m 떨어져서 90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02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7cm, 너비 62cm, 깊이 3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8°-E이다. 바닥은 남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너비는 대략 35cm 내외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회갈색과 적갈색 점질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4】 조선시대 10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24】 조선시대 10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03) 103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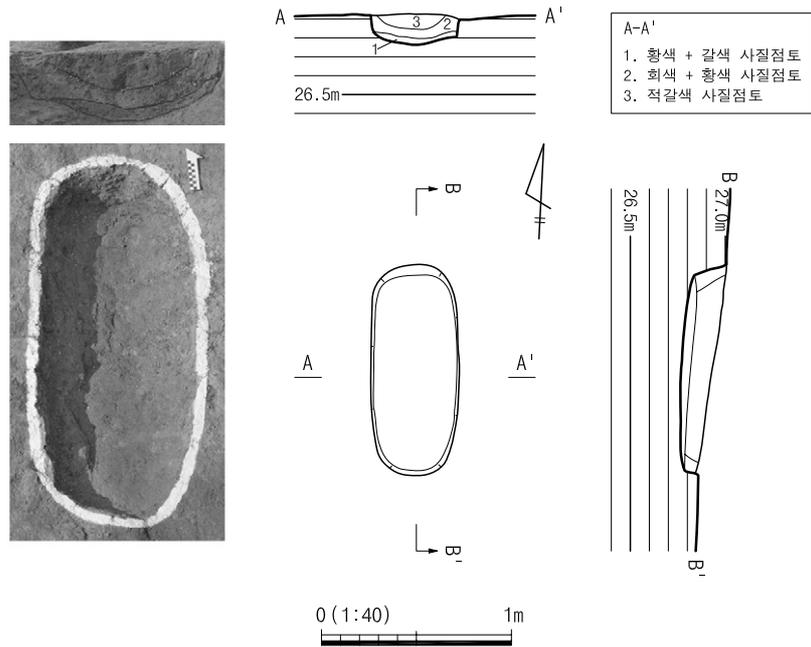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7.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3.2m 떨어져서 8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소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3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12cm, 너비 47cm, 깊이 22cm로 소형에 해당되며, 長軸方向은 정북방향에 가까운 N-3°-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황색, 갈색,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5】 조선시대 103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25】 조선시대 10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04) 104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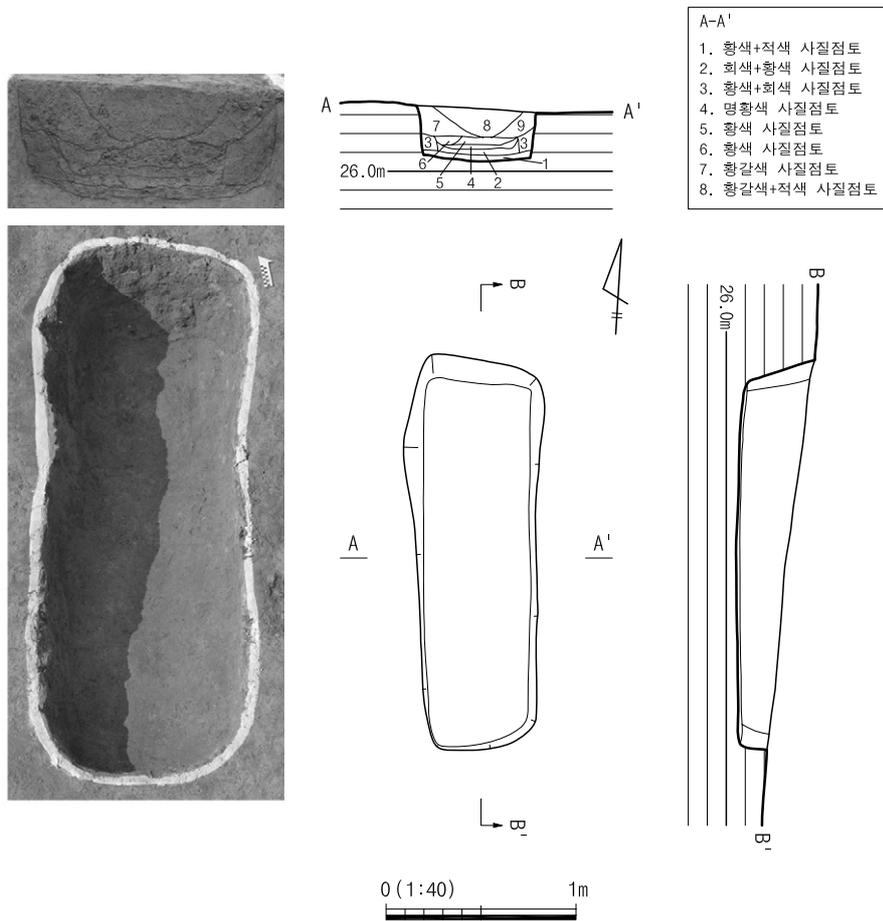
#####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조성된 묘역내 남사면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6.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약 2.3m 떨어져서 105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4號墓는 一段 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북쪽이 약간 넓은 편이며, 규모는 길이 207cm, 너비 63cm, 깊이 38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W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잘 남아있었다. 관의 너비는 대략 42cm 내외로 추정되었다. 우선 바닥에 황적색 사질점토를 복토하여 면을 정지한 후 관을 안치하였으며, 측면에는 회황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관 위에는 황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6】 조선시대 104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26】 조선시대 10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5) 105號墓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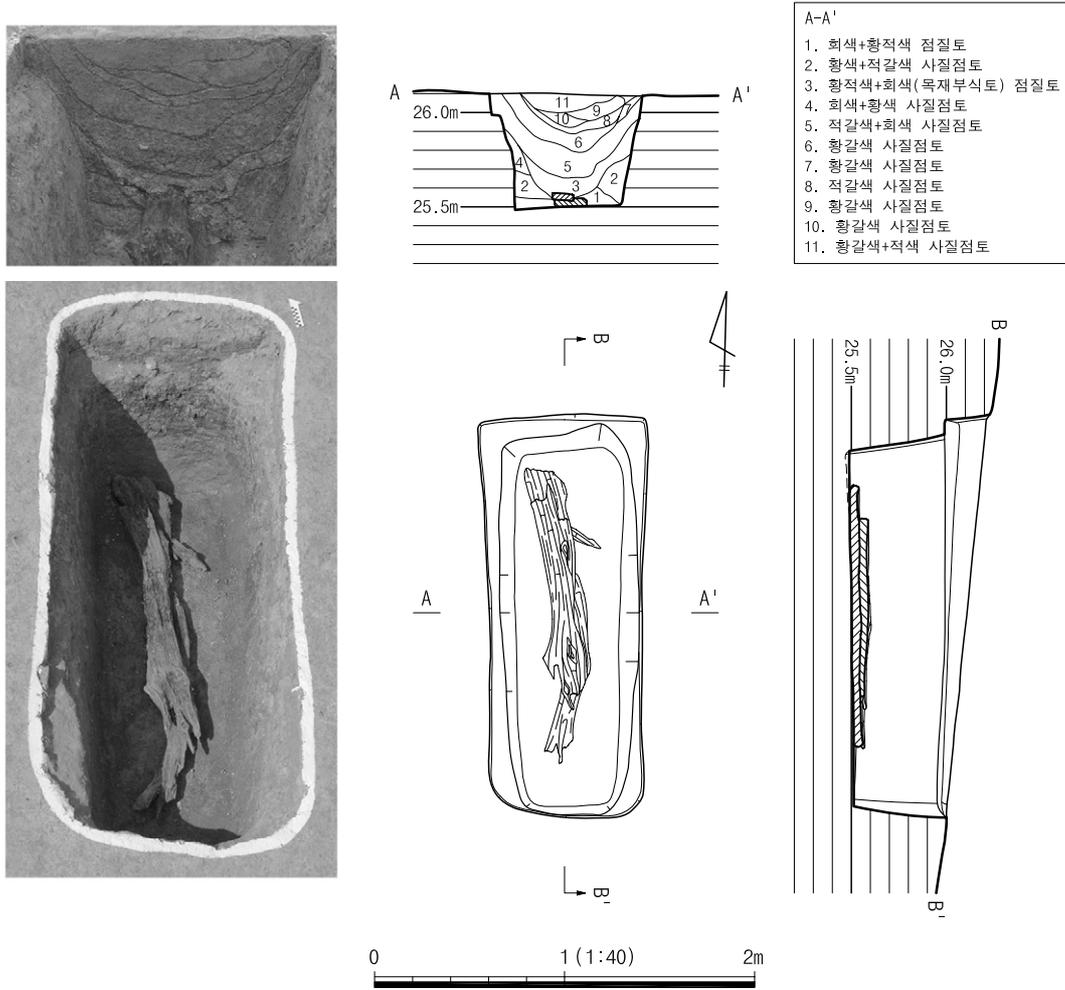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2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3m 거리에 10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5號墓는 二段壙式 土壙墓로 확인되었으나, 묘광과 내광의 경계구분이 모호하고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고 있어 다른 이단광식 토광묘와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경사지도록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14cm, 너비 80cm, 깊이 7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W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묘광 중앙에는 內壙을 조성하였는데, 평면형태는 頭廣足狹의 장방형으로 다소 부정형한 형태였으며,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56~67cm, 높이

는 50cm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에서 木棺의 下板과 側板 일부가 남아있었다. 목관의 너비는 대략 40cm 내외로 추정되었다. 관 측면에는 황적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7】 조선시대 105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27】 조선시대 10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06) 10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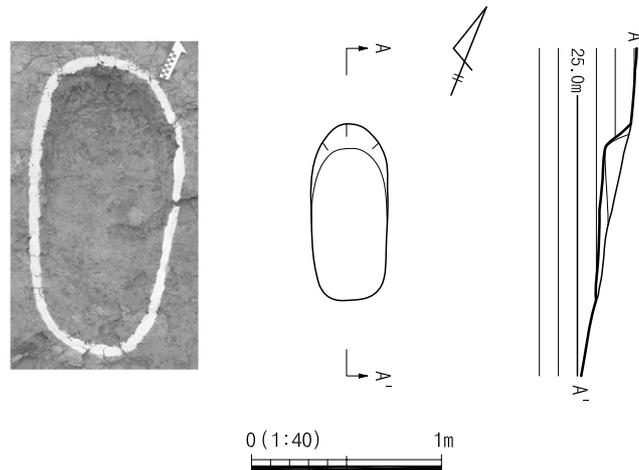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5.3m 높이에 조성되었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6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북쪽은 둥글게 돌출되어 있으며, 규모는 길이 94cm, 너비 40cm, 깊이 5cm로 소형에 해당된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2°-W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8】 선시대 106호묘 조사 後 전경 / 【도면 128】 조선시대 106호묘 평면 및 입단면도

(107) 107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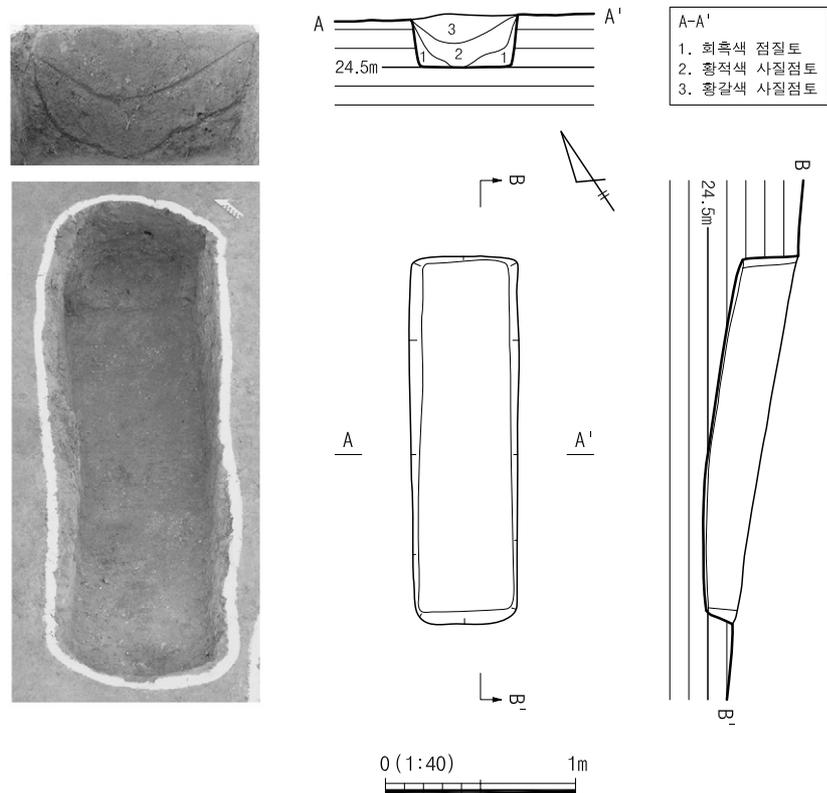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형성된 묘역내 남서사면의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5.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쪽에 인접하여 112號墓가, 서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111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긴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7號墓는 一段 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95cm, 너비 64cm, 깊이 30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4°-E이다. 바닥은 북동쪽부분을 높게 조성하여 경사를 이루었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일부 남아있었다. 관 측면에는 회흑색 점질토를 채우고 그 위에는 황적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29】 조선시대 107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29】 조선시대 10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8) 10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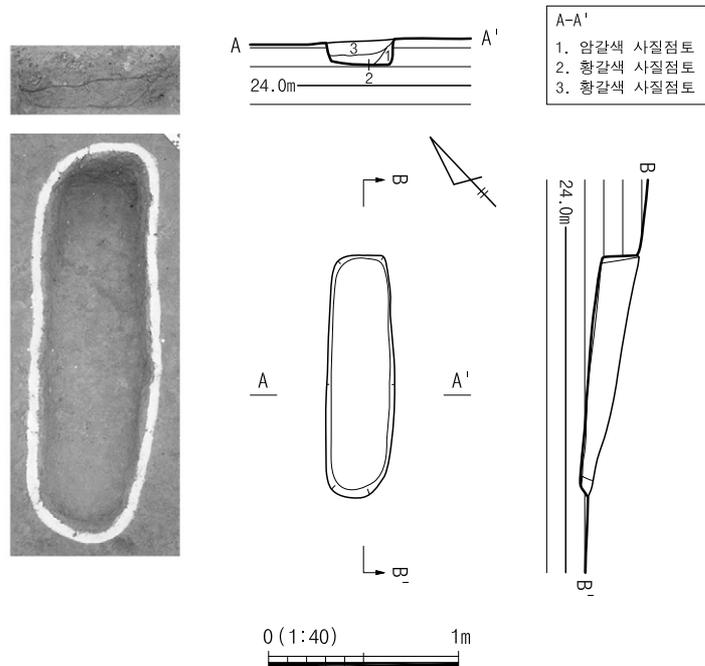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4.4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1.8m 거리에 111號墓가, 서쪽으로 약 1.0m 떨어져서 109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8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28cm, 너비 36cm, 깊이 18cm이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3°-E이다. 바닥은 남서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암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30】 조선시대 10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0】 조선시대 10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09) 10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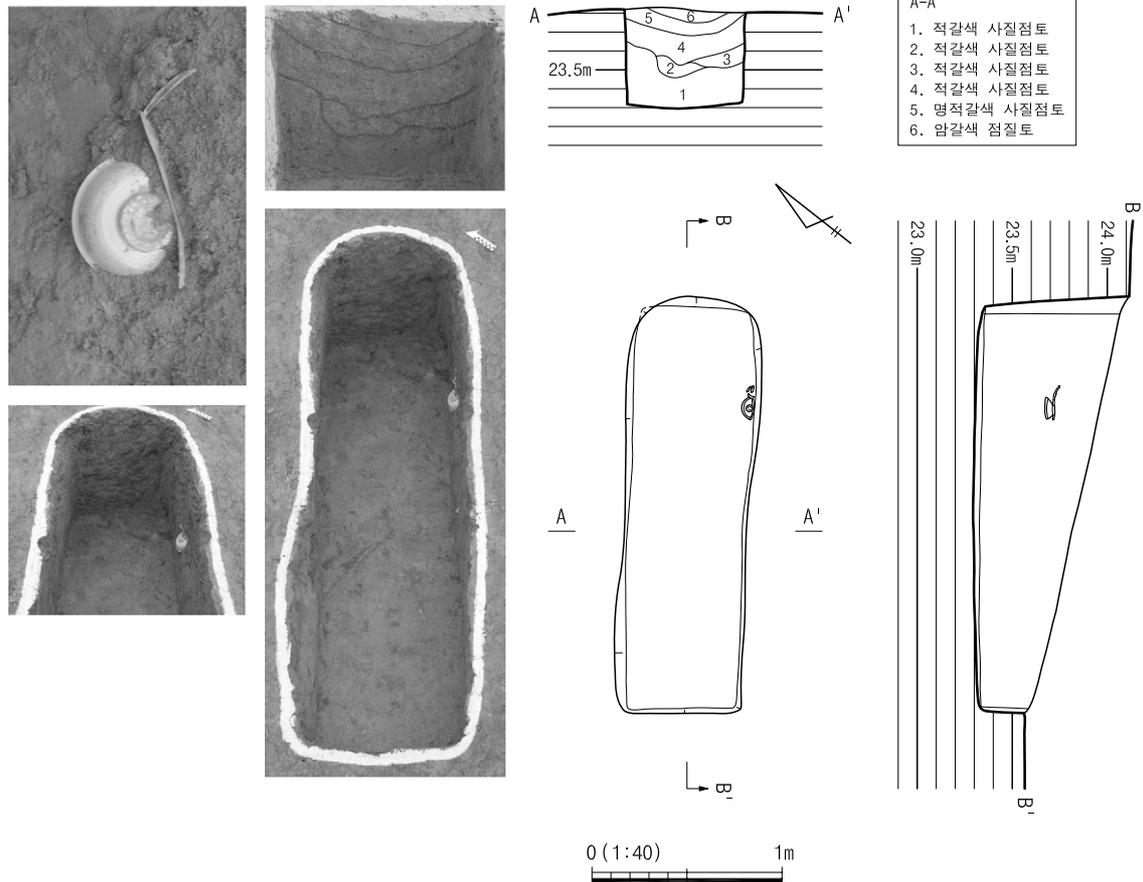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하부인 해발고도 24.1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3.1m 거리에 72號墓가, 동쪽으로 약 1.0m 거리에 10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09號墓는 一段 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64cm, 깊이 80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8°-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하층의 적갈색 사질점토의 좌측부분이 희미하게 구분되고 상부에 적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으로 채워져 있어 관을 안치하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遺物은 동쪽 장벽의 북쪽에 바닥에서 약 35cm 떠 있는 상태로 백자접시와 청동손가락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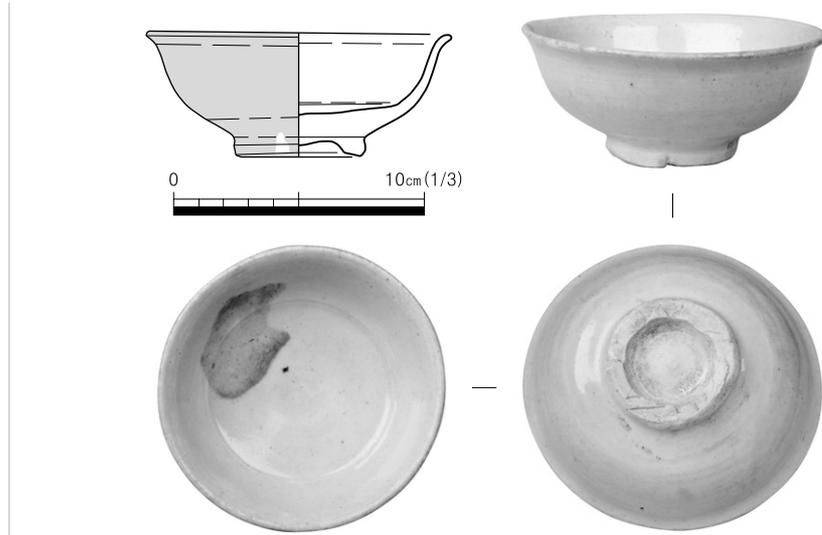


【사진 131】 조선시대 109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31】 조선시대 10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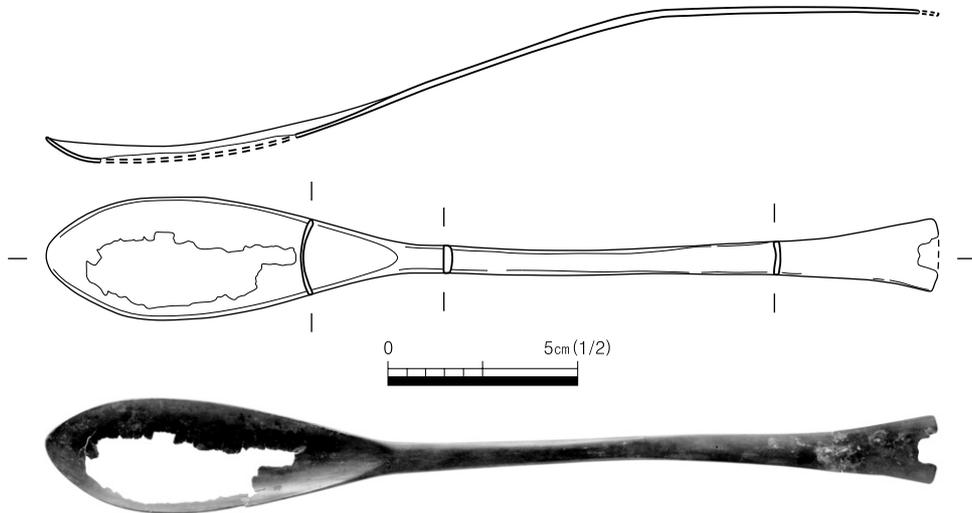
## ② 遺物 (일련번호 90~91)

90. 백색을 띠는 白磁 접시로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7.8cm의 內底圓角을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중앙이 약간 들어가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외면은 바닥에서 1.1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여 마디가 형성되었다. 굽 접지면의 너비는 0.4~0.6cm로 면이 정연하지 못하며, 안쪽이 들려 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았으며, 바닥 중앙이 약간 솟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태토받침을 때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유약은 저부를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어 있다.

91. 담청색의 청동제 순가락으로 시부 바닥과 병단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柳葉形로 바닥은 편평한 편이며, 시단부 좌측부분은 사용에 의해 약간 마모된 상태이다. 柄部는 시목에서부터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柄端部 쪽으로 갈수록 넓고 얇아지는 형태이며, 柄端部는 燕尾形으로 장식하였다. 측면은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인다. 병부 단면은 반원형이며, 장식부분은 ‘ $\wedge$ ’ 자 형태이다. 표면에는 가질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높이 5.1cm, 구경 11.8cm, 저경 4.65cm, 두께 0.3~1.2cm]



[길이 23.5cm, 시부길이 9.3cm, 시부너비 3.25cm, 병부너비 0.6cm, 두께 0.05~0.2cm]

## (110) 110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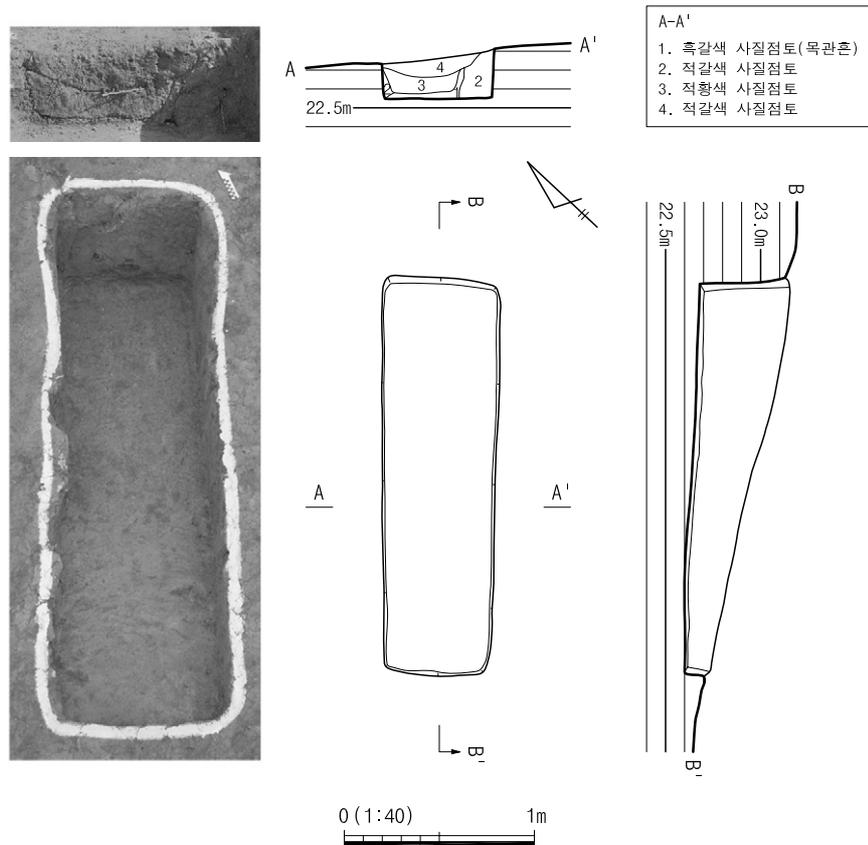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하단부인 해발고도 23.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1m 거리에 109號墓가, 서쪽으로 약 2.3m 떨어져서 5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0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壇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11cm, 너비 54~60cm로 평면형태가 頭廣足狹의 장방형을 띠고 있었으며, 깊이는 46cm 정도가 잔존하였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7°-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木棺 흔적이 남아있었다. 관은 서쪽으로 치우쳐 안치하였으며, 너비는 대략 40cm 내외였다. 관 측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적황색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32】 조선시대 110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2】 조선시대 110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11) 111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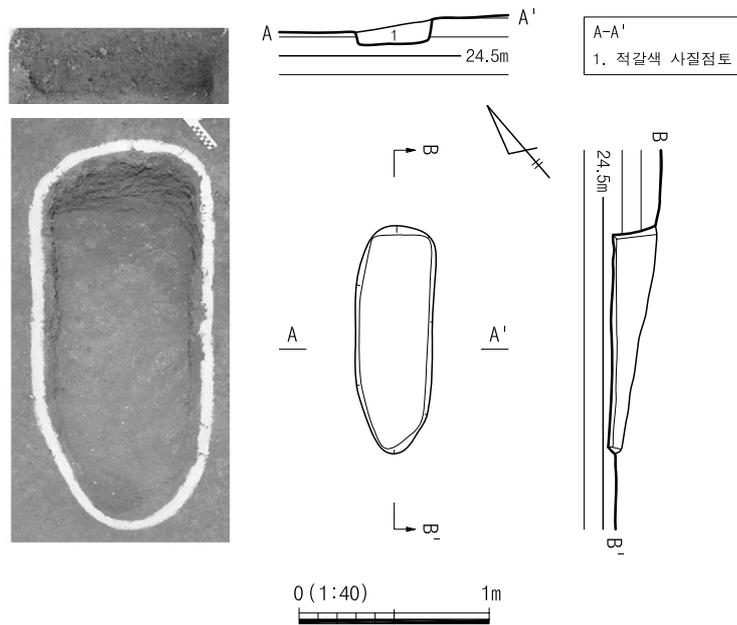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2.1m 거리에 57號墓가, 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107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소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1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20cm, 너비 40cm, 깊이 23cm로 소형에 해당된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41°-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33】 조선시대 111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3】 조선시대 111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12) 112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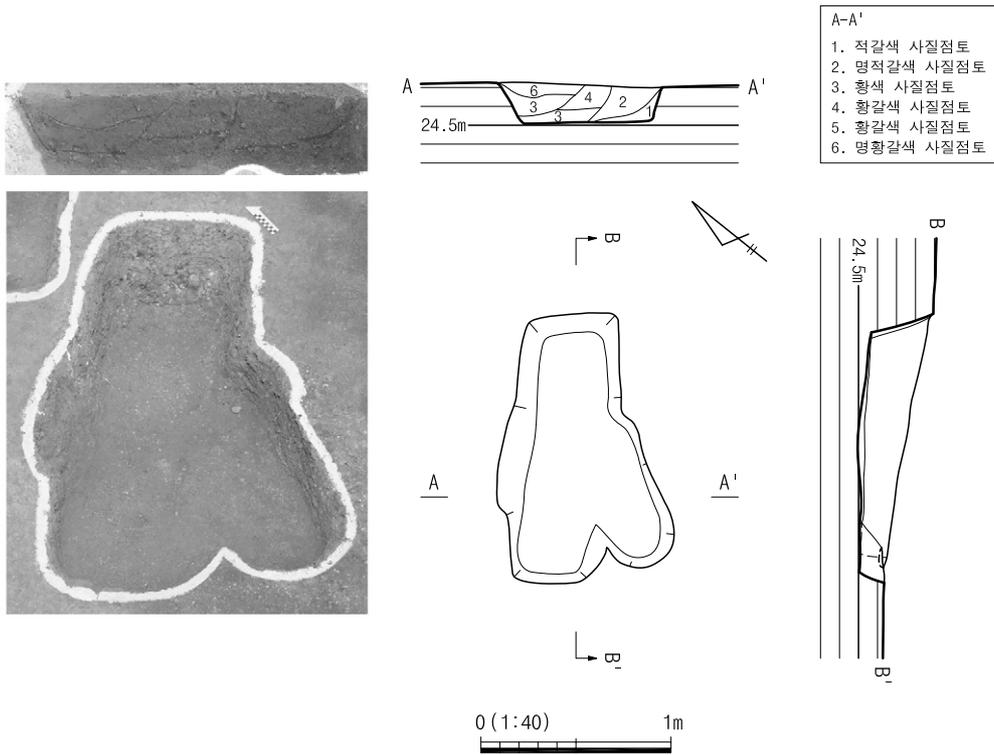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3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에 인접하여 107號墓가, 서쪽으로 약 4.0m 떨어져서 10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2호묘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우측 아랫부분이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토층상으로 보아 다른 묘와 중복되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규모는 길이 142cm, 너비 53cm, 깊이 33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E-39°-N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황색과 적갈색,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34】 조선시대 112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4】 조선시대 112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113) 113號墓

#### ①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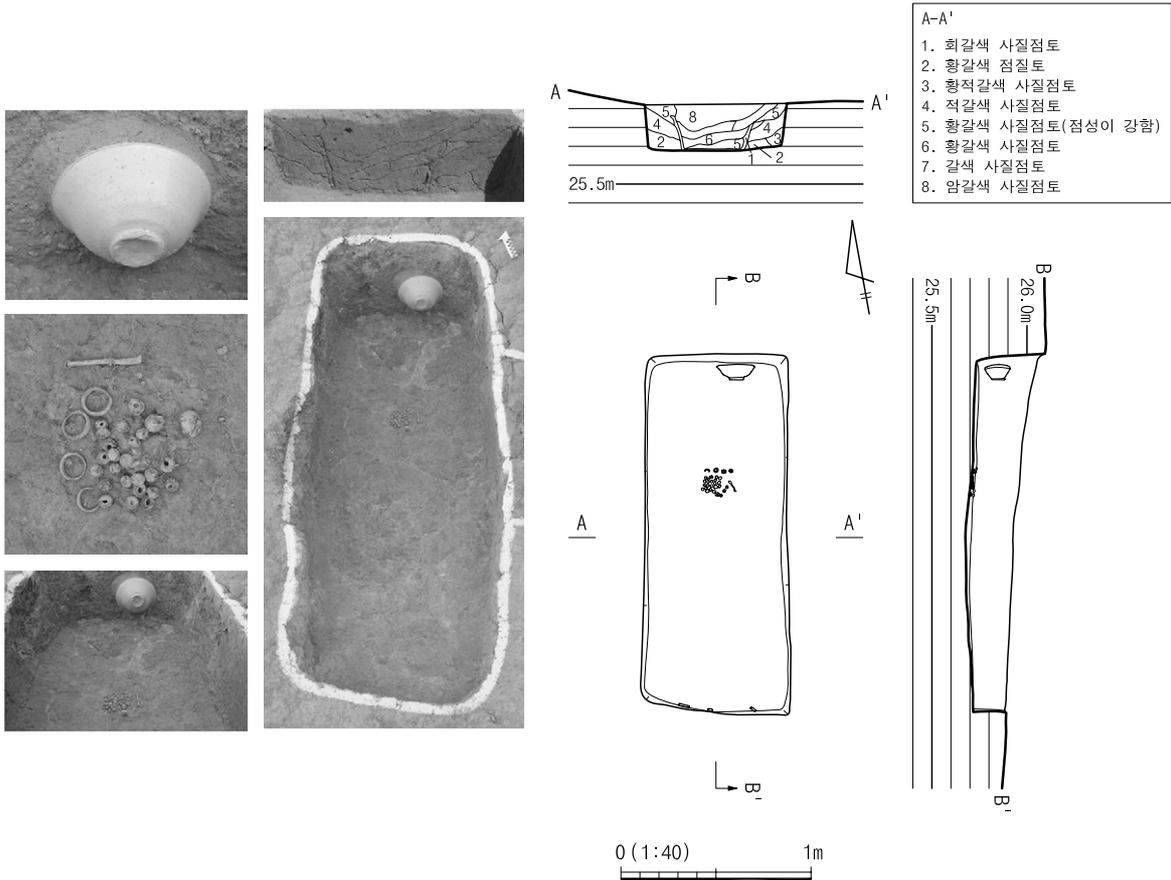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6.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으로 약 2.0m 떨어져서 6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3號墓는 一段 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정정도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71cm, 깊이 37cm이며,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0°-E으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목관의 너비는 35cm 내외이다.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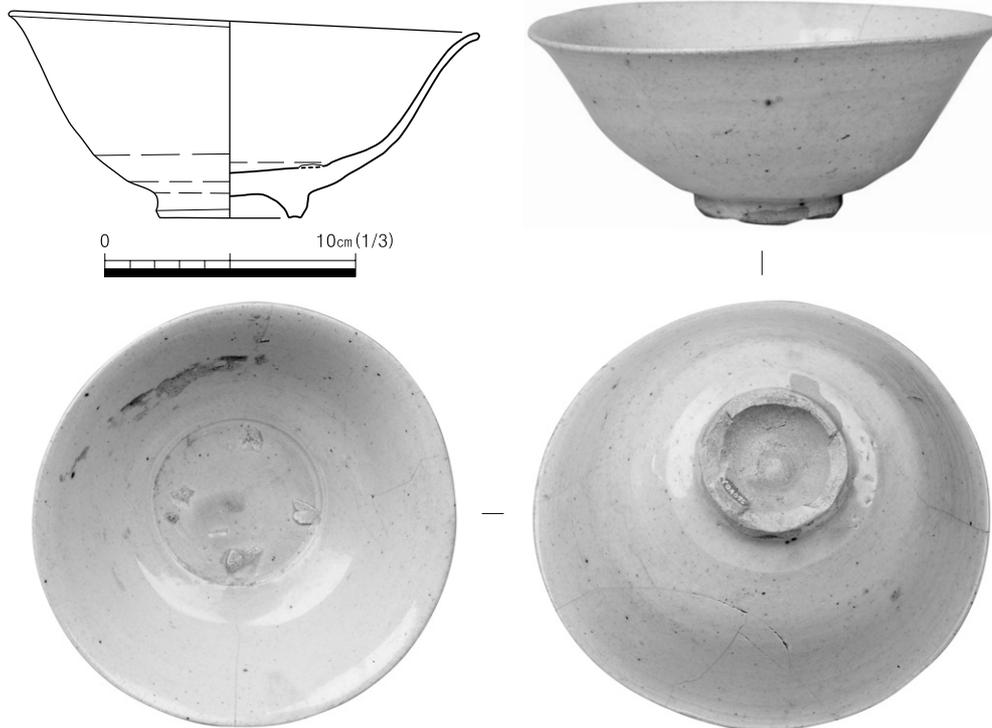
측면에는 황갈색 점질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황갈색과 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遺物은 북단벽쪽에 백자 대접과 접시가 바닥에서 5c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중앙에서는 청동족집게, 청동가락지 4점, 유리제 구슬 25점이 한곳에서 수습되었다. 출토상태로 보아 백자는 관위에 부장하였고, 나머지 청동제품과 유리는 관안에 부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진 135】 조선시대 113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5】 조선시대 113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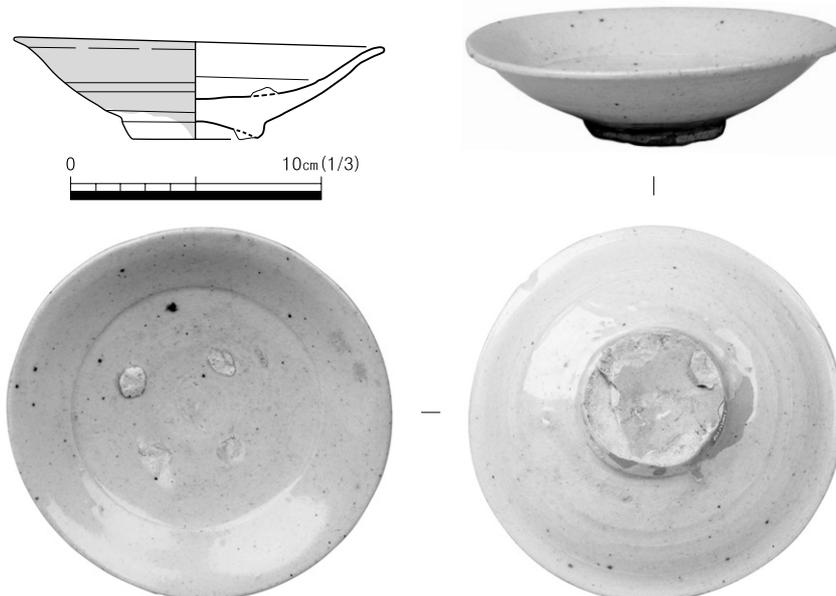
## ② 遺物 (일련번호)

92. 운백색의 白磁 대접으로 푸른빛이 감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외반시켜 구연을 성형하였다. □脣은 뾰족한 편이다. 내면에는 지름 7.8cm의 內底圓角을 뚜렷하게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중앙이 약간 들어가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안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로 굽 외면은 바닥에서 1.2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과 기벽 사이에 깊은 홈이 형성되었다. 굽 접시면의 너비는 0.3~0.5cm이며, 안쪽이 들려 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 중앙은 편평한 편이다. 내저면에 태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안쪽을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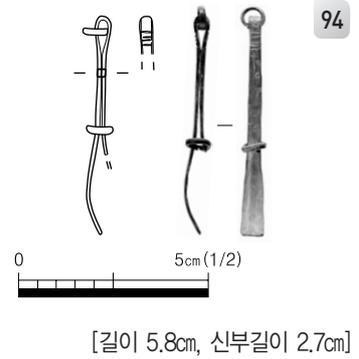
[구경 18.2cm, 높이 8.2cm, 저경 5.6cm, 두께 0.25~0.9cm]

93. 운백색의 白磁 접시로 푸른빛이 감돌며, 기형이 약간 뒤틀려 있다. 器壁은 底部에서 바라져 오르며, 단부를 살짝 외반시켜 口緣을 성형하였다. 口脣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름 9.5cm의 內底圓角을 표현하였으며,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굽은 오목굽으로 높이 0.5cm로 낮은 편이다. 외면은 바닥에서 0.9cm 높이부터 돌려 깎아 성형하였으며, 굽과 기벽 사이에 얇은 홈이 형성되었다. 굽 안쪽은 한번에 돌려 깎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중앙이 움푹 들어가 있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반침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굽 안쪽을 제외한 전면에 잘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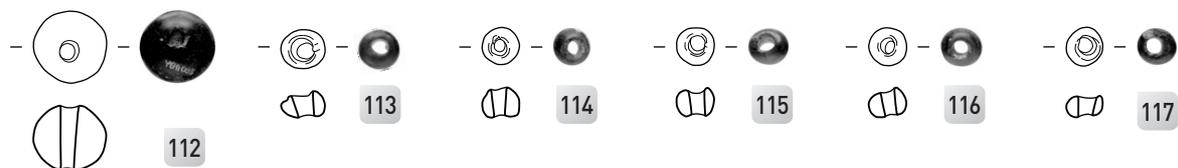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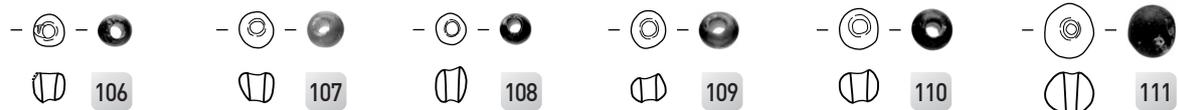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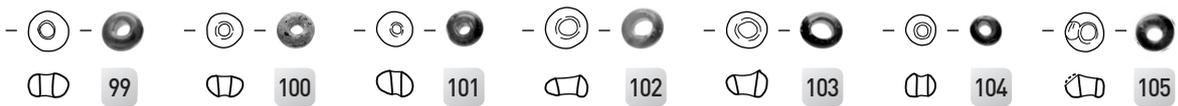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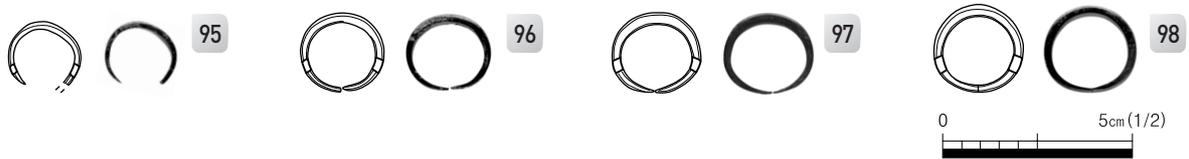


[구경 14.4cm, 높이 4.2cm, 저경 4.95cm, 두께 0.3~0.9cm]

94. 담청색의 청동제 鑷(죽집계)으로 한쪽 脚部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너비가 0.2~0.6cm의 청동판을 ‘∩’자 형태로 구부려 제작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청동봉을 감아 身部和 脚部를 구분하였다. 신부의 끝부분에는 타원형으로 고리부분을 성형하였으며, 지름 0.45cm의 청동환을 걸어 장식하였다. 脚部는 ‘^’자 형태로 구부러 양쪽이 맞닿도록 하였다.



95~98. 담청색을 띠는 청동제가락지로 모두 4점이 수습되었다.가락지는 청동봉을 원형으로 구부려 제작하였다. 봉의 단면은 원형이다. 크기는 지름 1.9~2.35cm 정도로 78번가락지가 제일 작은 편이며, 두께는 0.15~0.25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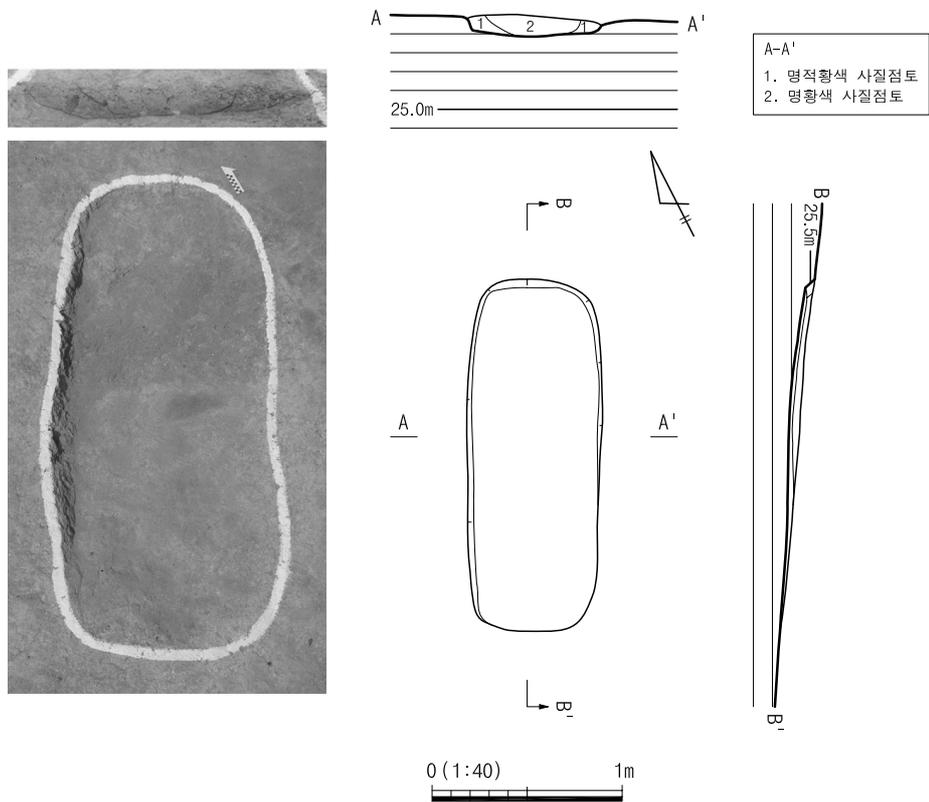
99~123. 유리제 구슬로 모두 25점이 수습되었다. 대체로 94번과 95번 구슬을 제외하

고는 대동소이하다. 94번 구슬은 진한 청색을 띠며, 평면과 단면에 원형에 가깝다. 중앙에는 0.3~0.4cm의 穿孔을 뚫었으며, 너비는 1.3cm 정도이다. 95번 구슬은 진한 갈색을 띠며, 구의 형태로 둥글다. 중앙에는 지름 0.4~0.5cm의 穿孔을 뚫었으며, 너비는 1.9cm로 가장 크다. 나머지 구슬은 보다 소형으로 진한 갈색과 연한 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길이 0.5~0.8cm, 너비 0.7~1.0cm이다. 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이며, 단면은 타원형이다. 중앙에는 0.2~0.5cm의 穿孔을 뚫었다. 모두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였다.

(114) 114號墓

① 遺構

조사지역 남서쪽에 형성된 묘역내 남사면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25.5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동쪽에 인접하여 115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사진 136】 조선시대 114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36】 조선시대 114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4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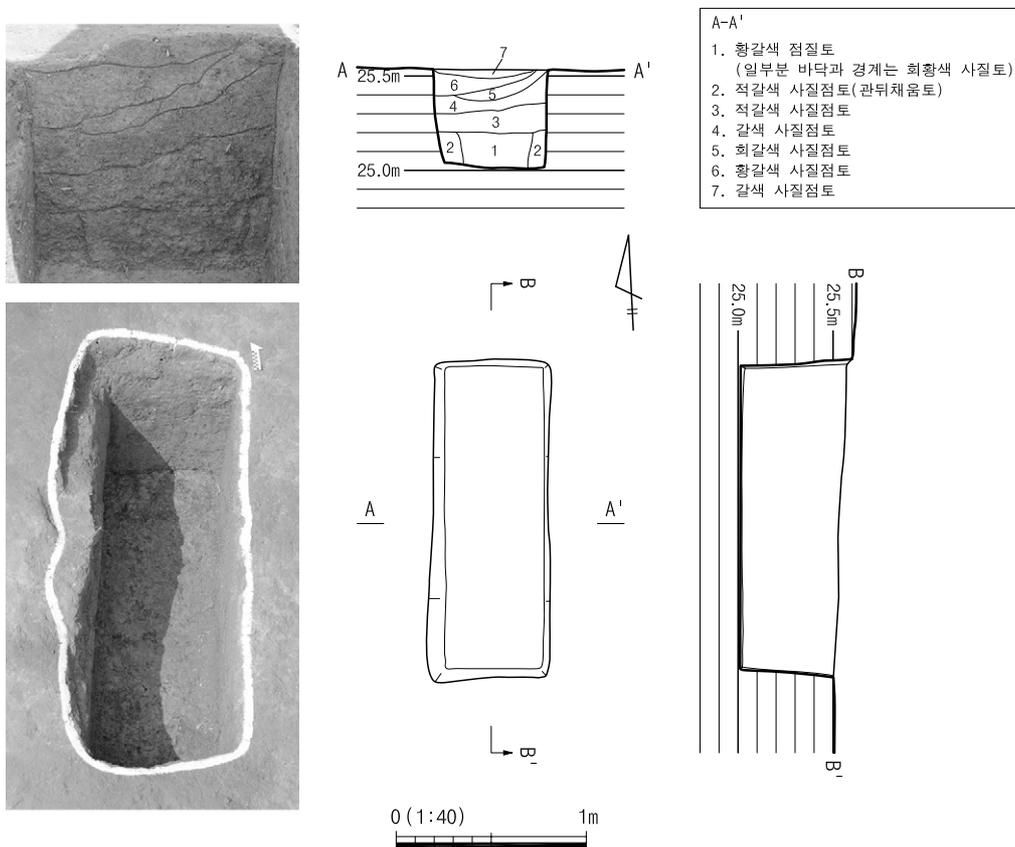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6cm, 너비 71cm, 깊이 11cm이다. 장축방향은 N-27°-E로 경사방향과 나란하였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명황색과 명적황색이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115) 115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6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인접하여 114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 모양이 확인되었다.



【사진 137】 조선시대 115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7】 조선시대 115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5號墓는 一段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69cm, 너비 71cm, 깊이 5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3°-E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너비는 대략 35cm 내외로 판단되었다. 관 측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관 위에는 황갈색, 적갈색, 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116) 11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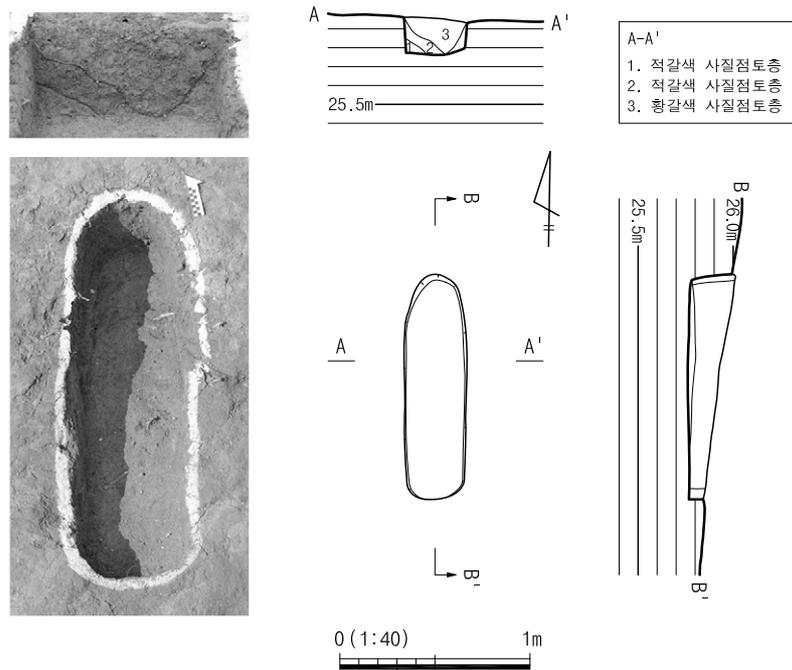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상부인 해발고도 26.0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쪽으로 약 3.4m 떨어져서 61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시설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으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6號墓는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타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119cm, 너비 33cm, 깊이 22cm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W로 거의 정북방향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38】 조선시대 116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8】 조선시대 116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7) 117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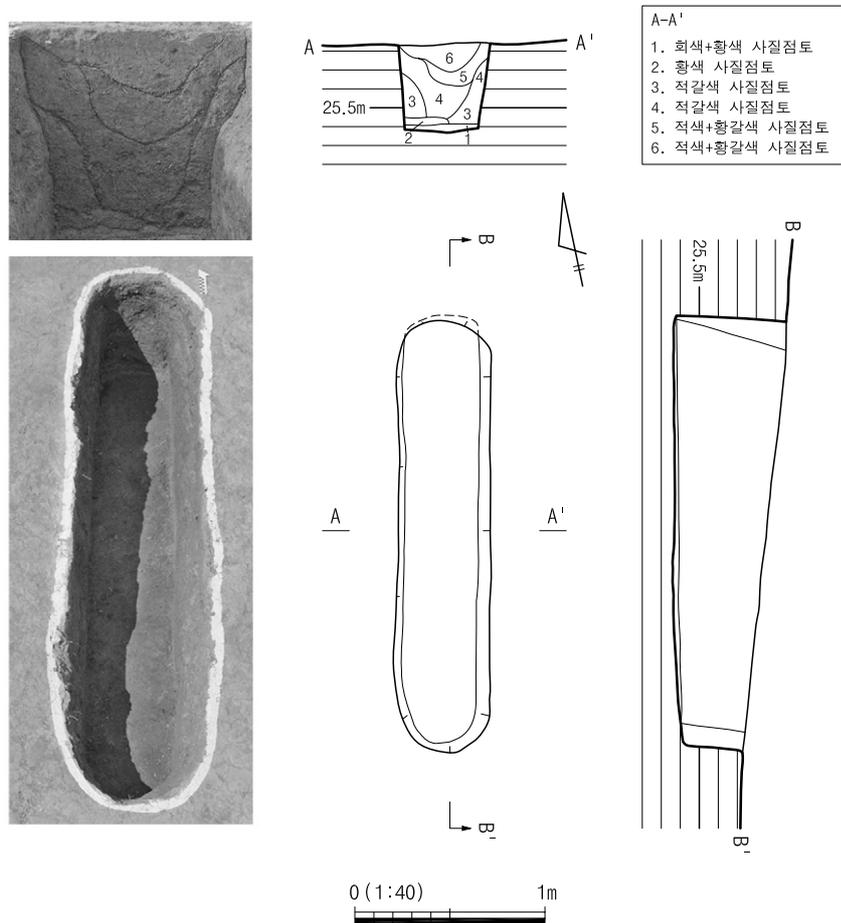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9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약 5.0m 떨어져서 118號墓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긴 타원형의 형태로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7號墓는 一段 壙式 土壙墓로 상부구조가 일부 유실된 상태였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긴 말 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8cm, 너비 48cm, 깊이 58cm로 상당히 세장되었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12°-E이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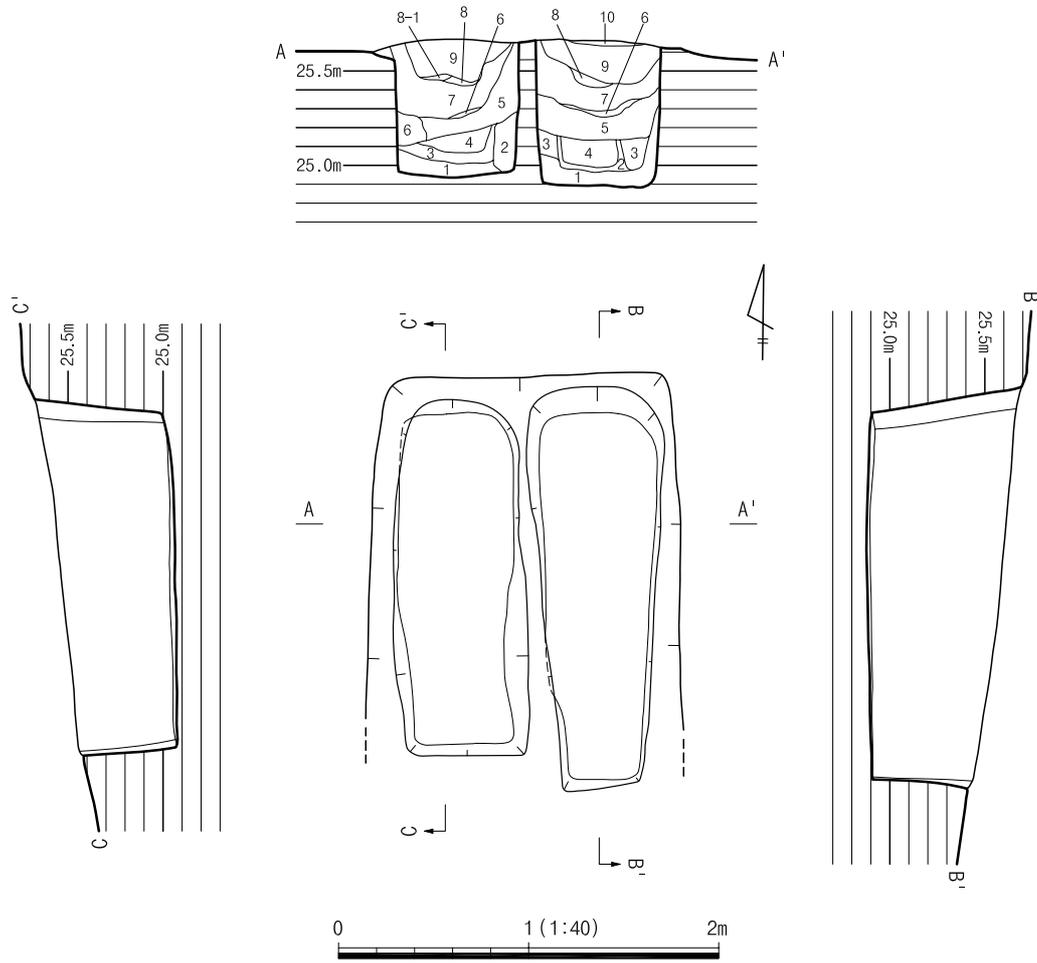
【사진 139】 조선시대 117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도면 139】 조선시대 117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118) 118號墓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5.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5.0m 거리에 117號墓가, 북동쪽으로 약 5.4m 떨어져서 105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A-A'(1)			
1. 회색+황갈색 점질토	4. 황색 사질점토	7. 적갈색 사질점토	8-1. 명적갈색 사질점토
2. 회색+흑색(목재부식)사질점토	5. 황갈색 사질점토	8. 적갈색+회색 사질점토	9. 황색 점질토
3. 회색+황갈색 사질점토	6. 황갈색 사질점토		
A-A'(2)			
1. 회색 사질점토	4. 적갈색 사질점토	7. 적갈색 사질점토	9. 황색+적색 사질토
2. 회색 점질토층(목관부식)	5. 적갈색 사질점토	8. 적황색 사질점토	10. 명황색 사질점토
3. 회색+황색 사질점토	6. 적갈색+회색 사질점토		



【도면 140】 조선시대 118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 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8號墓는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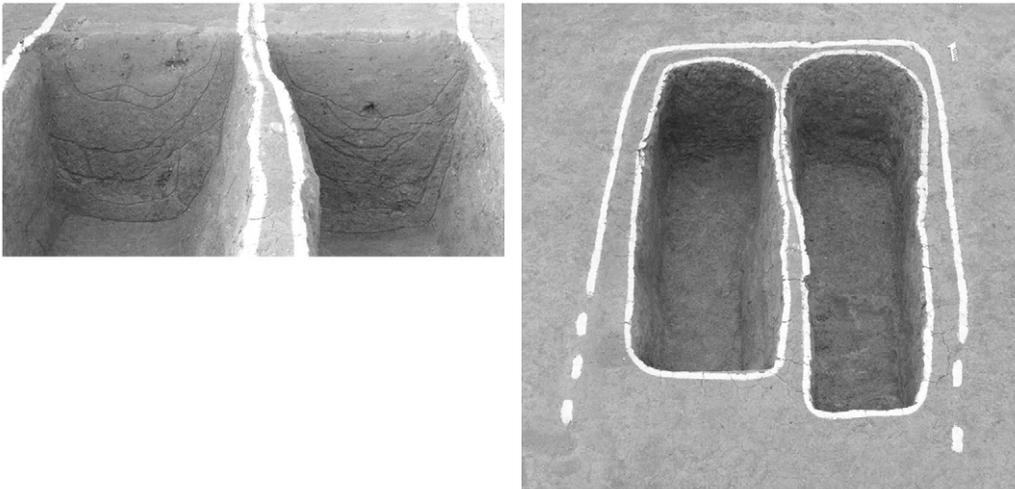
묘로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一段壙式 土壙墓이다.

墓壙은 모두 황갈색 고토양층을 거의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외부는 잔존규모가 길이 220cm, 너비 162cm 정도로 두 묘지를 감싸는 형태로 굴광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모두 경사방향과 나란한 N-1°-W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서쪽 墓의 경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9cm, 너비 66cm, 깊이 73cm이다. 내부 토층에서는 木棺 흔적이 잘 남아있었다. 먼저 바닥에 회황색 점질토를 깔아 정지한 후 서쪽으로 치우쳐 대략 너비 40cm 내외의 관을 안치하였으며, 측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그 위에는 적갈색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동쪽 墓는 전체적으로 서쪽묘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다 깊게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13cm, 너비 45~70cm로 頭廣足狹의 평면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깊이는 77cm가 잔존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木棺 흔적이 잘 남아있었는데, 먼저 회색 사질점토를 4cm 두께로 깔고 너비 40cm 내외의 목관을 안치하였다. 관 측면에는 회황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그 위에는 적갈색과 명황색 사질점토를 덮었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40】 조선시대 118호묘 토층 및 조사 後 전경

## (119) 11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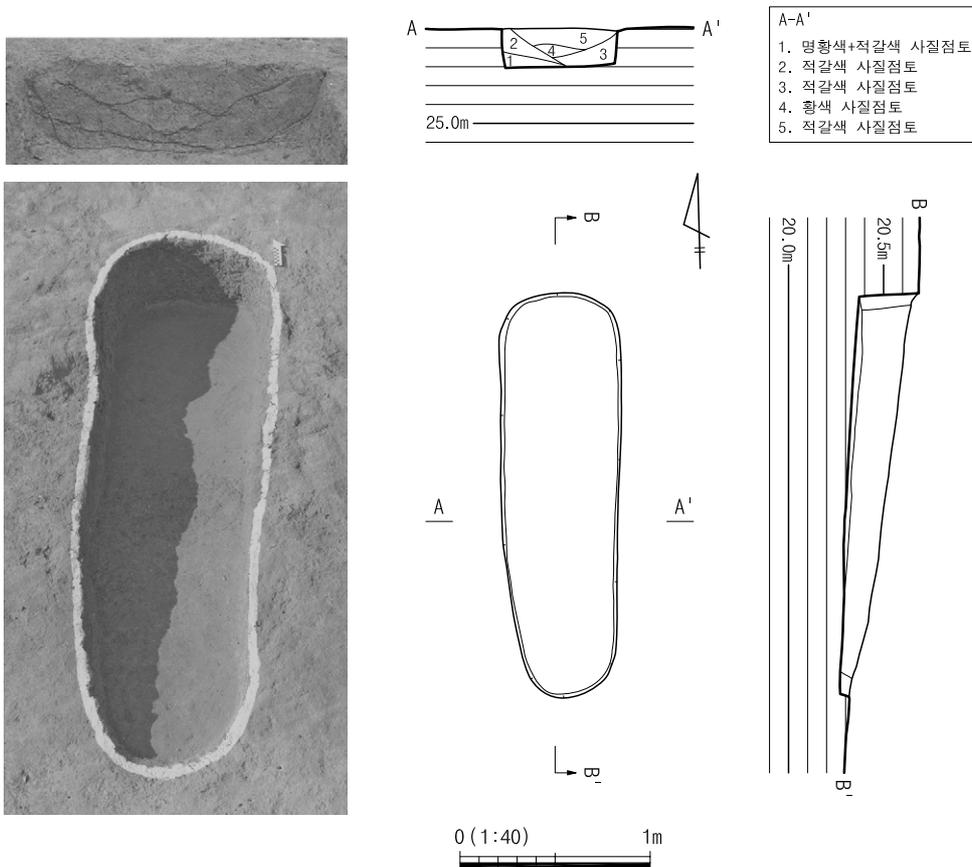
### ① 遺構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의 중간부분인 해발고도 20.7m 높이에 조성되었으며, 북서쪽으로 약 6.1m 거리에 105號墓가, 서쪽으로 약 8.0m 떨어져서 118號墓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표토를 제거하자 긴 장방형 묘광이 확인되었다.

調査는 墓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도록 중앙에 ‘一’자 형태의 탐색Pit를 설치하여 잔존 상태와 내부 토층양상을 확인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調査結果 119號墓는 상부 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一段壙式 土壙墓로 추정되었다.

墓壙은 황갈색 고토양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頭廣足狹의 평면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규모는 길이 214cm, 너비 50~64cm, 깊이 32cm이다. 長軸方向은 경사방향과 나란한 N-2°-W로 정북방향에 가깝다. 바닥은 남쪽으로 경사지도록 정지하였다.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 흔적은 없었으며, 적갈색과 황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사진 141】 조선시대 119호묘 토층 및 조사後 전경 / 【도면 141】 조선시대 119호묘 토층 및 평·입단면도

## V. 調査成果

### 1. 三國時代 製鐵遺構

製鐵遺構는 조사지역의 남쪽사면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0.0m 높이에서 제철로 1기, 배재부 1기, 이와 관련된 폐기장 2기, 송풍관 폐기장 1기, 후대 제철유구의 배재부로 판단되는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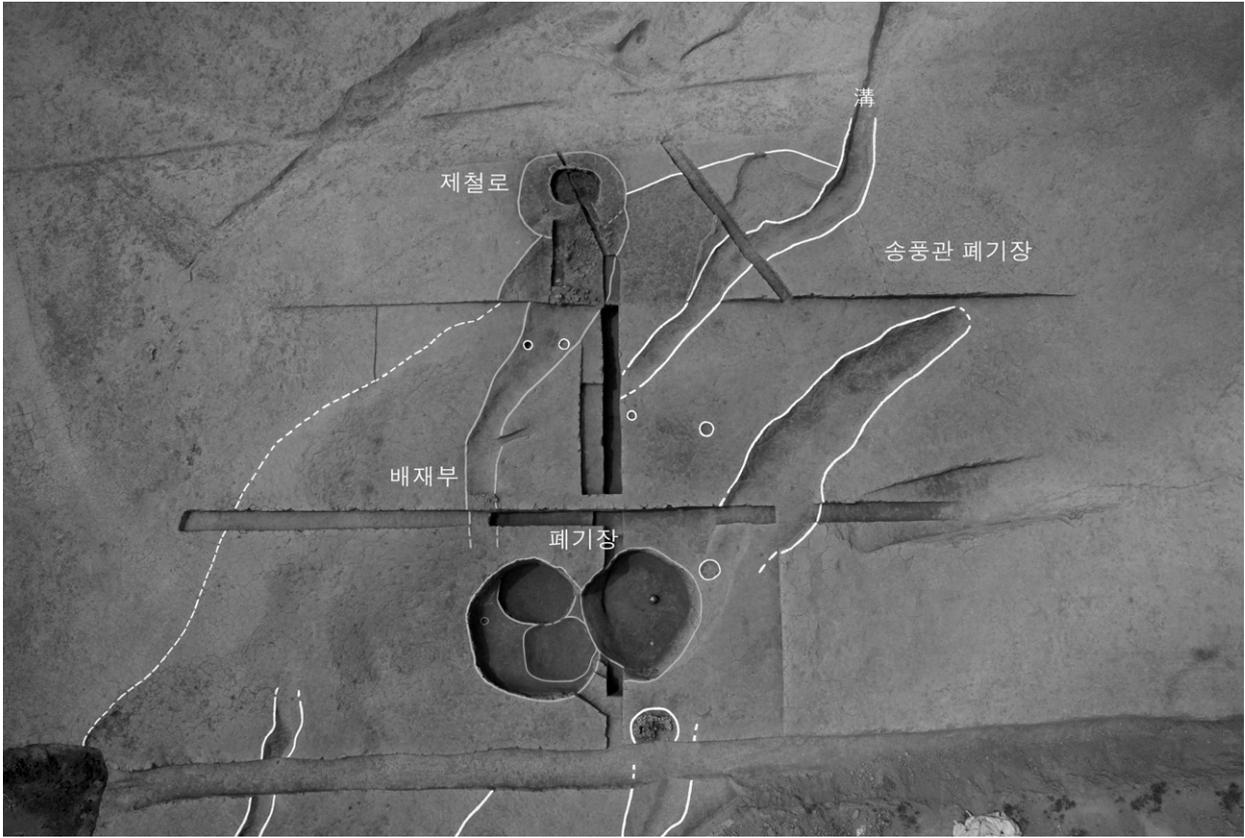
製鐵爐는 반지하식 爐로 규모는 길이 100cm, 너비 127cm이며,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에 가깝다. 노의 최하부 바닥에는 방습효과를 위하여 두께 2~4cm 정도로 탄화목을 깔아 carbon-bed를 조성하였다. 노벽은 약 10cm 정도의 두께로 소결면이 확인되는데, 부분적으로 소결된 부분의 범위가 다르며, 대체로 경사면 상부쪽에 한정되어 경질화된 상태였다. 爐壁은 약 15cm 정도의 높이로 잔존하는데,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아 노벽은 그리 높게 조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벽에서 철을 획득하기 위해 노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괴와 슬래그들이 배재부와 연결되어 확인되고, 노의 바닥면 아래로 노의 폐기 당시 흘러들어온 층이 동일한 양상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작업공정상 한번 사용한 노에서 축조와 폐기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노의 재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재사용 횟수는 알 수 없었다.

제철로는 크게 철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노를 의미하며, 철의 생산종류와 그에 따른 작업 공정에 따라 제련로, 용해로, 단야로 등으로 분류된다. 본 조사에서 확인되는 제철로는 노의 하부구조만이 잔존하는 상태로 노의 구조와 형태를 통해 정확한 용도를 추정할 수 없었다. 다만 배재부와 폐기장 등지에서 확인되는 철괴들의 상태가 대부분 불순물이 많이 섞인 해면(스폰지) 상태를 이루고 있고 철광석 원석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제련로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철로에서 지형이 낮은 쪽으로 노의 한쪽 벽을 개방하여 排滓部를 설치하였다. 배재부는 제철로에서 폐기장까지 연결되는 구의 형태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며, 내부에서는 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부수는 과정에서 흘러들어온 슬래그와 철괴, 노벽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폐기장은 배재부의 경사면 아래쪽에서 2기가 조성되었다. 대체로 층위상에서 2호 폐기장을 나중에 조성한 양상으로 순차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1호 폐기장의 경우 내부에는 별도의 수혈이 조성되어 있어 노의 재사용과 폐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A】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의 제철관련 유구

이외에 제철로 우측으로 송풍관편들이 집중적으로 퇴적된 송풍관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층위확인 결과 제철로 보다 늦은 시점에서 조성된 것으로 일회성으로 반복되어 사용하는 제철로의 작업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사면 하부에서 확인된 폐기장과는 별도로 송풍관만을 폐기하였으며, 제철로와 관련하여 가장 늦게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철로와 관련된 시설 외에 추정 배재부로 판단되는 구상유구와 폐기장의 경사면 아래쪽에 일부만이 잔존하는 폐기된 노가 확인되고 있어 이 일대에 지속적으로 제철과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리드 조사를 통한 토층조사에서 1호 제철로와 관련된 시설의 폐기 후 배재부로 추정되는 구상유구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어 두 유구의 선후관계는 파악되었으나, 추정 廢棄爐의 경우 유구의 유실 정도가 심하고 주변 일대의 토층에서도 후대 교란에 의해 토층상에서 명확한 선후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폐기노의 경우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고 제철로와 관련된 2호 폐기장과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어 대략적인 선후관계는 폐기노가 먼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철 작업과 관련된 순서는 폐기노→제철로→구상유구의 순으로 크게 3차에 걸쳐 조영되었으며, 경사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이 일대에 오

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철관련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철로의 조영시기와 관련하여 제철로와 이와 관련된 배재부 폐기장 내에서는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노벽편과 슬래그, 철 덩어리만 확인되었으며, 제철로 퇴적층 상부에서 철축 병부가 1점 수습되었을 뿐 정확한 조영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다만 가장 나중에 조영된 구상유구인 추정 배재부에서 자배기와 직구단경호 구연편, 절두형 파수 등 소량의 유물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이들 유물은 구의 내부 퇴적층에서 수습된 유물로 주변에 이 시기와 관련된 유구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유적에서 조사된 제철유적의 최종 폐기시점은 이들 유물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습된 유물이 소량이고 대부분 극히 일부 편들만이 수습되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세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철로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삼국시대 제철로는 반지하식으로 원형과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바닥은 점토와 모래로 구축하고 오목하게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벽은 초본류를 섞은 사질점토로 축조하며 보다 늦은 시기에는 노벽을 높이기 위해 석재를 이용 2~3단정도 축조하거나 바닥에 불다짐을 한 경우도 확인된다<sup>47)</sup>. 금번에 조사된 제철로도 바닥에 탄화목을 이용하여 carbon-bed를 조성한 점 외에는 삼국시대 제철로의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대략 4세기에 조영된 석장리 A-2호<sup>48)</sup>(1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는데 carbon-bed의 조영과 배재부를 노와 연결하여 축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석장리 A-2호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에 조영되었으며, 노벽에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6세기에 조영된 밀양 사촌 1호<sup>49)</sup>(2기) 보다는 빠른 시기로 판단된다<sup>50)</sup>.

본 유적에서 조사된 제철유적의 특징은 주변에 이와 관련되거나 동일시기의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취락 내에 제철과 관련된 공방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집중적으로 제철 공방지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며<sup>51)</sup>, 인근의 아산 갈매리 유적<sup>52)</sup>에서도 제철관련 확인된바 있다. 따라서 본 유적의 남쪽지역 일대에 취락유적이 존재하고 있거나, 전문적으로 철을 생산하는 집단

47) 金京鎬·李雲炯, 2009, 「충주 노계야철지유적에 대한 검토(제련로를 중심으로)」, 『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한국철문화연구회.

48) 국립청주박물관, 2004, 『진천 석장리 철생산유적』, 학술보고서 제9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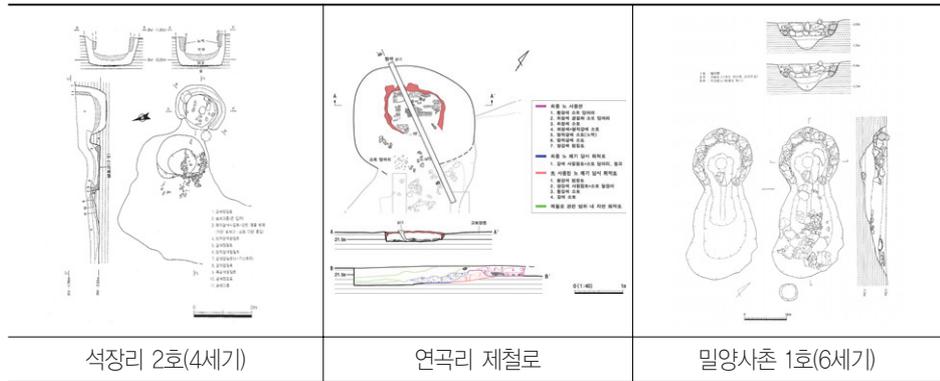
49) 국립김해박물관, 2001, 『밀양사촌제철유적』, 학술보고서 제1책.

50) 김경호은 주1)의 앞글에서 각 시대별로 제련로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삼국시대 제련로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51) 이남규, 2010,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기의 제철문화」, 『제6회 한국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철문화연구회.

52)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아산 갈매리(III) 유적』.

의 공방지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지역 내에서 탄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천안과 아산 지역 일대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수의 탄요가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주변지역에서 연료를 조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탄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본 유적 외에 천안과 아산지역일대에 다양한 시기의 많은 제철유적이 조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삽도 A】 삼국시대 제철로<sup>53)</sup>

## 2. 朝鮮時代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生活遺構인 住居址 7기, 建物址 5기와 墳墓遺構인 토광묘와 회곽묘 총 119기,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는 溝狀遺構 7기가 확인되었으며, 공간구획적인 분포상에 있어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 유구간의 시기적인 차이에 의한 조성순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1) 生活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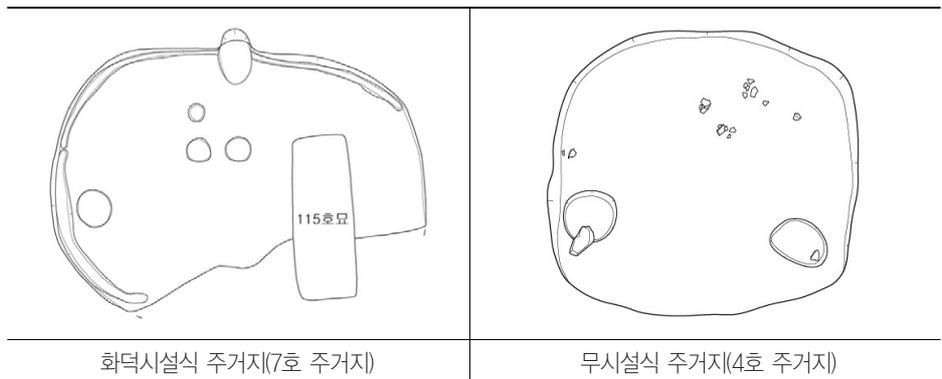
住居址는 모두 수혈을 파고 내부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혈유구의 형태로 조사지역 구릉 상부와 남향사면 일대에 분포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말각방형이며, 내부시설로 화덕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거지(1·3·7호)와 화덕시설이 없는 주거지(2·4·5·6호)로 구분된다. 화덕시설은 경사면 위쪽 벽 중앙을 반원형으로 길게 돌출시켜 배연구를 조성하였으며, 화덕은 바닥을 살짝 굴광하여 개자지를 마련하거나(3·7호)<sup>54)</sup> 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한 후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경우(1호)가 확인되었다. 7

53) 주1)의 글 표6의 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54) 석재를 이용하여 붓돌과 이맛돌 등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호 주거지의 경우 화덕을 중심으로 벽가를 따라 벽구를 시설하였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일부 주공이 확인되나 정연성은 관찰되지 않으며, 4호 주거지의 경우 규모로 보아 저장공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住居址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일정정도 차이점이 관찰된다. 먼저 분포상에 있어 화덕시설을 갖춘 주거지는 정상부와 남향사면 상부, 중간부분에 각각 독립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반면, 무시설식 주거지는 남향사면 상부에 위치한 2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4·5·6호 주거지가 남사면 중간부분에 밀집되어 입지하고 있다<sup>55)</sup>. 규모면에 있어서도 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화덕시설을 갖춘 주거지가 보다 큰 규모이다. 내부에서는 모두 소량의 분청사기와 백자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고 있어 두 주거지간에 뚜렷한 조성시기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2호 주거지는 42호묘, 3호 주거지는 37·38호묘, 7호주거지는 115호묘에 의해 각각 파괴된 상태로 분묘유적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덕시설 주거지는 화덕자리에 배연구 주변의 소결상태가 낮고, 무시설식 주거지의 경우에도 남방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주거지들은 단기간에 걸쳐 사용되거나 임시 주거지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삽도 B】 주거지 형태별 특징

建物址는 조사지역 중앙의 구릉 상부와 동쪽지역 경사면 하단부, 남쪽사면 일대에 분포하였으며, 유실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대부분 기반토인 고토양층을 'L' 자형으로 굴광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기둥을 세운 굴립주 형태의 건물로 초석이나 적심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축조 당시 지층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되며, 규모에 있어서도 정면 2~3칸 측면 1칸으로 소규모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지

55) 잔존상태를 통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어 주거지로 분류하였으나 5호 건물지가 위치한 곳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내부에 불과 관련된 시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저장구덩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 다량이 기와들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의 지붕구조는 초가 형태의 구조로 추정된다. 내부에서 특별한 난방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창고와 같은 성격의 건물지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지가 유실이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창고형태의 건물로 단언할 수만은 없다. 외부시설로는 경사면 위쪽에 배수로로 구성되어 경사면 상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유수에 대비하였다.

건물지 주변과 배수로, 건물 대지면에서는 소량의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철제 보습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건물지의 구조를 감안할 경우 이들 유물을 건물지의 조성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5호 건물지의 경우 6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된 상태로 조영순서에 있어 주거지보다는 먼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물지와 주거지에는 귀얄기법의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 수습되는 유물들로 보아 축조시기는 대략 15~16세기로 판단되며<sup>56)</sup>, 유물상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기적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북서쪽 끝부분과 남쪽 경사면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각 개별 구상유구의 평면형태는 ‘┌’ 자 또는 ‘┐’ 자 형태로 정확한 용도와 형태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유구의 배치에 있어 뚜렷한 정연성은 찾기 어려웠으나 남쪽 사면에 조성된 구상유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구릉 남향사면 일대를 ‘┌’ 자 형태로 감싸는 구조로 확인되고 있어 후대 과수원 등과 같은 대규모 경작지와 관련된 유구로 판단된다. 유물은 일부 구상유구 내에서 분청사기와 백자편,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2) 墳墓遺構

조선시대 무덤은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에 따라 석축묘, 순수토광묘, 목관묘, 목곽묘, 회곽묘, 옹관묘, 화장묘 등으로 구분되는데<sup>57)</sup>, 본 유적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 유구는 목관을 사용한 목관묘와 별다른 시설 없이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순수토광묘, 묘광안에 회곽을 조성한 회곽묘로 크게 구분되며, 묘광의 조성방식에 따라 일단광식과 이단광식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분묘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조성된 단장묘이며, 독립된 묘광을 인접하여 조성하고 하나의 봉분으로 덮은 합장묘(74·118호)의 형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분묘를 정리하면 (표 A)와 같다.

墳墓遺構의 분포는 크게 조사지역 중앙의 구릉 상부와 남향사면 일대에 형성된 2개

56) 姜敬淑, 2001, 『韓國陶磁史』, 一志社.

尹龍二, 1993,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57) 朴亨順, 2005, 「조선시대 무덤양식」, 『錦江考古』 제2호, (財)忠淸文化財研究院.

의 묘역에 집중되어 조성되었으며, 이외의 분묘들은 경사면 일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분묘들은 각 형태에 따라 입지상의 차이가 없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며, 40·42호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되지 않고 대략 0.5~3.0m 정도이거나 멀게는 8.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묘간의 거리는 후술하겠지만 묘의 조성순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정한 묘역내에 형태와 상관없이 집중적으로 묘를 조영하고 있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묘역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묘의 長軸方向은 두향을 결정하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묘들은 남-북방향의 장축을 띠고 있으며, 두향을 북쪽에 두고 있는데, 일부 두향을 남쪽으로 두거나 동-서 방향의 장축을 띠고 두향을 동쪽으로 향하는 예도 확인되고 있어 방위적 관념에 따른 장축방향의 결정보다는 자연적인 지형에 따라 경사방향으로 장축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신의 두향은 경사면의 상부쪽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분묘는 총 119기가 확인되었다. 회곽묘는 모두 3기로 남서사면 중상부에 분포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9~226cm, 너비 83~86cm이고, 내부에는 길이 196~203cm, 너비 50~60cm의 회곽을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목관 잔재가 잔존하고 있는데, 21호묘의 경우에는 내부 토층에서 뚜렷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의 강도도 낮은 상태였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토광묘는 앞서 언급하였듯 목관의 안치 여부에 따라 木棺墓(I)와 순수토광묘(直葬墓)(II)로 구분되며, 묘광의 조성 형태에 따라 一段擴式(a)과 二段擴式(b)으로 세분되며, 유실이 심해 정확한 형식을 알 수 없는 토광묘도 다수 조사되었다.

우선 목관을 안치한 토광묘로 일단광식으로 묘를 조성한 토광묘(I a형)는 49기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었으며, 이단광식(I b형)은 5기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61호묘는 동쪽으로 87호묘는 내광을 서쪽으로 치우쳐 조성하거나, 36호와 105호의 경우에는 묘광과 내광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확연한 이단광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다. I a형식의 경우 목관의 안치는 대부분 묘광의 주축방향에 맞추어 중앙에 안치하였으며, 47호묘는 주축에서 동쪽(우측)으로 치우쳐 목관을 안치하였다. 또한 I b형식인 36호묘는 내광을 묘광의 주축방향에서 약간 틀어 정북방향으로 조성한 경우도 있어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37cm의 소형에서 길이 314cm, 너비 80cm의 큰 규모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 대체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0cm내외이며, 이단광식이 보다 큰 규모를 보인다. II형식에 비해 잔존깊이가 낮은 편이다. 목관은 관못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나무못을 사용하거나 결구방식으로 목관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관의 규모는 다양한 편으로 대부분 길이 160~175cm 내외 너비 40~45cm내외로 확인된다. 또한 I a형식인 10호묘와 13호묘는 바

닥은 다집한 흔적이 확인된다.

직장묘에 일단광식(IIa형)은 21기, 이단광식(IIb형)은 12기가 확인되고 있어 직장묘의 경우에는 일단광식의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I형식의 토광묘에 비해 보다 세장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규모는 I형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확인되며, 이단광식이 보다 큰 편이다. IIa형식인 1호묘의 경우 바닥에 회갈색 점질토를 깔았으며, 8호묘에서는 봉분 성토시 회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회곽묘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IIb형식인 42호묘는 너비 82cm인 묘광의 범위에 비해 너비 40cm정도로 좁게 두광축협(두광축협)의 형태로 내광을 조성하여 묘광 상부가 넓은 편이고 내부로 함몰되는 양상으로 토층이 확인되고 있어 내광 상부에 목개를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53호묘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확인된다.

합장묘인 74호묘는 IIb형으로 큰 장방형 묘광에 이단광식의 형태로 2개의 내광을 조성하였으며, 상부에는 42호와 53호묘와 같이 2개의 내광을 함께 덮은 목개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118호묘는 크기가 다른 Ia형의 묘를 나란히 배치하고 함께 하나의 봉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각 형식별 선후관계는 2호묘와 3호묘, 40호묘와 42호묘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복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전자의 경우 3호분이 2호묘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한 상태로 두 무덤 모두 IIb형으로 형식간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42호묘가 40호묘를 파괴하고 조성한 상태로 40호묘는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대략 IIa형으로 판단되며, 42호묘는 IIb형식으로 축조하고 있어 일단광식에 비해 이단광식이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후관계는 무덤간 거리와 유실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1m 내외로 인접한 두 형식간의 무덤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단광식의 잔존깊이가 낮고 이단광식의 높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광식의 형태가 선행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복되지 않았지만 1m로 지근거리에 위치한 26호묘(회곽묘)와 27호묘(Ia)를 살펴보면 27호묘가 26호묘의 아래쪽에 조성되었고 장축방향도 서로 달라 동시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며, 27호묘의 잔존깊이가 보다 낮게 남아있어 26호묘의 조성에 따라 27호묘의 상부구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회곽묘가 Ia형식에 비해 후대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기하였듯 Ib형식 무덤들은 내·외광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로 일단광식에서 이단광식으로 이행되는 단계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식별 무덤간의 선후관계는 Ia·IIa→Ib→IIb→회곽묘순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모두 Ia형식의 토광묘와 유실이 심해 정확한 형식을 알 수 없는 토광묘에서만 반상용기인 청동술가락과 백자대접·접시, 그리고 청동곰방대(47호묘)와 구슬 등이 부장되었으나, 수량은 적은 편이다. 특징적인 부장유물의 조합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 다만 유물이 부장되는 경우 청동순가락을 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두 별도의 부장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관내 또는 관외에 부장하는 양상으로 지역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물의 부장위치는 장신구인 구슬과 청동곰방대, 청동족집게 등은 관내에 중앙에 부장되는 양상이며, 반상용기인 백자와 청동순가락은 관외에 부장되는 양상으로 부장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두부쪽에 부장하는 경우는 시신을 기준으로 좌측에 부장한 토광묘는 27·30·32·94·109호묘로 이중 109호묘는 백자 접시와 청동순가락이 공반된 상태로 관위에 부장하였으며, 나머지 묘들은 청동순가락만이 부장되었다. 두부 우측에 부장된 경우는 24·47·51·63호묘로 청동순가락이 부장되었다. 65호묘는 두부쪽 좌측에 백자대접과 청동순가락을 우측에는 백자대접을 나누어 부장하였다. 또한 두부쪽 단벽에 접하여 부장한 경우는 모두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로 목관 위에 부장한 양상으로 58호묘와 113호묘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단벽에 접해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백자대접, 청동순가락을 부장하였다.

이외에 목관의 좌우측 빈공간에 부장하는 경우로 72호묘는 중앙 좌측에 백자대접과 접시, 청동순가락을 101호묘는 우측에 백자접시와 청동순가락을 부장한 양상도 확인된다. 모두 바닥에서 일정정도 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관위 또는 관 밖에 흙을 채우는 과정에서 부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유물의 부장위치는 다양한 편으로 일정한 규칙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장유물을 통해 Ia형식 토광묘의 축조시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출토된 청동순가락의 경우 병단부를 약시형(24호묘)과 연미형(113호묘)로 장식한 예가 각각 1점씩 확인되고 대부분 호형으로 장식하였다. 대체로 호형 순가락은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폭 넓은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sup>58)</sup> 토광묘의 축조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공반된 백자 대접 및 접시의 경우 대부분 굽 바닥을 한번에 돌려 파서 성형한 오목굽의 형태이며, 기벽의 형태로 보아 대략 17세기로 판단된다<sup>59)</sup>. 따라서 형식별 조성순서와 관련하여 금번 조사지역 일대는 가장 이른 먼저 조영된 Ia형식 토광묘들이 17세기 이후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였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오랜 기간 묘역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8) 이난영, 2000,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부.

59) 姜敬淑, 2001, 『韓國陶瓷史』, 一志社.

【표 A】 朝鮮時代 墳墓遺構 現況表

호수	형식	규모(cm)			장축방향	장축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일단광식	281	50	52	N-10°-W		
2	이단광식	199	73	51	E-24°-S		
		182	49	31			
3	이단광식	(187)	68	51	E-24°-S		
		172	40	34			
4	일단광식	189	55	22	N-0°		
5	일단광식	223	80	15	N-8°-W		
6	일단광식	198	60	21	N-29°-W		
7	일단광식	194	70	14	N-25°-W		
8	일단광식	209	45	20	N-44°-E인골		
9	일단광식	203	60	18	N-13°-W		
10	일단광식	169	57	17	N-22°-W		
11	일단광식	216	66	26	N-10°-W		
12	일단광식	189	53	12	N-10°-E		
13	일단광식	130	37	29	N-28°-W소형		
14	일단광식	215	72	17	N-0°		
15	일단광식	187	45	30	N-35°-W		
16	일단광식	186	54	42	N-48°-E	목관잔존	
17	·	147	60	17	S-38°-E		
18	일단광식	112	38	17	N-18°-W		소형
19	회곽묘	224	83	47	N-38°-E	목관잔존	
20	·	133	32	8	E-23°-N		소형
21	회곽묘	226	86	73	N-55°-E		
22	일단광식	218	73	60	N-60°-E		
23	일단광식	149	50	24	E-4°-S		
24	·	(112)	37	11	E-5°-N	청동순가락	
25	일단광식	125	54	30	N-44°-E		
26	회곽묘	219	84	89	N-53°-E	목관잔존, 인골	
27	일단광식	207	65	20	E-9°-N	청동순가락	
28	일단광식	207	55	25	N-47°-E	목관잔존	
29	일단광식	211	41	51	E-30°-N		
30	일단광식	216	62	71	E-25°-N	청동순가락	
31	일단광식	227	64	48	N-55°-E		
32	일단광식	230	67	42	N-34°-E	청동순가락	
33	일단광식	186	51	62	N-12°-E		
34	일단광식	175	68	40	N-55°-E		
35	일단광식	167	59	31	E-13°-N		
36	이단광식	221	92	86	N-4°-E		
		173	40	47	N-0°		
37	이단광식	189	85	53	N-6°-E		
		168	35	28			
38	일단광식	203	64	41	N-13°-E	목관잔존	
39	일단광식	201	64	42	N-13°-E	목관잔존	
40	일단광식	(72)	48	30	N-15°-E		
41	·	192	83	12	N-24°-E		

호수	형식	규모(cm)			장축방향	장축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42	이단광식	192	82	47	N-15°-E		
		170	40	24			
43	일단광식	205	55	50	N-0°	목관잔존	
44	일단광식	205	65	44	N-14°-E		
45	일단광식	190	54	42	N-28°-E		
46	이단광식	232	75	85	N-15°-E	구슬 7점	
		200	65	40			
47	일단광식	198	56	41	N-1°-W	청동손가락, 청동공방대, 토기편목곽잔존	
48	일단광식	195	53	40	N-7°-E		
49	이단광식	195	88	65	N-37°-E		
		180	64	60			
50	·	119	36	14	N-17°-W		소형
51	·	(133)	41	14	N-21°-E	청동손가락	
52	·	139	47	11	N-26°-E		
53	이단광식	222	80	100	E-25°-N	인골	
		172	30	30			
54	·	84	46		22N-46°-E		소형
55	일단광식	168	46	47	E-10°-N		
56	일단광식	208	60	54	N-40°-E		
57	일단광식	197	56	48	N-48°-E		
58	·	(133)	56	18	N-40°-E	백자 접시·대접, 청동손가락, 구슬7점	
59	·	(185)	54	9	N-19°-E		
60	일단광식	200	74	33	N-12°-E		
61	이단광식	220	82	98	N-2°-E		
		200	53	50			
62	일단광식	190	39	34	N-15°-W		
63	·	(159)	50	8	N-28°-E	청동손가락	
64	·	(119)	52	20	N-24°-E		
65	일단광식	181	61	32	N-23°-W	백자대접2점, 청동손가락	
66	이단광식	197	48	35	N-11°-W		
67	·	(102)	36	24	W-40°-N		
68	·	188	61	4	N-36°-E		
69	일단광식	151	61	40	E-15°-N		
70	일단광식	137	36	34	E-31°-N		
71	일단광식	115	51	48	E-33°-N		
72	·	(133)	70	28	E-24°-N	백자대접, 접시 2점, 청동손가락	
73	일단광식	175	65	68	N-36°-E		목관잔존
74	이단광식	(161)	114	40	N-49°-E		합장묘
	좌측	148	33	28			
	우측	148	29	28			
75	일단광식	200	60	38	N-28°-E		인골
76	·	193	53	11	N-13°-E		
77	일단광식	203	79	43	N-13°-W		목관잔존
78	·	197	55	5	N-8°-W		
79	·	262	46	8	N-42°-E		
80	일단광식	205	64	50	N-8°-E		목관잔존

호수	형식	규모(cm)			장축방향	장축방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81	이단광식	240	68	48	N-6°-E		
		204	40	30			
82	일단광식	219	69	130	N-28°-W		
83	일단광식	233	87	72	N-11°-W		
84	일단광식	178	60	37	N-3°-W		
85	일단광식	199	55	35	N-1°-E		목관잔존
86	·	111	35	12	N-11°-E		소형
87	이단광식	229	96	42	N-2°-W		목관잔존
		185	43	24			
88	·	140	48	17	N-0°		소형
89	일단광식	204	56	24	N-15°-E		
90	이단광식	193	67	50	N-10°-E		
		170	33	20			
91	일단광식	212	70	60	E-33°-N		
92	·	184	43	22	E-34°-N		
93	이단광식	210	84	50	E-23°-N		
		195	68	20			
94	일단광식	203	51	50	N-36°-E	청동순가락	
95	일단광식	191	65	24	E-25°-N		
96	일단광식	109	45	21	N-46°-E		소형
97	이단광식	216	53	30	N-31°-E		
98	·	203	93	21	N-33°-E		
99	일단광식	215	63	52	N-43°-E		
100	·	(97)	42	6	E-27°-N		
101	일단광식	195	55	25	E-21°-N	백자대접, 청동순가락	
102	일단광식	187	62	32	N-18°-E		
103	·	112	47	22	N-3°-W		
104	일단광식	207	63	38	N-4°-W		
105	이단광식	314	80	72	N-2°-W		목관잔존
		200	63	50			
106	·	94	40	5	N-22°-W		소형
107	일단광식	195	64	30	N-34°-E		
108	·	128	36	18	N-43°-E		
109	일단광식	220	64	80	E-38°-N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110	일단광식	211	58	46	N-47°-E		
111	·	120	40	23	N-41°-E		소형
112	·	142	53	33	E-39°-N		
113	일단광식	190	71	37	N-10°-E	백자대접, 접시, 청동족집게, 청동가락지4점, 구슬25점	
114	·	186	71	11	N-27°-E		합장묘
115	일단광식	169	71	52	N-3°-E		
116	·	119	33	22	N-1°-W		소형
117	일단광식	228	48	58	N-12°-E		
118	일단광식	(220)	162		N-1°-W		합장묘
	서쪽	189	66	73			
	동쪽	213	60	77			
119	일단광식	214	60	32	N-2°-W		

##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초록

報告書名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b>천안 입장 연곡리유적</b>		發刊日	2012年 5月
發刊機關	名稱	(재)가경고고학연구소		
	住所	(331-960)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50		
	TEL	(041) 621-8772	FAX	(041) 621-8773
執筆・編輯者	정태진, 천승현, 김라미, 양기홍 · 장영미			
調査緣由	구제			
發掘調査者	오규진, 장영미, 김호정, 정세휘, 이상운, 장다인			
遺蹟所在地番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75번지의 일원			
調査面積	6,800㎡			
遺構種別	時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제철관련유구	삼국시대	8기	송풍관편, 철괴 등	.
주거지	조선시대	7기	자기편 등	.
건물지	조선시대	5기	자기편 등	.
구상유구	조선시대	7기	자기편 등	.
분묘	조선시대	119기	청동손가락 등	.



(財)嘉耕考古學研究所 文化遺蹟 調查報告 第9輯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2012年 5月 日 印刷

2012年 5月 日 發行

---

編輯\_ (財)嘉耕考古學研究所 • (331-960)忠清南道 天安市 西北區 斗井洞 950 • TEL\_ (041)621-8772 / FAX\_ (041)621-8773  
發行\_ (財)嘉耕考古學研究所 • 印刷\_ 계룡문화사 • TEL\_ (042)628-0199 / FAX\_ (042)826-0603

---

